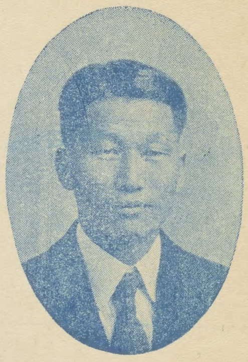
留美學生雜誌

No.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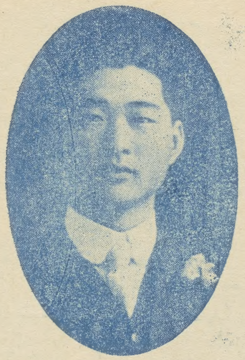
우라키

第五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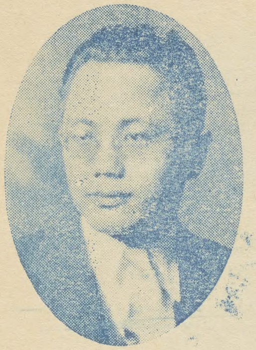
米洲에서最近에난博士들



理學博士 曺應天



哲學博士 崔允鎬



哲學博士 吳天錫

△紹介

曺應天 博士

平壤崇專出身。一九二二年에渡米。트라스테잇大學物理科卒業。퍼듀大學科學士。一九二九年에 인듸아나大學에서 物理學으로 理學博士。

崔允鎬 博士

平壤大成學校修業。一九二〇年에渡米。프랭클린大學卒業。보스톤大學文學士。加洲大學研究。一九三〇年 인듸아나大學에서 教育學으로 哲學博士。

吳天錫 博士

日本青山學院出身。一九二一年渡米。西北大學文學士。一九三一年에콜럼비아大學에서教育學으로哲學博士。

學術·文藝·宗教·雜誌

月刊

新生

定價 一部 十錢
一年 先金 一圓

發行所
京城鍾路二丁目九一
新生社
振替京城三·九八番
電話光一三四九番

執筆家芳名

(無順)

文一平 李允宰 廉尙燮 李泰俊 方仁根 朱요섭 安自山 尹炳燮 崔相鉉

李重華 權悳奎 李光洙 卞榮魯 崔奎東 徐恒錫 鄭寅普 金基演 金仁泳

李瑄根 張志暎 崔鶴松 朴月灘 俞億兼 異河潤 辛永默 安基永 卞榮晩

安在鴻 申明均 崔獨鵬 朱요한 李潤柱 曹喜淳 崔如九 尹聖德 柳瀅基

金瑗根 崔鉉培 朴泰遠 金億 金允經 鄭寅燮 崔奎南 尹致昊 李殷相

新生의主張

人格의修養 道德의樹立 學術의發展 文化의普及 宗教의究明 趣味의淸新 言文의整理

誌界의曉星

昭和六年七月六日印刷
昭和六年七月八日發行

우라키 第五號 定價四十錢

祝 우라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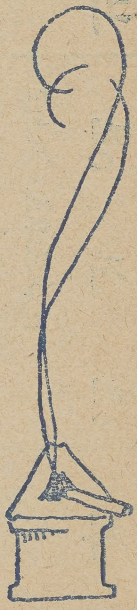
北米 라성

휘티어과채상	장병훈	내뚜랜지스마켓 최능익	홀셀참추이회사 리상긔
제퍼손파채상 석대원	식물상 함병찬	직업소개소 박재형	헌팅톤•씨라비스탄 정지영
다암	한인국민회 라성지방회	한인녀자애국단 라성지부	차붕규



留美學生雜誌 우라키 第五號

—一九三一年—





한 批判과 忠言

gift of Korean Student Federation of N. A.

祝 우 라 키

北米加州桑港市

韓人國民會總會

1035 Oak st.
San Francisco, Cal.
Cable adress:
"Korean" S. F.

朴仁俊

北米加州피드몬드市

北米桑港南監理敎會

牧師 **黃思宣**

1321 Mason st.
San Francisco, Cal.

北米加州桑港第三街一一四五

량주은

양찬관 **량제현**

自宅 19 Clara San Francisco.

金蕙蘭

北米加州라성

北米桑港

東西洋雜貨店 **張秀永**

705 JACKSON ST



文藝

筆·感想·批評

編輯

宗教哲學 廉光燮 任英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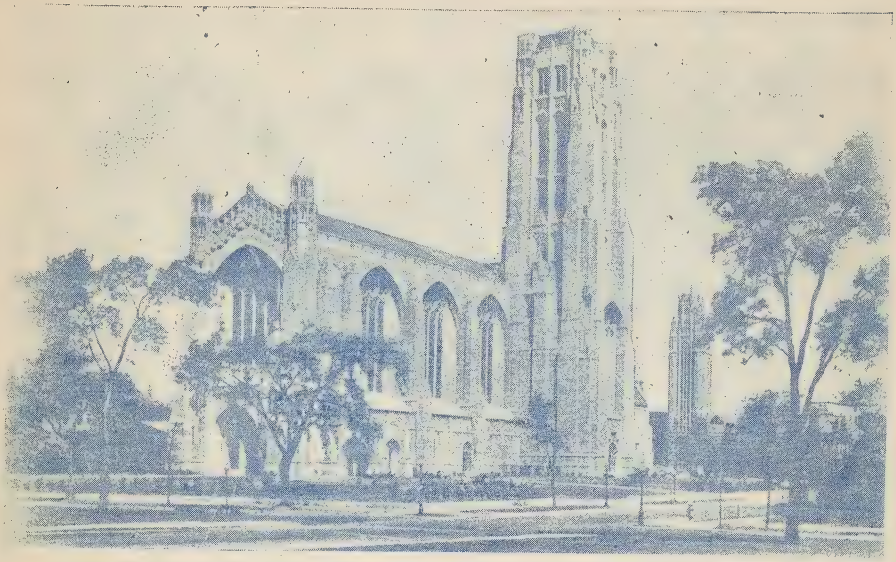
社會 崔敬植 文藝 韓世光

科學 張世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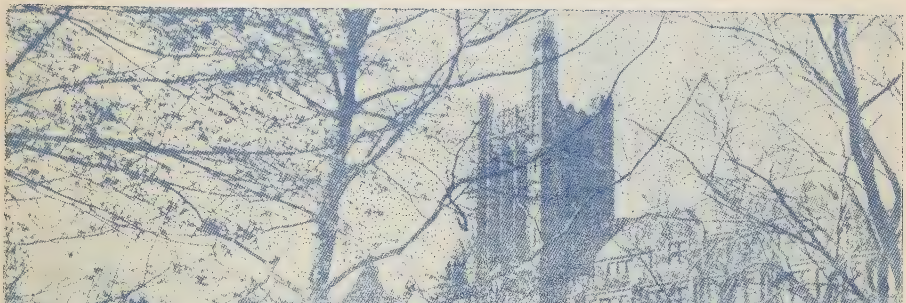
經濟 韓昇寅 主筆 田榮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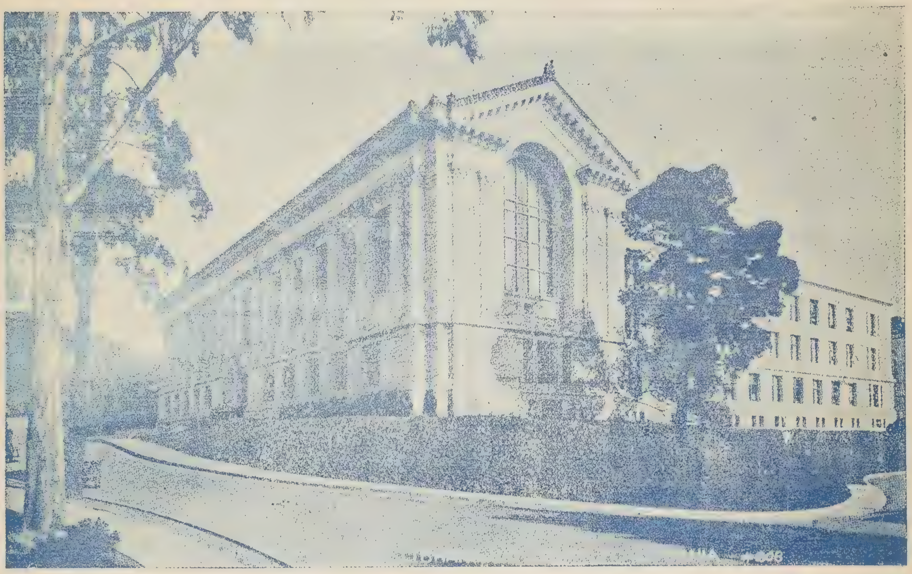
1930



쉬가고大學禮拜堂 (前號記事叅照)



콜럼비아大學師範科 (前號記號叅照)



갈리포니아 大學師範科 (前號記事參照)



學生總會中西部大會野遊會 (一九三〇)



卷 頭 言

留美學生雜誌 우라키 第五號・一九三一年・六月

朝鮮中心 朝鮮本位

우리는 朝鮮으로하야곰 우리의 生活의 中心이되게하자。생각이나 일이나、朝鮮中心으로 살자。괴로우나 즐거우나 朝鮮本位로살자。朝鮮本位로 생각하고 공부하고 일하자。朝鮮本位로 먹고닙고 말하고 行하자。그리하야 朝鮮을 떠나지말자 朝鮮을 힘잇게하기위하야 富하게하기위하야 朝鮮을 살니기위하야 삶朝鮮을 만들기위하야살자。내辱은 朝鮮의辱 내榮光은 朝鮮의榮光、朝鮮의 失敗는내失敗 내成功은 朝鮮의成功。

小我完成 大我完成

한사람 한사람이 사람이 되자。한사람 한사람이 살자。各各 삶사람이되자、삶사람이되여 튼튼이 서자。人格的으로 思想으로 經濟的으로 꿋꿋하고 튼튼한한개 사람이되자。

主義에 徹底하고 職務에 忠實하자 내재미보다 내이름보다 내利益보다 職務에 忠實하자。한사람한사람이 忠實한사람이되자。

完全한사람이되여가지고 大我에 沒入하자。小我를 바처서 犧牲하야 大我를完成하자。그러나 小我를 일어버리지말자。小我를 튼튼이 붓잡아 大我를 完成하자 삶小我가 能히大我를 살닌다。

分立에서 合一에

내가 스사로 서고 내가 나를 붓잡고 나아가는것은 좋다。그러나 나혼자만「따로」서랴고 해서는 안된다。혼자서는 설수없고 살수없다。合해서 한덩어리가되어야한다。現代의 特徵은 團結이다。남들은 合햇다。그런데 우리는 각각 떠려젓다。서로사랑하고 尊敬하야 싸合하자 合해서 하나이되자。하나이되자。

基督敎의 南北監理敎統一과 天道敎 新舊兩派의 合同은 진실노 고마운일이다。

朝鮮學生과朝鮮의將來

제임스•뻬이커 博士

이글은 지난해 유월에 뉴욕에서 열닌 미주에잇는 조선학생대회(동부대회)에서 뻬커감독의 말슴한연설의 요령을 번역한것이다。(편즙인)

一

조선의 금강산을 보지못하고는 누구나 세게의 명승지를 보앗다고 말할수없음니다。나는 작년구월에 몃친구로 더브러 금강산에 가서 한열흘 지내면서 날마다 그영산(靈山)에 올나가서 그졀승한 경치를 질기든것을 한평생 이즐수없음니다。그럼으로 내가 여러분의 고국에서 어든 인상가운데 하나는 여러분의고국의 자연의 미를 통하야 어든마음이외다。

다음에 깨다른바는 조선의경제적요구가 무엇보다 큰것입니다。그리고 거긔따라서 아직 도모지 다치지아니한 큰가능성이 있다는 자신과 지금 실지로 힘써나아가는것으로 가장 긴절한것은 어떻게 그들의 물질생활에 든々한기초를 세울까하는것을 깊이 연구하는것이라하는생각이 있음니다。나는 특별히、조선의농촌의 정형을 조사연구하고 그것을 구제하기 위하야는 협동사업(協同事業)을 힘쓰는것이 가장 급무라고 생각함니다。

내가 믿기는 오늘날 조선사람의 생활은 여러가지로 보아서 앞에보이는 광명을 향하야나아가는것인줄앎니다 교육사업이 차々권보다나아가고 그리고 경제생활의터를 닥그려고 공々한 방법을 연구계획하는것이 다아 조선사람의 사상과 생활이 확실히 진보하는것을 드러내는것임니다。

二

우리는 물론 누구나 조선의학생에대하야 특별한 흥미를가지고 바라는바가 잇는것이올세다。독일의 속담에한나라의 학생이 행하는대로 그나라는 나아간다는 말이 잇거니와 우리는 어떻던지 장차 조선에서 그민족생활을 자우하고 부요하게할 청년학생에대하야 큰희망을부치는것이며 특별이 이나라에 잇는 학생여러분의게 대하야서는 모든사람이 많은 기대를 가지는바입니다。

적 히랍옹변가의 말에 참명담이 하나있음니다。무엇인고하니「한나라에서 청년을 빼논는다한다하면 그것은마치 한해에서 봄을 빼논는것이나 갓다」한것임니다。이말은 생각하면 생각할사록 뜻이 잇게됨니다。만일에한해에서 봄을 빼낸다하면 물론 그후에 추수는 바랄수업는것이오 그와같이 청년을 일허버리는것은 그나라의장내의희망을 일허버리는것이외다。그(히랍옹변가)는전쟁에나아갈 청년을 일허버리는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국가생활에 공헌할 모든것을 일허버리는 비참한일을말한것이지만 우리는 한나라에서 청년을 일허버리는것은 한해에서 봄이없어지는것과 갓다는것을 그보다도 좀정신적이미로 말할수있음니다。

만일에 조선에서 청년들이 그책임을 깨닷지않고 일을 스사로 담당하지않고 그민족생활의 요구를깨다라서 앞날에나서 그것을 지배하고 운전하기를 힘쓰지아니한다하면 조선의교육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며 종교생활혹은 정치생활에는 무슨소망이 있음니까。

三

내가 바라기는、조선의학생들이、커들의 민족의 안녕을위한 실제방면에 공헌하기를 힘쓸뿐아니라、지금으로브터 몇세기젼까지도 찰란하든 조선의 문화생활(예술이나종교)을 다시 회복하기에도 더욱 흥미를가지고나아가주엇스면 하는바이외다。나는 아까 그좋은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가지로 생각을한바가 있음니다。대체 내가 알기까지는 조선에서 그재래의 음악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도록 계획하는일이 잇는것갓지가 않습듸다。여러분은 예술에 있어서나 또는 종교에 있어서나 참아름다온역사(歷史)를 가지셧습니다。

나는 일즉이、일본의 미술가온데 가장 가치잇는 공헌이 조선을통하야 왓고、또일본의 종교가 그렇고 그밖에 일본의 문화생활의 모든기초가 거진 조선으로말미암아 왓다는말을 어뗜 유명한 일본학자에게 들은일이 잇음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조선사람들이 자기네민족생활에 그러한 문화가 잇는것을 맛당이 크게자랑하고 그러한것이 오늘날에있어서도 일반민중의소유가 되도록하기를힘써야할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조선의 교회사업을 지휘하는 관게가 잇는까닭에 무엇보다도 교회와 종교사업에 가장 흥미를 가짐니다。

대개 어뗜 교회나 교회안의 어뗜사업이나 물론하고 그나라 사람가온데 지도자가 없으면 결단코 튼々하게 서나아가고 발전할수없을줄노 나는깊이 믿습니다。그런고로 조선 교회의장내는 조선사람자기네 손에 달녓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나라 민중이、자기 국민생활에(종교나교육이나 혹

정치나) 어느방면에나 책임을 지지아니하면 그것을 앞으로발견식힐 참힘이 없음니다。이제 점々 조선에잇는 선교사는 다만 서로 협이하는 동사자가 될뿐이오 그 책임은 조선사람의 억개우에 질머지게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할것은 이것입니다。조선의청년들이 다만 그들의 국민생활이나 현실생활에 대해서만 경영할것이아니라 그와동시에 조선사람으로하야곰 용기와희망과 미듬을 가지게하는 생활에도 무겁운 책임을 지는것이 절실이필요한것입니다。나는 믿기를 어떠한 생활이나 사업이 만일 그생활그사업이 그시대의 요구와 문제되는것에 관계가없고 방면의 생활을 그수준(水準)을 높이 올니는 동력(動力)이 못되면 꼿꼿내 만족을 주지못할것이라합니다。

四

우리가 이번에 조선으로브터 도라올때에 대단한 풍랑을 만낫습니다。배는 폭풍에 밀녀서 몹시 흔들니엇습니다。그래 나는 하로는 함장을차자서「배가 대단이 어려운 지경을 당한모양이지오」하고 무럿더니 그가대답하기를「네! 바다에 풍랑이 패심한데다가 게다가우리는 짐을 매우 적게 실엇습니다。그래 그것이 배가 이러케 요동하는 한가지 까닭이올세다」햇습니다。그렇게 심한 풍랑을 맛난 뒤에 좀 가다가 어뗜 항구에서 하로밤을 묵엇습니다。그런뒤에는 배가 매우 잘감으로 웬인일가하고 그연유를 무른즉 그대답이「이잔젠득 실엇습니다。」

나는이것이 우리 인생생활에대하야 큰교훈을 주는비유가 아닌가합니다。인생이란배에 만일짐을 잘 실지아니하면 다시말하면 우리가 질집 곧 책임을 지지아니하면 풍랑잇는 생의바다를 잘건너갈수없을뿐아니라 목적한 항구에 무사이 득달할는지 알수없음니다。만일에 우리의배에 짐을 잘실엇스면 풍랑을 만날지라도 힘잇게 고요하게 잘갈것입니다。우리가 우리시대의 집과책임을 가지고 그리고 세게 형제주의와 호상협동(互相協同)정신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면、우리에게 가장 평화스럽게 우리 생의 건느편항구에 득달할만한 보다나은 기회가많이 있을뿐아니라 참 가치잇고 귀한 경눈으로 얻는바 행복을같이누릴 기쁨을 갓이게 할것이올세다。

五

그런고로 우리가온데 누구나 조선을사랑하고 조선에대하야 생각이 잇는사람으로서는 조선사람자체나 외국사람을 물론하고 미국와게신 여려분 학생들에게 당신들의 억개우에잇는 큰책임— 조선을 더욱 부요하게하고 나아가서는 조선으로말매암아 온 인류의생활을 부요하게할 책임을 다하기를 바라고 기대하는바입니다。

——(끗)——

永遠한理想

編輯人

◇ 보다나은 장래를 그리며 그것을 바라고 살아나아가는것은、사람의 가장 높고귀한 본성이오 또한 特權이다。눈에보이는 現實에서 보이지안는 理想을찾으며 한때한때 하로하로의 살님에서도 無窮한장래와 永遠한세상을 바라는것은 오직 사람의게서만 볼수잇는 가장高尙한 感情이오 特有한 바랑이니 진실노 하나님의 귀한선물이다。

대개 사람은 그배를채우며 색을구하려고하는외에「아름다움(美)」을 찾고「참(眞)」을 구하며「옳은것(善)」을 사모한다 사람이 사람답고 고상한마음을 가질사록 먹을것 입을것보다도「아름다움」과「참」과「옳음」을 더욱구한다。그리고 배운데가잇고 마음이맑고 知情意의활동이 민활한사람일사록 남못보는 平凡에서「아름다옴」을보고 남모르는 참을 찾고「옳음」을 구한다。사람이 큰 사람인사람일사록 완전한사람일사록 이것을 힘써찾으며 그것을위하야 살고 그것을 엇고야만족한다。이렇게 사람이 구하고 사모하는것을 우리는「理想」이라고 불으나니 이이상은 사람을 이끌어서 점점 앞으로 나아가게하고 사람의 생활노하야금 값이잇게 아름답게하는것이다。

◇ 조선사람은 옛날로 브터 다른어떤민족보다 못지않게 큰理想을가지고 살아오왔으며 늘 未來의理想的世界를 꿈꾸고 있엇다。마치 옛날의 유대민족이 그러한셈으로 그리하다가 오늘날의 조선사람은「보다나은장내」를 바라며「새시대」를 원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게 되엿다。그것은 현대의 인류가 통틀어 큰苦難과 危機를당하고 잇거니와 우리는 남달니 심한불안을 느끼고 몹쓸괴롬을 당하야 가지가지 아프고쓴맛을 맛보고잇기 때문이다。

◇ 우리는 진실노 큰 受難期、큰 危期에 處하엿다。過去에도 이러한 危期가 있엇고 將來에도 있을는지모르거니와 일즉、맛보지못하고 當해보지못한 危期를맛낫다。生活의 威赫 思想의 混沌 道德의 墮落이 모도그

極에達하엿다。朝鮮사람은 前에맛보지못하고 남이맛보지못한 슬픔과 아픔 견딜수없는 煩悶을 當하고잇다。

이때는 과연 偉大한 文學、不朽의 藝術이 날만한때다。대개 非常한때에 큰藝術이 나며 큰 思想이 생기며 따라서 큰 運動이 니러나는것은 歷史가 보이어주는것이다。우리의게서는 어떠한 文學 어떠한 藝術이나려하며 어떠한 運動이 니러나려는고! 元來 큰 藝術이나 큰 運動은 다ㅣ큰 思想의 産物이니 오늘날 朝鮮사람의게 어떠한 思想 어떠한 理想이 있는가 함이 몬저 생각할問題다。 (七行略)

◇

유대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統治하는世界 하나님나라를 꿈꾸고 잇섯고 印度사람은 涅槃寂滅之境을 바라고、中國人은 堯舜聖代가 다시오기를 기다리고(現代의 中國人은 三民主義의實現을 바라며)現代世界의 無産大衆들은 떡과 고기를 배불니먹고 온갓 사람의 누릴만한 物質物福樂과 權利를 마음것누리는 생각을꿈꾸고그러한세상을 만들자고 소리치고잇는데 우리의 부르짓는바는 무엇인가。

◇

目前에焦急한 問題는 우리의게도 世界의 無産大衆들노 더브러 먹고닙을問題다。배골치않게먹고 헐벗지않고 닙을수잇는세상、그러한시대 이것이 간절이 바라는것이다。한거름나아가면 生活의豊足과 便利와安樂、그것을주는 經濟力과 科學이 發展하고 工業과一般産業이 發達한時代 다시한거름 나아가면 組織과 秩序가 整頓된社會、다시한거름 더나아가게되면 모든 幸福과快樂을 自由로 누릴수잇는 權利와、自己의 地位와 權利를 保全할수잇는 勢力을 가초아가지기 아조最后로는 우에말한 모든條件이다 具備한 時代를 기다릴것이다。

◇

그러나 밥과 옷、生活의 豊足과 安樂같은것은 참말 目前의要求요 그것을爲한일은 一時的經營에 지내지못하는것이오 永遠한要求 永遠한 經營은아니다。經濟産業科學의發達 社會의 組織과秩序 같은것도 사람의生活의外部的狀態로 한때한때에 必要한것이오 權利와 勢力도不合理한 世界不完全한時代에 소용되는 一時的手段에 不過한것이다。배를 채우고저하고 色을구하는것은 決코사람의 사람다운 高尙한 欲望이라고 할수없고 組織이나 秩序、그것을 지향해가는 權利와 勢力 그것은 決斷코 永久한 方法이라고할수없다。우리는 지금비록 一時 밥에주리고 옷이 없다할지라도 그것을얻음으로 아조滿足할수없는 백성이오 組織이 不完全한 權利와힘이 없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最后의 目的과理想이어서는 안된다。組織과 秩序에는 그것이 설혹 아모리 完全에가깝드래도 形式과 拘束을 意味함이오 權利와힘은 아모完全

리 必要할때 必要하드래도 爭鬪와 不自由 不幸이 따르는것이다。

우리는 로서아사람들의 다가치일하고 다가치먹자는政治를 좋지않다하는것이아니오 英國의 整然한 社會的組織과 秩序를 불어워하지안는바아니오。米國의 機械工業과 一般產業發達과 外國의宣敎敎育事業이며 燦然한 그黃金世界를 놀내지안는바아니오。獨逸이나 佛蘭西의科學이나 藝術을欽慕하며 其他 强國人의 權利와勢力을 두려워하지안는바아니다。그러나 우리는 또한 英國의異民族에對한 惡毒한 政策과 殘忍한行動을 미워하며 米國의 傲慢과 放恣、奢侈、輕薄、放縱、淫蕩을 참아볼수없으며 强國백성 그네들의 權利와 勢力을 거주하지아닐수없다。

◇

그러면 우리의 바라고 나아갈 永遠한 理想은 무엇이냐。나를살니고 世界를 救할 큰原理는 무엇이냐。그것은 決코 밥이아니오 돈이 아니오 智識이아니오 權利가아니오 힘이아니다。밥이없는자의게 밥을주고 智識이없는자의게 智識을주고 깁븜과平和가 없는자의게 깁븜과 平和를 줄것이무엇이냐?

그것은 곳 유대사람이(그네들의 預言者들이) 꿈만꾸고 기다리든(그實現에忠實치못함으로 失敗는하엿으나)「正義」그것이오、『正義의 다사리는 世界』다。한거름더한 狀態를말하면 사랑과 正義가 統合한 世界그것은 우리朝鮮사람의 理想이오 世界民衆의 共通한目標일것이다。

내가 주릴때에 남이주릴 생각을하는것이 正이오 强者가 强者를 害할때에 그것을 분이넉이며 弱者를돕는것이 義니 이러한것이 사람의 正義라。오직 밥을구하고 옷을 구함으로써 밥과옷이 不足하지안은세상을 볼수잇고 돈을구하고 權利와 勢力을 차짐으로 生活과經濟的 滿足을 얻고 自由와平等 平和와 安寧을 얻으리라고 생각하는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萬人의게 밥을주고 平和와 安寧幸福을줄 큰原理는 사랑과 正義그것이다。

◇

朝鮮사람은 비로부터 자기는 비록 굶을지라도 남을먹이고 自己는 버슬지라도 남을입히기를 조와하엿고、自己가强하다고 남을눌느거나 害하기를 실혀하고 비록生命을 바처서라도 弱者를돕고 죽을사람을 살니고저하는것이 그特性이엇다。마음이 착하고 깨끗하고 바르고옳은것이 우리民族의 理想이엇다。

◇

귄에없엇고 후에도없을 苦難과 危機에處한 조선사람스사로를 救하고 우리와 共通한 境遇에잇는 온世界民衆을救할 道理는 오직 正義와 사랑밖에없다。方今 爭

(一五頁로續)

今日의朝鮮

스타ー博士

이글은人類學界의 泰斗이고 朝鮮의친구인 프레드릭、스타ー博士가 一九三〇年十二月號 留米學生報에 寄書한「朝鮮의最近變動」을 抄譯한것이다。——譯者記

나는 지낸여름에 두달동안 朝鮮을 訪問한일이 잇스니 그것은 나의여섯재번 訪問이엿다。一千九百十一年에 朝鮮을 처음으로 구경하엿고、나의 다숫재訪問은 一千九百二十一年이라고 記憶한다。나는 이번에 朝鮮을 訪問하고 여러가지 變動이 잇은것을 보앗다。그여러가지 變動中에서 左의세가를 特記하려고 생각한다。

一、教育의發展

——朝鮮學生처름 熱心과慇懃한態度로써 講演을듯는이는두물다。——

一九一一年에는 몟개의 普通學校를 除한外에는 이러타고 할만한 教育機關이 업섯더니 지금은 幼稚園으로붓터 大學에 니르기까지 여러學校가 設立되엿다。지금 朝鮮人은 官立이나 私立學校에서 相當한敎育을 받을수잇다고 생각한니。

나는 그동안에 延禧專門學校와 徽文高等普通學校에서 講演한일이잇다。나는 그와갓이 熱心잇고 慇懃한 聽衆의게 講演해본일이 퍽드물다。

二、讀書熱

——朝鮮사람이 번역한 書籍의 大部分이 日本語에서 再譯한것을보아 不滿足하게 생각하엿다。——

지금 朝鮮에서 讀書熱이 非常하게 向上한것을 보앗다。書店에 가보면 三十種以上의 朝鮮雜誌를 容易하게 차즐수잇고 그책들은 一般的智識 또는 專門的性質을띤 廣範圍의 것인것을 알수가잇엇다。내가 본 書籍中에는

外國書籍을 번역한것도 많았으니 例를들면 데모스데네쓰、씨사、루소、휴고、두마쓰、쉑스피어ー、하이네、비스맑、윌손、푸랜클린、가리발디、오스카ー와일드의살로메、입센의人形의家、톨스토이、첵코푸、맑쓰、레닌、아인스타인等이라고 할수잇다。이러한現像을보고 퍽놀냇고 또한 깃버하얏다。그번역 書類의 大部分이 日本語에서 重譯한것을 發見할때에 나는不滿足을 늣겻다。

나는 朝鮮學者들이 直接으로 原作들을 번역한줄알앗더니 그것이 事實이 되지못하는 모양이다。아모리 原著의 香味가 津津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두번씩이나번역하게되면 그固有한 香味를 맛볼수있을는지 疑問이다

三、產業發達

—朝鮮의產業發展에는 朝鮮人이參加하야할것이다—

朝鮮은 지금 產業的으로 만히 發展하고있으니 그前途가 매우洋洋하다。資本과 管理는 大槪 日本人의것이고 朝鮮人은 勞働을 供給하고잇다。이러한것이 今日의 朝鮮에있어서 不可避할現狀이라고 하겠으나 今後로朝鮮人은 自己나라의 產業發展을爲하야 좀더參加하고 좀努力하야만 될줄로민는다。朝鮮사람이 여러가지 難關을가진것이 事實이나 機會잇는대로 그것을 捕促하고 나아가지안흐면 아니될것이다。그러케하면 小規模로 經營하는 朝鮮人의企業도 漸漸 生長하고 發展할수잇을것이며 따라서 지금 가지고잇는 以上의 影響과 힘을朝鮮人의게 줄수잇을것이다。

지금 朝鮮에서 이러한 企業이 여긔더긔서 니러나는中에 잇다。朝鮮人의 日常生活에 큰變動을 니르킨者中의 하나는 고무靴라고 할수잇다。이고무靴가 비록古型을 버서나지못하였으나 녯날에 신든 신이 거의 그蹤跡을 감초아버리고 말앗다。이重要한 產業은 朝鮮人이 生長한것이이고 工場의十의八九가 朝鮮人의經營이라고한다。朝鮮에는 지금 利用되지못하는 여러가지 有望한事業이 많이있다。朝鮮사람된자 누구를 勿論하고 이點을 잘 깨닷고 잘 利用한다고하면 그는 實로 公衆奉仕를 하는이라고 생각한다。(昇秒譯)

(二六頁에서續)

參考書類

1. Feldman, He rman, Theregularization of employment, (1925)
2. National industrial conference board, Lay-off and it s prevehtion, (1930)
3. Lewiiohn S, A, Can business prevent unemployment ? (1925)
4. National bureau of economical research, Business cycles and unemployment, (1923)
5. Furniss, E. S, Lador problems, (1926)
6. Watkins, G, S, Labor management, (1928)
7. Leverhulme, W, H, The six hour shift and industrial efficiency, London, (1926)

民族主義의解剖

葛弘基

本論은 이러한問題들이 一見單純한듯하되 事實은때로 混亂을지음이甚함으로 앞흐로의思想統一에 多少도음이되기를바라는意味下에서 그所謂民族主義가 現代어떠한性質을띄엿스며 어떠한境遇에잇는가를 分析해보고저함이다。

一、緒論

愛國心이니 民族主義니하는소리는 一國의 政治問題가他國의干涉 或刺戟을밧게되며 이로말미암아서 니러나는民族意識이 國民의마음가운데 넘칠때 흔이보게되는 一政治現像이니 日韓合併前後해서보든 當時志士들에게서 그조흔例를보겟다。이러한民族主義的思想系統은 朝鮮內에도없음은아니나 甚하지는안은듯하되 海外 우리社會中에는少毫의修正도없이 排他的色彩가 濃厚한채 그대로持續되여잇는듯한 感이없이않다。

朝鮮內各主要新聞에 民族問題에對한論文이 連續掲載되든것은 그것이一九三〇年의일이든만치 오히려어제일이며 雜誌『三千里』同年十月號에『愛國心批判』이란題로諸衆의意見을들어 愛國心의正體를차저보려고한것도 前者와多少性質上差異가 잇을는지모르나 結局一部類에屬하는者들이다。

二、語意、國民、民族、種族、民族主義、愛國心

民族主義는近來 흔이쓰히는 述語이다。同時에 가장曖昧한글자이니 그까닭은 거의가 國民、民族、種族、愛國心等의意味類似한 述語들과 混用을함에잇다。國民은本來洋語를直譯한政治學的述語로 語原上 出生或種族的意義를가젓스니 要컨대 血族關係를가진 部族的集團을가르침이다。十七世紀以後에드러스면서부터 이말은立法者의손에서一國家의 市民을指示하게되엿으며 血族또는言語關係를못지안케되엿다。現代에國民이라면 血族關係를全然無視하게쯤됏스니 그實例로는 英國이印度人을 大英帝國臣民이라

고볼으는것이다。米國에서 黑人、白人、黃人을 勿論하고 或種의法的制約下에서 國民或市民이라고 불으는걷들이다

民族이란말은 오히려뒤에생긴말이니、約十八、九世紀頃 歐洲에民族主義가 甚해지기비롯한다음이다。前者보다는덜 曖昧할지모르나、何如間 民族이라면、同一文化的背景을가진 特히言語共同體를主로한 集團을일음이다。이意味에서 『民族』은 政治的述語됨을 반듯이要치안으며、따라서 政治的統一 或不統一問題를 度外視하는때가잇다。또한어느 政治機關은 一個以上의民族을含有할수도잇고 一民族은一個以上의 政治機關을가질수도 잇는것이다。만일民族이國民의形式을 獲得하려면 그는政治的自主權을 保持하는데잇다。同時에 어느國家의國民이 政治的自主權을表失하는 所謂 民族은될수잇스나 本來의意味에서의 國民은아니며 種族的或文化的 條件이달은他民族의 奴隷的地位에 잇게되는것이다。따라서 奴隷的地位에서의 國民이란일홈을새로엇게된다。印度가그例다。本來이意味에 잇어서 民族은 이러케 文化的이며 國民은政治的述語이다。

種族은國民、民族과함끠 混用되기쉬운글자며 그러키때믄에 何等에 가림이없이 함부로쓰인다 우리말에배달或밝民族이란소리는 우리들의 항다반듯고 책에넓는것이다 그러나각금글자의 濫用을 보게되니 例컨대 배달民族은 血族的同一根을 意味하는소리인줄 짐작하고 우리民族은 한하라바지 子孫이란것까지 말하는때가적지안다。勿論어느述語는 文化的인同時에 血族的인意味를 함끠包含하는일도없지안으나 이제『배달(밝)民族』에 잇어서는 밝民族二字가함끠 文化的述語이며 血族的意義를 包含하는證據는 업는듯하다。그러기때믄에 血族的關係를 表示하려면 人類學的述語로 遺傳及血緣的聯絡을가진 集團을意味하는 種族을써야한다。

民族이란말은 既述한바와갓거니와 이제民族主義란것은 政治的意味에서 國家主義와도 混用이되는것이니 이는어느民族이가진 自我意識의 內容을搆成한 原理及信條로換言하면 어느民族이 自己의文化及歷史에對한 感情을意味한다。特히 現代普通民族主義라는것은 印度人及比島人等의게잇서 某種의政治運動과 同一視되어잇스나 그本質에잇서서 自己네의歷史及文化에對한 尊敬、忠義感及保持慾에지나지 앗는것이며、이것이理論化되여서 一種의原理를形成할때、이는主義化하는것이다。

愛國心이란 近來에잇서서 支配屬에屬한 諸國家나 被治者의地位에잇는 所謂 少弱民族들의 가장愛用하는文字에하나인것갓다 。이를처음부터 모조리反對하는이도 없지안으나、이를傳統的意味그대로 통재집어생긴 親舊도적지안은모양이다。이말은語原上으로 단순이 地理的意味에서의 鄕土愛를意味한다。곳 내가 나은따를 사랑하는데愛國心의 起原이잇다。愛國心이지금까지도 地方熱의色彩를 그대로쓰고 잇는것은 이에主要한原因이 잇는까닭이다。

愛國心이 民族主義의 勃興과함끠 支配層에對한 國民의忠義로變햇스며 다시 帝國主義勃興과함끠 排他的侵略主義로 變한것이다。要컨대、伊太利의「팟시스트」나 日本의國粹主義者의 愛國心이 그조흔例인가한다。

愛國心은 現代에그存在의 妥當性을 認定치안케되고、所謂民族主義가 不幸히愛國心과 混同이되여가지고 아즉 그餘命을 保存하고잇다。

三、民族主義의起源及發展

民族主義의起源은 地方과時代를따라 多少差異가잇으나 大概는 近世史에屬하는것이 史宗들의본 그通見이다。勿論어느特殊한 祖國感情은 古代史에서도 더듬을수잇스니 高句麗發岐叛亂史話에서 그一例를차즐수가잇다。西洋史에잇서서는、埃及이나 메소포테미아古代諸民族의게서도 엿볼수가잇지마는 이런種類의것은 一種의情緖뿐으로 決코 體系化한 理論을包含한 이른바『民族主義』는아니다。民族主義가前述한바와같이 宗國 或民族的感情을含有치암음은아니나、이만으로는 主義가될수없으니 主義는單純하나마 一種의原理를 要하는까닭이다。

所謂 十字軍戰爭은 近世 民族主義發興에 主要한要因을構成하는者이다。노틱及알파인族을主로한 歐洲의十字軍이 셈族을本據로한 小亞細亞地方의 回敎人과對陣케되면서부터 種族政治言語風俗信敎의 差異를發見케되며 비로서民族的自我意識을 찻게되엿든것이다。이것을니여서 本邦言으로된 宗國文學興起ㅣ例컨대 英文學佛文學等ㅣ와君主制의發達을보면서부터 民族的意識은 君主에對한忠義感으로 變하게되며 甚하면『朕이곳나라이다』라는소리를하게쯤까지되엿든것이니 우리말에「나라」를 人格化한「나라님」은 곳帝王의尊號이엿슴도 자못注意를 끄는事實이다。

近世西史에 三大事件인 宗敎復興、文藝復興、佛國革命은 英國에產業革命과함끠·民族主義發展에 큰영향을준者이니 一、宗敎는이로부터 特殊國家를中心으로 獨立或本國化가되엿으며 二、古典文學硏究로부터 文學의本邦起原論、다시말하면各時代의文學은 各民族의어느特殊한 歷史的階端에서 產出한것이라고보게된것 三、佛國革命이나은 民主主義的信條、이러한國家或民族中心思想은 英國產業革命에서도 볼수잇나니、곳貿易及市場問題가 國際化하는一面에 그의主體는 언제나地方及 國家中心이엿든것이、곳 그것이다。여긔에 特殊한一現象은 이러한民族主義的經濟關係가 國際化할때에 民族主義는 帝國主義의탈을쓰게되엿고 民衆은愛國心이란曖昧한 國民道德律에盲從을 敢行햇든것이다。이러한民族中心思想은 政治理論家의出現과함께 理論的根據를 가지게되고 同時에一種의 哲學을形成하게되엿으며 現代의一個獨立한 思想的形態를가지고잇다

이에關聯된 한가지重要한事實은 知識階級과 大衆과의

關係이다。곳이러한思想이 發展하는道程에잇어서 이것이 知識階級의손에서 理論化한다는것은 임의指摘한바와갓거니와 이階級이다시 뿔조아지와 結合이될때 이理論化及 巧妙한宣傳은 主義的이랍보다 오히려營業的이되며 따라서政治問題는 이에서經濟問題化하고만다。特히十八、九世紀歐洲의 所謂天賦權利論及 個人主義的自由觀念의勃興을 따라 民族主義的 政治理論家의 民族自決主義를보게되고 이思想이企業家의손에 들게되면서부터 自由競爭의새理論을찻게된것이다。이러한種類의 思想的結合의弊害가 一個特殊한社會뿐에만 끄치는것이아니기때문에 일즉이맑스를中心으로한 一部主義者들의 階級的國際主義의 宣言을보게된것이다。다시말하면 政治理論家의民族主義가 企業家와關係를 맺게되면서부터 經濟的自由競爭의 一個手段이되여온것이다。現代所謂帝國主義란것이 政治的述語인지經濟的述語인지 分間을못할만큼 되여논것은 거의가이에基因함으로써이다。

四、宗教化한民族主義

現代民族主義란것이 一國家 或民族이他族과의 國際關係를 맺게되면서부터 自他의文化及 種族的差異를意識하게되며 이것이政治宗教及 産業의革命과어울러 知識階級의理論化를밟게되자 一方으로企業家의寵愛를받어 맞음내그의利用物이되고 잇다는것은 旣述한바와같거니와 이제必然的으로니러나는問題는 이와大衆과의 關係이다。

먼저記憶할 두가지必須條件이잇으니 一同族愛及鄕土愛는 人間으로서늑기는本然임과 二、民衆은이러한自然的情緒를 구지排他的意味에서 主義化를圖謀치안음이다。이러한心理的條件이 임의具備되엇음을집작한 支配階級及그助役인知識階級이 某種의必要下에서 이의利用을圖하게되며 이를爲해서 所謂 國民敎育、新聞雜誌公開演說等 諸般宣傳方法을 採用하게된다。이러한治者階級의 巧妙한手段下에 一般民衆은 그들의利用物이되며 맞음내民族主義는 宗教化됨에까지 이르고만다。朝鮮에까지 그영향이큰世界戰亂에 各國民衆의地獄行進을 오히려 甘受하다싶이된感이 없지안음은 이宣傳方針이얼마나 巧妙햇섯든가를엿보게하는 조흔거리다。

近來新舊思想衝突問題는 어듸서나볼수잇는것이다。天道敎新舊派分裂 又合同問題는 우리끼리가아는소리지만 자못世界的氣分이잇는 基督敎의近代派對正統派싸홈도 아즉休戰이못된양싶다。이러한 所謂 新派思想은 民族主義內에서도 볼수잇나니 이곳現代宗教化되여잇든 各國의新民族主義가 곳그것이다。東洋의中、印、日을비롯해서 西洋의英米佛獨伊等의 一般反動的思想은 거의가同一部類에屬하는者들이다。

民族主義의 宗教化란소리는 或달니들으실이도 잇을는지모르나 그意味에잇어서는 實上單純하니 말하자면 個

人이自己의國家及 民族의概念을 實在化해서 崇拜의對象으로믿으며 그外의人格的聯絡을늑기고 게서價値의 表準을찾게됨을 가르침이다。

問題가이에이르면 몸시거북스러움을 늑기게된다。何如間 그個人으로잇어서는 이宗教的對象과 關係를가젓다고 믿음으로 비로소生의意義와 價値를찾게되고 이것이甚하면 이에서永生을찾는일까지잇다。이의命令은 칸트의所謂無上命令의形態를 띄우게되고 쉴나이허마허式의 絕對依賴 칼빈의 絕對服從이加入된다。따라서이對象의게 自身을供養함은 戰時에흔이보이는 忠魂과같흔種類로 國家의表彰이잇어 萬古의義士가된다。明治末年 日本의乃木大將의殉死는 그조흔例며 本質上으로보아 이는羅馬에서당한初期基教教父들의 殉教와同一한者이다。

民族主義宗教에는 다른教體와같이 相當이발달된儀式이잇다。첫재로 神을象徵한國旗、(마치佛教寺刹에서보는 尊佛及羅漢의像이다。天主教聖堂에서보는 十字等과같은)가잇고 이를奉安하는데는 반듯이 奏樂이必要하며 一般臣民은 脫帽尊敬禮拜의感이잇어야하고 또는 合唱隊의讚美흔히는 國歌가잇는것이다。이런儀式은 今日世界各國이 一致하게施行하며 一般으로는 聖日、(通國慶紀念日)에 禮拜를본다。만일누구나 이信條及儀式에 反對感을가지면 그는異端에서 政治上으로는逆賊、좀더요새말노는 不逞分子要視察 危險人物의部類에 屬하게된다。따라서 治者의成功도 이에이르면 可히相當하다하겟다。

政治와宗教는 언제나密接한關係를가지고잇으나 이러한一種의政治的思想이 直接宗教化하는일도 또한적지않다。君主主義가 甚하게되면 帝王崇拜가되는일은 上古羅馬나現代日本에서 보는일이다。여긔에가장 特殊한點은 다른宗教는대개가 利他或은 沒我主義的道德律를兼하나 民族主義宗教는 自負驕傲排他侵略等을 主로하는것이다。

五、民族主義와戰爭

同族及鄉土에對한愛着心은 自然한人間의 性能임과 이것이治者의地位에잇는 뿔조아지及 知識階級의利用物이되면서부터 大衆은이를人格化 或神聖化하며 따라서이러한主義及信條는 排他를主로하고 現代에잇어서는 이것이뿔조아지의 保護를받고잇는것을 簡略하게나마 前節에서指摘하려고한바이다。따라서 이러한複雜한 聯鎖關係를가진今日의民族主義가 經濟問題를 背景으로한 現代國際關係에 如何한結果를 커질를것인가가 다시우리의注意를끄으는바이다。 歷史에나타난 一般消極的國際關係는 거의가當時國家利益保存을 主로햇다。그表現形態는 時代를따라政治的經濟的 或宗教的도되여잇으나 그根本에잇어서는언제나 或種의當面利益問題를 主로햇든것이다。近代史에가장많이 戰爭을惹起한것은 政治自主權의保護 或獲得을目的한種類에잇으며 다음으로는 宗教를中心으로한것이엇나

니 이모든것이決局은 自國利益保存을 主로한것이다。

利益問題는 今日一種經濟關係를 意味한다。特히 企業의發達과함게 經濟問題가 國際化되면서부터 民族主義는 다시 經濟的帝國主義의走狗노릇을하게되고 한거름나아가 政治問題는 經濟問題에서 分裂할수없을만치되고말엇다。日本의滿洲問題、英國의印度問題 米國의比島問題等이 그 조흔例다。다시말하면 뿔조아지는 一面으로 他國에投資를하고 一方으로는 軍艦을政府의윌홈으로 派遣해서 市場爭奪戰에氣勢를 도읍는다。따라서 이러한經濟的競爭은 맞음내戰爭을 惹起하게된다。

여긔에한가지 注目할事實은 언제나民衆의態度이다。民衆은이러한 國際的危機를 당하게되면 是非나價値를따질새없이 盲目的奪戰을敢行하게되니 그主要原因은 本論의論題인民族的理想主義와 그忠義感에 起因한것이며 다시 宗敎化한 民族熱이加入케됨으로 그度를 놉히는까닭이다 또한人性本態의 同族愛와鄕土心이 治者階級의 宣傳理論化等 諸般誘惑의過程을 지나게됨이라는것은 前述한바와 같다。이렇게 民族主義는 經濟的帝國主義와 結合을敢行햇으며 大衆은 그들의利用物이되고말엇으니 이것이 現世界狀의一面이다。

蔣介石의 一九三一年 新年演說에 第二次世界大戰亂을 말햇다는것은 어느程度의 價値가잇는지는疑問이나 大衆의後援下에 첫成功을본 新興中國의蔣이 다시大衆을뒤로 資本閥의訝誘하면서 지꺼린것이니만치 焉間에消息을傳함도없지안은가한다。

海軍會議의成功、國際聯盟의善果를 우리는바란다。그러나바란다고 될일이아니어든 찰아리斷念함이낳지안을가。

要컨대 이모든條件은 現代誤謬된 民族主義及帝國主義의呻吟을 意味함이아니고 무엇이랴!

——新幹會解消問題를듯고——

(에반스톤에서)

(七頁에서續)

鬪의 世界에서 相助의 世界로 罪惡의 世界에서 善의 世界로 나아가랴고 할때에 우리는 正義의「회人불」을 들고 앞서나아가자。차차 不義의世界가 變하야 正義의 世界로 化하려는데 우리는 온世界를救하고 引導할永遠한 理想을가지고 先鋒이되여 나아가자。

당장에 밥이 없다고 밥을위하야 사는 밥버레가되지 말자。시재돈이 없다고 돈앞에 절하는 黃金崇拜者가되지말자。爲先 權利와힘이 잇어야하겟다고 오직「힘」을 바라며「힘」으로 사람의理想을 삼지말자。그러한것은한 사람이나 한民族의 永遠한理想、永遠한 計劃이아니다。

◇

우리의 永遠한 民族的理想은 正義요 사랑이다。우리의 간절이바라는「보다나은將來」、「새로운時代」는 正義와사랑이 다사리는나라、正義의세상 正義時代다。——(꽃)——



딸라政策의展開

콜럼비아大學 文章郁

米國과 딸라政策은 맛치 飛鳥의兩翼과恰似하여 密接한關係를 가지고잇다。大戰以後 一瀉千里의形勢로 澎湃하는 딸라의潮水는 全地球에넘치고잇다。世界大戰이야말로 債務國의米國을 債權國、資本國으로 轉化케한 한絶好의 機會이다。大戰이 나은 두私生子는 勞農露西亞와 資本主義米國이다。米國은 每年二十億弗의平均으로 外債를 貸與하고 十億乃至十五億弗의 步合으로 對外投資는 增加하는中이라한다。大戰以前에잇서 歐洲列强의 外債所有도 相當한途程에 잇섯슴이事實이니 英國은約二百億弗 佛國은約百億弗、德國은約五十億弗이라한다。그러나米國은 겨우 二十六億弗을 所有햇던것이다。急轉直下로 激變된 戰後의狀態는 如何한가? 一九二七年(一年間)에 英國은 七億四千三百萬弗로 減下하고 米國은 十三億七千五百萬弗로 增加하엿다。德國은말할것도 업거니와 佛國도失敗에도라갓다。戰前의 露西亞의貸金과 빨칸諸國의 債權은 戰後에 고만 飛泡와갓치 헛터지고 말엇다고한다。

×

年年히流出되는 딸라의勢力으로 米國의資本家、企業家는 各國의政府、都市、會社、又는社團과 債權關係를 締結하고 擔保品을 引受한다。製造品、軍用品 或은陸海軍의擴張、國內의通貨鞏固、産業復舊、領土內의叛亂鎭定、그外여러가지目的으로 딸라를가저간다。墺地利의産業復舊를 目的하고 國際聯盟에서 提議한米國의貸金、白耳義의産業貸金、또스案調停에對한 獨逸의貸金、運河改善、鐵道敷設에對한中國의貸金等이 그것이다。윈클러氏의 研究에依하면 一九二八年對外投資의範圍는 一、米國市場에公賣된外國擔保品 二、米國人이買入한 外國株券及公債券 三、擔保品의 直接賣買가아닌 外國財産의獲得 四、外國에貸與한一年滿期以上의 債金又는 無利貸付金의 期限延長等이다。이와갓치 一九二八年에 二十億九千六百萬弗을 貸與

햇스니 前年 二十億七千一百萬弗에比하여 約一分의增加를 表示한다。그러면 대관절 米國은 얼마만한 富力을 所有햇기에 늘어가는 對外投資를 行하고잇는가?

(項 目)	(一人平均)
國民의富力	三、二〇〇弗
每年收入	七五〇
每年貯金	一六七
每年貿易	一〇〇
國庫歲入	三三
對外投資	一七

다음으로 米國이가진바 對外債權의總高는 一九二八年現在 百五十六億弗을 算하게되엇다。이제 그 分布地域別을 表示하면 (單位는百萬弗)

歐羅巴洲	四、七九八
加奈陀	四、一二〇
南 米	二、五一三
中 米	二、九五四
濠亞洲	八四一
其他	三七五
合 計	一五、六〇一百萬弗

이다。以上濠亞洲는 亞細亞와 濠太利를包含한것이다。東亞에몰려오는 딸라의利手가 크기는크지만은 歐洲와中米에比하여 놀랍지 못한것이 事實인만콤 앞으로 더擴張할餘地를뵈여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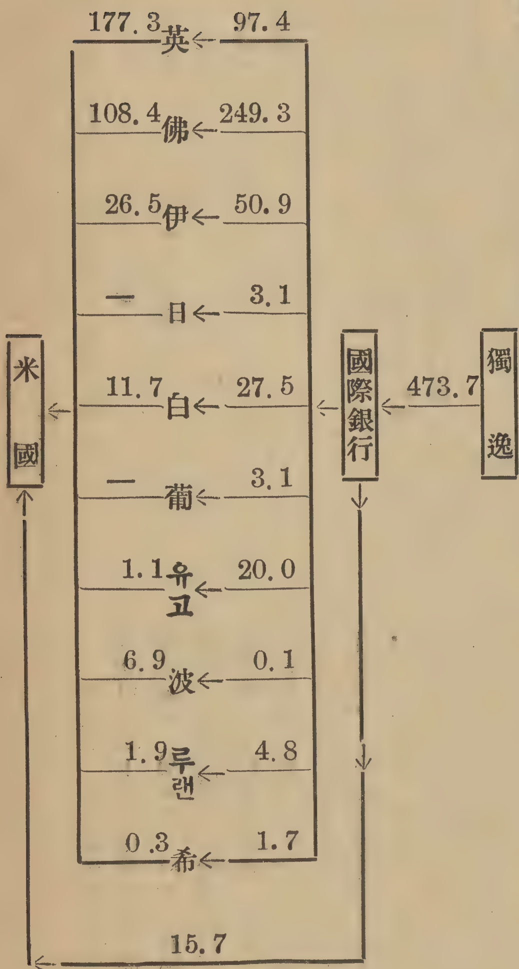
「商賈는 國旗를追隨한다」함은 某程度까지 引用될수잇으니 現下組織된國際貿易아니 對外投資의經路는 領土的境域을 넘어서 다만 政治的監視下에 國際的으로 根據를 든든케할수잇는것이다。米國이 그扶資와利權을 保護하는 手段과方法은 各各 時代와地域을 딸어 同一하지안음을 알수잇다。「몬로主義」의適用、門戶開放主義의主張、賠償法案의調停、武裝干涉、稅關監督、國稅徵收、歲出整理、그外利權關係國의法規制定에 對한國務省의抗議等아다。張皇한 事實은 紙面關係로 이를避하거니와 中央亞米利加의小共和國들과 캐리비안海中에散在한 小國들은 거의 米國의支配下에 잇는것이 事實이다。

×

뿐만아니라 米國의對外債權은 上述한 百五十六億弗以外에 戰債 即大戰當時聯盟國의게 貸與한 百十六億弗를 加算할수잇스니 이戰債事件은 列國의注目하던바이며 따라서 獨逸에對한 賠償金의 圓滑한解決을 要求한것이다。米國은 一九二二年國會에서 戰債收入案을通過하고 一九四七年以內로 同案을 實行할것과 利子는年四分二厘五毛에 不下하도록 徵收하기로하얏다。이에 英國은 一九二三年一月에 妥協이成立되여 六十二年(一九八五)內로四十六億弗을償還하되 初期十年間은 年三分의利子로 其後

는 三分五厘의利로 約定하엿다。第一年에는 二千三百萬弗로爲始하여 每年 累增하기로하엿다。다음으로 一九二九年七月에 債務者인 十四個國은 英米調停案에基因하여 各各報償케된것이다。如何한理由인지 英國에게는 年平均三分三厘의高利를 課하고 伊太利의게는 年四厘의低利를許하엿다。드듸여 一九二九年九月十六日 제네바에 열닌賠償調停會議는 영案을採用하여 獨逸의賠償年限을 五十八個年 即一九八八年까지 延長식키엇다。賠償、戰債두年限을 同一케하여 米國의債金回收의便宜를 圖謀하는한편獨逸의負擔을 輕減케한것이다。初期三十七個年間은 (一九六六) 獨逸이 每年二十億五千一百萬馬克 即四億七千三百萬弗式을賠償키로되엇다。次期二十二個年間에도 또ㅣ스案五億九千三百萬弗에比하야 多數의減額이잇다。賠償委員會는 踪跡을감추게되고 國際銀行으로 化生케된것이 영氏의努力이라한다。

國際銀行의組織과 任務는 省略하거니와 同銀行과 獨逸、米國及其聯盟國間의 賠償金의分配와 戰債金의回償과의 相互聯結된 關係를 圖示하면 左와如하다 (外交協會會報 (뉴욕) 五卷十二號二〇五頁叅照)。



1、單位는百萬弗

2、一九二九ㅣ一九六五每年平均額

×

永年景氣를 自恃하고 無限膨脹의 딸라를期待하던 米國도 一九二九年十月中旬以來 紐育株式市場에 暴落의雨雹이나리기始作하자 니어서 經濟界는 一般的不振、恐慌을내고잇섯다。一九三〇年에 約五百萬의失職洪水를내고 千三百二十六銀行의 閉門宣告를내렷다。이에對한原因을溯究하면 實로 多端이겟지만은 一、米國에投資햇던 外國株劵의賣却 二、消費力量以上의過剩生産 三、歐米各國의米貨輸入制限 四、月賦販賣制의盛行 五、歐米產業振興에伴한米國對外投資의減退 六、米國新關稅案에對한 歐米報復關稅의實行等일것이다。그러나 무엇보담도 對外關係로는 戰債回收事件이 한導火線이된것은 疑心없는事實이다 一九二九年七月에 戰債回收를 約定하자 三個月直後에財界恐慌을 招來함은 참으로 因果의實證을 뵈이는듯하다 다시 對內關係로는 消費力量以上의過剩生産이 重大한原因이될것은 喋喋할必要가업는줄안다。아모리『린컨』이나『캐듸락』의 自働車가 華美하기는하지만은 一年만지나고보면 使用치안은것이라도 한舊型이 되여서 古物商으로넘기고만다。一九三〇年十二月六日 巴里에開催하엿던 國際商業會議에서 二十八個國經濟家들이 十二項의原因으로世界的經濟不況을 討議한中에도 이 過剩生産이 第一項을 占領케된것은 우리가 잘아는事實이다。그리고 資本主義國家에 잇어 安靜ㅣ好景氣ㅣ繁榮ㅣ生産過剩ㅣ恐慌ㅣ沈退ㅣ安靜ㅣㅣㅣ은 必然的 循環性을 가진現象인듯하다 그러나 一九三一年劈頭로 米國의財界가 漸漸回復의途中에 잇으며 따라서歐洲에도 同一한曙光이 뵈인다한다。이리하여 漸次로挽回될 經濟界는 一九三一年末 或은一九三二年初에가서 不況前正常狀態로 回復되리라고한다。回復을따러 繁榮이 伴來할것을 豫測하는財政家도 잇으며 延하여 딸라政策의 第二活動期가 올는지도 모른다만은 現下主히 經濟振興을目標로하고 이러나는 歐洲聯邦制度의提唱、빨칸聯盟의成立、汎米會議의進行、露國五年計劃의實行 等等으로보아서 從前보다 매우遲遲하리라고밋는다。끝으로 米國이아직도 世界最高의勞賃을 世界最高의生活標準을 占領하고잇슴을말하랴한다。워렌뻭커敎授의發表에依하면 米國이겨우 總世界人口의 百分之七을가젓음에不拘하고 米國은 世界總고무의五割六分을、總紬絹의七割二分을、總砂糖의二割一分을、總石炭의三割六分을、總鐵類의四割二分을、總石油類의六割九分을 消費하고잇다고한다。繁榮은 그대로繼續하여잇다。

百十六億의戰債、百五十六億의對外債權을 所有한米國은經濟的、政治的 乃至社會的으로 世界的盟主ㅣ며 霸王인地位에잇다。딸라政策은 依然히 展開하여잇다。

(三一、二、二五、뉴욕)



資本主의失業緩和策

콜럼비아大學 韓昇寅

一、問題의範圍와性質

編輯人의付托은 失業의現狀、原因及對策에關하야 簡明하게쓰라는것이다。目下우리가 世界的錢慌을當面하고잇는이만큼 어데를勿論하고 이問題에對한論評이매우만코 또한紛紛하다。그래서 여긔서다시失業의原因과 現狀이라든지 或은政府나 엇든慈善團體에서 講究實行하는救濟策들에對하야 장황하게重複하는것은 도리혀讀者의 厭症을니르킬念慮가 업지아니하다。그럼으로 亦是失業에對한對策中의 하나이라고할수잇는 米國雇主들의政策을 좀檢討하여보고저한다。

一九二六年에 英國實業家協會에서 派遣한實業團이 米國의經濟的狀態를 調査한結論中에「米國이經濟的으로繁榮하는原因의하나는 資本家와勞働者의協調하는데잇다」라고하는一句가잇다。米國의勞働者는 階級的意識이 薄弱하고 賃金에對한意識이强大하다。그래서英國이나 日本의勞働者모양으로 政治的運動으로써 資本階級을對抗하려고하는傾向이적고 集合的行動으로써 短時間의勞働과 高騰한賃金을밧는것으로써 滿足하는傾何이많이잇다。그理由는 勞働者로하여곰 自働車를타게하고 레이듸오를듯게하며 劇場에갈수잇게한 一般的經濟가繁榮함에 基因하는것도事實이지마는 米國資本家들의先見잇고 지혜스러운雇傭政策에도 多少의原因이잇다고생각한다。얻은사람은 資本家와勞働者의利害가相反하야 到底히妥協할수가업다고主唱하나 米國사람은 兩者의利害가相合한다고하는見地에서 서로步調를갖이하고 나아가는일이많이잇다。

二、產業의安定化

經濟學者들은 아래와갖이말한다。「精細한研究에依하면 一年을通하야 均一하게 活動하는實業은 原則이라기보다

차라리例外라고할것이다。모든實業에繁榮한달과 緩慢한달이잇으며 繁榮한해와 緩慢한해가잇다。」

建築業이나 石炭採掘業갓은것은 春夏秋 三季에盛하고 冬季에는衰하며 크리쓰마쓰나感謝節갓은慶節에는 商業이 繁榮하나 慶節의直後나 三伏갓은때는 商業이緩慢하여지며 따라서勞働需要에 屈曲이생긴다。

마사츄셋쓰洲에잇는 데니슨製造會社에서는 産業의節季的動搖를 緩和하기爲하야 左의네가지政策을實行한다。

1、註文의節季的變動을減少하는것。

在來에同會社에서 製造하는紙箱의 註文이늘느진여름부터야 드러오기始作하고 크리쓰마쓰節季에가서는 註文이 너무殺到하야 春夏兩季에는 일이比較的저고 크리쓰마쓰때는非常한活動을하게되엿다。그래서同會社에서는 이러한 年中活動의不均衡을緩和하기爲하야 지혜스러운政策과愼重한手段으로써 各註文主로하여곰 느진여름에할註文을봄부터하게하고 크리쓰마쓰때에 할註文을여러달前부터하게하도록全力을傾注하엿다。이모양으로여러해동안을 게속하여온結果 지금은年中의商業이 相當히平均化되엿다。

2、一年或은그以上의商業을미리設計함。

데니슨製造會社는 米國에서科學的經營을應用하는데 先驅者의하나이고 同會社社長데니슨氏가 또한科學的經營의 權威者의하나이니만큼 이會社는 米國實業界에서만흔注意를끌고잇다。이會社의豫算이나 年末報告를一瞥하면 每模 一年동안의商業을 科學的으로豫測하여가지고 年中의作業을平均化하도록努力한다。

3 廣告政策

아모리錢慌時代라고할지라도 消費者의주머니가 텡텡뷔이는것은아니다。勿論賃金을 唯一의財源으로하는 勞働階級은 錢慌時代에金融이枯渴하지마는 一部의消費者는 반다시그런것도아니다。錢慌時代는 흔히一般社會가 悲觀에빠지고 또한將來가 엇지될것을念慮하야 商品을사지안코 다만緊縮主義를쓸따름이다。지금米國大都의 여러銀行에서 貯金이前보다 增加하는것을보아도 這變의消息을집작할것이다。그래서데니슨製造會社에서는 적어도몃해동안의廣告經費를 미리算定하여가지고 經濟的錢慌이생기게되면 平年에比하야 廣告를더욱宏壯하게한다。그것이一般社會의樂觀을復興하게하고 購買心을喚起하게하야 비록錢慌時代라고할지라도 그냥商業을繼續하는 한큰武器가된다。

4、非節季的商品을製造

데니슨製造會社에서는 節季에따라서 流行하는紙箱을만드는外에 特別히節季的性質이업고 아모때나쓰는紙箱을또한만든다。그래서註文이적고 商業이緩慢할때는 그러한非節季的紙箱을만들어서 年中商業의上下屈曲을 彌縫한다。

一九二〇年에 오하요洲에잇는 石鹼製造業으로 有名한 푸록터앤드갬블會社에서 生産의平均을保存하기爲하야 過去數十年間에 販賣한成績을 年月週日의順序로詳細하게調

査한일이잇다。同會社의調査에依하면 年年히增加한販賣數量이 比較的規則이잇게 增加한것을發見하고 將來멧해동안에販賣가 얼마식될는지 槪算할수가있엇다。그러나年年의增加는 그와갓이規則이잇게되엿으나 다달의販賣를調査한즉 얻은달에는많이팔니고 얻은달에는적게팔닌것을알게되엿다。그래서다시그理由를調査하야 그原因이石鹼消費가增減한데잇지안코 都賣商人들의投機的行動에 있은것을發見하엿다。다시말하면 都賣商人들이利를 볼만하면만히사고 利가업슬듯하면사지안는 그러한弄絡이販賣의增減을惹起하엿든것이다。맛츰내 同會社에서는 販賣政策을變更하야 漸漸都賣商人의손을멀니하고 小賣商人의게 直接으로供給하는政策을세웟다。그新政策을여러해동안繼續하야 지금은同會社의年中販賣가 前에比하야많이平均化되엿다。

三、失業保險

失業에對한藥은 業을주는데있을것이다。그러나現代的經濟制度에서는 一國이나 一個人의힘으로는 失業을絶根하기가極難할뿐아니라 차라리不可能하다고하는것이 正直한論據일것이다。그럼으로 失業保險은 곳失業이있을것을前提로하고 세운方法中의하나이나 近來에歐米에서 失業은곳雇主의責任이되고 따라서失業의報償은 經營費의一部로看做하여야된다는主唱이得勢하야 英國이나獨逸같은나라에서는 政府에서强制的으로 失業保險을奬勵하고있으며 最近에米國政府에서도 이問題를猛烈하게討議하는中이나 아직完全한法律的制定은 되지못하고 다만各洲에서直接間接으로 이를奬勵하고잇다。그리고個人會社안헤서 實驗하는곳이많이잇나니 左에그一二例를 陳述하고저한다。

(가)雇傭保證

前項에서例擧한 푸록터앤드갬블會社에는 科學經營을應用하야 적어도一年以上의作業을 豫算하여가지고 雇傭政策을作定하나니 同會社의政策에依하면 一年四十八週間의賃金을保證한다。이會社에서는 年年히利益金中에서 失業基本金을積立하여두고 經濟的錢慌 或은其他事情에依하야約束한四十八週間을 雇傭하지못하게되는때에는 거긔該當한賃金을 全部支拂한다고한다。그와同時에 勞働者側에서는일하는동안에 最大의能率을發揮하도록하고 其外에被雇人된義務를 嚴守하여야만된다。

(나)共同協約 (Joint Agreement)

米國中西部에잇는 衣服製造業界에 所謂共同協約이라고하는 一種의失業保險이 實施되여잇나니 오하이오洲클리불랜드市의 國際婦人衣服勞働組合과 同市의衣服製造業者協會間의協約이라든가 쉬카고市에잇는 西米利加聯合衣服勞働會 쉬카고支部와 同市의衣服製造業者協會間의協約같은것이 그好例일것이다。

클리불랜드市의 國際婦人衣服勞働組合과 衣服製造業者協會間의 協約에依하면 雇主側에서는 勞働者의게一定한

年收入을保證하고 勞働者側에서는 雇主의게向하야 生産標準에어김이업시 힘써서일하여주겟다는約束을하여준다。이協約의第一目的은 勞資兩便이協力하야 生産의安定을圖謀하고 따라서節季的失業을 緩和하자는데잇다。雇主는一年에적어도 四十週間의雇傭을確保하고만일 그保證대로雇傭하지못하는경우에는 一定한期間까지 賃金의半額을支拂하야만된다。그失業基金은 雇主의利益金에서 賃金의一割에該當하는金額을 따로히積立하야 勞資兩便에서選出한委員會에서 此積立金을管理한다。

一九二三年十月에 쉬카고에잇는衣服製造業者와 亞米利加聯合衣服勞働組合 쉬카고支部間에 協約한바에依하면勞働者가賃金의 七十五分之一을내고 雇主가또한同一한金額을내서 失業基金을積立하야 兩便에서選出한 委員會로써 此를管理하게하고 失業이생길때에는 一定한期間에 一定한金額을支拂하게되여잇다。

四、短時間과高尙한賃金

過去에勞働의能率은 勞働의時間과 正比例한다는것을誤信한사람이많엇고 아직도未開한사람들은 그것을眞理라고믿는者가不少한모양이다。그러나 歐米諸國에서 過去數十年間에 長久한時間을두고 硏究한結果 勞働의能率이어느程度까지는 時間과正比例하나 얼어한飽和點에니르면 도리혀反比例한다는것이 一般的眞理가되엿다。다시말하면勞働의時間이 너무長久하면 勞働者의健康을損하고 事故가많이發生하며 生産의能率이減退하야 結局社會全般에惡影響을주는것을 發見하엿다。

一九二六年秋期에 헨리포ㅡ드가 一週五日勞働을廣布하고「우리는우리의 全國機關을通하야 一週五日勞働을斷行한다。土曜日과日曜日에는 絶對的으로 일을식히지안는다 그러나 우리는六日間의 賃金을그대로支拂한다。우리가多年間經驗한바에依하야 六日間에生産하는것을 五日間에넉넉히할수잇는것을 發見하엿고 더됴흔方法에依하야 그以上으로 生産할는지모른다」라고 宣言할때에 全世界의實業家들의게 一大驚異를던젓든것이다。그後에 그가다시一日八時間勞働을 六時間으로減少한다고 壯談할때에 非常하게發達된 科學의偉力을疑心하는무리의게는 實로가슴이서늘하엿을것이다。그러나 지금포ㅡ드會社에서는 一週五日制가 떳떳하게實施되여잇고 六時間制가 또한相當한成績으로 實現되는中에잇다。五日勞働은 唯獨포ㅡ드會社에서만 實行하는것이아니라 米國의衣服製造界, 燃料業界에서도많이擴大되엿으며 歐洲諸國에도 此를實驗하는데가不少하다。이모양으로 短時間의勞働을식히고 高騰한賃金을주는政策이 全國的또는 全世界的으로普及하게되면 그效力을더疑心할바이업슬것이다。

五、其他方法

以上에서陳述한 세가지方法外에도 여러가지모양으로實驗하는方法이 많이잇나니 그中에서重要한것멧가지를略述하고저한다。

(가)作業時間短縮

獨力으로支配할수업는 錢慌이迫頭하고 生産的活動을減少하지안흘수업는경우에는 作業의時間을短縮하야 一時에失業群을放逐하는 弊害를적게하게하고 一日三食만이라도保存하게하는方法을 쓰는때가많이잇다。

(나)勞働者交代(Rotation of workers)

이方法에依하건대 生産을減少하려할때에 勞働者로하여곰 一週에멧칠동안식만 全勞働을하게하고 餘日은아주休息하게한다。現今米國에서는 이方法이 (가)에紹介한作業短縮時間方法보다 적게流行된다。

(다)休暇

엇든會社를勿論하고 一定한期間後에는 勞働者의게休暇를주는일이잇나니 이休暇를商業이緩慢할때에 利用할수가잇는것이다。休暇에는賃金을支拂하는데도잇고 그럿치안흔곳도잇나니 某會社의報告에依하면 夏期에는 젊은男女들이 月給을밧지안코라도 海水浴場같은곳에 避暑가기를즐겨워하는例가 不少하다고한다。

(라)勞働者訓練

大量生産을 神처럼崇拜하고 分業이極度로發達한 米國같은나라에서는 한사람이여러가지技術을 배우기에極히困難하다。그럼으로 한곳에서 職業을일흐면 다른곳으로轉職하기가 또한어렵게된다。이러한不利를 緩和하기爲하야 엇든會社에서는 여러모양으로써 勞働者를訓練하야 專門技術을가지는外에 다른技術을 얼마라도알게하도록努力한다 그와같이함으로써 勞働者의轉職을 어느程度까지 自由自在하게만든다。

(마)勞働貯藏(Labor Reservoirs)

事業이殷盛할때에는 多數의勞働者를雇傭하고 事業이縮少될때에는 勞働者를逐出하는것이 現經濟制度의 一大病痛이라는것은 우헤서도累累히 論述한바이어니와 米國엇든會社에서는 이러한弊害를적게하기爲하야 設令당장에全時間의勞働을 줄수업더래도 一定한餘分의勞働者(Extra Workers)를雇傭하고 일이생길쩍마다 멧時間式일을식히다가事業이擴張되고 勞働者의增加를要하는때에는 그餘分의勞働者를此에代用한다。

(바)準備軍(Emergency Crews)

어느會社를勿論하고 十年乃至數十年동안 在職한勞働者中에 그會社內의職務를 거의다精通하는者가잇게된다。그래서 엇든會社에서는 이러한技術者를 따로히準備軍으로세워두고 各課로단니면서 訓練도식히고 엇든課에서緊急하게 勞働者를要할때에는 그技術者들이가서 그자리를補塡하는일이잇다。이런準備軍을 米國에서 폴라잉스쿼이드론쓰(Flying Squadrons)라고도한다。

(사)解職豫告와職業紹介

엇든會社에서는 勞働者를解職할때에 멧週日或은 멧달前부터豫告하야 그勞働者로하여곰다른곳에求職하는 便利를圖謀하게하고 엇든때는 한거름더나아가서 다른會社와連絡하야가지고 그解職者의職業을 紹介하여주는일도잇다

六、그實效와今後

以上에서 紹介한멧가지 失業緩和策은 그實行의年代와範圍에있어서 아직實驗的過程에잇다고할것이며 따라서그效果가 아직微微하다고아니할수업다。이것은 現在米國에서 四百萬이란無職者가 大陸을威脅하고잇는것을보아 알수있을것이다。現在米國에서 適用하는政策의 內容들을살펴보면 얻은것은有名無實에不過하야 勞働者의게이럿타할만한利益이업고 雇主가被雇人의 欺瞞慰撫하는一手段에지내지못하며 얻은것은 實로自覺과硏究가있은後에 始作하야勞資兩方에 有利한條件을 俱有한것도잇다。一九二一年이나 昨今年에 다른實業界에서는 洪水같은失業群을내여노핫으나 우헤서말한 데니슨會社나 푸록토커앤드깸볼會社에서는 그러한일이比較的적었으며事實있엇다고하더래도 失業保險으로써 危急한飢寒을免케하엿다 그리고포ㅣ드自働車會社에서 實行하는短時間勞働과 高尙한賃金制度가勞働者의게 큰利益을주는것이 一般會社가認定하는바이다。그러나 지금우리가當面하고잇는 錢慌의原因이 하도多角形이고 또한이러한政策이 아직實業界의一部에서 實行되여잇는故로 그實效를 數字的으로言算하기가 極難하다。要幸히歐米諸國에서 이러한政策을適用하는度數와 範圍가날노增加하고있나니 이政策의是非나 成敗는今前의趨勢를보아만論評할수잇을것이며 그成功에關하에는 左의멧가지條件이 必要하다고생각한다。

(가)失業緩和策은 公正한原理에서 樹立할것 얻어한政策을勿論하고 雇主의게만利하고 勞働者의게害로운것이든지 或은勞者의게만利롭고 雇主의게害로운偏俠的政策은成功할만한 아모價値를가지지못한다。그런故로 勞資兩方을서로有益하게하는 公正한政策이라야될것이다。

(나)雇主의誠意

勞資兩方에서 協約한政策이 아모리됴타고할지라도 雇主의誠意가업고 勞働者를欺瞞한다든지 雇主된權利와義務를 實行하지아니하면 그契約은죽은契約이되고 말것이다。

(다)勞働者의共同動力이強大할것

現下各國에서 勞働者를爲하야 實施되는모든政策이나法律은 勞働者自体의自覺과 그들의共同的行動의 結果라고나는생각한다。만일雇主가自進하야 勞働者를爲한무삼政策을쓰는例가잇다고하면 그는極少數에不過할것이고 大部分이勞働者의共同的行動에 엇젤수업시 하게된것이라고하여도큰過言이아닐것이다。

(九頁로續)



美國의職業教育

P.H.D 崔允鎬

一、史的考察

職業教育은 오래前봇터 獨逸과덴맑을머리로 歐洲列國에 創設되엿고 그影響이 美國에밋츤지도 꽤오랫섯다。그러나 이教育制가 美國에서 長足的으로發達되기는 最近二十年內外의일이오 이짧은歲月에 量과質로 이럿듯한現狀을 낫타낸것은 一大神奇한事實이다。

勿論 이教育制가生기기전에도 醫學法學及師範學校等의小數의 高級教育機關이잇서 그方面에 人材를養成한바잇엇고 追後하야 大都市에 私立商業學校等 同級의性質을가진 機關이있엇으나 다만일홈뿐으로 其內容과方法이가장微微하엿섯다。

이러할즈음에 美國內에 産業은 加速度로發達되여 政治、經濟、實業教育其他諸方面에서 專門的技能가진사람을要求케되엿고 生活費의高騰과奢侈品의濫用은 日去尤甚함을따라 生存競爭이 極烈하며 個人의生存을 爲해서라도엇던種類의 職業的技術을 가지어야만되게되엿다。그러함에도不拘하고 民衆은 適宜한教育을받지못하야 生活의길은 더욱漠然해지엿다。이러한現狀을본美國의有志教育者들은 그當時의教育方式이 너무나實際生活에서떠남을깨다라新教育制의 創設을主唱하엿고 民衆은이불으짖음에 共鳴하엿다。

맛츰 世界大戰이開幕되자 美國은 聯邦諸國의戰具를製造하며 食糧을調節케된이만콤 多數의技術者가 所用되엿으니 이야말노職業教育運動發達上 千載一遇의好機會이엿다。이要求를알게된 美國國會에서는 至今으로約十四年前即 一千九百十七年전에「스미드ㅡ휴쓰」法案을 비롯하야「해취」「모릴」等法條가通過되니 이는七百餘萬弗의國財를내여 美國內에 農業、産業及家政科를 奬勵하기로함이엿다。그리고 엇던洲나地方에서 職業教育을위하야 國會에

서 預算한金額補助를 請求할때에는 반다시 그洲나地方에서도 同數以上의돈을 徵收使用하기로되엿다。

一千九百二十六年度美國內務省에서 發表한一千九百十八二十三年度 職業教育調査案을보면 如左한變動을보게된다

美國의職業教育調査表一覽

年度	總消費額	總學校數	總教師數	總學生數
一九一八	三、〇二九、六五〇•二七	一、七四一	五、二五七	一六四、一八六
一九二三	九、一八三、四一七•七九	五、七〇〇	一四、四五八	五三六、五二八

以上數字를보면 一九一八年으로 一九二三年間에 職業教育運動이 얼마나한 進步가잇섯음을 可히推測할수잇거니와 其后엔 發表한調査를 叅考할길이없음이遺憾이다。 그러나 一九二三年調査에依하면 美國內에職業學校에 入學할年齡(十四•十五•十六歲)의兒童으로 在籍치못한이가約二•九六七•六五一名이라하엿으니 이多數의非在籍兒童들에게 職業教育을普及하기로 目的한이運動이 얼마나한進步가 잇섯을것을 可히推想할수잇다。

二、職業教育의意義

教育의意義는 固定한것이안이니 맛치時代와思潮를따라變遷이적지안타。 그는 저希臘教育의純智主義라든가 羅馬教育의自制主義가 그一例일것이며 또同時代에 잇어서도 個人의見地를따라 教育의意義를不同視하나니 古典學者는 教育의最高目的을 哲學書며 經文을解得함으로 爲主할것이오 文化主義者는 心的修養을힘써 生의價値를높입으로 爲主할것이며 科學者는 特殊한 原理를研究搜索하야 自然의未知界를發見함으로 옷뜸을삼을것이다。

現世는 科學時代일다。 科學時代라하야 萬般의事物이이처름 自然이 發達向上된것이 안이고 人爲力으로되엿다고볼수잇다。 이事實이 決코現代人이녯사람들보다 體力이나 頭腦가優越하야 그런것이아니다。 體力으로는 도리혀 녯사람들보다 遜色이不無하나 그러나 現代人은 頭腦를 專門的으로 實際事物에使用한까닭이라한다。 이意味로보아 職業教育은 現代의趨勢와思潮를따라 보다더特殊한專門技術을教養하되 個人의本能과趣味를 本位로하고 經濟的實習을主로하야 現社會生活에適應케뿐아니라個人의經濟的自立을主重하야 社會의 寄生虫이 되지안토록 함에잇다。

大概 一國家의貧富는 民衆의生産과 消耗如何에달녓다 엇던 國家에서든지 多數의生産者를가진 國家는富해질것이오 그反對가되면 貧해질것일다。 文明한나라에서는 그國民의生産과 消耗期를 如左히 測定한다。 出生后約十七歲까지와 年老氣衰할最后十年間을消耗期로 十八歲以上으로 約五十歲까지를 生産期로하야 그國民의生産量을富케하기로 努力한다。 이러한뜻으로 職業教育은 可及的 國民의生産期를 延長케하며 生産高를增進케함에잇다。

職業教育의重要한原理를 一一히論述할수없거니와 其中 四가지를枚擧하면

一、自然의富源을保藏하며 그를啓發케함。
二、勞働力의浪費를防止케함
三、個人의本職을土臺로하며 趣味를따라學童으로一種以上의技術을學得케함。
四、賃金力을增進케함。
五、生活의安定을亨得케함。
六、社會의安寧秩序를保持케함。
七、國家의富力을增進케함 等이다。

三、職業學校의種類와敎育方法

以上에도屢屢히暗示하엿거니와 職業敎育은民衆을中心으로 失學의悲運에빠진 兒童과 或은充分한職業的基礎準備없이 事業에着手한사람들에게 實地知識을普及함이目的이니 맛치 可及的 여러形便에 處한民衆의게 通學의便宜를주기위하야 諸種學校를設置하였으며 첩경이고도實際的인 敎育方法을 使用함이다。

이제 그學校種類를 列擧하면 全工 半工學校며夜學夏期講習巡回講演及通信敎授等인바 다시以上諸種學校를 二種形式으로 分級할수있으니

(一)은協同學校(Cooperative school or Schneider ploa)이다。이는學校와 그학교近方에잇는 工場과協同하야 敎育을幷進케함을뜻함이며 (二)는非協同或獨立 (Non-Cooperatine school or Independent school)學校이니이는學校에서 獨斷的으로敎育一事를 自進함을云함이다。

協同學校로 본이 될만한 學校는 오하요ㅣ씬시내트大學과 매쉐추셰쓰ㅣ뻬버리學校가 그것이다。씬시내트대학은 該校校長 스나이더ㅣ氏의 創設한 高級의職業學校이니 入學資格은 年齡이約十八歲以上으로 專門的技術을學得하기를 志願하는사람을許하며 敎授方法은 理論과實習을幷敎하는바 이目的을 得達기위하야 約二週間 (처음에는一週間式을시험해보았으나 若干의障碍가多함으로 二週間式으로變更하엿음) 은 學校에서 學理만가라치고 約二週間은各學生의 專工을따라 學校와協同한各種의工場으로派送하야 職工長監督下에서 實習을받는同時에 若干의賃金을받는다。이貌樣으로約二年間을放學없이 學業을繼續하면學理와實驗을아울너갓춘사람이됨으로 畢業하는날노이믜實習하든工場으로就職케된다。設或 이限에不在한 畢業生이라도 就職은 難題가안이다。

매세추쓰뻬버리학교는 中等職業學校로 約十四歲의兒童을許하야 主任敎師指導下에 各學生이趣味대로 科目을擇케한다。이學校學制는 約二個年인대 英語 美國市民法數學等을 必修科로하고 其外에는 隨意科들이니 專工을따라 各異하다敎授方法은 亦是理論과 實習을至重하야 約一週間은校內에서 學理를가라치고 其后約一週間은 由園혹工場으로派遣하며 職工長監督下에서 實習을받고 若干의報酬를받는다。

非協同或獨立學校로 일홈이놉흔學校는 매쉐추세쓰ㅣ뉴유베드ㅣ뽀드職業학교와 뉴욕ㅣ맨햇튼 女子職工學校이니 이런學校들의 諸般進行方法이 以上에說明한 協同學校와 大同小異하니 이에다시 詳述치안커니와 한가지特異한것은 學校에서 獨立的으로 實驗所를 設置하고 學童들의게 實驗에便宜를 提供함이다。그러나 十常八九는 實驗所가 比較的不完備하고 賃金도적음일다。

以上兩級學校들의 敎育方法은 푸로쩩트式 (Project Method)이니 實驗함으로 學理를 깨닷게함을 일홈이다。이敎育의理想을 實際化하기爲하야 학교에서는 各學生의專工을따라 實驗의 資料를分給하나니 假令農科를專工하는學生에게는 校園模範場에幾坪의土地를 分給하야料肥하는것으로 秋收하는때까지의 여러가지手續을主務敎師指導下에서 自擔進行케하며 혹木工이나 職工을擇한學童들의게도 亦是그무엇을完全히만들때까지 모든手續을全任케한다。이뿐만아니라 그런學校에서는 長成한사람들의게 職業교육을 普及키위하야 短期科와 巡回講演部도두나니 短期科는 大槪農民을위하야夏期나 冬期間몃週日間式農夫의 가장閑遊한時期를利用하야 그들의必要한것을 가라침을云함이며 巡回講演은各種의專門家들이 作隊하야 地方의形便을따라 巡回講演함을일홈이다。

四、指導의意義와指導者의資格

人生의게 三樂이有하니 職業의樂 家庭의樂과社會의樂이 그것이다。이三樂中에도職業의樂은 根本의樂이라看做할수잇다。이러한意味下에서 職業學校는 年少하고 識淺하야 自己의取할바職業을아지못하고 幸과不幸의分岐線에서 彷徨하는 學童의게 바든職業을 指導함을云함이다。

이제 職業敎育 指導法의大志몃가지를指摘하자면

一、學童의게一種以上의技術을專門케함。
二、社會의一分子的奉仕心울養成케함。
三、經濟的으로自立力을敎養케함。
四、他人의意思를尊重視하며社會의輿論에服從케함。
五、機會를利用할줄알게함等이다。

그런고로職業學校指導者는 人生의압길을指導하는責務가 잇는關係上 반다시明哲한先見이있어야할것이다。이제그들의몃가지重要한資格을論하자면

一、學童의知能率을알뿐아니라시험해서차저낼줄아는사람
二、職業學校科程一覽을科學的으로만들줄아는사람。
三、學童의家庭環境所學의習慣及最近의學蹟을아는사람。
四、交際手腕이能하며他人과協同性이有한사람。
五、職業을個人의本位로紹介할줄아는사람。
六、學童의職業成績을調査할줄아는사람。
七、敎育의對한리쐴취를할줄알며統計表를만들줄아는사람
八、敎育思潮의變遷을알며敎育界의豐富한知識이잇는사람 等이다。

(三一頁로續)

美州留學生

故國社會에對한批判과忠言

교육게에

오턴셕

(事情에因하야略함)

本國教育界에

張世雲

教育學에 專門學生아닌이로서 분수밧게 일인지도 알수업거니와 何如間 제가보는바로서는 一國內에 完全한 教育施設을 볼수잇다면 特殊教育과 普遍教育 兩方面이 併行하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무엇보다도 우리社會에서는 普遍教育에 힘을더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첫재로 日常生活에 不可缺할만한 教育을 意味합입니다。어린兒童을 教育합입니다。書堂의形式이던지 或은學校의 制度下에서던지 모ㅣ든兒童(普通教育을 밧을만한兒童)을 가르칠것입니다。어린아해에게 教育을주지못함이 맛치 어린아해에게 먹을飮食을 주지못한것과 갓다는바를 우리는깁히 깨다라서 우리는 반드시 兒童普通教育에힘쓸것입니다。둘재로 長成한이에게 普遍教育을 줄것입니다。어느다른方法보다도 夜學의 方式을 取함이 共中適合할가 합니다。엇던種類의 社會事業을爲한 團體가 잇다면 무엇보다도 몬저 그社會事業團體를 둘녀잇는 글넑을수업는 모ㅣ든 長成한이를 가르침이 第一큰使命일가 생각합니다。

特殊教育을 이두가지로 分하여 생각코저합니다。어느社會이던지 산ㅣ社會、獨立의社會가되려면 그社會가 研究하여 내힌 새로운 學理、새로운 發明等이 잇서야되리라고 생각합니다。그런것을 爲해서는 우리의손으로우리의經營으로 우리의必要한 需要를 供給할만한 우리의最高學府의存在를 要합니다。우리의 理想、우리의살길을目的한 우리의 最高學府말입니다。따라서 우리는 새로운學理 새로운發見을 가저오는 獨立研究의學者及 新發明家들을 要求합니다。

特殊教育의 둘재로 생각코저함은 或은 職業教育입니다。一社會內 全分子가 最高學府의 教育을 밧을수업슴것과 또는全分子가 다學者나 發明家가 될수업는것은事

實이겟습니다。우리의 從來의 職業들은 이廿世紀에서뒤떠러졋습니다。우리는 農業에 商業에 工業에 모ㅣ든方面에 새로운職業을 學習하여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特히 여긔서 말하고저하는바는 이것입니다。普通學校졸업한後에 約二年間동안 간단한 實際生活의 技能하나이라도 배화엇을만한 教育긔관、혹은 四五年制中等程度의 實業學校나 專門學校나 大學을 올마가기爲하여 存在한 形式을 가진 우리의 中等程度의 學校보다 더必要타고 생각합니다。特히 엇던 種類의 學校를 勿論하고 教育者의 크게 注意할배는 이것인가생각합니다。따라서 勿論 被教育者인 學生의 크게注意할點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누가만들어노흔 긔관에 쉽게 被雇傭者가 되여 그저 긔계的으로 일이나하여주고 그報酬를 바라는 그 態度를 우리는 내여 버려야 되겟다고 생각합니다。할수만잇스면 小規模의形式이라도 獨立經營者가 만히 나기를 바라는바입니다。엇던社會를 爲한團體이던지 宗教를 目的한團體이던지 엇더한主義를爲하여 存立케된團體이던지 不拘하고 우리는 小規模의形式으로라도 實踐教育을 밧은青年을 일할만한 實業긔관을 設立하여야만되리라고 생각합니다。우리의教育은 政治에서 自由를엇은 教育 우리의 살길을 爲한教育을 만들어야 되리라고생각합니다。

二九頁에서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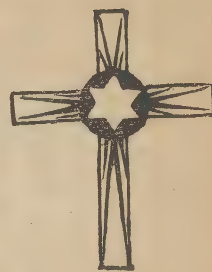
그리고 職業학교教師는 各洲官立學校畢業生으로 적어도 그所工科의 一은教育科를擇學한사람으로 二年間所工科에 實習이잇는사람으로 한地方에引導者의 資格이有한 사람이야할것이다。그리고 이外에도 職業學校校員되는길은 試驗에進及되는것이다。

五、結　論

職業教育은젊은 세월에만은 効果를收獲하엿다。그理由는 이教育制가時代와合하여 思潮의順應된 民衆을相對로한 大衆教育임으로써다。이러한關係上美國政府에서는 가장만은 後援을내리우고 各洲와地方에서는協同의손을앗기지안는다。

美國의教育制가 이압날에어대로 기우러질는지斷言키難하거니와 現下美國의教育이漸漸職業教育化되는 傾向을보면 그發達이엇더할것을 可히推測할수잇다。

(끗)



朝鮮宗教界(基督教界)에

옥클랜드教會牧師 神學士 任正九

저는 本國을 떠난지 二十五년이나 넘어서 本國事情에 어두움으로 무엇이라 말슴할資格이 없으나 우라키編輯人의 청을 거절하지못하야 두어말슴드립니다。

몬저는 길지아니한 세월에 朝鮮에서 그만한基礎를닥고 朝鮮사람의 道德生活과 文化에 막대한 영향을줄뿐아니라 唯一한 根據와機關이되고 큰勢力을일운것을 致賀합니다。特別히 南北監理가合하야 朝鮮監理教會가된것을致賀합니다。

이제 저 어리석은 意見을 몇가지말슴하면

一、예수教는 비록 西洋人을 通하여 들어왓슬지라도 우리는 잘消化하여 朝鮮사람의 宗教를 만들어야되겟슴니다。마치 本來 東洋의예수教를 西洋사람들이 西洋에갓다가 자기네 文化에 適用하고 융합식혀서 자긔네 宗教를 만든것처럼해야 되겟슴니다。이왕에 불교나 공맹교를 盲目的으로 숭상하든것처럼하지말고 우리민족의 감정과 심리와생활에 잘 適用을해서 우리民族性과 道德을 향상식히도록해야되겟슴니다。

二、朝鮮教人들은 「教會」와 教派에對한 忠誠보다 예수교의 참眞理와精神에대한 忠誠이 더만코커야되겟슴니다。

三、後世의生活을 중심삼고 그것만을 力說하고 現世生活을輕視하는 경향이잇는듯 합니다。이것을 變하야 우리個人의生活이나 社會生活을 낫게하고 完全케하야 朝鮮江山안에 天國을建設하도록 힘쓰시기를 바람니다。

朝鮮實業界에

韓昇寅

一、주먹구구의經營에서 科學的經營으로。

朝鮮사람의 實業經營은주먹구구와 짐작으로하는일이만라。다시말하면「잘되면利를보고 잘안되면그만이지」하는一種의運命的經營이라고 할수잇다。주먹구구와 짐작으로하는企業에는 豫算이업슬것이며 豫算이업는企業에는 一定한政策이 업슬것이다。

歐米의實業界에서는 所謂産業의合理化와 科學的經營이란것을 應用하야 産業의安定化를 促進하고잇나니 엇든會社에서는 一年或은그以上의 經營을科學的으로 分析하고 또綜合하야 可及的正確한豫算과 設計를作成하여가지고經營하며 그豫算과設計의約九割十五分쯤은 꼭꼭드러맛는實例가 不少하다。그래서 이러한會社의社長이나支配人들은 半年乃至一年後의損益計算書를 손에쥐이고그것을標準하야 나아간다。

나는 朝鮮實業家諸氏의게 左의멧가지를 質問하려한다

1 나의商品이 海外市場에서 얼마나消費될까?海外市場에供給하야 海外消費者의 需要에酬應하고 各國의商品과 競爭할려면 어떠케할까?하는 調査곳海外市場調査를 자세히한일이잇는가?

2 나의商品이 朝鮮全國에서얼마나 消費되며各道에서各郡에서 各里에서또는 各都市에서얼마씩이나消費되며 將次消費될것을分析하고 豫測한일이잇는가?

3 國內國外에서 消費할만한數量과 品質을알아가지고거긔에 꼭該當할만한 原料、資金、勞働及設備를하려고한일이잇는가?

4 商品의流行、物價의變遷을 자세히調査하야 記錄하여둔일이잇는가?

5 商品各個生産費(Cost of Production)를分析한일이잇는

가?

6 例를들면 京城에사는 朝鮮사람의멧割이진고개에가며 가서어떠한商品을사며 웨가며 어지하면가지안케할수잇는가?를자세히또는 게속하야硏究하여본일이잇는가?

以上은 우리가 解決하야만될 數百乃至數萬問題中에서 오직멧개만 列擧한바이어니와 現下國際的商業圈內에서競爭하려고하면 各實業에 關聯된諸問題를 科學的으로調査하고 硏究한後에 거긔合當한政策과 方法을實施하야할것이다。

二、個人的經營에서 協同的經營으로。

멧푼엇치안되는 資金과 不完全한智識、技術及經驗으로써 서로競爭하는것보다 할수잇는대로 資金、智識、技術及經驗을 集中하여가지고 外來의大資本的侵略을막고 吾人의 勢力을 內外로 發展하도록하야 할것이다。

三、國家的商業에서 國際的商業으로。

朝鮮의總輸出의 九十餘割이 日本으로가고 總輸入의七十餘割이 日本에서오니 日本貿易을 除하면 보잘만한外國貿易이업다고하여도 過言이아니다。다시말하면 朝鮮의貿易은 한나라에의지하고잇는 세음이다。따라서그한나라가 經慌을當하면 우리는被動的으로 따라가지안흘수업게된다。그런故로 朝鮮經濟의長久한 發展을計劃함에잇어서는 農商工業을通하야 國際的市場을向하고 發展하지안흐면아니될것이다。

四、實業調査機關이必要。

朝鮮의實業이 주먹구구에서 科學的基礎로 個人的에서 協同으로 一國家的에서 國際的으로 나아가는 첫階段은 調査와硏究(Research and Investigation)일것이다。朝鮮의經濟學者、實業家其他有志들을 全國的으로 網羅한實業協會갈은機關을세우고 다른나라의 外務省、農商工務省 민領事舘等에서 하는일을 조선사람은 우리의私的機關에서하야할것이다。

一九三一·二·二〇

…(끗)…





本國의醫學界(醫療界)에對하야

西北大學醫科 金裕三

留米生活 二年間에 하여노은것 또는 얻은것은 없어도 점점 本國情況을 이저버리는 것만은 明白한 事實이올시다。本國에 一日이 이때에 一個月보다 變遷이 많다하여도 過言이 아니될터이지오 이러한 處地에 잇어서무엇을改良 또는어떠케 하여야겟다는것을 말한다면 時代遲아니면 沒常識함에지나지안을 일이올시다。各郡에衛生係主任이 警察署警部補 郡醫生講習에 警部補가 首席으로 引導하는 우리따에서 改良 實行의 條件을 드러쓰기에 너무 황송한 일일것잣습니다。모든일이 社會制度如何에 依함이 만은것만은 否認키어려운 事實노서 거의가다 官廳當局에 權力主義뿐이고 社會輿論은 秋毫도 關係가없다할만한따에서는 但히表面的治療를 加함보다는 根治術을施함이 但히醫療界뿐만아니라 어느일에對하여서든지善美의域에 到達케되는 最良의治療라고생각합니다。

朝鮮男女青年界에

在米 李炳斗

本國青年男女의게 付托코저하는것은 爲先我自身의技能을確實히 測量하야서 튼튼한自覺을가진後에 慾望과立志를굿게定하고 目的을成功하는때까지 꾸준이進行하라고함이다。美洲留學을目的하고 渡來한우리青年들의 思想界를總合하거나 風便에傳하는本國青年多數의結果를들어其結果를考察하면 失敗가多數라하겟습니다。其原因은自身에技能即可能性을알지못하고 技能에넘치는大慾望을쏘차行하던然故라하겟습니다。이는即虛榮을따르며虛慾을바라봄에不過함니다

우리의修養과朝鮮의要求

西北大學土地經濟部 金壎

修養의定義

修養은엇던個人이나 或은個人들의 集合體가 엇던確實한目標를定하고 그目標에達하기爲하야 奮鬪하는길에要求되는行動을 精神的으로나 物質的으로나 實際로經驗하고 鍛鍊하는該經路를 修養이라하며 그經驗하는동안 時期를 卽修養時期라말하는것이다。그러나흔이우리社會에서는 修養이라는定義를 誤解하는사람들도 업지안이하다。그들이 말하는修養은 卽—學校에서 배우는것만을標準하며 修養時期는 卽普通學業年齡인 七歲로乃至三十歲까지만을意味하는것이다。그러나나는學校에서 工夫하는그것만을修養이라함이안이오 誰何를勿論하고 엇더한目的地에達하기爲하야 要求되는諸般實際行動을 實習하고準備하는그것을修養이라한다。그럼으로 基督敎信者가 死後에天堂을가기로標準하든지 或은天國을現世에建設하기로하든지 그目的의如何는 論할必要가업거니와 何如間天國이라는 그무엇을標準하고 날마다奮鬪的生活을作하는것은 基督敎人들의修養이라할수잇다。또우리가 잘아는天道敎人들이나 侍天敎人들의例로 論할지라도 그들의每日아참에 誠米를뜨는것이나 或은淸水를모시는것은 卽輔德天下廣濟蒼生保國安民의目的을達하기爲하는 誠意的修養이라볼수잇다。또一步를더進하야 近代印度革命에 重要人物인『간디』氏로 論할지라도 每日새벽에이러나서 祈禱하는것이 卽—自己의目標인革命運動을 成功하기爲하야 精神과힘을一點에集中하려는修養이라할수잇다。그럼으로 修養에限하야서는 年齡의多少를論할것업시 누구나를莫論하고 엇더한確定한目的을達하기爲하야 반드시要求되는修養을 밧지안으면안이된다

修養의必要

以上에論한바와갓치 修養은即ㅣ 엇더한目的을達하기에要求되는 實際行動을몸소見習하고 實習하는것이라하엿다 그러면그實際的行動이 엇더케目的地를達하기에 必要할가하는몃가지를 簡單히말하려한다。우리가歷史上으로 잘아는바와갓치 上古나中古時代에잇서서는 人類生活이現代와갓치는 複雜하지안이하엿음으로 各個人이 能히그쌔사람의常識으로도 生活上에接觸되는 諸般問題를容易하게解決로하엿고 또무삼特別한技術이나 專門的修養으로 解決할만한難問題도稀有하엿다。그러나漸々人類生活이 複雜하여오는現代에잇서서는 적은일이나큰일이나를 論할것업시各々그事物에짜라 該當한技術과修養을要求하게되는것은 各々그方面을짜라 技術이다른까닭이다。녯글에『玉不琢이면不成器요 人不學이면不知道』라하엿다。다시국문으로解釋하면 玉과갓튼貴한寶石도 鍛治人의손에 鍛鍊을밧지못하면 價値잇는그릇을 일우지못한다는말이다。다시말하면天才의人物이라도 갑잇는修養이업스면 高尙한人格을일우지못한다는말이다。그런故로 政治家나經濟家나 宗敎家나文學家나、엇더한方面을勿論하고 各々그方面에該當한修養이잇슨後에야 該方面에얼마만한成功이잇는것은 現代人類社會에서는 避치못할事實이다。이러한意味에限하야 政界로나 經濟界로塗炭의路에서 떠나지못하는朝鮮에限하야서도各々그方面을따라 專門的修養이업지못하게必要하다。그럼으로 假令朝鮮經濟界를 復興하기에目的한다면 朝鮮經濟에對한 實際的經驗과技術에 修養이업스면안이된다。 따라서政治나文學 或은宗敎方面에 復興을힘쓰려면 亦是彼等에對한修養이 업지못할것은 區區히더理由說明을 할必要가업는듯하다。그러나 修養이라고 다必要한것이안이다。時期와處地에짜라서 엇더한修養은 엇던特別한民族에限하야 必要도잇고 또엇던修養은 도로혀弊害를주는例도업지안이하다。엇던個人 或ㅣ廣範하게말하면 엇던民族의그處地와形便에짜라서 必要한修養을 힘쓰고힘쓰지 안이함에修養에價値가잇고업는것을 評論할것이니 다시말하면朝鮮사람된우리는 우리의處地에 가장適宜한分量과必要한修養을밧지안으면 우리社會에何等의益을 供給지못할것을確信한다。

朝鮮이要求하는修養

前欄에論한바와갓치 吾人은朝鮮形便과處地에準하야 또는朝鮮이要求하는 必要한修養을밧어야될것은 現明한事實이다。그러나우리中에는 種々우리의處地를忘却하고 他人의處地를基點하야 修養을밧는사람이 不小함은 크게遺憾되는境遇이다。朝鮮사람으로 무엇이던지美國或은英國 또는佛國사람과갓치 物質力이富裕한사람들의 處地를標準하야 修養하려함은 얼마나不幸이안인가한다。그理由는 우리朝鮮사람은 物質의힘이나 또産業에對한技術이 아직까지도彼等과同位에 立할수업는까닭이다。世界的으로名聲이

숩혼印度의『간디』를觀하라 그는洋服을입을만한價値가업는바도안이고 또洋服生活을할만한 人格者가못되는것도안이다。그러나 수수ㅣ한印度服을닙고도 今番英印平和會議席上에서 世界에서쑴에도 生覺못하든印度人製鹽權을엇지안엇는가? 여름더운날에 京城鍾路邊方으로 白『셰루』洋服을닙고 흰掌甲을손에씨고『쩬틀맨』거름을하면서 彷徨하는것이 勿論最新流行式인지는 알수업거니와 飢寒에배를주리면서 이골목저골목에 기운이업시쓰러저잇는우리父母兄弟姉妹들을 生覺안이할수업는 우리朝鮮사람의形便으로 넘으나남의流行式을 따루는것이 處地에넘치는行動이안인가 두려워한다。우리의修養問題도 이와다름이업다 모든것을實際에서 脫線되여 空想的으로만한다면 아마도우리가 現在當하는處地는 免할機會가업슬듯하다。그러한意味下에서 나는이제朝鮮이要求하는 몃가지修養을紹介하려한다。勿論무삼方面으로나 不足함이만코 넉々함이적은今日吾人의 境遇에限하야서는 여러가지修養에 要求될것이다。그러나 가장절실히必要되는修養은 自立犧牲及實行等세가지修養이라할수잇다。特別히今日에잇서서 學窓生活을眞嘗하는 우리朝鮮學友一般은 무엇보다도 自立에對한修養이 더욱必要하다。임이苦學窓에서 肉身勞働으로千辛萬苦의씁々한苦焦를밧으면서 工夫하는學生은 勿論이어니와 普通內地에잇서서 直接父母의助力을밧아 工夫하는사람들은 무엇보다도物質方面에限하야 自立性이薄弱한듯하다。勿論貧寒한苦學生의 處地로서、物質力이豊富한 有產級의學友들을對할째에는 欽羨하는生覺도 업지안이할것이다。그러나 將來生活의眞路를 開拓하려는 點에잇서서는 도로혀自身勞働을하면서 苦學하는學生이 크게幸福이다。그理由는 苦學生은學校에서 工夫도하는同時에 社會生活에直接々觸되야달고쓴 여러가지經驗을 親히맛보는싸닭이다。特別히美國苦學에잇서서는 일즉붓터 內地서苦學의經驗이잇는그들의게 成功의機會가 만히잇는듯하다。이러한單純한例로 觀할지라도 自立性을일즉붓터 修養하는便이크게必要할쑨만안이라 現代朝鮮社會와갓치 經濟力이薄弱한社會의靑年의게는 將來生活을開拓하기에 唯一한武器라고볼수잇다。그다음에는 犧牲的性格을修養하는것이 더욱緊要하다。現時朝鮮人의處地와갓치 一個人이一個人의責任만 生覺할수업는形便에잇서서는 무삼方面으로 朝鮮社會를復興식히든지 犧牲的精神으로하지안으면 前途의希望은暗黑할것쑨이다。우리가普通으로生覺하면 物質의힘이豊富하고 高尙한智識이잇으면 社會事業을할수잇고 또個人의慾望을떠나 다른사람을爲하야 物質的으로나 精神的으로나 넉々한同情을表할듯하나 이것은一個空想에 不過한것이다。이世上個人의慾望은 우리가想像하는바와는 判異하다。特別한人格을除한外에는 普通사람으로는 物質의勢力이豊富할사록 또는高尙한學識이잇을사록 다른사람을爲하야 犧牲하려는生覺이薄弱하다。다시말하면 彼等은犧牲에

對한修養에 不足하다는것을뜻함이다。本國內地에잇는學友들은勿論하고 特別히日本이나 北美學窓에서 지나는우리學友들은 무엇을學習하든지 各々배우는方面을따라 배우는모단것을 朝鮮化하려는犧牲的精神이업스면 우리의배우는것은 朝鮮社會를爲하야 價値를줄수업는것이다。稍小한例로觀할지라도 假令日本留學을한사람이나 或은美國留學을한사람이 朝鮮社會에돌아와서 무엇을經營할때에 日本人의程度나 美國人의程度에標準하야 일하려하면 그것은크게狼狽이다。朝鮮俗談에 量衿纒足이라는有名한말이잇다다시말하면 寢具의長短을헤아려 다리를펴야된다는말이다그럼으로 우리는日本이나 美洲에서 엇더한高等生活을하엿든지 또엇더한高尙한 學術을專修하엿든지 朝鮮을돌아온以上 또는朝鮮社會를爲하야 일을經營하는以上에는 現代朝鮮社會의處地와 形便에適宜한分量과 態度를取하지안으면안이된다。그러케하려면 무삼方面으로나 犧牲的修養이업시는 엇더한時機와思潮에ᄭᅳ을녀 熱情으로무엇을始作은할수잇으나 時期와思潮가 差換될때에는 落望의길노도라가기쉬운것이니 過去우리社會事業에 失敗가多部分은이와갓치 犧牲的修養이 不足한一大原因인것으로 나는觀察한다。마즈막으로 우리의게重要한修養은 實行的修養이라한다。하기쉬운말이나 쓰기쉬운글字로는 우리가무엇이나어려울것도업고 成功도容易할듯하나 實行에잇서서는 그表現되는行動이 實際에서넘으나멀다 적은일이나큰일을論할것업시 實行은即ㅣ그일을成功하기에 第一階段이라볼수잇다。些小한例로볼지라도 飮酒하는사람이 酒毒에羈絆되여 苦痛을當할때에는 다시酒盃를손에들지안키로 盟約도하지안는바는안이다。그러나그날이 새기도前에 또다시前日에들엇든 酒盃를잡삭는것이다。

이世上모든問題는 이와彷彿하다。그럼으로特別히 學生處地에잇는 우리一般은 몬저이點에서覺醒하야 學窓에잇을때봇터 實行的修養을힘쓰지안으면 將來朝鮮社會를爲하야 營하는모단것이 空想이안이라면 虛地로歸할것이 明瞭한事實이다。그럼으로以上에말한 自立性과犧牲과 實行性세가지에對한 修養에限하야는 더理論을붓칠것업시 爲先우리一般個人봇터 날마다이에對한修養을 圓滿히힘쓰고안이쓰는結果에따라 將來朝鮮의新建設이잇고 업슬것뿐이다。(完)





農村社會組織에對한要素와그方法

友壤生

먼저 이적은 論文을 쓰기前에 筆者는 두어말로써讀者諸氏의 諒解를 엇고저한다。그것은 다름이아니라 世上에 만흔學者나 社會運動者들이 입의 이協同하고組織하여야된다는問題에對하야 만흔言論의 發表가잇엇다。그럼으로 이問題에對하야 우리는 普通理解를가지고잇다고하겟다。그러나 筆者가 다시쓰랴고하는것은 都市的社會團體組織의必要를 見地로함이아니요 農村振興을見地로한社會團體組織의 必要와 그方法에對하야 서로意見을交換코저함이오 따라서 그方面에 生覺을두시고 活動하는同志들께 多少叅考가될가하야 이적은글을쓰오니 이點에對하야 讀者들은 諒解하여줍소사하는것이다。

一

사람이란 항상 더조흔生活을 하기爲하야 努力한다。이더高尙한것을 爲하야 努力함으로써 人生에價値가잇다고할것이다。그러면 이『더조흔生活』이란 무엇을뜻함인고。即「安全」을말함이다。이「더조흔」또한「安全」이란決코 分裂과孤立한狀態로서는 今日과가튼 經濟制度나社會組織原則下에서는 更現키到底히 不可能할것이다。그러면 우리生活이나 社會를維持하랴는데는 반드시 組織이잇서야할것은 否認치못할事實일것이다。이組織을 잘하고못하는데따라 우리 生活에 高低가生기고 衣食住에足과不足이生기게된다。그러면 이組織이라는것이 얼마나큰關係를가진것과 또한우리生活을左右하는 큰要素인것을알것이다。이組織的社會生活에는 爭鬪와 分裂이적어지며 團合과 發展이새로운文明을産出하게한다。따라이러케되는것이또한 우리社會組織上原則이라한다。웨그런고하니그것은即우리의 同一한 目的인 利益과 興味의 欲望을 이協同的 社會組織을 通하야 達할수잇는故로 그러함이다。

그러면 이組織體를實現하랴는데는 이에對한 要素와 方法이잇슬것이다。이方法은 決코 一定不變할것이아니라반드시 時期와 環境을따라 變하여야할것이다。

二

어느 農村社會를 勿論하고 그發展을爲하야 社會組織을하랴면 반드시 먼저 그農村社會의 沈澱狀態的缺點과 衰退의原因을 充分히 調査케하는 公共團體의行爲가 必要할것이다。이公共團體에行爲이란 그地方에 一般的必要를늣김으로써 그民衆의多大數가 共鳴하야 한社會組織을 實現키爲하야 助力하자는 一般的承諾으로 된것을말함이요 決코一部民이나 數個人을 標準한 그것이아니다。이 原因調査를따라 發展策을 講究하여야할것이다。그러나이 團體 또는組織的行爲가 在來와갓치 前例나 또한隣村을 標準하여서는 아니될것이다。그러면 엇던方策을 採用할가?이것은 即科學的硏究를 基礎한 新陳代謝가빠른 分類的組織體가되어야 하겟다。밧구어말하면 公同協助的精神下에서 行政的行爲를하는 農村社會를本位로한 農村社會組織體가 되어야하겟다는말이다。그러나決코 그대로他處地方을따르거나 虛榮化하지는말자는말이다。무슨말인고하니 우리의在來的農村或은 都市社會運動者들이나 그組織體들이 그들의本意인根本精神을떠나 或은一般化가되거나 그럿치안으면 다른方面으로 關係를맷는다。그럼으로써 根本目的이든 그것에는 充分한 努力을하지못하게됨으로 그組織體나 또는指導者들은 信望을일코 따라失敗에이르게된다。現人類社會는分業的社會이다。그러니 따라 우리도 分業的活動을하여야되겟다。即甲農村의 發展을爲하야 事業을하랴거든 반드시 그農村社會의 振興을爲하야 全力을할것이요 따라서 반드시 그甲農村을爲한 指導者가되는말이다。그러나 決코 乙이나 丙農村을爲한事役者가된다거나 또한宗敎運動者나 政治運動者勞働運動者가決코되지말며 甲農村을本位로한 指導者나 또는事役者가되여야한다는말이다。따라 그組織體도 반드시 以上과 가튼 政策으로 進行하여야될것이다。

三

農村社會發展을 爲한 組織에 반드시 잇서야할것은『남의게 依賴치말자』는精神과『獨立心을갖자』는것이다。例컨댄 다른階級이나 社會에서 同情하야 組織과 指導者를供給하야 둔다할지라도 그農村全體로보와서는 別로振興에效果를볼수가업슬것이다。或部分的으로는잇다할지언정 웨그런고하니 그들의立場이 다름으로解釋이 다를것이오 解釋이다름으로써 그地方의切實한要求와 必要를잘모른다는理由이다。그런後에는 그組織에對한目的과 政策을鮮明히一般에게 發表하야 그組織에對한農民들의維持力如何를 따라 그組織의 範圍와 政策의程度를 定하여야할것이다 農村社會組織에 업지못할것은 出版機關이다。이規模와範圍는 勿論 그地方의力量을標準하야 設置하되 決코 大

規模또는 工場的 設備를要치안코 실상 이것이不必要하다。그러니 이機關은 아조小規模 或은謄寫機的形式을取하여도조타。그러나 이것을通하야 적어도月刊 或은節刊卽一季節間에 一二次式은 發刊하여야할것이다。이文體와範圍에對하야는 아조純朝鮮文으로써 通俗的또는會話的文體로하되 반드시 그地方을 中心으로한 產業發展策에對하여서나 또한그社會組織體事業의影響如何에 對한 닯은公衆意見과 批評을 들으며 따라이것을主題로하야 懸賞募集도하여야할것이다。그다른方面에잇서서는 이것을通하야 讀書力을奬勵하며 따라 文盲退治에 努力하여야될것이다。또한方面에잇서서는 農產物에對한 市價와 農村需要品等의 價格을紹介하며 副業을奬勵하는等 적어도農民으로하여곰 節季를따라 그穀價에變遷을알니게하여야할것이다。

四

農村社會를 組織함으로써 적어도 一般民衆的集合이節季를따라 잇서야할것이다。이러한機會를맨들기爲하야 그地方農產物品評會 野遊會 民衆討論 或은講演會 村民運動會等을그節季를따라 一定한時日을擇하야 이날은그地方民衆的休日을삼아 一般에게 社交와和親을奬勵하며 그農村振興에對한 一般的意見과 그方略을 討議하며 體育等을奬勵하야 그社會에對한 相互協助心과 團合의精神을이러한機會로하여곰 더욱더욱 養成케할것이다。사람이란社交的動物이매 接觸이 不足하고 孤立한狀態에잇스면 恒常만흔誤解와 分離와孤陋가生기는것이니 우리는늘 接觸하는 機會를 만드는데 努力치아니할수업다。以上에 記한바와가튼 一般的集合과 社交가잇는社會에는 和親과相互扶助가잇스며 相互扶助가잇는社會에는 굳은團結이生기나니 이굳은團結은모든 外敵을能히막을수잇는지라。이러한團結의 大部分인 農村社會를通하야 連合된다면 그外敵이무서울바업스며 따라이團結이 連合된 그때가 卽우리의新活路엔줄로 밋는바이다。天下의同志여! 엇지 우리가 이것을 輕視하며 努力奮鬪치안으리요。

(筆者多少具體的으로 生覺한바잇사오나 時間과紙面上關係로 今番은 이것으로써 그概念만 말한形便이요 充分히 記述치못하엿스니 理解하여주시기바람니다)





宗敎敎育運動의展望

뉴욕大學 鄭 一 亨

1、敎育의本質

교육의目標는 종교가 人間의不完全을 前提로함과같이 彼敎育者의『未熟과發展性』을 大前提로하여 智德體의원만한발육과 아울러 善良한社會成員인 완실한市民으로써의責任과義務를다하는 全人을만듬에 그意義가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上古의敎育史를 삷혀보면 人文의발달을 보지못한 그時代에는 인류의一切生活과理想이란 젼연低級의 종교적思想에 拘泥와속박을받어 교육도 純然한종교교육이엿으니 말하면 猶太民族의 神政政治時代와일본의祭政一致時節과같은것이 그適例일것입니다。文藝復興의 불꿋은 마츰내교육界의 근본적動搖와 새롭운革新을던저줌이잇섯스니 即敎育哲學의 급격한변화와革命은 극端의 唯智主義로의進出을 보게된것임니다。崇文思想의遍滿은書적本位인 劃一的反復的暗頌과反復을 일삼으며 社會의上層에 올아안저 慕古主義的인 非現實的 非合理的現實遊離의生活에 스사로만족하며 도취하여 實際性을 떠난古典敎育에 그意義가 끝이고 말엇읍니다。

그러나 유롭의大戰役이던저준 참담한人類文化의瘡痍와 損失을앒으게도맛본 二十世紀의爲政家와 교육家들은 그原因을 숀쉰히 독일에돌리든 그固陋완명한 생각을버리고 冷정히머리를도리켜 연구에연구를거듭한결과 마츰내는 敎育原理의 一大矛盾을 통감하게되며 밋自己들의主義의前非를 晩覺痛悔하게된것이니 즉德育교육의缺陷과等閑함에잇섯다는것을 찾어낸것입니다。

그렇읍니다。主智主義와强者敎育은 마츰내 長足의진보를 보게됨같이 그들은皮相的文化의발젼과 人文의非常한발달을 極口禮讚하엿것만두『人間의德義心의養成』과『道德的情操의涵養』에는 젼연도외시할뿐이아니라 一時는 無用論과 廢止論이 대두하여 한때는 이방면으로는 小致의宗敎界의計營인 私立학원에서만이 현상을유지케되든 悲運도없지가않엇읍니다。보서요 이교육과哲學은 帝國主義國家와

近代非合理的 資本主義社會의形成을촉진하게되엿으며 高등한學府의出身일스록 지식水準이낫은이를대하는 優越感과 非人格的대우란 形容에絶한바잇엇으니 兵權과兵力을빌어 殺戮을일삼으며 搾取를恣행함이 그들의道德的良心에何等의가책은커녕 當然以上의당연한 도덕적正이라는것이 信條이엿으며 어찌타 오늘의社會의悲絶慘絶한人間의不幸과悲劇이 이교육철학의 所産이요 고맙지안은恩典이아니라고하랴! 이교육制度의 참담한犧牲과 남다른祭物이된 우리로써는 이에 어떠한 敎育的態度를 取하여야할까가 또한뜻잇는 젊은이들의 當面한문제가 아니랄수도없을것입니다。

2、新敎育運動의勃興

一七一七年입니다。普魯西王 쁘레드릭웰리암陛下의 義務敎育制令의發布를爲始하여 一八八二年三月二十八日에는 佛蘭西의敎育令이 발포되고 一八七六年에 英國이 또한敎育令이通過되며 뒤를니어 北米合衆國에서는 매쓰추쉐쓰州가 솔선하여一八五二年에 敎育令의 發行을보게되며 一九〇八年에 完全히 義務敎育制度의實旋가됨과같이 不幸이도 교육의統制와管理權은 民衆에게서 小數의統治群의 掌中으로 移管으로보게됨과동시에 多少의차이는잇섯슴이사실이나 要컨댄 충실한帝國臣民양성에급급하며 浸略戰線의驍將鬪士養成과洗練을 뜻하게되엿으니 噫라 弱少民族의 無理한抑壓과 잔인한殺戮인들 사양하며 世界의大戰에도 어찌죽엄을 긔탄하엿으랴!

여긔에 비롯오思想가와 憂國志士를위시하여 종교가교육가들이 머리를모둡고숙고 침려한결과 敎育의改造와革新을 부르짓게되엿으니 이것이 즉 宗교교육의 新敎育운동의 旗발을 다시天下에 내세우게되여 『德義心의培養』『道德的情操의涵養』『德性의蘊蓄』等가즌標語와슬로간을 내세우고 雨後竹筍같이니러나며 世界的으로이運動과부르지즘을 듯게되엿읍니다。

宗교교육의 實現促成운동과 期成운동의부르지즘은 世界를通해듯게되엿으니 北米에서는 一九二〇年正月廿九日미조리州 센트루이스城에서 開催되엿든 各긔독교파聯合主催인 主日학교協議會의議決과같이 民間學府의 宗敎敎育講座 실현촉成과 밋指導者養成의件의 통과를보게되엿으며 일본에서는 大正十五年十一月에 帝國敎育協會主催下에개최되엿든 全國小學校大會와 昭和二年五月神戶에서열리엿든 全國小학교女敎員大會에서 小學兒童에게 宗敎的信念의基礎를 培養할方策如何』를 討議하여 四大議決案을보게되엿으나 紙面이不許하며 또한文獻을가지지못하여 이에省略커니와 有意한讀者는 筆者의拙稿인『宗敎敎育의歷史的意義』月刊雜誌青年紙所載이온데 一九二七年十月十一日十二月號)를參考하소서。

3、北米의宗敎敎育運動略史

이나라의 종교교육운동은 나라를세우며 憲法을宣布하든 一七八九年봄 그때를 歷史的起源을 삼어야할것입니다마는 오늘의 많은史學家가 가르켜줌과같이 우리는 北米의력사를말할때 歐洲의文化的背景과 歷史的連鎖도 닛어서는안될것입니다。

十八世紀 영국에서 널어난淸敎徒의 종교的迫害와無理한壓迫은 마츰내그들의종교的自由와 良心의獨立을높이부르짓고 몸을돌려 바다의복음과 大洋의困惑을맛보며 天惠에富한 自由의天地를 巡禮케되엿읍니다。원치가 종교적자유와 信앙의독立을위해 이땅을찾어온 그들은 子與任에게 종교교육에 專力하여 爾來 數百年도 다못된오늘에 宗敎國으로써의 黃金期를맞이하게된것도 우리가周知하는바라 여긔에贅說을不要할것입니다。

이제百五十年도 다못된 北米의敎育史를 四期로分期하면 第一은歐洲에서의 宗敎敎育時、다음에는 一七八四年으로一八六〇年을一期로한 純全한基督敎統制下에서 敎育이管轄되든時代ㅣ第三은一八六〇年으로 一九〇〇年까지의公立학교와 종교교육의分離를보게되든 敎育史의黃金期요마즈막에는 大戰以후 所謂新敎育운동의提唱과 實現化時代인 四大期로分期케됨니다마는 紙面이不許하여 오직第四期의積極的運動과 展望만올紹介코저합니다。

甲、最高學部內의運動

미국에서 굴지하는 最高學附는 거의多數가 그創說의目的을찾어보면 宗교교육에잇음을 보게됩니다。一六三六年에 大학으로써의始祖인 하바드가 純全히 敎役者養成을目的하고 設立되엿으며 連하여 웰리암메리大學이 一六九三年에設立되고 一七〇一年에 예일、一七五四年에現콜럼비아大學의母體인 킹스大學等의 無數한大學이 東部를中心하여 設立開講을보게되엿습니다마는 各學園의目的은 一律的으로 宗교교육에 끈인바가잇엇으니 이제讀者諸賢의參考에供키위해 現콜럼비아가 創說될때 뉴욕新聞紙上에公布한 大學術 그目的의一節을 譯案코저함니다。

> 第四條 本校의根本精神은 今日의子與任에게 聖基督과같이게신 하나님을 가르키며 또한 알게함에잇으니 그들이 能히 하나님을敬畏하며 奉仕하는健全한社會人의 養成을企圖함……云々

乙、洲立大學과師範敎育

歐洲의帝政敎育과 浸略主義의敎育은 필래北米의學界에서도 一大자극과영향을 던저줌과동시에 自家의빛나는資本主義국가로써의 黃金夢을 꿈꾸는所謂憂國志士들은 머리를모둡고 敎育制度의革新을 英斷하게되엿으니 州立大

학設立과같이 軍事敎練과師範교육制를쓰서 그들의 힘잇는前衛兵養成에 注力케된것입니다。

一八一九年에 버지니아州立大學의 設立을보자 그翌年에 인듸니아州立대학이서게되며 一八二一年에 칼로피아北道의 州立대학이며 連하여一八三一年에 알라바마州立大學의創設을보게되엿읍니다。미슈간大學이된지未久에 一八三八年에는 블론트州立大學等의 實現을보게됨과같이敎育의統制權은 漸次로 省政府가 移管直轄케되며 實로帝國主義式의敎育은 長足의進步를 보게되엿읍니다。

丙、宗敎敎育과講座

沈滯期에든 傍系敎會大學은 大戰前까지에는 現狀維持의枯息之策으로 舊疊을死守하기에 努力하다가 人類生活의 一大轉機를지여준 구라파大戰의 風雨一過와같이 아메리카의 敎育界에도 一大속크와 민革新의불꽃을 던저주게되엿으니 그結果는 省政府의直轄이든 師範敎育制의專業制度를拒否케되며 同時에敎會大學에서의 師範生養成을 提議實現을 보게됨이웨다。이宗敎敎育을 基準으로한敎會系師範生들이야말로 精神교육에 留意하여 아동의德義心의養成과 道德的貞操의涵養인 品格本位의敎育主義를쓰게되엿읍니다。이제敎會大學의宗교교육 講座調査研究의一瞥에依하면 特히現뽀스톤大學宗敎敎育科長 아덴博士의論文一節을引用하면 一九一五年度의 氏의調査發表에據하면 百四十餘大學內에서 宗敎敎育講座를두고 指導者와師範敎育에努力한다는데 그中七十六校가 大學協會의承認校은 二十校가州立大學이요 六十二校가 特殊敎會大學이오十四校가 純然民間雜種大學임을 發表하엿읍니다。이것이十六年前調査임으로 무론未確한統計입도사실이나 이에서우리는종교교육講座가 오늘의著明한 北米大學에서는 開講치안는곧이 업다는것과 盛히 全國的으로의 新敎育운동이라는것만은 알고남음이잇습니다。

4、神學校와宗敎敎育운동

신학교에서는 전연牧師양성과 神학專功에만 그究極目的을삼어오든 北米의 神학교는 그舊夢을啓한치오래고 오늘에는 著明한神학校인 예일 뉴욕 프린스톤 시카고뽀스톤 西北神학교等이 솔선하여 新時代宗敎家로써의 指도群의養成을 목표로한 宗敎敎育강좌의 開講을보게되자이運動이全國的으로 共鳴呼應된바잇어 거이神학교에는單科로써의 新神學校運動이 되고말엇읍니다。

5、單科大學과學位

一九一五年前까지는 시카고大學과 예일大學에서만이宗敎敎育論文으로써의 哲學博士와 敎育學博士學位의 授與가잇엇읍니다。一九一一年爾來 콜럼비아敎育部에서는 協成神학과 聯絡을지여 學位授與가 잇어오앗으나 一九二

二年에 코教授가 協神을辭退하고 일니옷氏를繼承하여師範大學의 專任敎授로써의 榮轉과같이 宗教教育部의創說을보앗으며 할트포드에도 요한박사의指導下에 宗教教育科가 單科로써創設을 보게되엿읍니다。

가。 뽀스톤宗教教育大學

一九一一年 大學命에依한 四年制大學을 設立한뽀스톤大學神學部內의 宗교교육科는 一九一六年 前西北大학교슈 우리찰드敎授이하 斯界의泰斗를망라하여 적극적擴張과革新은드대여 一九一九年에 完全한單科大學으로의設立을보게되어 이것이 北米最高學府의 單科大學으로써는嚆失인同時에 一種의特殊職業 大학의新起源을짓게되엿읍니다。 宗교교육의學位도 무론다른단과大학과같이 學士碩士博士를수여하나니 뽀스톤大學 第一回의宗教教育學博士는 現뉴욕神學校學監인 빠크만氏가 처음으로 授與되엿으며 現今에는漸次로 종교교육學位授與가 各大학에서 盛行함을보게됨니다。

나。 宗教敎育운동의姉妹學部

종교교육의 자매學府가잇으니 즉各저명한大學으로中心으로한 特別宗교교육의機關이니 例하면 일리노이州立大學內 잎슬레財團이 그好例일것입니다。 只今으로二十三年前 現우리나라監理敎監督인 뻬이커박사의創案으로 大學生들의宗敎生活과 도덕敎育에留意指導하는 特殊機關이니 一時는 물결치는 財政難과 民衆의沒理解로 存廢의悲運에헤매다가 同博士의誠悃과 분투는마츰내 奏効하여 一般의聲援支持를받게되여 一九二一年 二月十一日로써 宏壯한建物數棟과 아울러 同州立大學의 正式承認을받게되엿읍니다。이것이 大學과聯鎖가되여 宗教教育을指導하는機關으로써는 新記錄의 하나입니다。

이밖에도 Y.M.C.A、Y.W.C.A、에서도 가즌方法과努力을귀우려 종교교육운동에 注力하나 그들은夏令會나野營生活과 圓卓會議式等에 그形式이 끝입니다。

다。 斯界의權威

北米의宗教教育界에서 理論으로나 事業으로써 聲名을博하는이가不少하다 그中著名한이로써는 예일大學에 와이글敎授를始하여 시카고대학의 조아르스敎授 콜럼비아大學의 코박사 뽀스톤大學의 아덴 西大대학의 빠츠敎授紐育大學 혼博士 시카고에本部을둔 宗教教育協會研究室에서 근무하시는 따잇氏와 그外 우리찰드敎授와 빡만氏等도 屈指의人物이며 斯界의名星임도 不誣할事實인가합니다。

5、宗교교育의意義

종교교육이란 무엇인가? 여긔에 우리는 그근본目的과意義를 잠시闡明할필요가잇습니다。 識者層에속하는이로써도 종교教育이란 긔독敎나 又는特殊한종파의宣敎를위한 新方案이아니면 在來式敎會本位인 日曜학교의改良으

六〇頁으로續



善惡의觀念論

李廷斗

우리는 宇宙의包含된物質이 自然現象의 그대로存在함과 陶汰의變化狀態를認識할수잇다。物質의自然現象이라함은 本來의物質 그現象을말함이요 陶汰變化라함은 人爲로나 或은其他의 被動的作用을受하여 本質의現象이損失될때를云함이다。

善과惡을論함에 우리는먼저 自然界의그物質이 本來善으로搆成되엿나 或은惡으로搆成되엿나함을 論究하여볼必要가잇다。聖經을叅考하면 自然界는 本來善으로 搆成된것이라고말할수잇다。하나님은 本來善하엿고 그의게는 惡이없엇다

或是惡의存在를 認識하엿을지라도 千不當의 憎惡物이엿을것이다。그의게 善의實行과 敎訓(暗示)은잇을지언정 惡의實行은없을것이다。善은하나님과 合致할수잇고 하나님은 善의根原이요 또는創造者라하여도 無妨할것이다。造物主가 하나님이라하면 宇宙가創造時부터 善하엿을것도疑心없는推論이다。同時에 우리의推定은 惡이本來自然界에包含하지안이하엿음도알수잇다。

萬一造物主의 創造物인宇宙가 善으로搆成된것이라하면 種種우리 人間社會에서實行되는 惡行과 罪惡의根本은무엇일가。하나님의손으로된 우리人類도 每日멫번식은惡을實行하고잇다。萬一이惡의根本出發點을 神의創造界內에서 不可探得이라할진대 惡으로만搆成된 또다른別世界가 어대存在하여잇을가? 그것은 너모나窮僻한理論이다。惡으로만搆成된世界는 잇을것이라고 밋어지지를안는다。或是그것이잇다고 假定하드래도 우리人間이存在하여잇는이世界에까지 傳播될理도萬無할것이고 何等의關係를認識할수도없을것이다。最初하나님의 命令을拒逆한者는 天使이엿다。그는하나님과 同等의權利를얻기를試驗하려하다가 地獄으로墜落되엿다。그것이 곳魔鬼가된것이다。魔鬼는 惡의根原이다。그럼으로 善을憎惡하고 善者가惡者化함을좋아한다。다시말하면 天堂이善의根原이라하면 地獄은惡의根原이될것이다。然이나地獄이 宇宙의一部分이안인同時에

自然界物質에 何等의關係가없을것이다。 더욱이 天堂이라 地獄이라云하는 우리의推想的 未來世界를論하여 理論에 適合하도록試驗하려함은 너모나慌唐한일이다。

다시聖經解釋의 善惡根原을論하면 善의根原은 하나님이요 惡은 아담과예와로부터 始作된것이라하겟다。 아담과예와는 人類의始祖이요 또人類의最初犯罪者다 (惡과罪는不同한者이다 그러나罪가惡의하나이다면 矛盾은없을것이다) 그가犯罪하기前까지는 善人이엿고 또한罪惡의存在는 夢想도못하엿을것이다。 하나님의마음과 하나님의형상을타고난그로 에덴樂園의門으로부터 追出을하든그때로부터 煩悶、苦痛、憎惡、罪惡의界를認識하엿을것이다。 그로부터 그들은 生死病老가잇는 人間苦海에떠러지게된것이다。 그들의旅行은 善으로부터 惡에至하엿다。 惡이決코에덴樂園이나 그들의內心에 本來隱在하엿든것은아니다。 惡의發現은 善의變化的結果、或은善의變化的反對表現物이라할수잇음도 어렵지안은判斷이다。

大體宇宙의物質이 自然現象그대로 存在를許諾할時에는其物質은 永久한 善의位置를保存하여잇는것이다。 萬一그存在하여잇는 根本位置가 被動的作用을蒙하게될때는 加•減上•下의變態를 惹起하는것이다。 即其善의卷圍를脫外할때에는 惡이到來하는것이다。 惡外에 善과同等 또는 上•下되는무엇이 없음오로써이다。 故로 道德上이나 哲學上이나 理論上 善惡兩者를討論할때 善의卷圈을脫外한者를云함에惡이라 推定할수잇을것이다。

以上에論한바와如히 善이被動的反對作用을受할때는 惡이到來한다고하엿다。 그러면 그被動的作用을 行爲하는者는무엇인가? 其作用은 自然的法則을脫하여 何種의創造的 或은故意的行爲인가? 이에答案은以下로미루고 左右間 惡은第二段的結果이다。 惡을結果한者는 意志요 또는行爲 (Will or Conduct) 이다。 그러면 其意志니 行爲이니하는 그것의前有한 根原은무엇인가? 여긔答案을命하기는어려운일이다。 그러나 以下의說明中에서 發見할줄밋는다 그것은 說明으로 무어라形言할수없는가 없지아니치는안을것이다。 우리의論理中에서 分明히知得할수잇는것은 다못 그第一意志또는 行爲가 第二의作用을產出하엿을뿐이다。 그것은 即惡이다。 그럼으로第一意志의 歸着點、出發点은認識키難하면서도 그의第二의結果인惡은 認識할수잇다。 同時에우리의推論은 어렵지안케 그惡이란根原이別有한것이나 또는本來自然에包含하지안엇든것을 推測할수잇다。 萬一本來自然이 惡을包含한것이라면 疑心없이 其第一意志는 自然으로부터誘引된것이 明確할것이다。

「善은意志의實行」이라고 칸트는말하엿다。 萬一그것이矛盾없는正解라할진대 그와同一한歸納法으로 惡도또한意志의實行이라고볼수잇다。 然而其善惡이共히 意志의實行에서 根本됨이라고 假定하여보자 그러면 그故意를執行한第一意志 그것은무엇이며 어대로부터傳來한것인가? 萬

一그것이 自然으로부터 被動된것이라면 自然은善과惡을 共有하엿을것이다。이것은 上述한바와如히 自然은惡을包含할수없는것이며 善으로된것이다。善惡이宇宙發生時부터 共有한것이라면 우리는第一、其善惡의各量을 推測할수없다。萬一惡이善보다 優越하엿드면 宇宙는 惡의宇宙이엿을것이고 自然은惡의自然이엿을것이다。萬一善惡이同等하엿다고假定하면 우리는宇宙에善惡의存在를 認識치못하엿을것이고 따라自然界로부터 우리人類는當初善惡의觀念을 想像치도못하엿을것이다。맛치天文學上 太陽을中心으로한 各遊星이 共引力의均衡에依하여 公轉、私轉의位置를保障함이나 다름없는理由이다。또한物體의反對로 向한力量이 同一할때 共優勝의別이無한것이나 同樣의理由이다。

故로惡이決코 本來善과 自然에同一在하엿던것이 안임도分明하다。루ㅣ소의名著 "Social Contract" 를 一句에綜合하면 이것이다。Man is born free, but he is everywhere in chain 그가絕叫한 自由는自然에잇다고하엿다。自由는拘束의反對다。强壓의拘束、最甚의拘束은 罪惡이다。故로同樣으로우리는 이러케말할수잇다「自由는 道德上最善이라고……이最善은 自然에서發見할수잇는것이고 自然은 우리의推測上理論보다도 本來善이엿다。

今日自然科學을 土臺로한諸般學問이 眞理를硏究하는學問이다。眞理는善의最高頂点이다。善이없는眞理는없을것이며 眞理에相反되는 學問은없울것이다。故로學問의價値는 眞理를包容한 量의多少에依하여 評價할수잇는것이다。近代文明人이 科學을第一信任하는理由도 그것이眞理이기때문이다。萬一어느學問이眞理를脫하여 說하는境遇에는 그것은非科學的、迷信的、幽靈的이라고批評한다。故로科學萬能이라云云하는誇言도 그根本이眞理이기때문이다 。非科學的價値없는學問은 人間社會에서實로 無用有害之物이다。그것은 虛僞、假善、矛盾이包容하엿음이다。極度의 虛僞、假善은罪惡을産出한다。同一한理由로 非科學的、劣等한學問은 虛僞、假善을包含하엿기때문에 그것이 우리人間을 瞞着、憎惡、詐欺、竊盜、强盜、殺人等을産出하는 罪惡의 模本이되는것이다。

眞正한學問은 眞理이기때문에 그眞理는惡(虛僞、假善)이없는것이다。近代文明에最高位로 占領한學問이다。科學은自然現象을硏究하는 學問으로써 그의裡面에 惡(虛僞假善) 이存在할수없는것이다。故로「宇宙의自然現象은 本來善이엿든것이事實이다。」

以上에 우리는善惡을 基督敎理的으로 科學的으로說明하여왓다。兩者共히 自然은本來善하엿음과 惡이本有가안이엿음을 證明하엿다。基督이나 孔子나古來諸聖賢이 善을爲하여 犧牲하엿고 惡을憎惡하엿다。우리凡人도 그러하다。然이나現代社會는 惡이善의몃倍나 盛行하고잇으니 이惡이란무엇이며 其根本出發点은무엇인가?

惡은本來存在하엿던것이안이고 무슨第一者로부터變化物

이다。其第一者는善될것이다。自然은善으로 搆成된것이라하엿으니 其自然이萬一本來의狀態를 永遠히保存치못할境遇에는 善의卷圍를脫하는것이다。그로부터 自然은惡化되는것이다。故로善은가장變하기易한同時에 惡은其自然現象의善을損傷할수도잇고 腐敗케할수도잇고 侮辱할수도잇는것이다。故로今日人間社會는 漸漸善이墮落되는同時에 惡이增加하여감도事實이다。

그러면 惡은如何한境遇에 善을侵害하며 其動機는무엇인가? 惡은單純한惡意志의 行動結果이다。그러면그惡意志란 어대로부터起源되엿으며 如何히實行되는가? 우에도說明하엿거니와 善이그 上、下、優、劣의 變態的狀態를受할때는 惡化하는것이다。其變態的狀態를與하는 第一意志는 彼動的行爲의所致이다。結局其第一意志는 自然的으로自發한것이아니고 무슨對他의感情으로부터 發生하엿고 其發生한意志는第二段에至하여 故意의實行을圖謀한다 其實行은 곳惡이다。

被動的行爲를說明하기爲하여 犯罪란무엇인가를 說明하여보자。犯罪란惡의所致이다 이것이 우리의良心的判斷으로써 決定되는것을云함이다(여긔良心이라함은 神과致合되는良心이다) 우리가善을實行할때는 우리의良心을기뿌게할수잇고 惡을實行할때는 우리의良心을 괴롭게하는것이다。우리의罪惡은 그行爲者의故意다。그러나 그故意는犯罪者의本來所有가아니고 無受動的의行爲도아니다。우리는될수만잇으면 犯罪를免하려한다。世上에犯罪를좋아하는사람은 없을것이다。盜賊놈이 自己子息의게 善言、善行을敎할것도事實이다。大槪犯罪人이 自己가憎惡하고 버리어야될줄알면서도 犯罪를行하게되는理由는 그것이自動的이아니고 被動的이될것이分明하다。A는本來善良한사람이엿다。그의苛酷한主人의게 견대다못하여 그는結局自己主人을殺害하려고 칼을들엇다。그는殺害하기前에 無限한苦痛을하엿다。될수만잇으면 最善을다하여 殺害를免하려하엿다。그리고良心의苛責을 쓰리기도 거듭하고거듭하엿다。그는自身의生命에닥쳐올危險도 知覺하엿고 그가死刑場으로나아갈것도 想像하엿다。그러나 그는참다못하여 自己가自身의生命을 殺害하는것과同樣의 쓰림으로써 强行하엿다。그는至今까지 누구를殺害한적이없엇고 따라周圍의無數한사람들의 生命까지도 保護하여왓다。果然A는 自動的으로 自己의意志를創造한것이안이다。主人을殺害하기前까지도 많은躕躇를하엿고 主人을殺害할때에도 自身을殺害하는것과 同樣의슬픔으로써强行하엿고 自身의生命에危險이올것도 覺悟하면서實行한것이다。그의犯罪는 意志로부터行하엿고 그惡意志는 被動的發生이엿음은 疑心없이洞察할수잇다。

善은本然的이엿고 惡은惡意志의結果이엿고 그惡意志는彼動的發生이다。



藝術的으로觀察하는 人類學上의兩性問題

龍興江人

◇머리말

本來이問題가非凡치안으니만치 우리人類社會에 언제나 살어지지안을 具案인것을認識하고잇다。그러한理由로 이問題를度外視하리만큼 倦怠를늣기게하는것이 卽人類社會의 兩性問題——戀愛이라던지 或은結婚같은것이 現實的當面하는이마다 人生의沈重한苦痛을 늣기게하는것이다。이에서우리는 享樂化한苦痛 卽苦痛化한現代人의內面의一部分을 窺視할수잇는것이다。人間社會의法則上 經濟科學이必然의理로 人類와의떠나지못할關連을意識한다면은 自然生長으로이러나는 此兩性問題를 한번생각해보는것도無意味한일은안이라하겟다。누구나사람은 죽기爲하야 먹느냐? 或은 살기爲하야먹는냐?물으면 언제나죽기는한번죽을것이로되 살기爲하야 산다는것이 一般的으로合致되는말이라하겟다。亦是 먹기爲하야사느냐 살기爲하야먹는냐한다면 躊躇없이誰某를 勿論해놋코 살기爲한다는것이事實로證明이될것이다。그러면 사는데에는 엇더케살기를願하느냐하면 異口同聲으로「잘살기爲하야」現實의苦痛化한生을 밟고나아간다고할것이다。圓滿치못한環境에서 逆境을깨치고 奮進鬪爭하는그것이 現今苦痛化한사람으로의希望하는 新社會의憧憬의人이될것이다。追而우리는 모름직이氣分에서 實際로발길을 옴겨놋는其期間을 云謂하기를 所謂過度期的狀態라고말하겟다。이러한處地와 이러한環境의氣分에서 呼吸하는其間을 引證하야말한다면 洋服에 古代두루막이넘고 단이는것이나 別다르지안은錯雜을일우어놓것이라는말이다。何如튼 現今朝鮮사람으로는 모다가 貧寒한 맨空拳만을 가지고잇는關係上「밥」을먹고야 戀愛도結婚도한다면은 우리가한번 이兩性의對한것을研磨하야 冷情한抽象的 結論이나마 지을必要가잇는줄앎다。虛榮과妄想은 人類向上에 一大病菌이됨으로써다。사

람은 人間自體 그대로가 向上하는必要에隨하야 欲望하는 무엇이잇다하면 그모다가밥먹고 배부른後에할일이라고 歸納的證言을 빌게될것이다。그러나 人間社會의 向上的條件中이 兩性問題도避치못할 自然의理를가젓다고하면 엇지人生生活의空論을 들어말한다하랴? 「겨죽」을먹으면서라도 人類向上의참됨을 爲한다면은 事實落着은이에서 發程되고말것이다。요즘流行病的인 무슨至上主義를 宣傳하랴는 本意가안이다。이는人生의全部가 안인까닭이다。우리나라같이 現著히過度期에 處한形勢에서 이를다시한번 咀嚼해보는것이 必要할줄알어 項目을따라서 兩性의關한探美的起原과 在來結婚制度를 紙面이許하는대로 簡明하게 적어보랴한다。

◇藝術의起原

처음으로 本論에드러가서 第一노兩性問題를 말한다기보다 藝術이라는共個體가 如何한方法手段으로 이世上에 밟아오게 되엿는가하는問題를 생각해볼必要가잇는줄앎다 即藝術의起原을 說明하야가지고 다음에人類學上에 表現대로 兩性에關한問題를 歷史的藝術의起原을따라서 人類學上의 複雜한戀愛라던가 結婚問題에 드러가고저한다。

엇더한나라社會를 勿論하고 人類社會의 藝術的產物을말한다면 詩歌를가저서 말할수밖에없다。이는藝術的產物노 가장悠久한 歷史的要素를가진理由이겟다。然故로 이詩歌로말미암아 一大文學上 源流를일운것도 懷疑할바無한줄안다。그러면 다시言頭를돌녀서 詩歌의起原에 依支하야 一般的으로알기쉽게 藝術의起原을 말하는데에는 傳來되는民謠같은것이 좋은例證이되리라한다。엇저서 그러하냐하면 詩歌는 처음人間의感情이 自然히流露함으로부터비롯하엿다고한다。그러면 人間의感情을 自然의流露라할것갓흐면 古來우리나라의 民謠하나를 적어놋코보려한다。

비노래

비야비야 오지마라
망낭딸이 시집간다
비가오면 비가오면
채다리가 불어지리
비가비가 비가오면
장우치마 얼넉지리

◇

비야비야 오지마라
망낭딸이 시집간다
비가비가 비가오면
망낭사우 옷적시리
비가비가 비가오면
망낭사우 눈물지리

◇

비야비야 오지마라

망낭딸이 시집간다
비야비야 오는비야
망낭딸의 깃븜빈가
망낭딸의 눈물빈가
망낭사우 우는빈가 —北道民謠—

◇

이노래에는 詩的價値를 感味한다는것은 다음으로밀고 다만情緒의물결 感情그대로가 發露되엿다는것을 말치안이치못하겟다。그러면 이와갈이詩歌는 人間의感情的情緒가 自然히言語에依하야 外部에發露되는것이다。사람自體가 自然現象에對하야 或은人間相互의 接觸에따라서 여러가지의感情或은 空想等을가지게된것이다。然하야 上古時代에서 太古民의所有한 感嘆의소래라던가 空想의發現 그것이 即 藝術의起原으로 基礎를잡는 詩歌의最初랄수밧에업다。제各其 處地와環境에 따라서 或은 깃거워하며 或은悲痛스러운 일에따라서는 各自가咏嘆을 發한것이엿다。여기에서 所謂 詩歌의根源을 엿볼수잇는것이다 換言하면 누구에게나 感情이有한바임으로 因하야 엇더한物個의接觸함에 人間自然의 感情이高潮되는時 各自로부터 外界의發流되는그것이 言語로되엿다。言語로發流된 그것이 時歌의처음이되엿든것이다。連하야 人間의高潮한 感情의 言語的表現에依하야 人間의探美的戀愛가 起原되엿다고 말할수잇다。藝術的起原과 同時에發端되엿다고하는말이다。

或이引誇하야 말한다면 普通으로 男性들이 어엿뿐女性들을볼때 無意識이나다름없이『어엿뿐處女다』하고 償嘆하엿다。또한女性이 男性을對할때에「아!사나이답다」이러케 서로히無條件으로 讚美하는말을하게되엿다。藝術家의눈으로볼때에 이것을詩歌의 起源으로본다。「어엿뿐처녀」라던지「아! 사나이답다」이라는말이 한갓形容的名詞에不過하나 兩性問題로드러가서 吟味하는때에는 性的發達로因하야 人間自然의 表白에하나이라고 말하는極端의表現이랄수밧게업다。如斯히 人間自體의 性的發達의高潮로써 發生되는 人間의感情은 言語로만 表現方式을取할뿐아니라 言語와함께 肉體上의動作으로도 亦ㅣ表現되는것이엿다。

如何한사람을 勿論하고 自己의各所有한周圍와 環境을따라서 한층致密한人類와自然과의 美를感得할수잇는것이다。고요한밤에 郊外로 散步할때 空中에잇는 明朗한달을바라보고 感懷를發하는情緒로「달이밝기도하다!」하는 이것이 單純히 自然과人生과의 美를流露식히는데 不過한것이다。同一한意義로 兩性間에 비로소「美人」이라던지「어엿뿌다」는말 그것이即숨김없는 性的發達의 情緒的表現이다。人類와自然과의 美를探究하는理致로 人類와人類間에 互相美를探究할냐는 그때브터 所謂兩性問題의戀愛라는것이 人類學上에 나타나게된줄로안다。말하자면

太古民의엇던 그時期로비롯하야 거륵한自體의美를 意識하는그때브텀 男子는女子의美를찻기에헤매엿으며 女子는男子의美를求하기에 倦怠를늣길만큼 人間各自의高貴한美로因하야 人類學史上에 新紀元의劃線을지엇다。

◇各自의性的律

그러면 現代人類歷史上에 藝術的起源을 말하는同時에人類와自然과의關係를 美學的으로 研究해본대로 人類와人類間에 新發見의新紀元을 作成하게되엿다。그것이即文字上으로 所謂戀愛라는學理를 追求하게된것이다。그러면다시 이戀愛라는個體(한個體로본다면)가 人生社會에一部的生活을 必然的으로 갓게된다는것이면 엇더한經路或은 엇더한性的律을 밟음에이르게된것인가를 생각하야볼必要가잇다。兩性間의 經路를區分하야본다면 大體二種이잇는대 第一은自然律이잇게되고 다음으로道德律이잇다。

更히自然律的이란—簡略하게말하면 瞬間或은「片愛」의種屬에 分類가되겟다 人間自然의本能的衝動에 感觸이되는時 흔이만히볼수잇는것이다。太古人의戀愛는(萬一許容하다면)人間自然의 本能그대로의 發揮에서 自己의性的 慾望을滿足식히엿다。當時에는 人類의文明程度가 가장零劣한關係上以上과 同一한自然律的社交를 갖게된것이다。彼等은此以上 虛飾과아울러 다른方向을 가지고 무엇을如何히하야되겟다는思想은없이 오직單一한 思想뿐이엿기때문에他動物의行하는 腕力과아울러 勢力을가지고 兩性間에結婚하기까지 至한것이다。그럼으로 太古人은 無知한反面에 無理한獸的「힘」을가저서 온갓行動을 本能的衝動그대로 自行함에지나지안엇다。

人類社會가 이만치發達과 文明의程度를 지여주엇기때문에 아무리柔軟한女性이라도 自己보다對象者가 힘이못한時에는 自己의情人을삼게되는 階級的女權時代가되엿든것이다。異性間에發現되는 夫婦關係를 如斯히 結合體를成하기때문에 참戀愛를하게되는 그焉間에 瞬間이만핫고刹那가만핫든것이다。然以此自然律中에서는 道德律의關與가 全無하다고하야도 過重한斷言은 아닌줄斟酌한다。그럼으로 急進的戀愛라하야도 조흔줄안다。急進그것으로서는 成立치못한다는理由임으로써다。或時가다가 急進그가운데에서도 兩性間사랑이 생기는事實을 밟게되는때가잇다。그래서 急進其中에서도 自然律的戀愛라고 人類學上에나타나게된것이다。다음으로 道德律이란—如何한것인가를 考察하야보려고한다。人類와人類間에 지어논倫理와道德이라는鐵網에갓치운 結婚의暗黑時代라하겟다。逆考하야보는대루 在來우리나라의 早婚期에서 흔히볼수잇는것인가한다。땃뜻한父母의 품을떠나서는 生活할수업는世上과同一하게 생각되는이때 아조年少한 其年期에 父母로브터 結婚을지여놋는다。父母된者는 이를強壓한다。萬若關係當事者된主人公中 어느便에서던지 否定하는境遇이라면

餘地업시 野卑한制裁를加하야 此를强行하기에 努力한다 그리하여 虛僞의不自然的 道德律로因由하야 成立된結婚制度를 道德律의戀愛(엇던경우에)또는結婚이라하겟다。그럼으로 此不自然한拘束을加하야 임의브럼 非人間의結婚制度를 採用하야 兩性의結合을일삼든 그것을稱하야甲婚期에서볼수잇는 道德律이라하겟다。

其如何한社會를보던지 以上과같은早婚으로 緣由하야展開된 結婚에서는 兩性間의善한要素 即人間味를甘得치못하기때문에 人類의倦怠를感하는情이 생기게된다。是以우리나라의 結婚制度도 사람과사람사이를 準하야結合體를主眼삼지안키때문에 法律上살아왓섯고 因習으로緣由하야時代的暗黑을지엿섯다。

◇兩性愛의特質

諸學說에表示된대로 大概通一的意義가 其中에서도차저볼수잇게되엿다。 여러先賢들의말을보건대「愛는親切한世界에 一大勢力이라」는 이도잇고 或이엇던이는「愛는鼓吹者이고 慰藉者라」고도하얏다。그러나「愛는 草中에光榮을認하고 花上에 日光을본다」고말한 에머슨氏의 定義가第一로簡明한 말이안인가생각한다。사람을 花草와갓치우리가 看做할수잇다면 萬一花草에는 日光이잇다는말이나 亦사람에게는 愛가잇다는말이 얼마나그럴듯한말인지알수업다。

如何한人類社會에서던지 所謂이「愛」라는말을 檢討하야본다면은 귀압흔소리가너무도만타。사랑은 사랑을불너온다。兩性間의親切을 生하는愛는 他人의 希望잇는 寬大한思想을 慰撫하는것이다。또는柔和하다 또는誠實하고善의辨別者이다。愛는物의光明한方向에 向應하고 其顏은日常幸福의方向으로 進展한다고——。

人類社會의 原動力의新機運은 이人間 各自體로브터愛가基本하고 아니함에따라서 結局其社會人類歷史를 지음에境界的劃線을 나노흘만한 무서운힘을가지고 잇다고말한다。이것은 過去에잇섯으나 莫論하고 人類社會學輩들이 함께말하는所以이다。因하야 사랑잇는其家庭은 恒常歡樂의꽃이(일에)피여잇게되고 其엇던社會라면 갓흔幸樂的氣分에서 支離한倦怠를 늣기지안케될것일가한다。眞正한其世界에서는 絕對로 嘆息과 絕望을낫치안을것이다 萬一如何한사람이 嘆息과絕望을 낫는다면 그는참其世界밧게서 孤寂을늣기는것이라고 생각할수밧게업다。



物質을構成한原子에對한니야기

張 世 雲

人類의腦力이 좀發達되여 무엇이 무엇인지 알어볼수잇게된그날브터 今日까지「物質은 엇던것인가」에關한 哲學者、詩人、科學者等의 假說、解說이 만헛다고 하겟슴니다。이제 엇던時代에는 엇던解說이 잇섯는가 살펴보고저합니다。

一、古代의 物質에 關한槪念。東洋에서는 陰陽、二氣와 金木水火土五行으로 모ー든 物質의 變化를 說明하엿슴니다。비슷하게 西洋文明의 源地인 古代 그릭國에서는 宇宙에 羅列한 萬像을 火、土、水等元素로說明하엿슴니다。그런中에도 西歷紀元前五世쯤 希臘哲學者「떼마크리스터스」는 우리가 感覺할수잇는 이世界外에 第二世界을 說明한배가 잇슴니다。이第二世界는 現代物理學에서 論하는 原子世界와 비슷합니다。

二、中古時代의 物質에 關한槪念、西歷世紀브터 約十二世紀동안 價廉한金屬을 變化하여 價貴한 貴金屬을만들어보겟다고 努力한 鍊金術 (Alchemy)이 盛行하엿슴니다。勿論 이러한努力은 現代科學的인 物理、化學을 產出하게한 第一步의 努力이엿다고 하겟슴니다。

三、近代의 物質에 關한槪念。西歷十七世紀에 비로소 英人보일 (Boyle)이 現代物理、化學의 完全한 터를 建設하엿다고 하겟슴니다。其後 十九世紀初葉에 英國化學者「딸튼」(Dalton)이 비로소 原子論을 提唱하엿슴니다 그의 原子槪念은 이러합니다。「모ー든 化學的元素는 不可分離의 적은原子 (atom)로 造成되엿는데 갓흔元素의 原子學은 均一한 体積及重量을 가젓다고합니다。모ー든 化學的化合物은 一個以上의 서로 다른元子가 適當한比例로 化合하엿다고합니다。그것을 分子라고합니다。一八一五年에 英人「프라우트」(Prout)는 모ー든元素의 原子重量이 水素 (第一가뷔운元素의重量)에 거의 整數比例된다는 理由下에서 모ー든元素는 水素도 構成되엿다는假說을 提唱하엿슴니다。追後로 實驗의結果、엇던元素의 重量은 水素重量의 整數比例되지 안음으로 此假說은 否認할수밧긔 업섯슴니다。대데로 딸튼以後 約一世紀동안 物質에 關한 化學的及物理的 槪念은 이러하엿

습니다。모든化合物은 物理的으로 더논흘수업는 分子로 되엿고 또한各分子는 化學的으로 分解하면 一個以上、의 다른種類의 原子를 엇을수 잇다고하엿습니다。例를 들면 水를物理的으로 더논흘수업는 적은分子로 논흐고 다시 水一分子를 化學的으로 分解하면 水素二原子와酸素一原子를 엇을수잇다고합니다。모ㅣ든物質은 七十餘元素(現今은八十餘素를發見하엿슴)로 되엿는데 各元素는 다른元素로 變할수 업다는바가 十九世紀末葉까지 是認하던 學說이엿습니다。

四、最近物質에 關한 概念의變遷。十九世末葉브터 새로운物理的 實驗現象을 滿足히 說明키 爲하여 物質의 概念도 變함을 밧게되엿습니다。

(가) 放射光線。稀薄한 깨쓰를 너흔 류리管에 電氣를 通하면 光彩가 잇는 불쏫을 發揮하는것을 볼수잇습니다。만일 管內氣体를 매우 적게만들면 電氣가 나아가는곳(陰極、혹은카솟 cathode 이라함)에서 電氣가드러가는곳(陽極、아ㅣ놋 Anote)을 向하여 光線을 發射하는 現象을 볼수잇습니다。此光線을 카솟光線이라고합니다。이光線 近傍에 磁石을 置할時는 이光線은 屈曲합니다。이屈曲하는 現象에 依하여 此光線은「카솟」에서 發射되는 小粒子(電子라고함 Electron)들이라고 說明합니다。이런實驗이 잇슨後「우라니움」과「파듸움」等 元素에서는 아모電氣를通함이 업시 엇던種類의 光線이 發射하는것을 發見하엿습니다。이런物質에서發射하는 光線을 三種으로 分解할수 잇슴니다。

「알파」光線은 陽電性을가진 小粒子(푸로톤 Proton 이라고함)로 되엿는데 一秒동안 一萬二千百마일의 速力을 가젓습니다。此光線은 空氣中에서 約數센틔메터의距離밧긔 더通過하는힘을 가지지 못하엿는데 磁場의 영향을 밧어屈曲합니다。

「베타」光線은陰電性을가젓는데 普通으로電子(Electron)라고 합니다。約普通太陽光線의 十分의九의 速力을 가젓는데「알파」光線보다 磁場의영향을 더만히밧습니다。

「깜마」光線은 第一 速力이 만흔것인데 磁場이나 電場의 영양을 밧지안습니다。光線과갓치 物質을 通過하는 힘이 最强합니다。

이런 實驗에 依하면 物質은 陰電性을 가진 小粒子들과 陽電性을 가진 小粒子들노 構成된것이 아닌가하는 問題를 惹起케 하엿습니다。

(나) 物質의 變遷。已述한바와갓치 十九世紀末葉까지도(廿世紀까지라도) 一元素에서 他元素로 變遷함을不得한다함은 理化學界에서 一般으로 是認하던바이엿습니다

그러나 近代實驗의結果、一元素에서 他元素로 變遷되는 現象을 發見하엿습니다。

例로「우라니움」元素에서「라듸움」元素로「라듸움」은 또한「늬톤」及「힐늬움」元素로 變遷함과 갓흔것입니다

그러다온즉 中古時代의 鍊金術의 基礎的理想은 그릇된 空想이라고 할수업겟습니다。原子는 더分離할수업는 最小의 單位物體가 아니엿습니다。原子는 더적은 單位體(곳陽電子及陰電子等)로 構成된것을 是認케되엿습니다。

(다) 엑쓰光線。一八九五年에 發表한 룡겐(Rongtgen)의글에 依하면 그이는「레나드」管을가지고 엇던目的을爲하여 實驗하다가 偶然히 카돗光線이 부듸치는 物質에서 發生하는 一種의光線의 存在와그特性을 發見하엿다합니다。前述한「쌤마」光線과 비슷합니다。普通光線은通過치못하는 物質을 通過합니다。그래서 醫學에큰必要한器具가 되엿습니다。이光線온 人體內 굿은骨格外에는全혀 人體를 通過하는 强한 光力을 가젓습니다。

(라) 原子의構造(섈氏의模型) 가、나、다에 已述한實驗을 有理하게 說明키爲하야「루터-쪼-드」(Rutherford)와섈(Bohr)는 原子의 構造를 이럿다고하엿습니다。原子의 中心인 原子核(陽電性을 가젓다함)을 中心으로삼고 陰電性을 가진遊電子들이 各其軌道를짜라 廻轉한다고 합니다。맛치 八大遊星이 太陽을 廻轉함과 恰似합니다。그러다본즉 各元素의 性質이 다른 理由는 그質에 固有한배가 아니고 全혀 그原子를 構成한 電子數와「푸라탄」數에 依한것뿐이겟습니다。例를들면 水素의原子는 一個의「푸로탄」으로된 原子核과 一個의遊電子가 軌道를짜라 廻轉하겟습니다。原子核內에 잇는「푸로탄」과 電子數도 다르커니와 特히 原子核을 둘너도라다니는 遊電子의數는 各元素마다 다릅니다、酸素는八個의遊電子、水銀은八十、金은七十九「우라니움」은 最多數의 遊電子九十二個를 가젓다합니다。約四五年 엇던獨逸實驗家가 水銀으로 金을 製造하엿다하는바가 理論으로보면 水銀各原子에서 一遊電子를 쏘차내이면 金原子가 될것이겟습니다。勿論 이실험은 水銀中에서 包含되엿던 金原子가 實驗管에 낫하난것이라고 追后로 是認하엿습니다。

(마) 퀀텀論(Quantum Theory) 獨逸學者「풀랭크」(Planck)가 처음으로 에너-지는 繼續的이 아니고 에너-지는 單位로 논히여 放射된다고 假定하엿습니다。最近에 와서는 光線도 光素(쪼탄 Photon)가 發光體에서 發射된다고 假定한배도 잇습니다。

(바) 物質과에너-지 物質과 勢力은 엇던關係를 가젓는가함은 物理學에서 큰頭痛거리입니다。一九〇五年아인스타인의發表한바에 依하면 物質이 熱을 發射할적에는 그物質의 質量이 減少하여지고 도리켜 物質이 熱을 엇을적에는 其物質의 質量이 增加한다고합니다。物質과 에너-지의 相當量을 計算하면 이러합니다。物質 一구람을 에너-지로 變할수잇다면 世界第一큰 輪船으로 太西洋을 往復兩回나 航行할만한 熱의 에너-지를 만들수잇다고합니다。이理論에 依하면 쇤힘업시 多量의

熱을 發射하는 太陽은 其質量이 점점 減少할것이겟습니다。아직 直接 原子를 變遷하여 에너-지를 만들거나 或은 에너-지로 原子를 만들어 내인 實驗은 업다고 생각합니다。만일 物質로 에너-지를 直接 만들수 잇다면 工業에서나 一常生活에 需要되는 燃新問題는 石炭의 供給이 업서도 解決될것이겟습니다。

(사) 波動力學 (W ave Mechanics) 或은 콴텀力學(Quantum Mechanics) 特히 엑쓰光線에關한 새로운 實驗等은 實際로 醫學及工業에 크게 有効함이 만흐니만치 亦是 物質에關한 知識을 엇게함에 有力한 紹介者가 되엿습니다。이런새로운 實驗한事實을 說明키 爲해서는 보-의 原子模型은 不滿足하게되엿습니다。約十年前 佛國學者의 부롤니는 (de Broglie) 物質的 小粒子는 波群의 에너-지 中心에 不過하엿습니다。「예마」의 光學原理及「마우테튀」의原理 (英國서는 해밀톤原理라고함) 兩者가 同一한 原理인것을 指摘하엿습니다。近年에 「쉬뢰딩어」(Schroedinger) 하이센벍 (Heisenberg) 及 「듸랙」(Dirac) 等의論한 原子의 模型은 抽象化、卽數學化하엿다고 생각합니다。物質粒子의 地位를 定할수업다는것과 또한 陰陽兩種電子를 分明히 定限할수 업다는바가 最近物理의 가장 進步된 學說이라고 하겟습니다。紙面上關係로 最近原子模型은 略합니다。

五、結論。人類가 數千年을두고 「物質이 무엇인지」알어내히랴는 努力은 歷史上 쉰힘이업섯습니다。아직까지 明白한 答案을 엇은者가 업습니다。흔이는 엇던實驗事實노 낫타난바를 說明키 爲하야「物質은 엇던것이라」고 假定한后 數學을 利用하여 엇던公式을 엇습니다。만일 그엇은公式이 다른 모-든實驗과 符合하는동안그 公式의 基礎인 假說은 當分間 物質에 關한概念이될것이겟습니다。만일 새로운實驗을 滿足히 說明할수업는公式은 抛棄할수밧게 업겟습니다。온-時代를 通하여 物質을바로 說明하는 學說이 잇슬는지 큰疑問이라고 생각합니다。

一九三一年四月 시카고大學에서

(四七頁에서續)

로 誤認하는이도잇스며 或은宗교國의特有한 聖經科目에 德育本位의敎材를加味한 말하면基督敎宣傳에 全的意義가 끈임같이 생각하는이가 많음을봅니다。

大凡敎育의目的이 彼敎育者의 善良한習性 技術 智識 鑑識力 乃至理想等의 樹立過程에잇서서 最善의個人性을 發揮하도록 敎導訓育하여써 그들이社會環境에 順應하여 滿足한生活의方途를 열며 딸어人類文化에 貢獻하는圓滿한人格者 卽『全人』養成에 잇습니다。

宗敎교육의目的도 여긔에 머물너 그加減이 없을것입니다만은 이敎育의原理를 土臺로 彼敎育者가 보담더宗敎生活의 基礎우에서 自身의完美한 宗敎的高尚한理想을 日常生活에 實踐躬行하여써 社會發展을圖하며 人類文化의 積極的發達을促함에 잇다는것을 닛어서는안될것입니다。(未完)

一九三一年三月一日

人生과電氣科學

—人類社會에最大幸福을주는電氣科學—

洪 聖 三

電氣의原理를 西曆紀元前 六百年頃에 希臘哲學者테일스(THALES)로브터 찻게되여 距今二千五百年의 長久한歷史를가지엿고 또其間 數十의著名한科學者 낄벗・뽀일・옴・패래디・프랭클인及에디슨諸氏가 이方面으로 專心硏究한結果로 只今科學中에 第一만히發達되엿으며 우리人類社會에서 第一만이使用이된다。筆者는 이러케歷史가깊은電氣科學의 原理라든가 發達된그階梯를 모다 밝어쓰려면 넘우長荒하겟기로 다만 電氣를使用하게됨으로 우리人類社會에서 엇더한幸福을 받는것만 簡單히 말하려고한다。

電氣를 現在光・熱・磁・三大分路로 應用하며 또電氣를 磁氣體로化하여가지고 交通及運搬等諸器具에 應用하는것이많으니 例를들자면 即電話・電信・우레디오・電車及 發動機等일것이다。電氣를 以上과같이應用하게됨으로 우리人類社會에서 時間經濟及 健康保全等의諸便利를 받는것은 耳目을가지고 밤낫 보고 듯는 우리로서 否認치못할것이다。보라 電氣를應用하여 黑夜에잠긴世界를 瞬息間에 開閉器(SWITCH)一個로써 白晝化식힐수도잇으며 室內冊床옆에 감안히안저 世界消息을 幾分內에 交通할수도잇으며 米國와싱톤에서나 法國巴里에서나 英國倫敦에서 有名한演說이나 或奏樂이잇으면苟且스러히 차저갈것없이 房안에平安히안저 우레디오로 當席에來參한 聽衆들과같이 들을수도잇으며 高價의石炭을 消費하며 黑煙을吐하여 華麗한市街와 新鮮한空氣를 더럽히는 水蒸氣機關車代身으로 電氣機關車를 만들어 數萬噸의荷物을 이리저리 運搬할수도잇으며 工廠에서 電氣發動機나 自動機를 드려놋코 千名이 骨力을드리며 할役事를 한사람이同一한時間안에 容易하게 할수도잇으며 家內婦女들이軟弱한몸으로 땀을흘리면서 十餘時間이나 洗濯或은다림질할衣服을 電氣洗濯機와 電氣熨를가지고 不過두時間內에 容易하게 다할수도잇으며 廚房火爐앞에서 煙氣를呼吸하면서 괴로히만들든食饌을 只今은電氣火爐를가지고 아조平安히 만들수도잇다。只今 簡單히말하자면 우리日常生活上에쓰는 모든器具中十分之八은 모다電氣로 使用할수가잇으며 따라서 그만치 便利를 받을수가잇는것이다。

只今全世界를두고 米國에서 電氣科學이 第一많이 發達되엿으며 또米國에서 電氣를 第一만히使用하는同時에 米國人은 人間樂園의生活을 한다는말을 듯는것만보아 電氣가 우리人類社

會에 얼마나큰幸福을 준다는것은 重言할必要가업다。近來우리나라에서 大槪로 都市마다 電氣會社가 設立되여 市民들은 村民에比하야 如干便利를받으나 그것도 環境과事情에依하여 使用하는範圍가 매우 좁음을따라 米國人과같이 幸福스러운生活을 좃혀못한다。그러면그原因이 무엇일가? 直接말하게되면 即經濟狀態이라고할것이다 그러나筆者는 電氣를使用함으로 會社及工廠經費라든가 家庭生活經費를 퍽經濟할수가 잇다는것과 또電氣會社에서 十燭燈一個에 每月八十錢式받는것을 二十錢式만받고도 利益을남길수가 잇다는것만 只今말하여두고 그詳細는 다음機會로 밀어두면서 그만끈친다。

一九二九年十一月

퍼ー듀大學電氣工科

日月과그의傳說

韓普容

一

只今부터 約三百二十餘年前 和蘭人「한스•립퍼쉬ー」의 望遠鏡의 新發明과 이것을 天體研究에應用한「깰릴레오(伊)의功勞에依하야 現代天文學이비로소 生겨낫다。이새로운 器具를通하여 깰릴레오의 眼前에는 달과木星의山岳이며 太陽의黑點等이 明瞭히 나타나스니 이것은 일즉히 어느누구의 夢想도 容恕치안튼바이다。(太陽에黑點에關한研究는 발서前에 朝鮮밋中國天文家사이에 잇엇다) 그리하여 그의一派의게는 저모든遊星들은 太陽系內에 各各別個의 世界로認定되는同時에 그들은 그表面이 우리가살고잇는地球와類似相異한點을 試驗할수잇게되엿다 쌔에맛침 깰릴레오의親舊「케플어ー」의特別方式의 他面的研究는 六十年後에「아ー삭•뉴톤」卿의 引力의法則을發見케하엿으니 이에 天文學上의 重要秘密의正體가 거이脫露되게되엿으며 以來 諸家의獻身的努力에依하야 今日의完成을 보게된것이다。即 녯날의우리祖上들은 天體의 各맨버ー를 光點으로보고 또그것으로 區別하엿지마는 오날의 우리들은 强大한望遠鏡을通하여 그의巨大한體積을 認定할뿐안이라 分光器其他 諸種器械의發明과 幾何三角밋寫眞術等의 發達에依하야 그들의 複雜한運行的現象을 살피는同時에 그들을자여보고 그들을다려 볼수잇게되엿다。

天文學家의말에依하면 太陽은 天體中가장빗나는 恒星의하나로서 地球에對한 둘쌔로가싸운별이니 太陽系의引力의中心地며 光熱의 主要根源이되여잇다。그의直經은 八十六萬六千마일이라하니 萬若 우리가 그의表面에 鐵道를敷設하고 한時間에 六十哩式가는 急行列車로서 太陽一週의 滋味잇는旅行을떠난다면 우리가길떠난後 하로도

쉬지마려야 五個年만에겨우 이旅行을 마치게된다。이것을 달리말하면 萬能刀를들고 太陽을 百萬片으로쪼겨노와도 그한쪼각이 오히려 우리地球보다 더크게된다。

太陽과地球와의 距里는 普通九千二百八十八萬 五千哩라하나 正月과七月사이에 約三百十萬哩假量의 變動이生긴다。이것은 地球의 公轉軸道의遠近에基因한다。그의光輝는 普道滿月의約四十六萬 五千倍假量으로 計算되여잇다。

달은 天文學上 衛星의하나로서 地球에가장近接되여 西쪽으로부터東쪽으로 恒常地球를싸고도는 遊星이니 그의 地球一週의旅行은 約二十九日半에 마치게된다。달의直經은 애우라지 二千一百六十二마일에 不過하나(地球의直經은七九二六哩) 地球의距離가 亦是二十三萬八千餘哩에不過함으로 그의形態가 그갓치 크게보인다한다。

二

以上은 우리들이 今日天文學者들노브터 어더들은 日月에對한 거즛말갓흔 事實이어니와 近代科學이 發達되기前의 全人類 및 現代에잇어서도아즉 科學的惠澤을 아지못하고사는 種族사이에는 해와달에關한 奇奇한傳說이 업는곳이업다。

日月의 物質的恩澤은 原始人이나文明人이나 다마찬지가로 밧는바이지마는 原始人의게 잇어서는 特別히 物質的方面보담도 그精神的方面에 莫大한影響을 갓게되엿다。그리하여 日月에關한 神話 宗敎 迷信等은 或은直接으로 或은間接으로 原始人類社會의 重要한 힘이되여잇엇다。日月(乃至宇宙)의 起源에 關하여는 아즉現代科學이 證明치못하엿슴으로(本問題는永遠히宿題로남어잇을줄안다) 不得已 神話或은 宗敎的迷信을 是認치는안는다하드래도 그의流行을 容恕치안을수업게되엿다。兩便이 다모르기는 一般이지마는 旣往모르는바에는 그럴듯한이야기라도 만드러내여야 滿足하는것이 人間의本性이다。이와갓치 神話及迷信乃至宗敎의起源은 사람의 本能中의하나인 好嗜心에 基因하엿지마는(이것이全部基因은안이다) 神話及迷信이 한番 人類社會에 流行된後에는 타임의經過와함씌 그自體가 一種의權力을갓게되는 現象過程은 未開社會에잇어서는 例外업이出演되는 史的事實이다。

三

日月의起源에關한 古代神話中 只今世上에 第一넓이알여진것은「히부류」神話라할것이다。基督敎聖經 舊約創世紀第一章十六節에 記錄되엿으되

「하나님씌서(Yahweh)두個의 큰빗을만드서서 그큰者로하여금 낫을다사리게하시고 그적은者로하여금 밤을다사리게하시다」

하엿다。이것은 猶太人의神話이지마는 古代「바비로니아」及「앗시리아」種族사이에 流行된神話를들으면 Tiamat 이라는 바다에사는 巨龍이 온世上의權力을 獨占할野心으로 自己自身이出生한 그어머니神들을 撲滅하기로作定하엿엇다。이에 그母神들은 勇士 Marduk

神을任命하여 巨龍과對戰한結果 말둑神이勝利함에 巨龍을半分하여 한片으로天體를만들고 다른한片으로 地球를만들엇다한다。그리하야 天體中에 日月星辰이 包含되게되엿엇다。

印度 波羅門敎 吠陀經典에는 해가 Purusa 神의 눈에서 나왓다 하엿으며 이思想이 다시 Nias 文明에 影響되여 土人들은 世上에 第一몬저 난사람인 Sihai 의 오른눈으로부터 해가나왓다고傳한다。

이外에도 希臘 羅馬 스캔듸나비아 亞弗利加및濠洲土人사이에 다各其 日月의起源에關한 傳說이잇다。뿐만아니라 우리極東에잇어서도 中國 朝鮮및日本에 다 다른 日月의起源傳說이流行하거니와 그中에 가장 明瞭히說破한記錄이 老子敎(道敎)經典中에서 發見된다。道德經第四十二章 即道生一章에는 ……………

『道生一一生二二生三三生萬物負陰而抱陽沖氣以爲和』라 記錄되엿다。이句節의眞意를알기가 매우어렵은듯하다 在來의 道家諸氏의 解釋에依하면 本文中 一은太極이오 二는日月이고 三은天地人이라한다。大體로 이解釋이매우近似한듯하나 多少附言할것은 一은道自體 即宇宙의本體(大極)를말함이오 二는 日月自體가안이라 그를包容한陰陽性을表示함이오 三은 陰陽과沖和의三氣를指稱함이라 解釋함이 當然한줄안다。

이러케 解釋하고보니 道敎와基督敎의 日月의起源說이 近代天文學과 매우彷彿한點이잇다。다시말하면 道敎와基督敎의 太陽起源說에잇어서 太陽自體가 全能의神이안이고 그는 다른神에依하여 創造된同時에 近代天文家의認定하는바와갓치 太陽만이 唯一한光의 根源이안인것이 證明되엿다。創世紀第一章에依하여보면 빛은 第一日에創造되엿으나 太陽은 第四日까지 創造되지안엇섯다。이갓흔觀察은 心醉한宗敎家들의 一時的慰安서리는 넉넉히될줄안다。

四

우에 日月의起源說을 大綱紹介하엿거니와 日月은 다시 原始宗敎의 信仰的 客體가되여잇는 境遇가만타。그리하야 原始種族 社會에는 日神이업는社會가 거의업게되엿다。日月은 天體中 가장그形態가크고 가장그빛이强하니만침 原始人類가그를崇拜하고 그를사랑한것은 實노 當然以上의 當然으로 보지안을수업다。

日月에關한 形容語로는 基督敎聖經에「優美하기달갓고 淸明하기해갓다」는 句節이잇스며 우리東洋에는『公平無私한커해 淸雅優美한커달!』하는 形容句가發見된다。이갓흔 日月에對한 形容詞는 그의性質을規定함이니 싸려서 日神는 어느쌔어느곳에서던지 全能의神인同時에 正義의神이며 月神은 어느쌔어느곳에서던지 사랑과養育을 主宰하는 保護神이되여잇다。日神에有名한者는 바비로니아의 Shamash 埃及의 Atum-Re 希臘의Helios 印度및羅馬Mithra (or Mitra) 라할것이며 月神中에 가장有名한者는 바비로니아의 Sin 일가한

다。

알메니아 拜火敎徒(Zoroastaerian)들은 馬를잡어 太陽에祭祀하며 波斯人과갓치 太陽을向하여 祈禱한다。回々敎五戒命中에는 日出日沒의前後의祈禱를命하엿고 初期의北米移民들은 敎會及墳墓의方向은 반드시 해뜨는東方으로 定하여섯다。

亞弗利加南部에사는 핫텐트族사이에流行되는傳說은『해가 너머간後에는쪽각쪽각히 破裂되는대 이各쏘각을 큰가마에너코 翌日아참까지 삶(煮)어내면 다시제대로 뭉처진다。그理由는달이도라단일자리를 남겨노키爲하야 해를制限함에잇다』한다。뉴ㅣ질랜드 土人들은말하되 한녯날에는 해가只今과달너서 宏壯히 싸르게도라단여슴으로 世上사람이 모다 不平을품고 잇던次에 勇士 Maui(Polynesian 의祖上)가陷穽을만드러 해를써러트린다고 威嚇하엿더니 해가그만무서워서 그쌔부허매우천천히 地球를돌게되엿다한다。

五

달은 해와도 달너서 그의態度 그의性質이 우리사람의게 優雅妖戀히想像되느니만침 그에關한傳說은 自然만어지게되엿다。大體 自古以來로 洋의東西를莫論하고 詩人치고「달」이라는題材下에 노래한番 읇지안은者가업다「좌암」한女子의말음 삭며서라도 하고십흔것이 사람의本性인 까닭인가한다。

달에關聯한 滋味스럽은 神話的傳說을 紹介하기前에 順序上便利에依하야 나는 몬저 그에關한 宗敎的迷信方面을 觀察하려한다。이亦是 滋味업는바는안이다。

月神도 日神과갓치 여러種族사이에信仰의 客體가된事實은 우에서暫間말하엿거니와 月神은日神과달너서 宇宙의全能한主神으로는 認定되지안코 恒常特殊方面을 主宰或은保護하는 部分的經路를 듸듸게되엿다。그런데 우리朝鮮에도 咸鏡道엇던地方에가면 어린이들의「해너머가는것을 찬찬히보면 엄이죽는단다」하는 一種 弄談비슷한迷信이잇거니와 特別히달에關하여는 이갓흔禁制(taboo)가 넓이 여러種族사이에 發見됨은 한番留意할 價値잇는事實인가한다。

「쌱룸필드」土人中에는 달을注視하는者는 하나도업다。그理由는 萬一달을오래熟視하면 大風雨가 襲來한다한다。그리고 兒孩들은 달을손까락질못함은勿論 月光밋헤서 自己의 그림자만指示하여도 죽는다한다。「바론가쓰」族은 新月이써오를쌔에는 들에서 일하지안을뿐안이라 月色이 明朗할쌔에는 草木의쌱리(根)를 쏜지안는다。犯하면 暴風雨나 우박(雹)이 襲擊한다고 밋는 까닭이다。濠洲 Euahlayi 族은 달을 어린이의保護神으로모시고 어머니들은 간난이의 幸福을爲하야 敬虔한마음으로 그애기의이마(額)에 달을그리며 兩쪽볼便(頰)과 턱(腭)에는地球의그림을 染色한다。그리고 滿月은 어머니들이 보지안을뿐안이라 어린이들도보지못하게한다。이에違反하는 境遇에는 鵝口瘡이나는까닭어라 한다。

女人이 달을너져보면 雙동이를밴다는 말도잇다。「쎄드포ー드」岬住民들은滿月期에잡지안은게(蟹)는 먹지못한다하며(朝鮮엇던地方에는 六月게를먹으면 눈이먼다는말이잇다)「낍스랜드」土人들은 어린이를威嚇할때에「달나라(惡魔가사는)로 구양보내리라」한다。

「토레쓰」海峽土人들은 新月의쳣빛이나타나는瞬間에 인제精神世界에 막들어온靈魂을 그의親舊幽靈들이 돌가시(石刺)가득한棍棒으로 그의머리를事情업시갈겨서 그를 自己들과갓흔同類幽靈 即 Markai 로 만든다고밋는다。이러한 迷信으로 新月이 떠오를때에 靈魂이인제아조죽는다하야 故人을追憶하는사람들은 無限히운다。

六

달을보고슬퍼하는 種族이잇는他面에 달을보고 類다르게 깁어하는種族이亦是만타。「카이타쓰」族들은 新月이오를때에 萬歲를高唱할뿐안이라 合唱隊로써 그를歡迎하며「맷심쓰」族들은 滿月期에 五六日式 舞踏會를繼續한다。

「포리네시앤」古傳에는 朝鮮의月桂傳說과 恰似한記錄이잇다。그에依하면 달에도 地球와갓치 山도잇고 골도이슬뿐안이라「아오아」나무가 茂盛하여 그表面의 검은部分은「아오아」나무人가지의 그림자라한다。그리고 거게는 달나라사람 Roan 가살며 넷적에는 새들이 地球와月世界間에 往來가자젓는대 한番은 새들이「아오아」열매를물고오다가 그만「포리네시앤」島嶼에떠려터린故로 그後그섬에「아오아」木이 生겨 낫다한다。濠洲「머레이」島土人들은 달을 金星의 男便으로녁이는대 이두夫婦가 한달에한番式 서로만나싸우고는 달은每日밤 그마누라를 버리고 멀이다려낫다가 또싸울作定으로그들은 다시만난다한다。

「쁘졸트」族에잇서서는 해와달이兄弟로 認定된다。이두兄弟가 서로붓잡을내기를하엿는대 몬저해가 다려나고 달이그뒤를쏘츤結果 얼마안되여 해가 달의게 붓잡혀섯다。다음에는 달이몬저다려나고 해가곳그뒤를따려스나 그는永々 달을붓잡지 못하엿다고傳한다「이神話의 起源은 달은엇던때에 낫에도보이지마는 해가밤에보이는일은 아조업는事實에 基因한다」

아프리카 佛領「싸호ㅁ이」土人들은 별을 달의딸이라고 生覺하며 中央亞細亞「앤고라」地方住民은 해와달을夫婦로 認定한다。이에「앤고라」地方에有名한 神話을들으면「넷날에넷날에는 해가아즉젊어서 蒼空을한부로 橫行한時代가이섯다。이 한참當年에 그가妖戀한明月을 만너섯다。둘이다 깁흔사랑에醉하엿다。그들은 곳結婚하엿다。그리하야 幸福스럽은生活을 繼續하는동안에 그들사이에는 數만은子女(별)가生겨섯다。하나님맙시사! 이두夫婦사이에 큰싸음이이러낫다。달은 그만무서워서 멀이다려나 地球뒤에가숨엇다。子息들은 모다 어머니를딸코 햇뜨는곳에는 하나도 나타나지안엇다。해가全速力으로 달을차저단이게 始作하엿다。이때로부터 해가──마누라를차저 地球돌기에──몸이벗적달어 熱

을發하게되엿다。그러나 달은永遠히男便가싸히 나타나지안엇다。그리고 怜悧한두딸(샛별과저녁별)노하여곰 아참저녁으로 派守를세워 해가어데잇는것을 알이도록하엿다。」

一九二九、一一、三〇

엠포리아타ㅣ마쓰홀에서

音樂과朝鮮사람

朴慶浩

「배곱흔데 音樂이다무엇이냐?」고不平을하실이가 잇슬던지 알수업다。그러나 今日에藝術運動이 朝鮮人의生을爲하야 必要하다는것을 여러말하기前에 쌔다를수잇다고하면 나는 우리의今日思想과生活의 傾向으로보아 音樂運動이 最大한効果를 내일수잇다는것을 爲先말하고십다。

× × ×

사람의情緖的表現方法은 사람의進化와文明의程度를따라 다르다고한다。今日우리의言語와 文化가이만큼 複雜하여진背面에 맨처음생겨난 우리하라버지들이 裸體로 피뚝뚝흐르는 호랑이고기를 돌칼노베혀 자실적에는 言語와情的表現方法이 얼마큼單純하고 鈍하엿스리라는것을 짐작할수잇다。다만音聲과動作이 그들의意思와情緖를 發表하는 最初의媒介物이엇슬것이오 그中에도傳達이 더容易한音聲이 더만히使用되엿슬것이다。그들은 喜怒哀樂을音聲의高低長短으로 表하기를 始作하다가 生活이좀더複雜하여짐을따라 意思와情緖를 좀더複雜하게 表現할必要를 늣기게됨으로 單純한本能的인 範圍를떠나 形式的表現方法을 追求하게되엿스니 이에비로소 音樂과舞踊이란藝術이 生겨나기를始作하엿슬것이다。(幼兒의言語와動作이 發達되는經路라든지 또는아모리原始的인 蠻人의게라도 一種의音樂과 舞踊이잇는事實을보면 이두가지가 어느쌔브터어떠케나려온것을 짐작할수잇다) 그리고 그들이器具를만들기始作하면서브터는 情緖를表現함에 音聲만으로滿足치못하야 가장求하기쉽고 만들기쉬운 나무토막을가로놋코뚜들기기를 始作하엿슬것이니 이것이樂器의始初이엇슬것이다。

이리하야 音樂이人類의 進化와文明에 並行하면서 要求에依하야 그形式이發達되고 樂器가發明되는동안에 한民族이나社會를 가장圓滿하게 情的으로表現하는 民謠와國樂等이 數업시만히生겨난듯하다。民族이나 個人이나를勿論하고 形便의優劣을가릴것업시 그들의게우슴이잇고 우름이잇는동안에는 一種의音樂이 떠나지안은듯도하다。이것이 事實이라면 한마듸라도더우려야하고우서야될우리로서 音樂藝術의緊要함을 엇지否認하랴!

× × ×

쎄토벤의심포니와 박너의歌劇을말할것업시 朝鮮北道에流行하는愁心歌 京畿地方의短歌라든지 南道의륙자백이갓흔노래를 드러보고볼너보자 이노래들은이것이生겨나든 그當時의 特殊한地方的情懷를 너무나哀然하게 呼訴하는民謠이다。그쌔의事情을文字로 表現한歷史、小說、詩라든지 言語로傳來하는古談에서 차자볼수업는美와 哀뭇한맛을 이民謠들中에 볼수잇다。

今日에도 뿌르階級의 亡家子孫들이妓生을쒸고、淫蕩한노래를 부르는한편에 一金七十五錢을밧고 地獄갓흔炭鑛속에서 十二時間式을苦役하는 그들의입에서도 흥얼흥얼하는 一種의쓴(苦)노래가 自己도아지못하게 나오나니이소리中에서 藝術的表現以外에 爆彈의導火線타는 소리와갓치 듯기에떨나는무엇이 울어나오는것을 늣길수잇다면音樂이라고輕視할수업슴을 잘알수잇슬듯하다。

× × ×

音樂이本能的表現方法인만큼 物質과權力의八字를타고나지못한民族의게 더욱히큰 意味를가진듯하다。무엇이든지自己네것은 다훌륭하다고자랑하는 美國사람들의게는 자랑할만한民謠가업다그러나그들이부리든黑奴의게는 自己네의現在를울고 將來를웃는 아름다운노래들이豐富하다。이검둥이들이 豪華롭고즐거워서 이런노래를불넛는가? 아니다。그들은 他人보다몃갑절더呼訴하여야될 억울한事情이잇섯기쌔문에 이런듣구술픈소리들이 그두터운입술에서不知中흘너나온것이다。그리하야 그들의게도生의渴望과自由의憧憬이 他人과갓치 强하다는眞理를 그들의音樂에서밝히차즐수잇다。

政治的으로壓迫을밧든 波蘭人의愛國性을 쏘한그들의音樂에서 볼수잇스니쇼팡의 폴로레이쓰(波蘭舞曲)와갓흔것은 붉은피가 點點히흐르는듯한늣김을주는愛國音樂이다。이와反對로 近日美國에流行하는 쌔쓰音樂에서는 黃金의渦卷中에서 엇절줄을모르는그들의 變態性享樂主義의 흐터분한맛을볼수잇다

× × ×

그러면 今日에朝鮮人은엇더한音樂을願하며 엇더한노래들이 生길것인고? 나는 엇던形式과 엇던旋律을指定해말할수는업스나 엇잿든우리의處地가이러하니만큼 우리의게맛는特殊한音樂이生겨야되겟다。누런통통하게 부어가지고움속에서 이산양을하는사람、길거리에서춤추는 精神病者、박아지차고京元線에오르는상투쟁이들과 쏘무엇무엇들의노래들도 잇서야될듯하다。우리의傳來하는녯날民謠도조코 쎄토벤이나쇼팡의音樂도 害롭지는안타만은 우리의게는이보다좀더달고 좀더쓰고 좀더뚝음한무엇을求하는듯십다。

× × ×

音樂文學과 密接한 關係를가진故로반드시 여긔에쫙할만한 文學이쏘한잇서야되겟는대 多幸이 우리中에는 그럴듯한詩人과作家들이 잇는듯하지만은音樂界에잇서서는 입쌔까지 너무나荒廢하엿섯다。作家는姑舍하고 변변한演奏者一人이업섯다。바이올린을 쒸고단

이는 나발통바지들과 크다란曲譜冊을 안고단이는 젊은치마들의數가느러가며 音樂學校의卒業生들이 하나식둘식還國하는이事實이 今日에多少希望을보이는듯하지만은 이것만을가지고는 到底히 安心할수업다。바이올린을켜든지 팽잡이를뚜들기든지 音樂學校를卒業햇든안햇든 엇지하든지 眞正한朝鮮人을노래할수잇고 노래식힐수잇는音樂家를 우리는願하는듯십다。

朝鮮의音樂家가되려면 광을求하는者가되지안코 광을난호아주는者라야될것이다。이럼으로 이노름을하기가 매우힘들것이오 따라서 우리가바라는音樂家들이 그러케쉽게 오지도안을드시念慮가된다。그러나 새삼스럽게斷言하고십지안타。期約업시떠난愛人과갓치 어느때에올는지 或은 窓밧게와섯는지도 알수업기때문에

× × ×

今日朝鮮에서 音樂이라면虛榮의對相物노 피아노라면奢侈의表로 音樂家이라면一種의바람쟁이로 認定되는듯합이過한無理가아니다。웨그러냐하면 過去에이것이 어느程度까지事實이엇기때문이다。音樂에아모素質과 一定한目的이업시「音樂」이란것이 그커조키때문에 덥허노코音樂家가되고십허서 不過數年에더배홀것이업는 大音樂家로自處하는이들도적지안엇고 또多少間배와가지고는이들은 音樂家로서의使命을 半分엇치도하기前에 風이動하야 ○○을하느니×이되느니 하여버리고만것도事實인듯하다。이와갓흔過渡期의 副産物을決코悲觀할바안이나 우리에게는남보다超越하는 樂才는잇건만 聲帶가붓도록 손쏫이터지도록 鍊習할만한 抗力이不足한것이 큰缺點인듯하다。天才가貴하거니와 勤勉은더貴하다。아모리氣가막히는樂才를타고낫다할지라도 勤勉이업는이는 音樂家될資格브터업고 더욱이朝鮮의音樂家로는 當치안은人物이다。音樂이란 決코쉬운것이아니다。반드시血汗의苦役을要求하는것이니 朝鮮의音樂家가되려는 兄弟들은 幸여나이眞理를 니저버리지안키를 바란다。

一九一九、八、一五

씬시나티音樂學校
圖書室에서

飮食과健康

崔 善 行

人體는한「働的機械」라함은 近代科學이지어준이름이다。吾人의身體는 自動車와갓치 때때로일하고각금停止하는것이아니라 時計와갓치쉬임업시 恒常가는것이다。그러나 身體란機械는 그組織과作用이甚히複雜하니만큼 그各部에使用되는 燃料인飮食의 種類와그作用을알지안으면 健康을保全하기어려울것이다。

飮食은 무엇

飮食이身體에 關係됨이瓦斯油가自動車를運轉함에 原動的이되는것과갓흘뿐아니라 飮食은身體의問斷업지 要求되는것을補缺하는일이며 낡아지는部分을補充하는 重大한일을하는것이다。다시말하면 食料는안으로身體成長의作用을繼續케하며 밧그로모든筋肉의運動을行케하고 또한熱노化하여서는 體溫을保全하는것이니 음식의作用을아래와갓치分類할수잇다。

一、元氣要素(燃料)食物의 大部分은 세가지成分을包含하엿스니

1、脂肪 脂肪은 食物要素中가장濃厚하고 또한그의吸收와利用됨이 느린것이니 脂肪食物노는써터、크림、落花生들이며其中에도써터는 가장重要한飮食의成分이다。만일써터를 使用치안는이는푸른菜蔬를 每日食用함이됴흘것이다

2、炭水化合物 炭水化合物은澱粉과糖質을包含하엿스니 澱粉이만흔食料로는大麥小麥옥수수等同質의穀物이며 馬鈴薯들이니이것들은 純然한炭水化含物이오 其外에靑豆大豆갓흔穀物에도如干包含되엿나니 澱紛은自然的으로우리飮食의重要한地位를點한것이며 果實은우리의게糖質과酸性을 供給하는것이니酸은澱紛이나 糖質맛찬가지로必要한飮食成分中에하나이다。

2、蛋白質 蛋白質中에는動、植、物의兩種이잇스니 動物蚕白質食料로는기름쉬업는肉類계란흰자위凝乳이오 植物[蛋]白質食料로는 豆類、落花生、穀物、特히麥類들이다。그러나 肉類에包含된것은다른蛋白質보다 內腸에腐敗物을만들므로肉食을過히하지안토록 注意해야할것이다。榮養學界에서 最近實驗한結果에依하면 게란을食用한쌔에는肉食은絕對로禁할것이며 牛乳를每日約三盃式飮用하는쌔는 게란을食用할必要가업다고하엿다。

二、身體를構成하는要素

1、蛋白質 蛋白質은特히 身體構成하는일과補缺하는일에 만히使用된다。어린아희는그의筋肉 神經血膜其他組織을增進하기爲하야이를使用하고 長成한이는身體에補健하는일을爲하야 이를使用한다。蛋白質의多部分은 身體構成에必要하고 極히小部分이補缺함에使用됨은身體란機械는 극히서서히衰弱해지는싸닭이다。蛋白質中에는 牛乳의그것이가장質이조코 有益한것이니 적어도身體의 生長期間에는 반드시牛乳가必要하다。

2 食鹽 이는飮食中에 包含된鑛物質을意味함이나 身體組成에必要한成分이다。食鹽中에重要한것은 鐵과石灰이니 鐵은血液을補充하며特히「캘시음」과合할쌔에其作用이 더욱有効하게된다。鐵은靑菜中에잇는蛋白質과잘合하고 또한豆類、麥類며乾葡萄갓흔것들에 合하엿스며 肉類에서도차즐수잇스나 그는그고기속에남아잇는血液中에 석긴것이라一次使用되엿던것임으로 그리 有益할것이업스니 最近에實驗한結果로보면菜蔬鐵質이 極上品이다。草食動物에게는貧血症이적으되 肉食動物특히犬과갓흔動物은흔이貧血노 呻吟함이其一例일

것이다。

石灰質은뼈、筋肉이며 血液에必要하니 每日需用量이대략十五粒이다。一般으로우리의食料中에 石灰質이不足함이共認하는事實이니 齒牙가腐敗하며 筋肉과神經이弱하여짐이 그로因함이다。石灰質은青菜와豆類와 牛乳에서차즐수잇스니 二盃半에牛乳가一日에사람의게要求되는石灰質을足히供給하니 만약肉類에서 그만한分量잇것을求하려면十五파운드가량이나 虛費하여야될것이다。물은身體의內部作用을調整하는데 업지못할要素이니 보통우리의게每日五盃가량이要求된다。特히水와 鑛物鹽中의캘시음燐鐵갓흔것은 身體內에排泄作用을도읍는데필요한것이다。

三、成長과健康의要素

榮養素(Vitamine)共히動物과植物의生長發達과維持함에 必需要素이니「바이타민」은 植物의게서産出되여서 動物의게食用되는때는 그動物의肝과內膜에保藏되여잇는것이다。一般으로 바이타민은青葉、菜蔬、菜소의芽 穀物의[illegible]種、糠들에서만어더들수잇다。

바이타민A는 牛乳、크림、빠터、게란動物의肝、青菜、黃菜(옥수수、호감커等)일년감(蕃柿)들의게서主히차즐수잇스며 飮食에이A가不足한때는生長이自由롭지못하고眼疾이나는것이다。

바이타민B는特히穀類중에많고 그外에도채소며一定한種類의果實、우유、게란이며 動物肝갓흔데에도만흐며 動物의飮食에서이B를除하면 그動物은生長을停止하고一般的神經炎이發하야 맛츰내神經麻痺로죽고마는것이니 사람도勿論이를不足히取하면 神經衰弱이생기며 口味를일케되고 榮養不足症을이르킨다 바이타민C는 橘汁래몬汁、青菜、新鮮한果實가운데많이包含되엿다 바이타민C는A나B보다消失하기쉬운것이니 食物을쓰리거나말니우거나저리거나 또는오래保管할수록 더욱이를消失하게된다 그럼으로 엇던種類잇것이든지生菜를매일食用함이됴흘것이며 一般으로쓰린飮食은이C가缺乏하나 일년감은例外이니 이는쓰릴지라도 그대로그C의 價値를保管할뿐아니라 A와B도 상당히包含하엿슨즉 可及的우리나라에서도 일년감栽培를 힘쓸必要가잇다고생각한다。바이드민C는身體內에 保管되지안은것이니 매일그를供給하여야할것이며 이C가不足한때에는 齒牙가弱해지거나 腐敗하는것이다。

飮食의分量

飮食의分量은各人의게要求되는 燃料의多少를따라 다를것이다。큰自動車가적은것보다瓦斯油를만히쓸것이며 무거운짐을運搬하는機關車는 뷔인車보다石炭을만히使用할것이니 一定한分量의일은一定한分量의力을要함으로 사람은그力을飮食이란形式으로 取하는것이다。農夫는學生이나會社事務員의 갑절의飮食을要함이 그一例일것이다。물론年齡과體重이며性의區別을따라 다를것이나 一般으로사람이普通休息할때에는 적어도그體重의 매파운드의十二캘노리가要求됨으로 每人의體重을平均一五〇파운드라고하면 그는一八〇〇캘노리를要할

것이며 사람이活動할때에는 그活動의性質을따라 二四〇〇으로 四八〇〇캘노리까지要求되니 筋肉勞働하는사람의平均每日要하는力이 三六〇〇캘노리라한다。

만일한사람이 每日二六〇〇캘노리를要한다고하면 그를三分하야朝飯에八〇〇、點心에一二〇〇、저녁에 六〇〇캘노리가량씩을取하도록하야 點心을主食으로함이됴흘지니 우리나라에서갓치朝飯을主食으로하려면 準備하기에大端히困難할뿐아니라 身體가休息中에엇섯슴으로口味가젹고 또한朝飯에過食을하고나면 疲困을感하기쉬운것이며 普通米國에서는 저녁을主食으로하나 저녁에多食하면消化不良과 不眠症이發하기쉬운것이니 그는多食後에胃가疲困하야잠을잘들것이나 그飮食이消化된후에는그것이腦와神經을刺戟함으로 한잠잘잔후에는 다시잠을일우기어렵게되며 저녁에多食을하면 朝飯에는口味를일키쉬운것이分明하다。그럼으로 可及的點心을主食으로함이 됴흘듯하다。

結論

自然은果然智慧롭고 奧妙한調達者이다。自然的食料는種種色色의 要素를化合하야 人間의必要한榮養을適當하게供給한다。自然의손을것처온 食物中에는 우리의身體의必要한 모든것이具備하엿스니 脂肪과炭水化合物은燃料로 蛋白質은補缺料로食鹽은補充料로 바이타민은榮養料로 그리고맛츰내身體의消化作用을도읍고 身體內의 不用物을排泄하는緩化劑까지 造成한것이다。그럼으로 우리人生은 그를適當하게 利用하고 못하는데 健康不健康의 結果를가지게 된다。 (끗)

米國女學生의寄宿舍生活

朴 마 리 아

數많은大學과 거게의딸리운無數한寄宿舍를 다ㅣ알지못하고 이글을쓰기는 좀未安한生覺도없지않으나 제가 經驗한몇곳과 觀察한 몇곧을 統括하야 統一되는點을 紹介하려합니다。

寄宿舍制度

普通으로 米國大學은 校庭內에 寄宿舍를 둡니다。學生數에依하야 大小或은多少의區別이잇고 位置는할수잇는대로 學校建築物에갓가온곧 또鮮明한곧을擇하야 學生의便宜를줍니다。寄宿舍안에 모든設備는 東洋人의眼目으로는 奢侈하다고할많금 되엿읍니다。

規則生活。얼는生覺할때에 米國人온個人主義者로써 모든것에自由롭다하야다ㅣ自由自在로온듯하지마는 共同生活의嚴格한規則은 다른것이없읍니다。

起寢時間。普通으로 저녁十時나十時半이 就寢時間입니다。그러나 꼭定刻이면 불을끄고 就寢해야만하는것은 아

넘니다。十時以後이면 個人의事情에依해서 늣도록或밤새도록이라도 잇을수잇으나 嚴格한靜寂을要求합니다。起寢時間은 普通六時나 六時半임니다。米國女學生들의놀널만한것은 起寢後準備의速度임니다。어떤때는 五、六分前까지도 臥床함을보고 食堂에와보면 如前히할것을다하고 食卓에叅席합니다。勿論太半은 短髮이오 또短髮이아니라도 머리가길지는않지마는 何如間 우리東洋女性들에게比하면 놀납게빠릅니다。

食事時間。學校時間에따라 各寄宿舍의飮食時間이다르나 食事時間에늣거나不叅하는境遇에따로 食事를함은 嚴禁임니다。飮食은 各寄宿舍마다 榮養學을 專工한이가 잇어 學生生活에 要求되고 適當한 食物을 供給합니다。故로 이點에잇어서 私家의 飮食보다優越하다고 할수잇읍니다。食事하는時間은 比較的 길ㅡ게 걸닙니다。우리習慣은 飮食時間에는 無言함이 禮節답게 生覺하나 米國人의 風俗으로는食床에서 우숩고滋味잇는 談話를 할수잇는사람일사록 社交性잇고 滋味잇는이라고 生覺합니다。換言하면 食事時間이면 兼하야 一種의社交時間임니다。食床심부름은 或學生들이 當番順序로하기도하나 이것은매우드믄일이오大槪는 苦學生들이함니다。

出入時間。米國大學에서는 一二年級生과 上級生과의差異가 甚함니다。따라서 寄宿舘에서도 그氣分이잇게됩니다。一二年級生의 저녁出入은 親戚이나 上級의同伴이없으면 嚴禁합니다。勿論上級生에게는 홀로夜間出入을許諾하지마는 特別許諾이없이는 十時內에入舍를要求하며 누구를勿論하고 出入時間登錄을要求합니다。

病室。어느學校든지 校內에 校醫와看護婦가 잇어寄宿舍學生에게 疾苦가잇을때에 썩 便利합니다。寢室及洗面所。普通으로 寢室은獨房이며 或二人式留하기도하나 二人以上이 한방에留함은 매우드믐니다。二人이 同宿하여도모든器具(冊床、冊床電燈、體鏡、골방等)은다ㅣ各其쓰게設置되여잇고 寢室은 모다 깨끗하고 어엽부게裝飾하느라고 서로들競爭이람니다。寄宿舍에따라 어떤곧에는 每房에 洗面所가잇으나 一般으로는 各層에 人數의넉넉하도록 잇읍니다。各房淸潔은 每日自己가하나 一週一次式 寄宿舍下女가 大掃除를 하여줌으로 事實 自己가할것은 別로없읍니다。

社交生活。사람은 다ㅣ社交的動物이요 群集性이强하다하지마는 米國人에게잇어서는 이本能이 더 强한듯함니다。男女寄宿舍를 勿論하고。社交室或은應接室이具備하지마는 女學生寄宿舍에는 特別함니다。壁에걸니운寫眞、門帳、「피아노」、「우레되오」、椅子等이다ㅣ 來訪客의발을 멈추게 되엇읍니다。男女親舊를勿論하고 언제나 이곧에서 面談할수잇읍니다。金曜日이나土曜日은 흔이 社交저녁으로지내게됨니다。어떤때에는 이寄宿舍에서 저寄宿舍동모들을請하야 小宴會「틔파틔」를열고 노래와 閑談으로 저녁을보냄니

다。먹는것이 主가아니라 다만 차한잔 菓子한조각을 난호면서 집떠난 客窓의懷抱를 서로 慰安해주며 즐김이 이런모힘의 主旨인듯합니다。社交로는 여러가지 娛樂會가 잇읍니다。몃자지를말하려면「호보파틔」、우리말로하면 假裝行列이 아마 第一 近似할듯합니다。「칠두렌스파틔」누구나 이모힘에 叅席하려면 衣服言語 動作에 어린이가 되어야함니다。이밖에 節期를따라 形形色色의「파틔」가많읍니다。二月十四日「매린타인파틔」四月一日(쇠기는날)復活節、感謝節、「할로윈파틔」等임니다。年齡의差異를不顧하고 한덩어리가되여 웃고즐김이 그들의樂天主義樂觀思想을 드러냅니다。男女別이甚한風習에 커진우리의 眼目에 먼저띄우는것은 그들의天眞스럽고 自由로운 男女交際임니다。함께教室、劇場、舞蹈、野遊會散步에 同伴함니다。어느点으로는 그들의交際가 너무紊亂한듯도하고 危險性도 잇어보이나 그런環境에서어려서브터 生長한 그들임으로 모다天然스럽게보임니다。또는 各其가질禮節을가추엇고 紳士답고淑女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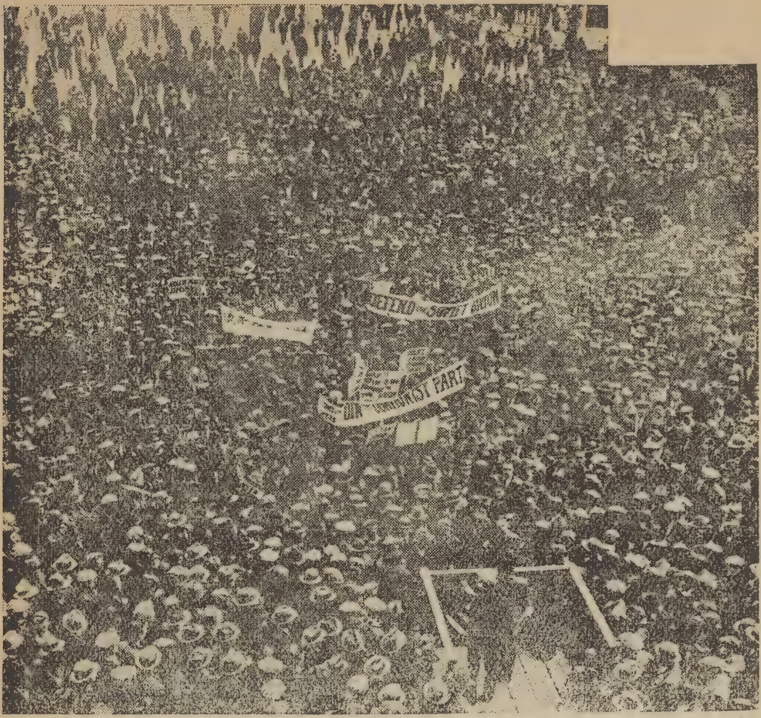
이렇게 米國女學生들의寄宿舍生活은 順序的이며 溫氣가잇고도活氣가잇고社交性이잇음니다。同宿하는이들을 食口로역여 相扶相助하려는精神이 豊富하며 有無相通하는두터운愛情이 그들의長点이라고 할수잇읍니다。

最近米國社會主義運動

쉬카고 金浩哲

米國과같이 現代資本主義國家를代表하고 世界富國이라고 떠드는곳에서 社會主義或은 共産主義를 研究하는것이 자미잇음니다。그것은 冊에서社會主義의主張과資本主義의弊害를 배우고 또實際로體驗하게되는까닭입니다。 富國으로 强國으로 世界에有名한米國에서 勞働者들이 支邦나印度에서 부르짓는「弱者의설음을」부르지지며 朝鮮과같이「배곱흐다――」하고 부르짓는참혹한소래를 이黃金國에서도 듯게되는것이異常할것도 없겟지요。쉬카고의길을밟은이들은 적어도하로에數次식은배곱흔이가밥먹을돈을달나고 애걸하는불상한親舊들을 만낫을것입니다。

그리고잘데없어 길우에서徘徊하는者들이많고도많음니다。朝鮮의貧民은 움속에서살지만 米國貧民은 洋屋에서삽니다。 洋屋에서사는貧民이 世界大工業都市의하나인 쉬카고에 近三十萬名이나 되는것을볼때 現代米國經濟組織이勞働者를爲하여잇지안코나 하는生覺을가지게됩니다。아마도 資本家의긔게박휘가 도는곳에는 東西古今할것없이勞働者들의 참혹한生活은 같을것입니다。긔게소래가 요란히들닐사록 배곱흐다고 부르짓는소리가 더들입니다。



뉴욕共産主義者들의示威運動



쉬카고共産主義者들의示威運動

昨年八月에 新聞에 發表한것을보면 米國의失業者가 二百五十萬 八千一百五十一人이라고함니다。그러나 그後에 일이노이 勞働局長의發表에依하면 八百萬名의失業者가 잇다고함니다。社會主義의· 다시없는좋은親舊인 失業問題가일어나자 이곳저곳에서 社會主義運動이 組織的으로社會에낫타난것이외다 朝鮮의學生運動이 일어나든써 米國各大都市에서는 격렬한社會主義의 示威運動이일어낫음니다。昨年三月에 紐育에서는 五萬餘名의主義者가 市街를돌면서『打倒資本主義賃金을올려라 大統領후버를打倒해라』이세마듸를 깃발에써서들고 야단을쳐음니다。警官隊들이自動車馬로群衆을解散할때 사람과사람에치워 死傷者도낫음니다。米國首府와싱톤에서는 主義者들이 白宮을습격하엿지요 資本家側으로 담을넘은主義者들을 私宅侵入犯人으로 몰앗는데主義者側의 변호사 의자미스러운답변은 다음과같음니다『白宮(White House)은 후버의私宅이안이요 米國百姓의 Publis House 이다。그럼으로米國市民이 自己집담을넘는데 무슨私宅侵入이냐。』얼마前에다시 紐育에서 다시示威運動이 잇엇는데 모혓던群衆이 解散하지안음으로 警官側에서는 Jeargas(이것을群衆에던지면은 사람들의눈에서 눈물이나와서로보지못합니다)을던젓는데 한젊은女子가自己것헤선親舊보고 하는말이 울지마시요 이눈물을저―警官들좀보게합세다。』

민니소다 인듸아나폴이쉬 샌푸란시스코等의 大都市에서도 以上과같은示威運動이잇엇음니다。只今은 쉬카고社會主義運動이나 쓰려고함니다。내가잇어서 直接본대로 쓰려고함니다。이곳에는 五十萬名의失業者가 只今잇음니다。昨年三月에千餘名의主義者들이 市廳을습격해 多少의負傷者가 낫음니다 그後다시 그네들이모와『社會主義建設 資本主義打倒、賃金을 올려라、露西亞를相當한國家로 是認해라』等의宣傳이 잇음니다。꽃같이아름다운 젊은女子가 주먹을부루쥐고 米國의資本主義를 根本的으로 파괴하라고부루지짐도 보왓음니다。警官들은 門外에서기다려 그들이閉會하고 나오는쪽쪽 自動車에실어 警察署로다려갑데다。巡査의매를마즈면서도 더욱히같은處地에잇는 求景군들의 조소를밧으면서도 그네들은그네들의갈길을 꾸준히가는것같읍데다昨年三年以後로 只今까지 一週日에 平均두번식은모와서 討議或은 宣傳강연又는 市街에서 示威運動等이잇엇음니다。只今도 게속함니다。只今쉬카고에는 一萬五千名의主義者가잇고 其他社會主義에共鳴하는사람이 한萬名가량된다고함니다。그러나 事實은以上의數字를 훨신넘슴니다。인제는 學者側으로政治、經濟、歷史、哲學等을 가르치는大學教授들이야말로 學者의態度로 科學的으로 國家社會主義를 是認하는態度를커들이모와 討議하거나 或은學校에서 敎授時間에 엿볼수가잇음니다。敎授들이 敎授時間에 社會主義이란것이무엇인지 說明은하지만 宣傳은못합니다。하는날에는 쪽겨난닛간요 實例

를들면 쉬카코大學에서 數年前에한분이쪽저낫음니다。學者들은 이와같이學校에서 或은冊으로슬굼슬금 일함니다 米國에有名한 經濟學者와史家들이 露西亞에가서 社會主義를硏究하고 돌아와서는 社會主義의有利한말을 新聞과雜誌에긔재하는것을 우리는종종봄니다 米國에社會主義로 第一有名한 위시칸신洲立大學같은데서는 社會主義를直接가르침니다。各大學에 社會主義의書籍이 完備해잇는것을보와도 學者들의第三線運動의 힘을볼수가잇음니다。政治家側으로 米國上議院、共産黨代議士中에 左傾色彩를띈사람이 패잇지요 主義者로서 共和黨에들어 革命을避한國家社會主義實現을 꿈꾸지요。代議士로露西亞에가서 七個年동안이나 社會主義를硏究하고 돌아온엇던代議士가 처음으로만나는 新聞記者의게하는말이『米國이露西亞를 國家로 是認하지안어서는 안이됨니다』

다음으로는 學生側으로ㅣ 社會主義의일흠이 좀잇는쉬카고大學안에는 社會主義者會가 잇음니다。昨年五月一日에 엇던學生이校門에다 赤旗를매단일도잇엇지요。위시칸신大學生을 中心을삼아가지고 全米國各大學에 社會主義者의秘密會가잇음니다。내가只今 在籍한學校에도 내가알기까지는 社會主義學生을 열손구락은꼽지요 哲學倫理時間같은데들어가보면 少數의左傾學生들이 社會主義의哲學과 倫理를옹호하는것을 볼수가잇음니다。나는 學校圖書館이나 市俄古圖書館에안저 內地의共産黨事件에關한 新聞을읽다가겻에안는白人學生이『나는 社會主義者입니다』하고 손을내미는경험이 한번이나두번이안이외다。全米國의中學校에는 少年社會主義者會가 秘密이잇음니다。以上의秘密團體가 組織的으로되여 모다연락하고잇음니다。이곳저곳에서 본대로한十歲가량되여뵈는少女가 맑스의社會主義란冊을 그러케 열심으로보는것도보왓고 社會主義者家庭에서 잘아나는아희들은 自然히환경의支配를밧아 社會主義者가됩데다。失業하고 길가에서돌아단니는그들이 모와안저서는 不平을말하며 自己네들의生活을 安全케할社會主義의 經濟組織밋헤서 사는것이現制에서사는것보담 낫지안을가하고수군수군거리는것을봅니다。남들은 잘닙고잘먹고 돌아단니는데 自己네들은所謂救제한다는 門前에길게줄을지어주는밥을먹는데 먹는사람이나 이것을보는사람의마음이 如何할가요

인제다시 米國共産黨의 活動을말하려함니다。一週日前에 政府側의發表에依하면 米國內에 米國市民으로社會主義者가 一萬二千名이요 其他共産黨黨員이 六十萬名이라고함니다。一萬二千名은 共産主義을爲하여 안니勞働者를爲하여 生命을내여놋코 싸호는사람이라고함니다。米國政府에서는、一萬二千名을 國外로내여좃는다고 패떠듬니다 今年을當하여 필나델피아에서 와싱톤(一三五哩)을 Hunger March 한일이잇고 正月十二日에 쉬카고에서는 一萬二千名의 Hunger March 가잇엇음니다。그리고 이네들이 市廳에들어와 七千

五百萬弗을, 要求햇음니다。 그것은 五十萬名의失業者의게 每週日에十五弗式支出할것 瓦斯、電氣、電車料을 밧지안을것 失業者의게 稅納을免除할것。失業者의子女의게 無料로飮食을供給할것等을 要求함이엿음니다。 오는二月十日에다시 市廳에모혀와 일과빵을달나는 示威運動이잇을모양이외다。

共產黨의首腦者인 Foster 氏가오는二月八日에 米國西部를다시巡回하기로內定이된 모양입니다。 共產黨에서경영하는 Workers' School 이紐育、쉬카고밀웍기에잇음니다。 英才들만 모와다勞働者를 指揮하는方法—同盟罷業、主義宣傳하는等을 가르침니다。 이네들의宣傳하는新聞은 다음과같음니다。 Daily worker, Labor unity, Crane worker, the Hudson worker, the Dodee worker, the Fordworker, tha Deering woker, Young worker Labor Defendr the Young pioner, negro and white worker, Northwestern

本問題에 탈선되는줄알지만 한가지 말하고십은것은 우리네의 社會主義運動인데 米國共產黨에加入해 그들과합게活動하는學生도잇지만 多數가學者의態度로 社會主義를 硏究합니다。 그럼으로 第一線上에선니는없지요 社會科學會員中에 위시칸신大學 硏究院에서 社會主義를 專門的으로 硏究하는니도 잇음니다。 順序없이 이소리저소리하여 未安함을 금할수없음니다。(完)

米國의富와貧

가 을

米國의富가 몃사람이 政府의 손에 集中되여잇는것은 과연 놀난만하다。 씸스敎授의 發表에 依하면 도모지 百八十人이 米國의 四分之一의 富를가젓다고한다 한會社에서 米國의鋼鐵과 金鑛의 生產大部分을 獨占하엿고 또한會社는 燈火油(石油、깨솔린)의大部分을차지하엿고 세會社에서 米國全國의 電報와電話線을 가젓다。 다삿會社에서 肉類生產의 大部分을 차지하엿고 여들鐵道會社에서 米國鐵路哩數의 三分之二를 管轄하고、그一面에 二十五人이九十九 鐵道會社를 連鎖的으로 所有하엿스니、그延長이 二十一萬一千二百八十哩로 米國蒸氣力運轉機關의八十二퍼센트를 運轉하고잇다。 二百名個人이 全米國의 材木을所有햇고 三大會社가 그材木業을 經營한다。米國의 가장發達된水道事業 三分之一은十三會社에서 水道會社에서 經營한다。

클레인氏는 그 著書『王朝의아메리카』에、米國의鐵道와 主要한 生產機關인 十四會社를 支配(所有)한 一百家族의 이름을 列記하엿고、위스칸신大學 敎授「킹」씨에依하건대 米國사람 百分之二의 손에 米國의富 約六十퍼센트가 잇고 그反面에 六十五퍼센트 即多大數의人民이 겨우 五퍼센트의富

를 가젓고、二百萬名이 남저지 二億萬名의 다 合한것보다도 더 많이 가젓고 百十二會社에서 가진資本이 二百二十億弗인데 南部 十三州의資産을 合한것의 二倍라고한다。겨우百五十萬이 年三千弗의所得稅를 묻다。

이러케 少數人의 손에 富力이 集中된것을보앗스니 이제는 얼마나 많은사람이 어떻게 貧困하게사는가보자

해마다 約七十萬名이 工場에서 負傷하고、해마다 約四箇月로六箇月間에 二百萬名의 失業者가잇고 最近의調査에依하면 쉬카고에만 近三十萬의 失業者가잇다고한다。

米國人口의 十二分之一 即 一千萬名은 常時에는 貧民이오、이 貧民들의 死亡率은 富饒한사람의 三倍나된다하고。就學年齡에잇는 어린이로 學校에 못가고 勞働하는數가 大略一百七十五萬이나되고 세아이 가운데한아이만이 小學校를卒業하고 열에 하나이 中等學校를 卒業하고 千에하나이 大學을 卒業한다고한다。

米國人口의 百分之十五가 겨우 生活의 安全을 얻고 그外百分之八十五는 生活의 保障이 없고 百分之三만이 所得稅를 물수잇고 그남아지는 所得稅를 물지못한다。

米國의 富의 分配를 다시말하면 全人口의 約十分之一이 十分之九의 富를가지고 그남아지 十分之一을十分之九되는 人民이 가젓다。大部分이 所有土地없이 집없이 生活의 保障이 없이 이 세상에 태여난다。過去二十五年間에 一千에ㅣ커以上의 不動産을가진사람이 三萬名에서 五萬名以上으로 增加되고、그一面에 小作農은 점점增加되엿다。米國도 겉으로 보기에는 훌늉하나 실속은 큰經濟的不安에 빠저잇는것이 事實이다。

米國富豪의 本質

張 基 永

過去에 나는 富豪라는 말을들을때부터 발서 其참된人格과智力은如何하엿든지 姑捨하고 惡德無慈悲의類로認定하여버리게되엿다。

오즉 나뿐아니라 이같이역이는것이 우리朝鮮靑年머리에 富豪를보는正當한見解인것으로 慣習的固着이되고마럿다 其然由가 어데잇섯는가를簡略히말하면 富者라는名稱을듯는사람은 大槪가守錢奴에 不過하엿든까닭이라고말할수잇다 內地에서본ㅣ 守錢奴其各自體에本性은細細히例擧하랴아니하나 그全部가自己의私利를爲하야서는 手段의如何를不顧하고 道德上人類社會에서 間離된孤輩이엿든것은事實이다。

이에反하야 米國富豪를보고 多感되는것은勿論그의本質的訓練修養이 우리네富豪와는 雲泥에差異인關係일것이나

나의生覺과본대로例擧하랴면 米國은建國歷史가 오래지못한新國家요 新國民인만치 活動的氣力이豐富하게보인다。

古衰한國家廢古한累係를바리고온 新移民으로서 새로운土地와 新富源에對하야 엇지無關心하엿스리요 未開이엿든各事에對하야 活躍하든 그氣質은常今것 全米國人에게 遺傳된特徵이되야 勇猛과果斷性으로 企業的精神을濃厚하게가지고잇다。

故로米國人은 大膽無比하게 新事業을始作하며 假令一二次失敗를當할지라도 決코落望失心치는아니한다。

發明的才能과 組織及經營的頭腦를具備하고 兼하야勇敢決斷的企業精神이豐富한才能을가진 米人에게刺戟을주는것이무엇인가하면 即金錢이라고할수밧게업다。

新國인까닭에 窮久한歷史를가지지못한然由로 家門又는爵位같은것은 없을뿐아니라 米人의慾望과目標는 오즉事業과金錢이되고만다。然而一言을 미리加하랴함은 米人이金錢과事業을目標하고 活動하는것은 金錢그物件이慾心이남도아니요 安逸을求하랴함도아니다。

單只米國人이 成金富資되랴함은 其各自에가지고잇는 才能如何와 또困難에忍耐하는勇氣를가지고잇다는 證據로一般社會에서 尊敬을밧게된다。換言하면 米國人은 돈을爲하야 金錢을慾望치안코 事業을爲하야 또自己가社會에서 認定받기를爲하야 成富하랴고盡力한다。

米國서는 富者가됨은 社會上名譽를獲得하는 가장有力한手段이다。그럼으로 이나라에서는 金錢과名譽가一致한것을보겟다。又米國人은 成富하랴고努力하지마는 그金錢으로 自私의消費慾을滿足시키기爲함은 決코아니고 돈은自己에才能努力을 計尺하는 測尺으로生覺할뿐이다。그런까닭에 多數富豪는金錢에對하야 意外인만큼 淡白할뿐아니라 正當한理由만잇스면 社會的事業에寄投하여 조곰도哀惜히역이지안는다

即돈에對한 米國式考察로보면 此國經濟的活力은 非常히擴大하여갈것이다

生覺컨대 한社會에서 그社會사람들이가장尊重하는것은 其社會에서 오즉長步로發達할것이며 또才能잇는有意의靑年은 大槪善良한野心의 憧憬으로其事에從事할것이다。

이러한例로 藝術及學問도 世上에서藝術과學問을尊敬하는곳에서는 最善에發達이되나 돈을爲하야藝術又는學問을第二目的으로하는데는 發達되지못한다

以上과같은 論法으로事業은 一般社會에서 成功한事業家에才能을 認定하는同時에 其品格을尊敬하는곳에는 發達되지마는 다만社會上流階級人士에一分子가되랴고 努力하는데는 發達되지못할것이다。

故로 나는以下에다 米國一類富豪에一人인 헨리 • 또트老人의말한바를 轉說하랴고한다。

그老人의말한바에依하면 金錢을賢良히使用함은 成功에第一步요 또優越한事業家될資格에하나이라하며 金錢을貯蓄함만으로서는 生産的事業은 못할것

(一二〇頁로續)



米國의新聞王 윌리암、헐스트

平原學人

一

윌리암 헐스트 (William Hearst) 가 米國의 新聞王이라는 榮譽를 致히 받을資格이잇느냐。하면 或曰「可」요 或曰「否」라 할것이다。全國的으로 三十九種의 新聞과 雜誌를 發行하고 그로엇는바 利益만 每年 約一千五百萬弗 ($ 15. 000. 000) 의 巨額에達하야 全米國의 政治、經濟、社會、各方面을 左右하며 世界의 政治舞臺를 잡아쥐고 흔들다십히하는 헐스트氏이니 實로 近代國際的名物中하나이오 現下 新聞界의 覇王이라하지안을수업다 그러나 헐스트新聞의 新聞政策이 劣惡하야 販賣第一主義로 極端의 쎈세슌랄리즘 (Sensationalism) 과 쐥고이즘 (Jingoism) 을 濫用함으로 一般이 헐스트新聞을 가라쳐말하기를「얄로쭈느날」(Yellow Journal) 이라고 鼻笑한다。그럼으로 제아모리 多數의 新聞을 所有하고 言論界의 權威가 크다할지라도 그를 米國新聞界를 代表하야 新聞王이라는 稱號까지 주기는 너무나 압깝게 생각할사람이 적지안을것이다。

二

윌리암、헐스트는 米國加洲 桑港市에서 一八六三年四月에 出生하엿다。그의 아부지는 農場과 鑛産業 으로 巨富가 되엿고 米國上院의 代議士까지 歷任한 서슬이 푸른 家庭이엿다。

윌리암 헐스트는 키가 六尺이오 極히熱情的이며 固執과 野心이 相當이만흔사람이다。一八八二年에 하바드大學에 入學하야 約二年間 공부한후 中途에 退學하엿는대 學生時代브터 日課보다 政治와 新聞에 더趣味를 가젓다。大統領選擧運動當時에 民主黨 候補者 클리블랜드氏를 極力 聲援하엿고 氏가 勝戰한뒤에는 米國大學歷史以來 未曾有의 一大示威運動을 擧行한일도잇섯다。그럭고 餘暇가잇는대로 뽀스톤市에잇는 新聞社에 가서

新聞業에對한 一切經營方法을 見習하엿고 特別히「뉴욕 월드」를 發行하는 플릿쳐氏의術策을 思慕한關係上 뉴욕市外지차저가 見習한일도잇섯다。

一八八七年에 桑港으로 도라와서 自己아부지의 經營하든 新聞「桑港 엑샘으널」紙를 引繼받아가지고 비로소 新聞業을 着手하엿는대 때에 年齡은 겨우二十四歲에 不過하엿다 그新聞으로말하면 自己아부지가 七年前에 政治的目的으로 買受한것인대 그營業成績이 시원치않던次에 더욱히 二十四歲에不過한 그의 아달이 引繼하엿다는 消聞이나가자 一般市民은 鼻笑를마지안엇다。

何如間 헐스트는 자긔의 確信이잇는바이라 外評에對하야 귀도기우리지안엇다。헐스트가 드러가자 新聞政策과 編輯方法을 根本的으로 變更식히고「쎈세슌라리즘」의鼻祖인「뉴욕 월드」의 플릿쳐氏의 方法을 採用하엿다。이것이 오늘날 有名한 헐스트의 쎈세슌라리즘의開幕이엿다。페이지마다 寫眞과 漫畵을 滿載하고 事實을 誇張식혀 驚天動地의 風을 떨치며 宏壯한 特號活字題目을 羅列하는外 甚至於 淫談悖說까지 써리지안코 무슨짓으로던지 讀者만히 잡아쓸어들일作定이엿다。「群衆이興奮하는때는 新聞도 興奮하라」하는것이 그標語이엿다。



米國新聞王 윌니암•헐스트 (記事參照)

또한他一面으로는 人選에着眼하야 斯界의猛將들을 만히쓸어드렷다 그中에는 論說에 알려 맥유엔 (Arthur Mcewen) 記事에 쌤 쨈블렌(Sam Chamberlain) 漫畵에 호머 떠본폴트 (Homer Devonport) 等 現下 全國的으로 名聲이높은 猛將들도 잇섯다。

헐스트는 當時에 峯起하기 始作하는 大財閥들과 그들의 弄絡物인 政界의「뽀스(首領)」들을 反抗하야 機

會가잇는대로 筆峰을 놉히들어 나려부싀다。或者는 헐스트의 아부지를 中間에 내세우고 自己네 罪狀을 감추아주기를 交涉하엿스나 아부지의請도 그點에잇서서는 拒絶하엿다。한번은 鐵道王 헌팅톤氏의 압잡이인 민주당 색쓰 썩클리事件을 暴露식혀서 投獄까지 식힌일이 잇다。

그리하야「엑샘으널」紙는 大衆 特히 下級層人民의歡迎을 밧게되여 部數가 나날이늘기 始作하엿다。

三

第一次試驗에 成功한 헐스트는 一躍하야 米國의 最大都市인 뉴욕市로가서 全國的으로 이름을 한번 휘날려볼 意思가 생겻다。때에 뉴욕에는 맥클린氏가「뉴욕월드」紙의 플릿셜氏의 同生이 經營하던「모닝쭈느날」을買受하야 新聞代金을 一部에 一仙이던것을 二仙式으로 引上한關係上 成績이不良하여 多額의 損害를 보고 後繼할作者 나서기만 求하던次이라 헐스트는 그新聞을 買受하엿는대 때는 一八九五年 九月이오 氏의年齡은 三十二歲時이엿다。

헐스트는 즉시 桑港 新聞社에잇는 猛將記事 멧멧사람을 불너오고 新聞代金을 다시 一仙으로 引下식힌후 한때에 自己의스승이던「뉴욕월드」의 플릿셜氏와 一大競爭을 開始하게되엿다。월드社의「블리스벤」이란 二十三歲의天才的記者를 (그外또한사람까지두사람) 을 그社長의게 若干不平이잇는것을 利用하야 (或은돈으로 쐬여다가) 自己社로 쓸어왓다。블리스벤의게는 年俸二十五萬弗까지주엇다。雙方이 다「쎈세숀랄리스트」이나 헐스트新聞은 그量에잇서서 倍勝하엿다。何如間 헐스트新聞은나날이部數가 增殖하야 그翌年에는 夕刊도 發行하고 每日曜日마다 八十頁의 特大號를 發刊하엿는대 그特大號中에는 八頁의 有色漫畫와 三十六頁의 雜誌欄과 二十四頁의 婦人欄等 讀者의 興味를 끌만한 資料가 滿載되엿다。그리고 聖誕特大號는 無慮 百十餘頁에 達하엿다。

헐스트는 또한 政治界에 出現하야 黨派心을 利用하야 讀者를 끌기 始作하엿다、一八九六年 大統領選擧當時에는 民主黨候補者 쁘라얀氏를 極力聲授하야 民主黨系의新聞으로 公認을받게되엿다。헐스트新聞이 後授한쁘라얀氏가 落選은 當하엿스나 그選擧當日에 헐스트新聞의 發行한 部數는 一、五〇六、六三四部를突破하야 當時 新聞界의 新記錄을 일우웟다。

一八九七年 希臘과 土耳其戰爭時에는 헐스트新聞社에서 特派員을 派送하야 希臘王을 親히 面會하고 그面會談을 大書特筆한일도잇고 그後 큐바事件을 導火線으로삼아 여러가지 놀낼만手段을 써가면서 米國이 西班牙에 宣戰하기를 極端으로 主唱하야 及其也 米西戰爭을 演出식히고야 맑일도잇다。

一九〇〇年 大統領選擧當時에는 다시금 民主黨候補者 뿌라얀氏를 聲援하고 共和黨候補者 맥킨리 大統領을餘地업시 攻擊하얏스나 及其也 失敗하야 맥킨리大統領이 再選되니 헐스트는 激奮하야 左記와갓흔 論說을썻다。

「만일 惡한 制度와 惡한 人物을 죽여서야만 업새버릴수잇다면 죽이기라도 할수잇다」

그後 맥킨리大統領은 不幸히 凶漢에게 暗殺한바되니 全國의 輿論은 물끌틋하게되엿다。

헐스트는 또한 一九一六年에 米國이 歐洲大戰에參戰함을 極히反對하야 全國的으로 反對與論을 峯起식혓는대 當年에英國과 佛國에서는 헐스트新聞의 通信連絡을 禁止식혓고 一九三〇年에 헐스트가 佛國에 訪問時에는 秘密條約 暴露事件으로因하야 佛國政府에서 出境을 命하엿다。

四

何如튼 헐스트新聞은 全國的오로 廣告되야 販路가널리열리고 營業的으로 크게 成功하엿다。헐스트가 第二次로 뉴욕에서 成功한뒤에는 新聞의大「췌인」制를 設計하고 全國的으로 新聞을 設立하기를 始作하엿다。一九〇〇年에는「치카고 아메리캔」을 始作하엿고 一九〇二年에는「치카고 엑샘으널」을 사서 그후「치카고 헬랄드」와 併合하야 現在는「치카고 헬날드 엑샘으널」라한다。一九〇四年에는「보스톤 아메리캔」과「羅城 엑샘으널을 始作하엿고 그후 繼續하야 各重要都市에 거의헐스트新聞이 設立되지안은곳이 업다십히되여 一九二五年에 至하야는 米國 十七都市에 二十五種의 新聞을 所有하게되엿다。

헐스트는 新聞뿐 안이다 雜誌도 여러種類를 經營하는대 그大槪가 다 趣味雜誌이다。그中에는「코스모폴리탄」、「굿 하우스킵핑」等이 有力하고 英國에잇는「내쉬스」도헐스트가 經營하는 雜誌이다。

그럼으로 現在 헐스트가 所有한 新聞과雜誌는 都合三十九種이다。그外에다 헐스트의 管轄을 밧는 國際通信機關이 멧개잇고 映畵界에 亦是 關係가 密接하다。

五

그럿틋 헐스트氏가 言論界에는 覇王이나 하나 헐스트自身이 政界에 出馬하여서는 크게 成功을 하지못하엿다。一九〇三年으로 一九〇七年間에 米國下院의議員으로 當選한以來 뉴욕市長 候補者로 數次 出馬하엿스나 한번도 當選되지못하엿고 뉴욕洲 知事運動도 멧번 하엿보앗스나 亦是 失敗하고말엇다。한때에는 大統領候補者의 物望도잇섯스나 그후 民主黨領袖 스밋트氏과意見衝突이 생긴以來 다시 政界에出馬를 하지안이하엿다

하여간 헐스트氏는 米國新聞史上에 大書特筆할 人物이다。現下 米國新聞界에는 헐스트氏의 影響이 莫大하다。오늘날 米國新聞界에 流行하는「쎈쉐슌라리즘」은헐스트氏에게 밑은 影響이라 할수잇다。

그러나 헐스트가 獨唱者는 안이다。以上에도 屢次말하엿거니와 헐스트의 쎈쉐슌라리즘은 플릿철氏에게배운것이다。헐스트新聞의 췌인制는 스크립스氏에게 배운것이다。(끝)



米國婦人界의巨頭 젠·아담스孃

崔 敬 植

一

젠·아담스 (Jane Addams) 孃은 社會事業機關의 鼻祖인 치카코에잇는 헐·하우스 (Hull House) 의 創設者인대 바로 昨年(一九三〇)에 헐·하우스 創立第四十週年紀念式을 擧行하엿다。

아담스孃은 社會事業家로만 有名할뿐안이라 婦人運動과 國際平和運動의 先驅者이다。또한著書에잇서서도 愛讀者를 만히가젓고 學界의 相當한 權威를가젓다。

×

아담스孃은 一八六〇年 九月六日에 北米 일리로이洲 쎄다빌에서 出生하엿다。그의 아부지는 洲會議員으로生活이 裕餘하엿고 아부라함 링컨大統領과 매우 갓가운 親友이엿다。

열닐곱살떼에 락포드女子大學(現在는共學制)에 入學하야 歷史와哲學方面에 特別히 趣味를 가젓섯다。

一八八一年에 락포드大學을 卒業한후 將次 醫學을 工夫하야가지고 貧民醫療事業에 從事하겟다는覺悟로서 필라델피아醫科大學에 入學하엿스나 約一年後에 健康이조치못하야 中途退學하고 歐羅巴로 건너가서 約二個年間 漫遊하엿는데 特히 英國 倫敦에 만히 잇섯다。

當時에 歐洲의 經濟와 社會問題를 特別히 注意하야 硏究하엿고 倫敦東部에잇는 貧民窟을 자조 訪問하엿다 그러나 孃은過激한 革命家이라기보다 急進的 進步主義者라 根本的 社會組織의 缺陷을 改革하려는 革命運動을 쐬하기보다도 엇더케하여야 저 불상한 貧民들에게 衣食、餘暇와敎養을 給與할수 잇슬가하는 實際問題를硏究하엿다。

當時에 倫敦에는 그러한 目的으로서 악스포드大學에서 設立한 톤비·홀 이라는 社會事業機關이 잇섯는대 아담스孃은 그런機關의 必要를 切實히 늣기고 將次歸國한후 치카코市에 그런機關을 設立하기로 決心하고그의 同志 스타孃과 諸般計劃을 設計하엿다。

二

一八八九年 九月에 及其也 치카코 外國移民의 中心地인 훌스테드街에 헐•하우스라는 社會事業機關을 開館하엿다。처음에는 그의同志 스타孃과 더브러 두女子가 始作하엿스나 그후에는 一般有志人士의 後援을 엇어서 事業이 日就月長하엿는대 헐•하우스를 直接으로 後援한 人士中에는 쏸•쮸이와갓흔有數한 哲學家도잇섯다。

헐•하우스 隣近에는 三十六個國 異民族이 모혀사는 貧民窟의區域인대 實로커들을 爲하야 도와줄事業은 數로 헤아릴수가 업섯다。헐•하우스에서는 커들緊要條件을 大體로 食住、餘暇、敎養等 三大部門으로 分析식혀가지고그救濟策을 各其 組織的으로 硏究하야 實行케되엿다。紙面上關係로 因하야 헐•하우스에서 經營하는바 事業을 一一히 列擧하지 못하나 그重要한 事業과 活動의 種目이나마 紹介코저한다。

헐•하우스에서 開始한 첫 事業中에는 育兒院과 幼稚園과 職工婦女寄宿舍等인대 그는 現下 工業都市에잇서서는 工場이나혹은 會社에서 일하는 職業婦人들의어린애 處治問題라던가 또는 싀골에서 호미자루를 집어던지고 工場으로 모혀드는 靑年女子들의 宿泊問題가다 相當한 頭痛꺼리인까닭이다。敎養事業으로는 圖書館과學校(晝學、夜學、家事科、簡易工藝科)等을 設備하고 講演會와 討議會를 隨時開催하며 娛樂으로 室內運動場과 劇場을 設置하고 各種音樂隊를 組織하엿고 産業方面으로는 消費組合、相助會、同盟貯金會、簡易作業場(織造、鐵工、印刷、陶磁器)飮食店等을經營하며 政治方面으로는 法律顧問部를 設置하야 外國人과 貧民의人權을 保護하며 同時에 現代政治生活에 對한 訓練과 指導를 게으르지안는다。또한 社會問題調査部를 組織하야 失職、住宅難、犯罪其他 一般社會問題를 硏究調査하며 그外에도 헐•하우스와 直接혹은 間接으로 關聯된事業이 적지안타。

以上과 갓흔 重要하고複雜한 事業을 經營하려면 應當 專門的知識과 技能이 要求됨은 贅言을 要할바안이라 헐•하우스에서는 直接으로 專門的 社會事業家養成을 開始하엿다。그것이 嚆矢가되야 現在 米國에잇는有數한 大學에서는 社會事業科를 特設함에 니르럿고 뉴욕市에는 社會事業 專門學校까지 設立되엿다。日本東洋大學에서도 멧해前브터 社會事業科를 新設하엿다。

三

아담스孃은 한거름 더 나아가 一般社會改造運動에投身하야 혹은 講演으로 혹은 著述로 改造思想을 널리 鼓吹하기 始作하엿다。그 著書中 著明한것은 一九〇二年에 發行한「民本主義와 社會倫理」를 爲始하야「Newer Ideals of Peace」「The Spirit of Youth and the City Street」

「Twenty Yars in Hull House」「The Second Twenty Years in Hull House」等이다。

그와갓치 孃의 名聲이 全國的으로 놉하지자 一九○四年에 위스칸슨大學과 스미트女子大學에는 名譽博士位를 授與하엿고 그後에도 各種名譽學位를 無數히 밧엇다。

그러고 一九○九年에는 全米慈善事業家大會의會長으로 推選되엿고 다시 國境을超越하야 一九一五年에는 和蘭首府 헤그에서 開催된 國際婦人議會의 議長으로 當選되엿고 그會가 常設機關으로 組織된후 繼續하야 會長의職任을 屢次 歷任하엿다。그會議가 즉 婦人選擧權運動의嚆矢요 國際婦人平和運動의 開幕이라 할수잇는것이다。孃은 尙今까지 그會의 名譽會長의 職任을 가지고 잇다。

四

回顧컨대 아담스孃은 社會事業과 婦人選擧權運動의開拓者인 同時에 勝利者이다。그러나 孃이 始終이 如一하게 奮鬪하는 國際平和에 잇서서는 尙今까지 前途가 暗暗하고 事實 世界平和가 可能하냐 不可能하냐 問題조차 一大疑問이다。

아담스孃은 톨스토이思想의 影響을 만히밧앗는대 그의 平和主義亦是 톨스토이에게 배운바이다。孃이 톨스토이와 會見하기는 歐洲漫遊當時인대 그때會見이 孃의 一生之計에對하야 莫大한 影響을 주엇다한다。

何如間 아담스孃의 思想은 現下 個人主義와 實際主義가 澎張한 米國社會에 잇서서 너무 理想的이오 時代에 너무 압섯다는感이 업지안코 짜라 種種衝突조차 업지안어잇섯다。例를 들면 쌋코ㅣ 반잿틔事件에 孃은 쌋코와 반잿틔를 死刑臺에서 救護코저 活動한바잇서尙今까지 一部保守派側에서는 아담스孃을 赤色過激派로看做한다。그러나 現下 米國社會에서 老少男女와 左傾右傾派를勿論하고 一般的으로 歡迎을 밧는人物은 아담스以上가는사람이 업다고하여도 過言이안이다。이點에잇서서 朝鮮의 故李商在先生을 聯想하게된다。

아담스孃은 키가 多少 적은듯하고 溫厚謙遜하며 얼골에 多少 悲觀的氣分이 흐른다。筆者가 私席과 公席에서 數次會見할 機會가 잇섯는대 朝鮮問題에 對하야 그리研究는 적으나 깁히 同情하며 弱小民族運動에對하야 一般的으로 만흔趣味와 期待를가진 婦人이다。

現代米國大衆詩人研究

쉬카코 韓世光

—目 次—

緒 論

「I hear America singing, the varied carols
I hear............
Each singing what belongs to her,
and none else............
Singing with open mouths,
their strong melodious songs.」
—WALT WHITMAN—

(一)

一九〇〇年의새로운世紀의줄은 曠漢한新大陸을 開拓하기에 沒頭하고잇든 米國人으로하여곰 오늘에까지 이르는 새로운줄노써 크다란매듭지를 매저노앗다。二十世紀劈頭로붓허 米國의새로운소래는 더욱이 놉하지기 始作하얏다。

現代哲學의主潮인 實用主義(Pragmatism)가 젬스와뜌이의손에서 解産된것도 이쌔로비롯하엿스니 이實用主義의哲學은 五十餘層의天摩閣과갓치 現代의米國心을 잘表徵하고 잇다。

內國的으로 이實用主義는 工、商、農의振興運動을 이르켯고 쏘한 政治敎育、모든方面에 크다란 社會革命을 이르키엿다。그러고 이實用主義는 人間主義와 自由平等主義의새로운소래와갓치 歐羅巴大陸을向하야 쏘한波動하엿다。

일노붓허 人間의幸福이 이조고만 불뎅이의表面우에잇는것을 깨닷게된것이니 유롭에잇서 에수의人間化運動은 더욱이 現實을 重大視하고 人間生活을 本位로하려는現代的運動의하나라고 볼수잇다。

○

그러나 한때에이들이 필라델피아의깨여진 獨立鍾의목메인소래와갓치「나에게 自由를 달나! 그럿치 안으면 죽엄을!」하고 손톱이달토록 땅바닥을 두다리엿든것을 우리는 잘안다。그러고 黑奴解放을 施行하고 人間의自由平等을 부르짓든 무리도 이들이다。이들이 新大陸을 건너올때 한個의벽돌이나 한個의쇠못도 가지고오지 안엇든것을 우리는 잘안다。그러나 今日에 이들의大陸을 건느는사람으로써는 누구나 놀나지안을수 업는것이다。

○

이들은 豊富한財源을 가로놋코 밋친듯이 世界를向하야 소래치엿다。亞米利加大陸은 우리의것이라고 宣言하든 몬로가지나가고 東洋隣邦의未來를 疑心하야 戰禍殺戮의東洋을 默認하여주든 루스벨트도 지나갓다。때로는 黑髮의東洋人을 排斥하든무리도 이들이엿다。

○

더욱이 今日에와서 世界資本主義國家의極盛을 자랑하고잇는것이 現代의米國이다。

모든것이 딸라本位가 되지안엇나 하리만큼 이들은拜金主義를 神聖視하는것이 事實이다。收師로붓허 教育家 政治家、藝術家、또는 一般民衆의要求가 딸라를焦心으로하고잇다。이것은 이곳와서 實際로 目睹하는 事實이잇다。禁酒法을 通過하든 그들의손은 빨간술잔을 놉히들고 어제밤에 結婚한안해를 離婚할수잇게 햇스면하고빈다。刺戟에서 刺戟으로 그들은、엉덩이춤과갓치、빨간술에 밤깁는줄을모른다。

○

이러한 享樂과 慾望은 無限할수업는것이다。성차게돌아가든 이社會의수레박휘도 이저는 쐬그걱쐬그걱소래를 내이게되엿다。工場地下室에서、天摩閣꼭댁이에서、땀내나는農場에서、피땀을흘니며 市民의義務를 忠誠하든그들에게는 날이가도록 그날의먹을 팡을 엇기에 힘들어젓다 그들의엽구리에는 피땀을새고 氣盡하여 넘어지는동모가 늘어간다。그들의안해는 그들을 黃金箱으로 알게되고、그들의애들은 거리못퉁이에서서、한장의新聞을 팔기위하야 고함을 치게되엿다。

이것이 오늘의世界를 支配하는 꼭갓흔傾向이다。

(二) 先驅詩人왈트•휘맨

現代米國文學은 十九世紀末葉에 지나간 先驅詩人 왈트•휘맨의 색리고간 씨에서 發芽한것이다。그는 詩集「Leaves of Grass」(1856)로써 英國文學의傳統과 模倣에서 써나 새로운米國文學을 樹立하여야 한다는것을 雄辯하

엿다。

그는 古典文學主義에對하야 不自由함과 階級的임을抗意하고 나섯다。여긔서 그는 自由詩 (Free Verse, 表現形式을 自由로하는)를 創作하기 始作하엿고、또한 表裏不同한 社會制度와自由、平等主義等의 虛名美辭에對하야 더욱 不滿을 가지게되엿다。

○

뉴잉글랜드一方에서 書室에싸인 英國文學을 들추어내든 쿱퍼ー와롱펠로의勞役에서 고개를 푹숙이고 米國에對하야、民衆에對하야、自由에對하야、眞摯한態度로써 自省을 이르키고 都市、農村、湖野로 돌아단니며 眞正한意味의米國을 追求하든 詩人이 왈트·휘맨이엿다。

○

그가 떠나가든때에 벌서 새로운씨의發芽를 보게되엿스니、맑트웬의「INNOCENTS ABROAD」에서 휘맨의生氣잇는노래를 讚美하는 첫소래가나왓다。그러다가 世界大戰이 지나가면서붓허 雨後竹筍갓치 휘맨의노래를 讚美하는詩人이 書室에서、大學에서、거리로 나오기 始作하엿다。

○

비로소「ROBERT FROST, CARL SANDBURG, AMY LOWELL, EDGAR LEE MASTERS, VACHEL LINDSAY, ROBINSON JEFFERS, E. A. ROBINSON, 等의代表的時代詩人이 大陸各處에서 出現하엿다。

『나는 米國의노래함을 듯는다
여러가지의노래소래를………
米國을 노래하는 그노래소래、
그러고 다못 米國을………
넓다랏케 입을버리고 불으는、
强하고 부드러운 노래를——』

휘맨은 이러한 滿足과豫期의노래를안고 米國文學의先驅者로써 一八九二年에 도라갓다。

(三) 大衆作家一群

휘맨의豫言과갓치、망치소래와煙氣에 잠기여잇는 이大陸우에는 果然民衆으로붓허나온 새로운詩人들의 우렁찬노래가 곳곳마다 터저나왓다。都市에서、農村에서、或은書室에서 現實에對한 새로운批判과認識을 把握한그들은東部를비롯하야 中、西、南部各處에서 크다란소래를合하고나왓다。

쉬카고의病的都市生活을解剖한 칼샌벍의詩集「CHICAGO POEMS」(1916)를 비롯하야、農村生活의赤貧에서 낫하난農民의生活面을 描寫한 매스터스의詩集「SPOON RIVER ANTHOLOGY」(1915) 린세이의詩集「CONGO AND OTHER POEMS」(1915) 와 프로스트의詩集「NORTH OF BOSTON」(1915) 等은 同時代에낫하난 代表的詩人들의새로운 소래엿다。其外에 롸빈손、로웰、앤더ー슨等의作品이 여긔의

反響으로써 쏘한 넓히여주엇다。

○

勿論 小說壇에서도 同一한步調를 取한것이니 씽클레어•루이즈의都市生活을 解剖한「MAIN STREET」農村生活의橫斷面인 루드•쒹코의「COUNTRY PEOPLE」쉘우드•앤더슨의「WINESBURG, OHIO」와「POOR WHITE」等이 쏘한이時代를 雄辯하는 作品이다。

○

亦是、戲曲界에서는 유진、오네일、필립、쎄리、시드니하드와、폴、그린等이 이새로운 運動에 參加하고잇다。

○

이運動은 正히新亞米利加主義를 高唱하는것이엿다。評論界에서는 얼빙、쎄빗、폴、모等의人間主義(HUMANISM)와 쩸스、캐벨、쏚、쏘、스、펫소等의 新人間主義(NEW HUMANISM)의兩派가 오래동안 論戰을 繼續하여온다。宗敎를 肯定하고 人間의生活을 改造하려는 一派와、人間을 本位로써 現實을執着하야 科學的、實用主義的世界로 改造하려는 一派다。그러나 兩派의根本眞理는 人間과現實을 本位로한 社會的改造에 잇는것이다。

(四) 三詩人에對하야

우에서、紙面關係로、斷片的으로 現代米國을 紹介하엿다。이제 내가 여긔에論究하려는 샌벍、매스터스、린쎄이三詩人에對하야 本論으로 들어가기前에 一言한다。

現代米國詩壇에는 大別、無產派(大衆運動派)와 民族主義派로 大別할수잇다。다시 無產派안에는 過激派와緩和派가잇고 民族主義派안에는 人生派와藝術派가잇다。다시말하면 無產派는 世界的이요、民族主義派는 米國的이다 그러나 우리는 詩人들의作品을 通하야 보는以外에는어느詩人이 어느派라고 指命할수업는것이다。싸라서 그들은 形式을取하는데도 各其달은곳이잇다。엇든作品은 印象派式으로 엇든것은 自由派形式으로——이갓치 여러가지 形式으로 그들은 作品을 내놋는다。

그러나 내가 여긔에 紹介하는 세詩人은 가장代表的無產派詩人이다。그들의 作品은 휫맨의自由詩形을 取한雄辯的作品이다。휫맨의大衆詩의定義대로 그들은 創作한다。

「It is an attempt to give the spirit the body and the man, new polentialities of speech an American, a cosmopolitan (for the best of American is the best cosmopolitanism) range of self-expression」

(「大衆詩」는 精神、몸、쏘는 人品、새로운言語、雄辯的인 새로운潛勢力과 米國人이되는것과 (最善한米國人이되는데도 最善한 世界主義야한다) 世界主義者로써의自己表現力을 가지게하는것이다。

이휫맨의精神을 그대로밧고잇는것이 여긔에 내가紹介하는 代表的세詩人이다。

(1)쉬카고詩人 칼·샌벌

一九一六年에 「CHICAGO POEMS」를 出版하고 쉬카고詩人이라는 일홈을엇은 칼, 샌벍은 엇더한 사람인가!

그는瑞典으로붓허 流浪하여온 移民의아들노써 一八七八年一月六日에 쉬카고서얼마써러저잇는 쎌스벍이라는조고만農村에서 出生하엿다。小學校를 畢하기前, 그가 十三歲나든해붓허 貧困한家庭은 그를悲慘한現實압흐로 쓸어내엿다。

그쌔로붓허 한해는 밀크馬車를짜라 밀크配達夫로, 여섯해는 엇든港口에서 商店員으로, 劇場에서 雇用으로煙瓦製造場의運般夫로 센버ㅣ와오마하호텔의 그릇싯는下人으로, 또는 캔사스農場의秋收하는 農夫로, 人間으로써밧을모든 勞役을體驗하엿다。

이갓흔 現實의勞苦는 그로하여곰 冷情한人格을 만들엇다。一八九八年 西班牙와 宣戰布告되든해에 그는 일니노이스洲의 義勇兵으로 出陣하엿다。

그러나 戰爭에서 도라오든해에 그는 곳 롬바드大學에入學하야 文學研究에 뜻을 갓기始作하엿다。그가 卒業하든해에는 롬바드大學校誌의 主筆이엿든것이다。

그後에 그는 밀왁키市長의秘書로 數年지나고 쉬카고로와서 쉬카고日報社文藝部記者로 얼마동안 지내엿다。

그러나 그는 三十六歲까지 아모일홈업는 無名詩人이엿다。이쌔까지 數篇詩를 月刊雜誌等에 發表한쌔도 잇다。

一九一四年에 그는 비로소 「詩」(POETRY)라는 해리엣, 몬로의月刊詩雜誌에 數篇의詩를發表할 機會가 잇섯다。그로붓허 그는 連해야 「詩」誌에 쉬카고를 詩로써 表現하기에努力하엿다。

「詩」雜誌의主筆해리엣·몬로는 現代一流의女流詩人이다 그의「詩」는 처음붓허 同人制로써 出刊하게 되엿스며 그쌔 同人으로 일홈잇는 사람은 샌벍、매스터스、그러고 印度詩聖타고아다。이쌔에 타고아는 米國에건너와서 漸時各大學을 歷訪하여 哲學講議를 하고잇섯다。

샌벍의詩集「CHICAGO POEMS」는 이有名한「詩」雜誌에 發表할機會를 엇은것으로 비롯하야 레빈슨賞을밧게되엿고 또한 出版者의손으로 넘어가게된것이다。

이것이 샌벍의쉬카고詩人이라는 일홈과갓치 今日에이른 略歷이다。그는 露西亞의맑심、쇼ㅣ키와갓치 가장쓰라린 現實을맛본 作家中의一人이다。

그後에 그는 連하야 農村生活을 描出한詩集「CORNHUSKERS」(11918)와 現代都市生活、工場生活을 表現한詩集「SMOKE AND STEEL」(1920)을 發表하엿스니 이것들이 그를代表的大衆詩人으로 알게한 그의三部曲이다。

그外에 그는 第二世國民을 敎養하기爲하야 四五卷의童話集을發表한것이잇다。近年에는 故鄕인 쎌스벍에서 勞

働者、農夫들의 부르는民謠를 取集硏究中에 잇다는消息이잇다。이제 그의代表的作品을 通하야 그를 側面的으로나마 論究하여보자！

○

그의詩「HALSTED STREET CAR」를 닑어보면—

漫畫家여！ 이리로 오라、
아츰 닐곱시
홀스테드 電車안에서
나와갓치 스트랩을 잡어라。

그대여 붓을들어
이얼골들을 그리여보라！

이햇숙한 얼골들을 그리여보라！
도야지 찔느는者갓흔 그의입、
工場에일가는 게집애들！그 느러진볼들을。

그대여 붓을들어
이 疲勞한 얼골들을
그대의記憶속에도 그리여보라！

濕氣에 커즌 새벽녁——
싸늘한 아츰 일즉이
자고 이러난 그들의잡
얼골
渴望에서 絶望된
憧憬에서 寂滅을 안은。

(註＝스트랩 (STRAP) 은 電車안에 매달린 革紐。)

그의詩는 街頭에서서 雄辯함과갓다。그는 勞働者의生活을 觀照하며、그들의可憐한處地를 눈물과갓치 바라본다。쉬카고의홀스테드街는 勞働者가 가장만히 通行하는 不潔한거리다。그外에「THEYWILL SAY」、「FISH CRIER」、「CLARK STREET BRIDGE」等과 二十餘篇의 이와갓흔詩가잇다。다시「CLARK STREET BRIDEE」를 보자！

발의씌끌(塵)
그러고 수레박휘의써끌——
수레와 사람들은 지나간다、
하로 終日 수레와 발자죽。

지금은……
……다못 별과 안개、
외로이 섯는 巡査、
두酒店의舞子、
그러고 별과 안개、
이제는 발도 수레도 지나지안네。

딸라(弗)를 찻는소리
그러고 피방울 자죽
……………………………
失望者의소래여！
……소래는 모여노래한다、노래한다。
……銀錢의소래도、노래한다。
별보다도 부드럽게
안개보다도 희미하게。

이두篇詩로써 그가 勞働者들의 墮落되여가는 悲慘한 生活을 窺視하고 또한號泣함을 볼수잇다。

○

그는 現實을 執着하야나가며 將次올 世界를 理想한다。그는 忠實한現實主義者요、또한 理想主義者다。그의 十四節의「펜실배니아」라는詩가운데 마즈막句에 이런것이잇다。

「그러고 銃을닥글손이 업시되고、
銃은 壁우에 걸닐것이니——
손구락은 銃을 가르키지도 안코、
다못 이즈려든 物件갓치 될터이니
커들은 거믜에게
『어서 줄을 치여라』고할것이다。」

이것으로써 그의理想에對한 現實性을 알수잇는것이다
그는 또한「밤」에對하야 아름다운想을가지고 새벽을憧憬하여 노래한다。「밤」에對한詩도 三十餘篇이잇다。現代는 안직도 캄々한밤속에 잇는것이다。

○

이제 그의生活全部를 表徵한「나는 平民이요、賤民이다！」(I AM THE PEOPLE THE MOB.)라는 詩로써 그의 思想과主義와生活을 들어다 보자！(이詩는 金太線氏가 먼저 譯하여둔것이잇서 그로붓허 고마웁게밧어 引用한다。)

나는平民이다—賤民—群衆—集團。
아는가！ 세상의모든큰일이 나를通하여되여진것을？
나는勞働者發明家、世上의飮食과衣服을 만드는勞働者
나는 歷史를 證明하는 聽衆이다。
「나폴레온들」도 나에게로브터왓고、역시「린컨들」도。
나는 地上의種子요、오래두고 갈어먹을 草原이다。
사나운 暴風雨들은 나에께 타친다。
나눈 닛는다。
나의상책은 쌜니우고 바리엿다。나는닛는다。
모든것을—그러나 나에게 죽엄이오고 날노일하게맨들고、무엇이나
내가하려는것을 中止케한다。나는또한닛는다。
가다가 쌔々로 나는 不平을 울붓고 몸부림치며、
긔억함에 멧방울피를…흘닌다。그러고 나는닛는다。
平民、내가추억의길을 더듬을쌔、

平民、내가 昨日이라는 日課를 使用할때、더오래닛지못하겟다。
그가 지나간해에 나를훔처갓고、愚弄하얏나니——이케온세상에、
말할사람은 업슬것이다。
그일홈을「平民」한점의冷笑로써
혹은 놉게 크게웃는 嘲弄으로써—
그 賤民—群衆—集團—그러면 압날에올것이니——

이詩는 그의初期作品으로 가장 힘차게 民衆을 代表하야 노래한것이다。以上에 紹介한것은 모다 그의「쉬카고詩」에서 譯出하엿다。紙面關係로 이것으로써 그를 側面的으로 研究함에 긋치고 다못 現代米國詩壇研究의 一考가되면한다。마즈막으로 그가 世界의가장不可思議한 屠殺場갓흔 쉬카고를 文學上에表現한「쉬카고詩人」이라는것을 重言하여둔다。

(2) 農園詩人엣가、리、매스터스

一九一五年매스터스의詩集「SPOON RIVER ANTHOLOGY」는 米國詩壇에 異彩를씌고 出世하엿다。農民生活을 題材로한 作品으로는 이것이 最初이엿다。여긔서 現代都市文明의極盛에잇는 米國人으로하여곰 貧困에싸지며잇는 農民에對한 크다란問題를 提供한것이다。

農民文學의先驅詩人 매스터스는 一八六八年八月二十三日에 캔사스洲쌔넷이라는 조고만農村에서 出生하엿다。그가 안직赤兒로잇슬때 그의家庭은 윌니노이스洲 두이스톤으로 移去하엿다。數年間 그의父親에게서 法律을學習하야 辯護士의職을엇은것도 이곳이엿다。

그가 辯護士가된後에는 곳쉬카고로와서 營業을 始作하엿다。그러나 讀詩를즐기든 그는、얼마큼 詩人의天賦가 잇섯든지、無識하고貧寒한 農民들의 訴訟事件等에서 農民의可憐한生活을 窺視하는 눈이잇섯다。여긔서 그는 斷然히 辯護生의職을 辭退하고 讀詩로써 그날그날을보내엿다。이때에 그는 샌벍、타고아、린세이等의 詩人과 握手할機會를엇어 몬로女史의「詩」誌의同人이 된것이다 얼마동안 샌벍과갓치 都市文學研究에 沒頭하고잇든그는 閑寂한 農村을 차저나갓다。農民의아들노써의 그는 都市에서 農村에 도라올때 前에늑겨보지못한 一種의悲哀가 잇섯다。그것은 農民들의忠實한勞苦가 餘裕와安樂의生活을 일허버리고 아모러한 生의安慰가 업슴이엿다 靜養을 目的한 그의歸鄉은 외이려 그로하여곰 날카로운刺戟으로써 詩人의가슴을 찔너주엇다。이때까지 平凡하든 그의가슴에는 크다란소래로 血脈이 넘치고잇섯다 農村에서 農村으로 숩과 江을 건너、두두단니며、그는「SPOON RIVER ANTHOLOGY」를 聚集하게된것이다。

그는「SONGS AND SATIRES」(1916)「THH GREAT VALLEY」(1916)「TOWARD THE GULF」(1918) 等의詩集을 繼

續發表하야 農村生活과 農民의報酬업는 努力에 辯護를 加하얏다。

이제 그의「스푼으리버-버엔톨로지」集췃頁에실닌「언덕」(THE HILL)을 넑어보자!

엘마、헐맨、벨토、톰、또한찰리는지금어데잇느냐?
弱者인强者인賤者인酒酊軍인 쌈軍인이들이?
그들은、그들은、모다 언덕우에 자고잇다。

그는 感氣에 도라가고、
그는 鑛産에서燒死하고、
그는 말다툼끗에 마저죽고、
그는 獄가운데서 죽고、
그는 妻子를爲하야 勞役하든 다리에서 落死하고、
그들은、그들은、모다 언덕우에 자고잇다。

엘라、케잇、매기、리쐿、또한에지는지금어데잇느냐!
부드럽는、純眞하든、괄々하든、교만하든、多福하든、
이들이?
그들은、그들은、모다 언덕우에 자고잇다。

그는 북그러운産兒로 죽고、
그는 片愛失戀에 죽고、
그는 娼女로써 人肉商의손에 죽고、
그는 貪慾의失望에서 죽고、
그는 倫敦、巴里의生活에서 도라와 엘라、케잇、매기보다 조곰후에 죽고、
그들은、그들은、모다 언덕우에 자고잇다。

—(下節略)—

이詩에 흘으는 리듬과 성찬무드를들을때 매스터스가 歸鄕한후에 얼마나 農民의貧困한生活에對하야 號泣하엿스며 同情하엿는가 나는 特히 朝鮮의여러青年들과갓치 늑겨보고 십헛다。그의詩는 모다 이러한 人類愛와憐憫한熱情에서 나왓다。그의「SONGS AND SATIRES」는 모다 부드러운노래로써 이러한 感情을 옴겨주는 沈靜하고 뜻깁흔詩를 모은것이다。

그의特色은 沈靜한것과深刻한것이다。때로는 神秘感을 가지고 人間의錯亂한生活을 窺視하는 눈이 잇다。그의 詩「籠안에서」와「靜寂」의二篇은 가장이를 表現한것이다。

○

그는 또한 世界人類를爲하야「平和」를 노래하는 詩人이다。現代英國詩人 킵플링의詩「모든것을 爲하야 存在하고 所有한다」(FOR ALL WE HAVE AND ARE)라는 英國民族의精神을 高唱한것에 매스터스는答하야 全世界人類의平和를 노래한「칼을쌔여라! 오! 民衆이여!」(DRAW THE SWORD, O RPUBLIC)라는 詩가잇다。

이두詩를 對照하야 매스터스의 人類愛의노래를 들어보자!

「모든것을 爲하야 우리는存在하고 所有한다。
모든 우리의兒童의將來를 爲하야、
나려서라! 그러고 戰爭하자!
헌은 지금 門間에 잇나니。

—(中節略)—

여긔에 問題는 다못하나다——
모든사람이 제목숨을 내놋는것이다。
누가 自由를일코도 나려서며?
누가 英國이살엇는데 죽으려는가?

—킵풀링—

(註=헌 (HUN) 은 亞細亞로붓허 歐洲를 浸入하엿든 匈奴의族名이다。여긔에는 다못敵을 表徵함이다。)

이제 매스터스의「칼을싸여라! 오! 民衆이여」의表詩에서 멧節이나마 싸여보자!

—(前節略)—

칼을 쌔여라! 오! 民衆이여! 칼을싸여라!
英國의光明을 爲하야、
露西亞의復活을 爲하야、
佛蘭西의悲哀를 爲하야、
또는 束縛과貧困에 우는
世上에모든 大衆을 爲하야!

—(中略)—

自由를爲한 精神의힘으로써、
人類愛를 爲한 힘으로써、
또한 죽엄을慰撫할수잇는 힘으로써、
압흐로올 偉大한人類들을 爲하야、
칼을쌔여라! 오! 民衆이여!
칼을싸여라!

이詩로써 매스터스의偉大한 人類愛를 同感할수 잇는것이다。그가、새로는、無政府主義者로、或은 共産主義者로 指目을 밧어온다。

○

매스터스는 現代米國이난 大衆詩人의 하나이다。그의 哲學은 自由보다도 사랑에잇다。人類愛로써 世上을抱擁하려는 가장뜨겁고、沈靜한 詩人이다。지금도 亦是 農村의언덕을 넘어단기며 그들과 노래한다。

(3) 鄕土詩人배쉘、린세이

鄕土美術家요、鄕土詩人인 배쉘、린세이 (VACHELLIN-DSAY)는 一八七九十一月十日 일니노이스洲 스프링필드에서 出生하엿다。스프링필드中學을 卒業하고 히람大學에入學하엿스나 美術을專攻할目的으로 쉬카코美術學院에 轉學하야 美術을 專攻하다가、다시 뉴욕美術學校로轉學

하야 美術硏究를繼續하엿다。그러나 그는 詩人으로써의 美術家이엿다。

그가 쉬카고에 잇슬때에는 亦是 샌벍、매스터스와갓치「詩」雜誌의同人이엿다。

뉴욕美術學校에서 나온 그는 數三年동안 黑人의根據地인 플로리다、쪼지아等의南方農村地方으로「美의福音」(THE GOSPEL OF BEAUTY)을 傳道하고 잇섯다。이때에 그로하여곰 가장쓰린늣김을준것은、린컨으로붓허 解放된 黑奴들이 그냥 經濟的으로、社會的으로、奴隷의運命에서 벗어나지못한 그것이다。

그의代表詩集「THE CONGO AND OTHERPOEMS」(1914)는 黑人의生活을 노래한것이다。

그가 가장즐기는것은 閑寂한곳에서 自然을벗하는것과 無限大한 흙의가슴에서 삶의眞理를늑기는것이다。짜라서 그는 農村으로 두루旅行하는 것으로써 生의眞理를 探求하는 唯一한方法을 삼는다。

그는「美의福音」을傳道하기爲하야 西方캘리포니아로붓허、南方아리조나、뉴멕시코까지 아름다운 農村의밤울차저 農民과갓치 지내는것이 그의生活이엿다。

「ADVENTURES WHILE PREACHING THE GOSPEL OF BEAUTY」(1914),「THE GOLDEN WHALES OF CALIFORNIA」(1920) 等은 그의福音旅行의 記行文과詩等을聚集한 散文集이다。그러면 그의美의福音은 무엇인가!

「Walking across this land I have found them, … little ganglions of life, promise of thousands of more. The next generation will be that of the eminent village. The son of the farmer will be no longer dazzled and destroyed by the firee of metropolis He will travel, but only for wha the can bring back. Just as his father sends half-way across the continent for good corn or melon-sesd, so he will make his village famouse by transplanting and growing this or that.」

(이땅을 두루단니며 나는 그들을 차젓다。——조고만 삶의神經들을 그러고 數千의그것들을 더엇을豫期와갓치 압흐로올 世代는 高貴한 農村에 잇는것이다。이러는 農民의子孫이 首都의白光에 恍惚해지거나 破側되지는 안을것이다。그는 다못 旅行을하며 엇을바를探求하여가지고 다시 農村으로 돌아올것이다。그의父親는조흔 玉蜀黍나西瓜種子等을 엇어오기爲하야 그를 大陸의中心까지 내여보내고、그는 이러한 方法으로 種子을移植하야 그의農村으로 興盛케할것이다。)

이것이 린쉐이의美의福音이다。自然의調和속에 넓다란 大地우에서、흙냄사와 풀의香氣를 맛흐며 高貴한人間의本性에서 永遠히 살자는것이다。

그러고 그는 宗敎를떠나서는 人間의本性을 가질수업다는것을 말하엿다。

여긔에、그의「工場窓문 노래」(THE FACTORY WINDW SONG) 에서 몃節을 보자!

「工場窓문은 늘쌔여지네。
엇든사람의 늘던지는 돌에、
엇든사람의던지는 무거운돌에、
보기실케도 惡戲者의손에 쌔여지네。

工場窓문은 늘쌔여지네、
다른窓문은 그대로두고。
그러나 殘忍과愚弄의돌을들어
禮拜堂窓문에 던지는者는 업나니。」

그는 또한人間의本能에서 慾望을 醇化하여야 할것을 말하얏다。

「Life is a flame;
Be cold as the dew,
Would you win at the game,」
(人生은 火焰이다。
이슬과갓치 차지여라、
너는 能히 여긔에서 익이겟는가!)

貪慾을 抛棄하고 愛他의精神을 가지지 안으려는가함이다。

「We must abolish passion!
Down with the Life.」
(우리는 貪慾을 버리야 한다!
삶을잡고 地平線아래로!)

삶을爲하야 모든貪慾을 除去하고 地平線下로 平等의 世界로 나가자는 것이다。여긔에 두句로써 린세이의貪慾에對한 人生觀을 究明할수 잇는것이다。그는 나폴레온의 英雄的偉蹟을외이려 嘲笑와憎惡에 돌니고、린컨의 人類에 머리를 숙이는 詩人이다。「ABRAHAM LINCOLN WALKS AT MIDNIGHT」(아부라함린컨은 밤중에것는다)라는 詩에서 아우라합링컨의 永遠한人類愛를 노래하엿다。「GENERAL WILLAM BOOTH」의 宗敎的長篇詩와、黑奴의 悲慘한生活을 노래한「A NEGRO SERMN」과「THE SANTA FE TRAIL」等에서 그의宗敎的人生觀을 볼수잇는것이다。그는 지금도 스프링필드閑寂한 故鄕에서「美의福音」을爲하야 玉蜀黍밧우에 빗긴 달빗을 靈感하며 將次올 人類에게 鄕土의노래를 불으고잇다。

結論

以上三詩人을 側面的研究로나마 現代運動으로、高速度的으로 動向하고잇는 米國의詩人界를 瞥觀하엿다。今年度노벨文學賞과平和賞이 米國으로건너온것도 一考할만한것이며 世界的學者 아인스타인과 詩聖타고아、其外世界人들이 米國으로 雲集하는것이 亦是無意味한것안이이다 未來에올 世界를爲하야 이들의動靜을 洞察하는同時에 우리가 準備할그것도 科學的、實用的、人間的、또한 大衆的이여야 할것을 우리는 再三覺醒할 必要가잇다。

紙面關係로 이에 結論한다。—(了)—

……一九三〇年크리쓰마스休暇에……

—參考書籍—

「AMERICAN POETRY 1900」
—LOUIS UNTERMEYER—
「MODEN AMERICAN POETRY」
—LOUIS UNTERMEYER—
「CHICAGO POEMS」
—CARL SANDBURG—
「NEW VOICES」
—M. WILKINSON—
「SOME CONTEMPORAY AMERICANS」
—PRRCY H. BOYNTO—



一九三〇年米國小說壇概觀

金 太 線

◇論 頭

一九三〇年의米國小說界를 回顧함에在하야 旣成作家들의活躍은 비로소적엇으나 大凡한 意味로 一九三〇年은米國文壇的 世界進出上으로 意義잇다고 觀察하나니「신클레、루이쓰」의 文學노벨賞이라던지 其外八十餘篇이라는多量의作品이 市場에出現한것이 以上量으로나 質로世界를壓頭하는것이다。

昨今米小說界를 追論함에在하야 其時代的論究上 各論者의分類年代가相異하나 이제나는 一九三〇年度의 小說界를 概論함에 便宜를爲하야 文學上四大劃時期로 分論컨대 一七〇〇年으로 一八一二年外지를指示하야 英國殖民時代라고민는다。勿論 或者「콜넘버스」가 大陸發見時代一四九二年을 始初하야도 조흘것이나 나는구타여보잘것업는 그時期만을省畧하고십흔것이다。一七七五年에 自主를宣言햇스나 此는政治的으로 英國과分離를말함이요 其時代에流動하고잇던 社會思想을表現하는「휴、색랙、컨릿지」며「찰스、색라운」또는「사라 몰톤」의「동정의힘」이라던지 그他의「한나 포스터」의 作品을通하야 보건대 아직도 英國殖民地文學을 建設함에잇서서도 初創期이엿든關係로 因由하야 오히려一七〇〇ㅣ一八一二年間을稱하야 模造文學出發時代라고하는것이 宜當할것이다。一八一二年에至하야 米國은英國으로브터 更히經濟的獨立을自有함과共히 一八三〇年頃에이르러서 新大陸의小說壇은「쎔스、쿠퍼」라던지「엣갈 포」의 作品을通하야 模造文學極盛時代를 成立하기에 勞力이만핫든것이다。그럼으로一八一二ㅣ一九一九年間을 新經濟的自主와함께 模造文學의黃金時代라할것이다。一九一九年으로 一九二九年間을米國文學의 樹立時代라보나니 一九二〇年頃에「신클레、루이쓰」의小說「큰거리」를有始하야 斯界自然主義의 寫實派로著名한「데오돌、쯔레서」며 한창적에過激論者로、無產階級을驅歌하던 우드、엔덜손」、「노리쓰」또는「쌕、런돈」

以上의諸作品은 모다新思想과 新進傾向을 造創함에今日米國小說壇의巨頭라안할수업다。따라서「월나、캐더ㄹ」女流小說家로 今般노벨文學賞의物論에까지 이르럿든것이며따라市加古大學에잇는 「돌톤、와일더」는 現今米國小說界에巨星인것을 니저서는안될것이다。最后로 一九三○年으로브터의 此時期를指稱하야 世界進出上價値를보아 一九三○年米國小說壇을槪觀할 一言의歷史的價値가잇다고 自量하는바이다。

一九三○年의作品總數를보건대 八十餘篇이라는 엄청난數字그대로 놀남을주는것이다。나는그中米國人作品 三十六篇 英國人의作品二十六篇 其他外國譯篇十一篇을 選擇한것이오 以上의諸作品을一一히論한다는것도 紙面上不能한것이기때문에 其中에도 또다시몃作者의作品이며 作者의思想的傾向을 看過하려한다。

◇一九三○年作品

◇地下水。(말다、오스텐스作) 이作品은 Pulitier 小說賞을밧은作品이다。이作者는 現今女流界의新進인만치 一般社會의歡迎도만흐려니와 氏의思想에잇서서도 一步女性運動의新傾向을 恒常보여주기에 活力하나니 作品「地下水」에出現한作者의 主人公女傑을 代表한「캐랏타」는 自己嚴格하고 淸敎道信者 아부지의家庭을出他하는 新女性의必히가저야될 經濟的獨立과 아울너實地勞役을 이典型美人으로하야곰 覺悟케한것이다。及其於 以上의作者의手法으로更히新女性의 取할바性的階級을 駁倒하얏다。이作品은現代女性社會에서 一顧할價値가잇나니 現今朝鮮社會의新進女性들의게야 더말할것잇스랴。「쟌、얼스킨」의作品『隱勞者의달』 其他를 읽어본대도 作者의哲學的思索은 豊富하나 이小說에서 나는不可思議를感햇슬뿐이고 特別히이새로운印象을 남겨준다던지 作者在來筆法에서 버서난其中잇어야할 「質」이업다。勿論이作者는 表現手法에잇서서는 무엇보다도現今 米國小說界에서일홈이놉흔사람이다。

◇『獅子의巢窟』(쩔쎈크作) 이作者는 多年間와싱톤首都에 居住한理由로諸般「와싱톤」을中心해가지고 이러나는政客들의 裏面的生活과 不滿을爲하야 니러나는모든事實을가저서된作品 獅子의巢窟이다。무엇보다도 이作에서前에업는作者의새로운 傾向은 衆議院議員「따니엘」을引用하야가지고 在來制度上 特殊階級을反逆하는 靑年「따니엘」을 新進政客으로取扱하얏다。이靑年은 結婚할것도모다저바리고 오직一般農民大衆을위하야 議院大會席上에서憤激하는 靑年의苦鬪를 作者는그린것이다。이作品이出版以來十萬部以上을突破하얏나니 그것만보아도 얼마나이作品을雄辯으로 證明하는것이랴。現今이作者는 市加古에잇스면서 女流政治運動에先驅者로 매우奔忙하다고傳한다。氏의동생 「빤스」女史의作 『紀元』도 大端히人氣를 쓰는作品이다。그리고其外 市加古日日新聞社文藝部長으로 在職

인 「오부라인」의作 『바린女子』가잇다。이作은 그리크게 成功을 企望한다는것보다도 現今惡漢、不正輩의 巢窟인 市加古都市를 背景한小說로 都市의暗黑面을 알녀는讀者는 一讀할價値가잇다。

◇『바회와모래』(래스쎈作) 沒落해가는 現都市文明을疑念하는 이作者의社會觀察上 上流階級의腐敗와 따라서及하는下流社會의 賤民等의社會的生活見地에 苦難을極하고잇는 社會相을한개의村落의農民 即移民者의말을빌어서이러케말햇다。

『별로 조흔일도 언짜는일도업시 그러한모양이지요』이것은農村에서 寂然하게 겨울을보내든 「엔」이라는村女가都市貴婦人의게 대답한것이다。都市의貴婦人들은 春節이되야 江으로湖水로 山으로차저드는時節이로되 其反面·生活한대도 展開가업는 難散의農民들은 날로經濟的窮迫으로因由하야 發生하는滲瘠과 共히個體否認하기까지에 至하다가 及其於 죽음을엇하는것이다。이에作者는「엔」女主人公으로하야 男性 그의愛人과합쎄 自殺케한것이다。



文學노벨賞바든 • 신클레 • 루이스

커들은삶과죽음 사랑과차듸찬눈 無常한虛無의 世界에서 新人間의眞理를 發求하는心的變態를 表現해서 農村의沒落을 슬퍼하엿다。따라서 一個의萎縮해가는 現今都市의 特殊階級들은 農村에對한 無關心的態度로 發生하는社會感傷的氣分을 뵈여주기에 힘을쓴것이다。「엣몬드」作『큰倉庫』는 뉴욕市外 한개큰農場에서 發生한 歷史的事實을引用하야 米國革命戰亂時農主로브터 니러나는多雜한生活面을그린것이니 더욱이劇的小說에서 三角關係로 얼싸고도는性的生活이야말로 作者의妙技를 驚嘆치안을수업다。그러나 作品으로의 아무런무게는업다。

◇『깁허가는(내)川』(칸필드作)氏亦是 現今米國小說壇의女流作家로 일홈도놉흘뿐외라 作者는『깁허가는내』로依하야 Pulizer 小說償을 밧은것이다。이作品의特色은 自然的으로 人間心理進化를 表現한것이 作者의特殊한內容과共히 發生하는表現에이르기까지의 順調롭게 態度를眞實하게 取한그點에在하다。한젊은感傷的으로되여진 處女가

사랑하는男性으로더ㅍ려 結婚初始브터 不滿과恐怖를感한것이라던지 또는小說三分의一을 지나서 다시女主人公은다시 自已男便으로써의 사랑을늣기엿고 이사랑을늣기기까지의 道程을作者는讀者로하야곰 조마조마하게만드럿든것이다。아마도젊은두夫婦는 離婚하는가하고 嘆息의落望을짓게하다가 이作品의三分의二를 지나서야兩性의展開를運發하얏나니 이에무엇보다도作者의 깁흐면서도妙한思量을感嘆치 안을수업스며 싸라서이作者의 特히能한것은生理學的으로 發生하는心理學의 影響을 自然스럽게뵈여준것이다。

◇『宴會女服』(헐케쉬머作) 米國의富豪「에윙」이라는 사람은 나희가五十에 南米「큐바」國에가서잇는 享樂理想主義者이다。모든 現今米國의禁酒法을 버서나서 술과게집과 사랑의娛樂地인 南方에서니러난 「니나、헨리」와의關係이다。이小說에서는 所謂社會道德의最高點과아울러 다시한번作者는 腐裏를諷刺한것이다。이作者는 언제든지性的으로니러나는 兩性問題를主로하야쓴다。氏의 Cytherea 를볼지라도 亦是그러한것이다。『二十四時間』은 「색틈필드」의作品과 「팤커」의作 『살기를위한悲哀』等도 「헐케쉬머」의 作品에比하야 써러지는作品은아니다。그리고 칼리슬의作「다시함께」는 그리조흔讀後感을 남겨주는 作品이못된다。亦是 『어머니들은우시다』라는 作品을말지라도 家庭의異常한形態를 人間本能그것에歸納식히기에 作者는苦心苦心헛수고햇슬뿐이다。다시함께 이作品의 男性은항상思索者요 女性은衝動的本能으로의 基因해서사는 典型으로이 兩性은心的變體로然由하야 投死하는것이다。언제던지 이作者는事物을觀察할時 一常主格本能그것으로의 諸般生活全部를作成하기에 勞力하나니 그럼으로 最後에는 죽음을것고마는것이다。

그밧게 『純粹한青年』「파인맨」의作品으로 매우조흔作品이다。이作品도十萬部以上을 突破한 作品의하나이다。「스트로폰」의作品 『土曜日午後』는 作者가 詩人인만치 小說에잇서서 그리크게企待를아직가질수업다 氏는女流詩人인만치한창적에 詩雜誌의聯合編輯人으로 「해리엣몬로」와共交分이깁흔것이다。

◇一九三〇年文學노벨賞

「신클레루이쓰」는巨人이다。氏는 아직나희가 四十一歲中年의才氣潑々한 小說家요 新聞學者이다。氏의作品은緻密하면서도 穿鑿하는듯한 正面을讀者로感하게한다。그의作品은現實그대로 如實을말하는理由이다。그의作品中『쌥셋』(BABBITT)과 『큰거리』(MAIN TSREET)等은 特히이번文學노벨償의 最히重要한作品이엿나니 「쏘ㅣ르지쌥셋」이社會에對한 無責任的態度로 從來로自己家產을 蕩盡하는無實際하고 無慾望하고無進就한 在來社會因習에 얽매여오든 「쌥셋」이라는사람은 終那社會의變遷의原理를 覺悟하는同時 自己아들의게向하야『……온세게는 네것이다하라 나아가라……』는熱情을 吐한것이다。

作者는오로지 社會進化法則과 社會敎化法則을 昨日의 社會에서 今日의現實에서 明日의가질바 社會性을暗示하얏다 仝世界를通하야보건대 「쪼ㅣ근지、쌥셋」과갓흔 典型人物이 其數幾何리요。

現在米國文壇의評論大家인 「쎔스카쩰」과갓흔사람은 이러케論하얏나니『만일당신들이 「신클레、루이쓰」의寫實主義를認識한다떤 당신들은 다른作家에게서實感을밧는 寫實主義보다 멧배以上眞正한 寫實感을 가지게될것이다』。「신클레、루이쓰」는 恒常「쪼ㅣ근지、쇼ㅣ」와갓치 現制度의不充實를 攻擊한것이다。

氏의 「큰거리」를보자。『고펄、푸례리』갓흔곳에서 커들이 安樂이업스리라는것을 나도알우。그러나 여유를주고봅세다 『여유를주고본다는것이 무슨 소용이잇슬가?。커들의게넉々한가라킴을 주겟다고한사람이라도 생각안한다면。百의工場들은 高級自働車를맨들냐하나 그러나 이고을은 괴휘를 놋칫서。안야! 그럴수업소。근본적으로 커들을여위게한 그것을반다시 잡아내야겟소!』

今日의都市文明 그것은 特殊階級에게屬한 都市文明이다。여게「루이쓰」는 「칼올、밀폴드」라는 女性人格으로作者의思想을 代言케한것이다。그러나 「밀폴드」의 男便되는 「켄니캇」 醫師는無關心한態度로 『오、파이커들이 낫브지안치요』이것이中流社會를代表한것이다。作者는 이를 諷刺하고 嘲笑해마지안은것이다。그럼에도 不拘하고 評論家요 牧師요 敎育者인 「헨리、맨다의」은 今般文學노벨 受償者를駁倒하시기에 全力을하나니 氏의駁論의要件은 「루이쓰」의作品은 全米國社會를 露骨的으로 世界에發言하야 米國人民을嘲弄햇스며 싸라서社會的으로 呵亂를사게한것이라한다。그外에 示加古大學 「라이맨」博士派에서는 말하기를 藝術家은 作品을取扱할쌔 그事物의楄要點은 「美」를注入함이업는 그作品은 藝術家의 本務가안이라고한것이다。以上의말은 「신클레、루이쓰」의 作品行動은 醜陋그대로의生活을如實히 認識케한데서니러난反論인것이다。엇지던지 文學노블償 以後各學界에서々 新人間派對 「헨리、루이쓰、멘큰」派論戰은 可히文壇的情勢를 一層潑氣를旺盛케한것이엿다。나는 「리월닌、쫀스」評論家의말을빌어 玆以題를매즈려하나니 氏는以下와如히二大條件을 擧論하야「신클레루이쓰」의 文學노벨受償이當然하다고 主唱한것이다。

一、「신클레、루이쓰」보다 優越한小說家가만흔것은 事實이나 現代米國人의가질바 文學을建設한것。

二、『신클레」루이쓰의作品은 米國人의게歡迎을만히 밧는것보다 外國에서 氏의作品을 더즐겨하는것。例를들면 쳣재로 露西亞勞農國과 獨逸、佛國、伊太利、英國、西班亞、瑞典等諸國。

英國文豪「쪼지、쌔나드、쇼ㅣ」의「루이쓰」를 讚同하는 말이잇스나 이에省略하고만다。

◇短 篇

◇『一九三〇年의短篇選集』(오쁘라인編) 氏가昨年에「쉘우드、안덜슨」의短篇等을 大端히칭찬을준것과갓치 今年에니르러서는 編輯考選의態度를 一變하야 從來 著名한文士들의 일홈과作品을 넛키에힘쓰든것을 今年부터는 絕對로作品本位를하야 無名作家의出世를 完全히圖謀한것이다。그래서一種「니유、잉글랜드」正宗派에서는 그만失色을하는反面「오쁘라인」을 攻駁까지한것이다。

◇『유별난사람들』(왈톤作) 合短篇六篇을 모아서 된것이니 氏는(女流作家)사람이나서 죽고하는것은 그엇더한衆人社會에서 하는것이니 이를指稱하야 氏는「社會」라한것이다。그리고『萎縮』一篇은 女性의無益、貶質、失望等을論한 作品이니만치 銳利한筆致로 刺戟을주는바적지안타。

◇『옷십는쏘다』(폴러作) 이것도 都合六篇을모아 六百部版를發刊한것이니「폴러ㅣ르」은 女流作家로 알니여진지 그리오래지 안타。이번 이短篇集이 氏의處女篇인것이다。以上六篇은 임의 Century 及 Transition 雜誌等에 發表되엿든것이다。MARIA CONCEPCIO'N 은 米國紅人種美人의「러민」에關한 簡潔한作品이다。그外 MAGIC 이라던지 ROPE 等은 모다이短篇集에서 쌜수업는「폴러」의 作品이다。「람세이、리찰드손」갓흔사람은 過分한 好評을햇스나 엇쩌턴지「폴러」의 表現法이라던지 그作家로의가질바思索이 매우조흔것이며 압흐로 有望한것도事實이다。

◇外國人의作品

英國作家로의作品中「알놀드、쎈넬」의作『宮殿』을비롯하야『各어머니의아들』「놀맨、린세이」과 共他「모합」氏의作 CAKE AND ALE 等이 昨年間 米國文壇에서 活躍을하얏든것이고 다음 昨年佛國南方에서 世上떠난「듸、엣취、로렌스」의『그處女와그집시』라는小說이 쐐人氣를集中한것이엿다。「로렌스」의 이作品은 各評論界에서 過大好評이엇스니 아마도 氏가生前에 남기고간 最后作品이라해서 그럴상도십다。그리고 또한 現在倫敦「BOOKMAN」誌의 編輯人으로잇는「헨리、윌니암손」의作『村落集』이多數의部數를 發賣한事實과「ANGEL PAVEMENT」「쩨、쎄、푸리스트리」의作品等도 니즐수업는것이다。

그밧게勞農國「맑심쓸키」의作『傍觀者』가飜譯되엿고 獨逸「쩌취원거」의『成功』等은 모다無產派의巨作들이다。以上二個作品을 或論評家 擧論하기를 內容에잇서 너무抽象的이라고云謂하엿스나『七日間暗黑』의作者『쩐날손』을 論評의贊賀를나린 心事를보면 論者의公論을 喪失햇든가 或은忘却하얏든가 하는疑懷가생긴다。佛國「쨘、갈지」의『燔祭』外、諸威「햄선」의『無宿者』가 譯刊된것이다。

그리고 最近 露國「쏘셉、칼리니쿰」의作『게집과종』이 쐐歡氣를 讀者들도 사는듯하다。이小說은 露西亞第一次革命期로브터 第二期革命時代를 背景해가지고된것이니 即 一九〇五年으로 一九一七年까지의 事實의 取材인것이다。此作品에 關하야 論及又는 感激한바도 有하나 이에省略하는뜻을 讀者諸賢은 諒知하기를 비는바이다。

筆者이제 參考上提供을 目的하고 以下原本及 原作者를 別히 附記해둔다。勿論前言대로 全部은 할수업고 오직 그멧만을 摘記하는것을 다시금 말해두다。

=米國人의 作品及作者=

The Waters Under the Earth, by Martha Ostenso
Elowering Judas, by Katherine Anne porter.
Certain People, by Edith Wharton.
The Party Dress, by Joseph Hergesbeimer.
The Governor or of Massachusetts, by Elliot Paul.
Twenty-four Hours, by Louis Bromfield.
Strike, by Mary H. Vorse.
The Mother, by Sholom Asch.
The Last Full Measure, by Honore W, Morrow.
Rock and Sand, by John O. Rathbone.
The Big Barn, by W, D. Edmonds.
Laments for the Living, by Dorothy parker.
Together Again, by Helen G. Carlisle.
The Great Jaspar, by Fulton Oursler,
The Selbys,s by Anne Green.
This Pure Young Man by Irving Fineman.
Long Hunt, by James Boyd.
Cinderella's Daughter and Other, by John Erskine
The Lion's Den by Janet. A, Fairbank.
Yearr of Grace, by Margaret A. Barnes.
I Lived This story, Betty White.
Abandoned Woman, by Howard V. O'Brien.
Saterday Afternoon, by Marion Strobel.
Picaresque, by David Hamilton.
Seed, by Charles G. Norris.
Blowing Clear, by Joseph C. Lincoln

=外 國 作 品=

Every Mother's Son, by Norman Lindsay.
The Edwardians dy V. S. West.
Imperial palaces, by Arnold Bennett.
Cakes and Ale, by W. S. Maugham
Tales Told by Simppson, by May Sinclair.
Angel Pavement, by J. B. Priestely.
The Village Book, by Henry Williamson.
Rogue Herries, by Hugh Walpole.
The Virgin and the Gypsy, by D. H. Lawrence.
Success, by Lion Feuchtwanger.
Bystander. by Maxim Gorki.
Women and Monks, by Joseph Kallinikov.
Burnt Offering, by Jean Galzy.
The Castle, by Franz Kafka.
Confessions of Zeno by Italo.
Vagabonds, by Knut Hansun.
Claudia, by Arnold Zweig.
Out of Childhood, by Irina Odevtzeva.
Seven Days, Darkness, by G. Gunnarson.

우리民族을紹介한英文書籍調査記

콜럼비아大學 尹 珹 淳

歐米各國 사람들은 우리를「隱士國民」이라고 부릅니다。그稱號來歷의主要한原因은 李朝末葉의固守鎖國狀態로봇터 온듯합니다。따라서 우리民族이外國에 잘알니여지지 못한것을뜻함이니 우리朝鮮民族이 얼마나또는엇더케世界에알니여젓는지? 우리로서는 궁금한일이오 남과함께살자면 꼭알아야만될줄암니다。그러면自然 外國人들이우리民族에對하야 意見을表示한 記錄을찾는다는지 또는 우를나라사람으로서 우리를外國에 紹介한書冊을 두지는수밧게 업다고생각함니다。아직지금까지 잇어서는 英語가世界語라고할만치 發展되엿는故로 우리나라를 英語로直接 或은間接으로紹介한書籍 或은報告書類中 必要한것몃가지를 적어보랴고함니다。時間과 紙面關係로 各冊의內容如何를 簡單하게나마 紹介치못함이 遺憾이오、또는 우리民族과 文化에對한 好評만을들지안코 우리를惡評한것도 包含된것을 讀者는 諒解가잇기를바람니다。이번調査發表는 紐育市에잇는 콜럼비아大學圖書館과 밋그圖書館과 直接連絡을 取하고잇는紐育유니온神學校圖書室 틔취스、칼레지圖書室、紐育市公立圖書館에서 蒐集한것中에서 選拔한것임니다。華盛頓國立圖書館에는더一層完備된 書籍들이잇엇으리라고밋음니다。調査한書籍을 一覽하면 그의大部分이 紐育市에잇는 各書舖에서 發行된것을알겟고 發行年月日로보면 第十九世紀初(一八〇八年=和蘭商船々長 해멜이 一六五三年에濟州島近海에서 破船遭難한 記事集)로봇어 最近(一九三〇年=光州學生事件)까지오 記事된範圍로말하면 朝鮮의歷史、地理、言語、風俗、宗敎、思想、文學、藝術、政治、外交、經濟、敎育、實業、交通等 널니包含되엿고 著者로말하면 大部分이 外國宣敎事業과 直接或은 間接으로 連絡을맷고잇는 外國人中 米國사람들이 많음니다。

(一九三一•二•二一調査)



BIBLIOGRAPHA

1. Allen, H. N., A Chronolgical Index, 97 B. C. 1901 A. D.
   Seoul, Korea: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2.
2. Allen, H. N., Things Korean.
   New York: Fleming H. Revell Co., 1908.
3. Allen, H. N., Korean Tales.
   New York: G. P. Putnam's Sons, 1889.
4. Avicon, O. R., Unusual Opportunities for Research in Eastern Lands.
   Toronto: Academy of Medicine(pamphlet), 1925.
5. Baird, W. M., Daybreak in Korea.
   New York: Fleming H. R. Co., 1909.
6. Bank of Chosen, Economic History of Chosen.
   Seoul, Korea, 1921.
7. Bank of Chosen, Economic Chosen.
   Seoul, Korea, 1915.
8. Bishop (Mrs.), I. R., Korea and Her Neighbors.
   London: J. Murray, 1899.
9. Bland, J. O. P., China, Japan and Korea.
   London: Heinemann, 1921.
10. Brown, A. J., The Mastery of the Far East.
    New York: Scribner, 1919.
11. Brown, A. J., The Korean Conspiracy Case.
    New York(pamphlet), 1912.
12. Brunner, E. des., Rural Korea.
    New York: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1928.
13. Buxton, N. F., Oppresed Peoples and the League of Nations.
    New York: E. P. Dutton & Co., 1922.
14. Carles, W. R., Life in Corea.
    New York: Macmillan & Co., 1888.
15.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Korea, Treaties and Agreements.
    Washington, 1921.
16. Carpenter, F. G., Japan and Korea.
    New York: Doubleday, Page & Co., 1926.
17. Carter, T. F., The Invention of Printing in China and Its Spread Westward.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25.

18. Catholic Fathers, Martyrs of Corea (translated from Italian).
Baltimore: Murphy.

19. Cavendish, A. E. J., Korea and the Sacred White Mountain.
London: G. Philip & Son, 1894.

20. Chung, Henry. The Case of Korea.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19.

21. Chung, Henry. Korean Treaties.
New York: Nichols, 1919.

22. Chung, Henry. The Oriental Policy of the United States.
New York: Fleming H.R.Co., 1919.

23. Clark, C. Allen, The Korean Church and the Nevius Methods.
New York: Fleming H. R. Co., 1930.

24. Clement E. W. The Korean Situation.

25. Clement, E. W., "Comparative Chronological Tables, and Japanese Chronological Tables."
Japan: Transaction of the Asiatic Society of Japan, Vol. 37, 1910.

26. Coulson, C. J. D., Korea (Peeps at Many Lands)
London: Adam & Charles Black, 1910.

27. Culin, Stewart. Korean Games.
Philadelphia, 1895.

28. Curzon, G. N. C., Problems of the Far East.
New York: Longmans, Green, & Co., 1896.

29. Cynn, H. W., The Rebirth of Korea.
New York: The Abington Press, 1920.

30. Davis, G. T. B., Korea For Christ.
New York: Fleming H. R. Co., 1910.

31. Dennett, T., Roosevelt and Russo-Japanese War.
New York: Macmillan Co., 1925

32. Dennett, T., "President Roosevelt's Secret Pact with Japan."
The Current Hitory Magazine for October, 1924.

33. Department of Education, Outline History of Japanese Education Prepared for the Philadelphia International Exhibition.
Tokyo, 1876.

34. Dixson, R. B., The Racial History of Ma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23.

35. Dolph, F. A., Japanese Stewardship in Korea.
Washington: Govenment Printing Office, 1919.

36. Drake, H. B., Korea of the Japanese.
London: John Lane, 1930.

37. Eckardt, A History of Korean Art.
London: Edward Goldston, 1929.

38. Eissler, M., My Voyage in Korea.
Shanghai: Oriental Press, 1918.

39. Feder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America, The Korean Situation.
New York: Commision on Relations with the Orient, 1919.

40. Federal Council of Evangelical Missions, The Korea Mission Field.
Seoul: Monthly.

41. Federal Council, Korea Mission Yearbook.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42. Fisher, J. E., Democracy and Mission Education in Korea.
New York: Bureau of Publications, Teachers College, 1928.

43. Frazar, E., Korea and Her Relations to China, Japan and the U. S. Orange, New Jersey (pamphlet), 1884.

44. Gale, J. S., Korea in Transition.
New York: Young People's Missionary Movement of the U. S. and Canada, 1909.

45. Gale, J. S., Korean Sketches.
New York: Fleming H. R. Co., 1898.

46. Gale, J. S., The Vanguard.
New York: Fleming H. R. Co., 1904.

47. Gifford, D. L., Every-day Life in Korea.
New York: Fleming H. R. Co., 1898.

48. Gilmore, G. W., Korea From Its Gapital.
Philadelphia: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1892

49. Government-General of Chosen:
Results of Three Years' Administration of Chosen, Since Annexation 1914.
Relations Between the Government and Christianity in Chosen, 1921.
Chosen in Picture, 1921.

The New Administration in Chosen, 1921.
Statistics For 1922.
Manual of Education of Koreans, 1920.
Revised Educational Regulations for Chosen, 1922
Annual Report on Reforms and Progress in Chosen.
Development of Chosen and Necessity of Spiritual Enlightment, 1924.

50. Graves, J. W., The Renaissance of Korea. Philadelphia: Philip Jaisohn & Co., 1920.

51. Hall (Mrs.), E. F., Presbyterian Schools and Colleges in Korea.
New York: Wom.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1908.

52. Hamel, Hendrick. Tarvels of Some Dutchmen in Korea; with a Account of their Shipwreck on the Island of Quelpart.
Pinkerton John Co., 1808. (General Collections)

53. Hamilton, A., Korea.
Now York: Scribner's Sons, 1904.

54. Harris, N. D., Europe and the East.
Houghton Miffin Co., 1926.

55. Hawes, C. H., In the Uttermost East.
New York: Scribner's Sons, 1904.

56. Holtom, D. C., (editor), The Christian Movement in Japan, Korea and Formosa. Tokyo Japan, Yearbook.

57. Hsu, Shuhsi. The Korean Problem, in China and Her Political Entity, 1926.

58. Hulbert, H. B., History of Korea. 2 volumes. Seoul, 1905.

59. Hulbert, H. B., The Passing of Korea.
New York; Doubleday, Page & Co., 1906.

60. Hulbert, H. B., A Comparative Grammar of the Korea Language and the Dravidian Dialects of India.
Seoul: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6.

61. Hulbert, H. B., The Japanese in Korea (extracts from the Korea Review).
Seoul; 1907.

62. Imperial Japanese Government Railways, An Official Guide of Eastern Asia.

Tokyo, 1913-.

63. Ireland, A., The New Korea.
New York: E. P. Dutton & Co., 1926.

64. Japan Chronicle, Korean Conspiracy Trial.
Kobe 1912.

65. Jones, G. H., Korea; The Land, People and Customs.
Cincinnati: Jennings & Graham, 1907.

66. Kawakami, K. K., American-Japanese Relations.
New York: Fleming H. R. Co., 1912.

67. Kemp, E. G., The Face of Manchuria, Korea, Russian Turkestan.
New York: Duffield, 1911.

68. Kendall, C. W., The Truth About Korea.
San Francisco: The Korea National Association, 1919.

69. Kim Man-choong, The Cloud Dream of the Nine(translated be Rev. Gale).
London: O'connor, 1922.

70. King, F. H., Farmers of Forty Centuries; or, Permanent Agriculture in China, Korea & Japan.
Madison, Wisconsin, 1911.

71. King-Hall, Stephen. Western Civilization and tne Far East.
Scribner's Sons, New York, 1924.

72. Korean Commision to America and Europe, Korea Must be Free.
New York: I-X-L Printing Co., 1930.

73. Korean Mission, Korea's Appeal to the Conference (Washington) on Limitation of Armament(1921-1922)
Washington;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1922.

74. Krausse, A. S., Far East, Its History and Its Question.
London, 1900.

75. Kuno, Y. S., What Japan Wants. 1921.

76. Ladd, G. T., With Marquis Ito in Korea.
New York: Scribner's 1908.

77. Landor, A. H. S., Corea; or Chose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New York, 1895.

78. Latourette, K. S., The Development of China.

Houghton Miffin Co., New York; 1924.

79. Latourette, K. S., The Development of Japan. The Macmillan Co., New York; 1926.

80. Lombard, F. A., Pre-Meiji Education sn Japan. Tokyo, 1913.

81. Longford, J. H., The Story of Korea. New York: Scribner's Sons, 1911.

82. Lowell, P. Chosu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Boston: Ticknor & Co., 1886.

83. Ludlow, A. I., "Pottery of the Korai Dynasty (924-1392 A. D.)." Extract from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XIV, 1923.

84. MacMurray, J. V. A., Treaties and Agreements with China and Concerning China. Washington: Carnegie Endowment for the International Peace, 2 Volumes, 1921.

85. MacLennan, A., Japanese Diplomacy and Force in korea. San Francisco: Korea National Association, 1919.

86. Martin, N. Japan's Attempt to Exterminate Korean Christians. Milford, Connecticut, 1919. (pamphlet)

87. McCully, Elizabeth A., A Corn of Wheat or Life of Rev. W. J. McKenzie of Korea. Toronto: The Westminister Press, 1904.

88. McKenzie, F. A., Korea's Fight for Freedom. New York: Fleming H. R. Co., 1920.

89. McKenzie, F. A., The Unveiled East. New York: E. P. Dutton & Co., 1907.

90. McKenzie, F. A., The Colonial Policy of Japan in Korea. London: Central Asia Society, 1906.

91. McKenzie, F. A., The Tragidy of Korea. London: Hodder & Stoughton, 1908.

92. McLeod, N., Korea and the Lost Tribes of Israel. Yokohama, 1879.

93. Miln L. J., Quaint Korea. New York: Scribner's Sons, 1896.

94. Moose, J. R., Village Life in Korea. Nashville, Tenn.; Methodist Publishing House

(South), 1911.

95. New Il Han, When I was a Boy in Korea.
Boston: Lee & Shepard Co., 1928.

96. Noble, W. A., Ewa, A Tale of Korea.
New York: Eaton & Mains, 1906.

97. Oppert, E. J., A Forbidden Land: Voyages to Korea.
London: S. Low, and Rivington, 1880.

98. Owen, D. E., Imperialism and Nationalism in the Far East.
New York: Henry Holt & Co., 1929.

99. Paik, L. G.,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Pyeng Yang, Korea; Union Christian College Press. 1929.

100. Parmelee, M., Oriental and Occidental Culture, an Interpretation.
The Century Co., London and New York, 1929.

101. Peace Conference, Korea Delegation.
Paris, Vol. of Pamphlets, V. 122, 1919.

102. Residency-General, The Material Progress of Korea for last Five Years.
Seoul, 1910.

103. Rockhill, W. W., China's Intercourse with Korea form the XVth Century to 1895.
London: Luzac & Co., 1905.

104. Rockhill, W. W., Treaties and Conventions with or Concerning China and Korea, 1894-1904,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04.

105. Ross, John. History of Korea, Ancient and Modern.
London: Stock, 1891.

106. Ross, J., Korean Speech, with Grammar and Vocabulary.
Shanghai: Kelly, 1882.

107. Royal Asiatic Society, Transactions of the Korean Branch.
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1900-, Seoul.

108. Smith, W. F., Undiplomatic Memories.
New York: Whittlesey House, 1930.

109. Smith, F. H., The Other Side of the Korean question Seoul Press (pamphlet), 1920.

110. Speer, R· E., Missions and Modern History (the Tong Hak Insurrection).
New York: Fleming H. R. Co., 1905.

111. Starr, Frederick. Korean Buddhism.
Boston: Marshall Jones Co., 1918.

112. Stokes, M. B., Korean by Clause-method.
Seoul: Korean Religions Tract Society, 1912.

113. Swinehart, L. H., Korea Calls!
New York: Fleming H. R. Co, 1929.

114. Tayler, C. J. D, Koreans at Home.
London: Cassell & Co., 1904.

115. Trollope, M. N., The Church in Korea.
London: A. R. Mowbray & Co., 1915.

116. Underwood, H. G., The Call of Korea.
New York: Fleming H. R. Co., 1908.

117. Underwood, H. G., An Introduction to the Korean Spoken Language.
New York: Macmillan Co., 1914.

118. Underwood (Mrs.) Lillias H, Fifteen Years Among the Top-knots.
New York: American Tract Society, 1904.

119. Underwood (Mrs.), L. H., With Tommy Tomkins in Korea.
New York: Fleming H. R., Co., 1905.

120. Underwood (Mrs.), L. H., Underwood of Korea.
New York: Fleming H. R. Co., 1918.

121. Underwood, H. H., Modern Education in Korea.
New York: International Press, 1926.

122. Urpuhart, E. J., Glimpses of Korea.
Kansas City: Pacific Press Publishing Association, 1923.

123. United States Bureau of Manufactures, Report on Trade Conditions in Japan and Korea.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06.

124. VanBuskirk, J. D. The Climate of Korea, and Its Probable Effect on Human Efficiency.
Seoul, 1919. (pamphlet)

125. Webster, Hutton. History of the Far East.
Boston: D. C. Heath & Co., 1923.

126. Whigham, H. J., Manchuria and Korea.
London: Isbister & Co., 1904.

127. Willing (Mrs.), J. F. ahd Jones (Mrs.), M. J., Lure of Korea.
Boston: Women's Foreign Missionery Society.

米國代表的雜誌案內

序言

編輯子의말이 米國代表的新聞雜誌에 對하야 極히簡單한紹介를 써달라고하엿다。條下에 創設時日、主筆者、特色 發行部數、勢力(或經營方針)等의 對하야 特히明記하라고 하엿다 。그러나一一히 낡어보지못하고는 特色—或은主義나 勢力에對하야 確證할수는 업다。다못 여긔에準하야 時間잇는대로 參考하얏다。

◇

또는 朝鮮에잇는 讀書家에게紹介하는것이니가 大體로는 그들의參考와研究에 必要할것을 擇定하야겟다。그러고勢力이라는것은 發行部數를 意味한것이안이고 內容과世評의如何를 爲主하야할것이다。가령 底級趣味를 專門的으로하는 「TRUE STORY」와 「LOVE STORY」갓흔 月刊雜誌는 二百萬部以上의 發賣統計를보여 다른어느것보다도 發賣部數가第一만타。그러나 이런것은 圖書室에서는 차저볼수업는것이다。여긔에紹介하는것은 普通萬部以上으로 百萬部以上까지 發賣되는것인것은 勿論이나 發行部數로써 代價를定하지안코 前述한바와갓치 代表的雜誌만을 列記한다。

◇

代表的新聞에 對해서는 一週의期限을압두고 參考할수업서 다음期會로밀우기로 할수밧게업다。

이제 簡略한方法을 取하야 略語를 쓰나 ED.—는主筆、E. Y.—는創設年月 C.—는發行部數、m.—은月刊、WK.—는 週刊等(그外는 大概四季刊行)임을 말한다。

그리고 住所와一年購讀代金等도 付記한다。다못特色等에對하야는 參酌한대로 特別한것만 註한다。

(1) 文藝—。

이種目안에 列記하는것은 純全히文藝界를 專門하여 나오는雜誌다。

◇BOOKMAN (m) S, COLLINS, ED. $5 1895 E. Y. 5.008C. NEW YORK, N. Y.

文學評論을 專門으로하는 雜誌다。

◇SATURDAY REVIEW OF LITERATURE (WK.) H. &. CANBY, ED. $ 3.50 1924 EY. 1.2000 C. NEW YORK, N. Y.

每土曜에發行하는 新聞形의純全한文藝週報다。主筆은 에일大學文科出身으로 文藝評論에 造詣잇는사람이다。特히 文人은勿論、各大學敎授等까지 執筆하게하여 文學界에權威잇는 雜誌다 뚜이、산타야나等의 一流哲學家도 所屬이고 約五百名의大家들이 集中되엿다。歐米文壇消息도 滿載。

◇BOOK REVIEW DIGEST (m) M. A. KNIGHT, ED. $5. 1905 EY. 4,138 C. NEW YORK, N. Y.

文藝評論—紹介等◇

◇WRITER (M) R. W. SMITH, ED.

$ 3. 1887 EY. 9,000 C. CAMBRIDGE MASS.

東部에 著名한作家들이 經營한다。作品을 爲主하야 發行한다。

◇NEW WRITER'S MAGAZINE (M) A. D. FREESE, ED. $2. 1929 EY. 2.500C. UPLAND, INDIANA

새로 創立한 新進作家들의 機關紙다。

◇POETRY (M) HARRIET MONROE, ED. $3 1912 EY. 3.200 C. CHICAGO, ILL.

純全히 詩만專門으로하는 몬로女史의 詩雜誌다。中部詩人들을 網羅하야 米國新詩壇을 指揮하고있다。

◇POET LORE (M.) RUTH HILL $6 3.500 C. BOSTON, MASS

東部詩人— 프로스트、로웰女史等— 一派의同人誌다。몬로女史의 詩雜誌와 對立狀態에있다。

其外에일大學의 「YALEREVIEW」가 文藝評論에 參戰한다。以上外에도 數十種잇스나 略한다。

(2) 政、經、一般—。

이種目안에 紹介하는것은 政治、經濟時事等에對하야 一般的으로取扱하는 雜誌다。그러나大部分은 趣味와文藝作品을滿載한다。

◇CURRENT HISTORY MAGAZINE (M.) G. W. O. OAKES, ED. $3. 1914 EY. 61.830C. NEW YORK, N. Y.

◇이雜誌는 뉴욕타임스社에서 發行하는것으로 雜誌界의大王이다。世界的諸般事實을 轉載하고 또한批評하는것이니 誌名과갓치 思潮와歷史的運動을 取扱한다。朝鮮讀者들에게 이雜誌를勸讀하고십다。

◇FURUM HENRY G. LEACH (M) $2.50 1886 EY. 82.171C NEW YORK N. Y.

一九二九年에 CENTURY와 月刊誌와合同하여 內容을一新하엿다。外國記事를 만히取扱하는 社會雜誌다。

◇ATLANTIC MONTHLY (M) E. SEDGWICK, ED. $4 1857 EY. 129.798 C. BOSTON, MASS.

政治問題、特히東洋問題를 만히取扱한다。그러고 文藝品도滿載한다。

◇ASIA (M.) M. NEFF $4 1917 EY. 47.508C. NEW YORK, N. Y.

「亞細亞」라는 誌名과갓치 東洋에對한 一般的事件을 取扱한다。大體로는 文學的과地理 歷史的이다。中、日、印比等과 朝鮮에對한紹介도만타。朝鮮三一運動의事實을 如實히 取扱한雜誌도 이「亞細亞」誌엿다。

◇REVIEW .OF REVIEWS (M) ALBERT SHAW, ED. $4 1890 EY 160.005 NEW YORK, N. Y.

主筆은뉴욕大學出身의 政經學者다。世界政經界를 評論하는雜誌다。特히新進國家의 政治界를評論하고 東洋에對한時事가 滿載된다。

◇AMERICANCITY (M) H. S. BUTTENHEIM, ED. $4 1909 EY, 11,476C. NEW YORK,

◇NORTH AMERICAN REVIEW (M) W. B. MAHONY ED. $4 1815 EY, 40,270C. NEW YORK, N. Y.

◇AMERICAN HISTORY REVIEW (M) H. E. BOURNE ED. $5 1895 EY. 10.515C NEW YORK, N. Y.

◇HEARSTS INTERNAL COSMOPOLITITAN (M.) RAYLONG, ED. $3. 1886 EY. 1.590.840C NEW YORK, N. Y.

誌名과갓치 世界的事實을 取扱하는 가장社會一般人에게 愛讀되는 雜誌다 多方面의記事와 常識問題를 取扱하기 때문에 月刊雜誌로 百萬部以上을突破하게되다。

◇HARPERS' MAGAZINE (M.) T. B. WELLS, ED. $4. 1850 EY. 120.947C. NEW YORK, N. Y.

勿論이外에도 代表的雜誌가 만흐나 略한다。

(3) 美術、劇、映畵—

特히 一部門에는 多數의刊行物이잇고 映畵에對해서는 더욱其數가놀란만할것은 現代米國을 아는이로서는想像할수 잇슬것이다。그러나 數卷을列記하야 둘뿐이다。

◇THE ART (M) F. WASTON, ED, $2.00 1920 EY. NEW YORK, N. Y.

◇ARTS AND DECORATION (M) $6 1903 EY. 26.674 C. NEW YORK, N. Y.

◇ART DIGEST (SEMI-M) P. BOSWELL ED. $3.00 1926 EY. 10.000 C. NEW YORK, N. Y.

◇ART AND ARCHAEOLOGY, (M) A. S. RIGGS, ED. $5 WASHINGTON D. C.

◇INTERNATIOAL STUDIO (M) H. J. WHIGHAM $6 1897EY 15.329 C. NEW YORK, N. Y.

인터내슌낼 스투디오에서 發刊하는것이 그 世界的美術家評及作品滿載

◇THEATRE AND DRAMA (M) A. J. CASEY, ED. $2 1923 EY 8.100C. NEW YORK, N. Y.

◇THEATRE ART (M) J. R. ISAACS, ED. $5 1616 EY. 7.00C NEW YORK N. Y.

◇SCREENLAND (M) D. EVENS, ED. $2.50 1920 EY 260.203C. NEW YORK N. Y.

(4) 教育、科學—

特히 教育界刊行物은 各大學에서나오는것이 數업시만타。다못代表的인것數卷을紹介한다。

◇SCHOOL AND SOCIETY (WK) J. MC. CATTELL, $5 1915 EY, 4.556C. NEW YORK, N. Y.

◇EDUCATIONY (M) F. H. PALMER, ED. $4 1880 EY. BOSTON, MASS.

◇SCIENTIFIC AMERICAN (M) O. D. MUNN. ED, $4. 1845 EY. 70.770C NEW YORK, N. Y.

◇SCIENCE AND INVENTION (M) $2.50 1913 EY. 148.436C. NEW YORK N. Y.

(5) 政治、經濟—

◇FOREIGN AFFAIRS (M) H. FARAMSTRNG, ED. A5. 1922 EY. 13.000C. NEW YORK. N. 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BI-M) $5 1892 EY. 1.100C. UNIVERSITYOF CHICAGO. CHICAGO, ILL

◇CONGRSSIONL DIGEST A. G. ROBINSON $5 WASHINGTON. D. C.

◇INTERNATIONAL CONCILIATION NEW YORK, N. Y.

(6) 勞農—工商。

◇WORLD'S WOORK (M·) R. DOUBLEDAY, ED. $4 NEW YORK, N. Y.

◇MONTHLY LABOR REVIEW (M.) U. S. BUREAU OF LABOR, $1.50 WASHINGTON, D. C.

◇FARMERS' BULLETIN (M) U. S· DEPT OF AGRICULTURE. WASHINGTION, D. C.

◇NATIONS BUSINESS (M) $6.312.976 C. WASHINGTON, D. C.

◇MAGAZINE OF BUSINESS (M) E. J. MEHREN, $4. CHICAGO, ILL.

◇INDUSTRIAL DIGEST (M) H. F. RAWLL, ED. $3.00 1921 EY. 52,420 C. NEW YORK, N. Y.

◇INDUSTRIAL GOS (M) H. A. ONDREW, ED, $2 1923 EY. 20.142 NEW YORK, N. Y.

(7) 宗敎—

宗敎刊行物이만흐나 다못重要한것數者를 紹介한다。

◇MISSION REVIEW OF THE WORLD (M) D. L. PIESON, ED. $2.50 1878EY. 6.436C. NEW YORK, N. Y.

◇CATHOLIC WARLD (M) JAMES M. GILLS, ED. $4 1865 EY. 5.000C. NFW YORK· N. Y.

◇CATHOLIC MISSIONS (M) H. A. CAMPO, ED. $1. 1923EY. 100.000C. NEW YORK, N. Y.

◇WORLD TOMORROW (M) KIRBY PAGE, ED. $2 1918 EY. 10,00CC. NEW YoRK, N. Y.

特히 基督敎社會主義의 色彩가잇는 宗敎運動機關誌다。過激派同人들이 執筆한다。때지主筆은 世界를歷訪하고온 社會運動者다。

(8) 週報—WEEKLY—。

週報의數가 만흔中에 가장週報로써 日刊新聞보다도 相當한社會의 役割을 하고 또한莫大한營業의進路를 가지고 잇는것이數多하다。 勿論大都市에잇는 新聞社들은 으레이 一二種의週報를싸로이發行한다。그러나 여긔에紹介하는 것은 雜誌形의週報다。週報는 廣告料로써營業이되기때문에 거이全部가 一部의五仙식이다。그것은 發行部數가만흘사록 高價의廣告料를밧게되는때문이다 普通百萬名以上의 讀者들을 가젓기때문에 政治的宣傳을하는데도 만흔効果가잇다。이제 代表的週報 二三을紹介한다。

◇SATURDAY EVENING POST G. H. LORIMER, ED. $2·00 1728EY. 2.924. 363C. PHILADELPHIA. Po.

이週報가 歷史的으로나 모든것으로 第一位에잇다。二百九十餘萬의 讀者를 가지엿스며 二百餘페지나되는 紙面에는 廣告가三分之一을 占領한다。定價는五仙이나 無代로進呈해도 廣告費로 떨어지는 利益이 相當하다는 것이다 다못五仙이래도 밧으야 週報로써의價値가 잇다는것이다。勿論 五錢이면조희갑도 못된다。

이雜誌는 지금으로붓허 二世紀前에 有名한 벤자민푸랜크린의손에 創立된 것이다。그때로붓허 지금까지 共和黨을 宣傳하고 잇다。

◇COLLIER'S W. L. CHENERY. ED. $2. 1888EY. 257.290C. NEW YORK, N. Y.

이 「콜리여-스」는 뉴욕市에서出版되는週刊이다。이것은 쌔러데이브닝포스트」보다 조곰發賣數는적으나 亦是二百二十餘萬部다。前者와近似한 營業政策을 가지엿스나 政治的으로는 民主黨을 後援한다。每週『술먹는이야기』만키로는 이週報가 第一이다。禁酒法解除를 밧닷宣言한다。主筆은 쉬카고大學出身의 社會科學者다。

◇LIBERTY & BUTLER, ED. $2.50 1924 EY. 2.415,108C. NEW YORK. N. Y.

「콜리여-스」와 近似한것이다。亦是二百四十萬部以上으로 突破한다。

◇LITERARY DIGEST W. S. WOODS, ED. $4.OO 1890 EY 1.602.397 NEW Y.oRK, N. Y.

文學的週報다。 政治、時事、文學、美術、音樂、諸部門을두어 世界的事物을轉載한다。一週間에 된모든事實의重要한것을 新聞雜誌等에서聚集하야 싸이케스트하는것이다。多分學生들이 만히 사본다。週報로쎠는 世界消息을알기에 매우 조흔것이다。亦是百六十餘萬部를發賣한다。

其外「TIMES」,「REPUBLICAN」」NATION」,「NEW REPUBLIC」等々의十萬部以上 發賣하는 週報가十餘種잇다。

◇

◇附記— 時間關係로完全히案內할수업섯슴을 遺憾으로생각한다。여긔에列記한種目外에 航空界、社交界、流行界家庭、音樂、圖書、電氣、라디오、旅行等々의對한 特別한專門的 刊行物이만흐나 略하얏다。그러고 各部門을싸라 一年에出版發賣되는것等의 統計를紹介하지 못함이 遺憾이다。모다時間問題이다。다음期會로밀우고 그만둔다

◇參考書

"THE NEWSPAPER AND PERIODICAL DICTIONORY 1931"

"RE.DERS' GUIDE TO PERIODICAL LITERATURE"

—三月二十五日—

쉬카고市立圖書館에서

—(黑 鷗)—



美國苦學의가지가지經驗

「곡상」노릇으로 한녀름

케엠생

「눈에 닉고 손에 설다」고 일즉 이 우리나라 료리에도 경험이 업는 나로서 일층 싸다로운 양료리를 만드러 보겟다고 다만 료리책을 무엇갓치 밋고 대담스럽게「곡상」의 이름을 가지고 한녀름 남의 집 부억「어멈」노릇이 우섭기도 하였고 속도 상하엿스며또한 배홈도 만핫섯다。

다행히 무엇보다도 청결과 경제에 만흔 쥬의를하는 쥬인마누라를 맛나 내가 선수의「곡상」은 못되여도 청결한것과 일상의경제를 쥬의함이 가기컨브터 쏫겨올것을 예상하엿던것이 나의 류하고십흔 긔간을잘지나고 나오게 하엿다。시간의 여유가 잇는대로 몃가지식 미리 실험으로 만들어 보아、음식이 먹을만하면 간수하엿다가 쥬인식탁에 들여 보내고、그럿치 안으면 석탄재와 함셰석거 귀양을보내는것이엿다。

더운 녀름 란로녑 생활이 각금설기도하고 괴롭기도 하엿스나、할줄모르튼 음식을 한가지식 배호는 취미와 일주일 일차식 쥬인 식구들이다ㅣ출타하면 그립든 우리 음식을 만드러먹고 놂고、아름다온 이집 동산이 오직 나를 위하야 잇는듯 서늘한나무그늘 밋흘 차져 녯날 견우성과 직녀성의 길고긴 일년동안 다만 짧고 짧은 하로밤동안만은 맛나 니야기할수 잇섯든 애처러운운명과 갓치 오직 나의 모든 괴로움을 닛는 장래를 속삭일수잇는 기회이엿다。

苦學生活의浮沈相

뉴욕大學 鄭一亨

浮動層의學生群
學資調達의夏休

己巳年 春三月ㅣ螢雪의 功을뜻하고 截然히 負笈出家한후 學海에 몸을던진지도 어제런듯 해가 거듭한 오늘을 臨하고보니 지나간 受難生活의起伏과浮沈도 적지않엇거니와 輾轉苦學의有隆有替도 말하면 하나와둘이 아

니엿음을 回憶케만됨니다。

원체가 苦學생활의救濟를위한 長期의放校期인만큼 米국大學의 녀름방학은 六七八月석ㅅ달이넘어 말하면 學資調達의 絶好機요 唯一의黃金期입니다。이시긔의 성패與否가 다음해運壽如何를 말해주는 運命의指示期요 成算期라 가즌努力과 誠力을긔우려 就職에猛躍케됨이 우리의 現實苦요 남달은靑春의 恩典이라고나 할까요!

일터를向해 오히려 元氣왕성한가운데 씩씩한壯志와 굳은意圖를품고 勇往邁進하는 우리學生生활의方向은 실로 千갈래 萬갈래에 뻐침이잇지마는 技術職業보다도 自由勞働 市場으로의 進出케 되고야마는 浮動層의「조선젊은이」이라는것을 몬저 理解해주서야함니다。

白紙의割烹科長
電話敎授로得業

이제는 筆者의 苦학生활의 체험을 두어가지 적어보렵니다。두學期를 오하요大學에서 授業한후 夏休를際하여 硯友林君과同伴하여 世界的大都市인뉴욕에 첫印을치기는 庚午年六月도上旬의일입니다。職業紹介所인 人事相談所에 就職알선을 依賴한후 四五十名乃至百여명의 職業的勞働層 失職輩들의 喧囂한談笑를들으며 아츰붙어 閉務할때까지 한종일 待合所一隅에서 幸運을고대하는 同僚들의 倦怠와지리를난호며 一週일을 정근함이 잇엇음니다

世界를휩쓰는 經濟的不況과 恐慌은 필경 自由노동群의 막버리「일터」에까지도 때아닌 殺人的失職旋風과洪水가 찾어와 도시 無名書生인 우리에게까지 就職의恩典을 고대함이란 그야말로 植松望亭格이라 락담千萬—雪上加霜으로 職業紹介所計營者들의 괄시와冷待도 形容에絶한바 잇엇음니다

그래서 第二段行動인 新聞에就職希望廣告가奏効하여 급긔야영어로「쿡」인 행랑사리 新式文字를쓴다면 割烹科長에 奉職을 하엿읍니다。그나마도 先拔競爭에 一金月八十弗에 就業을하니 射倖熱에 불타는젊은이의 開幕式은相當하엿음니다。

原體처음이라 生疎보다도 白紙의智識 오직 배ㅅ심을 믿고간 몸인만큼 「무」하고 살머먹는지 쪄먹는지도 모루며 器名하나 모루는엉터리「곡상」일홈은조케 一躍割烹科長의奉職—도리켜생각하니 痛快無類—壯快千萬!그날저녁입니다 무엇을먹을터이니 밥을지라는 主人마님宅의 命令一下와같이 그렇게도조튼 배ㅅ심도 자최를감추고 이제는唐惶해지며 앞이캄캄해집니다。란로(오분)에 불을어테다 켜는지도모루는 맹꽁문이가 엉터리로 나섯스니 當時의苦心이 과연어떠 하엿겟다는것은 讀者가推察해주소서。

獨系下女一名을 爲始하여 두어명의 自家用 自働車運轉士를둔 百萬長者의 邸宅이라 電話도六七臺가잇어 즉시로 延專同窓 두어名을 呼出하여 料理法의 스피드式電話敎授를받은후 知己吳君의 언제나친절叮嚀한 指示說明을딸어 첫날저녁은 幸히獨女의助力도잇어 비교적順調로 序幕은 거지반成功 이려

한 苦心과節次를 끼니마다 三四親知의 電話敎授를 받은外에 料理法全集을뒤져가며 근근자자히 한달을지낫건만두 거츠른人生의물결은 마츰내 또다른 波紋을그리고 살어지게되니 그것은 主人되는 百萬巨富가 株式市場에서 投機的事業에 從事타가 一朝에 二百萬弗의 大損을본그는 他地로轉去케됨과 同時에 나에게는 失職의쓴盞이 딸어오며 多情多恨한洋女들의 눈물의 告別을받으며 街頭에나서게되엿음니다마는 割烹科長으로서는 분명히도 雇員格도못되든나는 月餘의경험으로因한 多分의自信과手法을 體得한바잇어 高等官은모르나 判任官으로써는 昇任의疑心이 없엇음니다。

失職放浪兒의受難

一日天下의白日夢

制限잇는紙面이라 좀더 詳細한點에 붓을멈추지못함을 讀者여 헤아려주시며— 하로아츰에 失職된후 또다시職業紹介所에 來往 하나 時不利兮 十餘日을 優遊渡日 하엿음니다。第四回就職希望의新聞광고가 또다시 奏効하여 글字그대로 油頭粉面의 二八美人의 행랑사리와 自働車運轉士試補格으로入選이 되지안켓습니까!

젊은主人 아가씨야말로 一瞥에가장 尖端을것는 流行의毛斷女— 그차림차림과 生活樣式이 모던(現代化)以上의 모던을 찾어헤매는 째스式高度浮華와 强度豪奢의 女王임을 認知케됨니다。原體몸을휘는 마당인만큼 一金百弗과 非常下人貸(팁)가잇다는 말을듯고는 또다시 榮轉된割烹科長의生活은 始作。

져녁 먹을것을 下命한후 主人마님(男便은 持病으로 西方某病院에서 靜養中)은 자최를 살호는지라 知己元兒을 招請하여 져녁을 준비한후 待命하노라니 未久에 같은 축의 젊은게집하나와 美男子— 風流郞이 登場한후 져녁을畢하자 酒宴이 게속됨니다。젊은男女들이 침복만을 둘러닙고 醉興이 도도하여 狂舞亂踏함도 내一生의 처음보는바라 興味의百퍼센트려니와 紅燈綠楊우에 쓸어진년놈들의 擁抱과亂歌도 상상에넘는바라 여긔에젹을바못되나 人世의타락이 여긔에머믈고ㅅ녀! 함을 못내嘆息함이 잇엇읍니다。禁酒國의술이 웨이다지도 大豊인지 數十種의 外國産酒類가滿庫한데 일쪽이 經驗이없는몸 무엇을指摘하며 持參배연을命하나 白紙의 割烹科長또한그들의 滿足한 要求와期待를 어찌나 수응할수잇엇으랴! 다음날아츰에 一金四弗을던저주며曰— 그대는適任者가아니니 갈곧으로가라는 고마운命令一下 다시몸은 失職洪水에 犧牲者가되나 떼카단的極端의 尖端을것는「에로」와「그로」(술과게집의뜻)魔굴을버서나오는 白日靑天의歡喜도 不少하엿읍니다。

때利롭지안코 또한運命의 찬바람은 쌍고돌아 내일쪽이 十여年을두고 客窓寒燈밑에서 苦學하는몸 健康으로일홈놉든내게도 病魔까지 침노하여 呻吟케되니 젹어도 一金三百弗의 져축을가지고 歸校하려든期待도 눈물겨운

白日夢의 哀話의一節!。

黃金國의臨功地
壯志男兒의舞臺

北米의大學生活과 所感을 수차新聞과 雜誌를通해 揷稿를 발표한바잇어 이에略하거니와 要컨댄 北米의大陸은 아직도 苦學의여유가 많음을보게됨니다。가즌誘惑과 歡樂의臨功따(司馬相如가 젊은게집을 모을고간땅) 인만큼 薄志緣緣한 徒로서는 負笈을猶豫함도 좋으나 學術의淵叢과 技藝의寶庫를찾은 壯志男兒로서는 응당壯志와意圖를 커울질할땅도 여긔가 아닐까합니다。

(一九三一年二月廿三日)

放學間의農場生活

金 相 敦

一、農場에居處와飮食

勞働者의待遇가 예전월손大統領時보다 퍽改善된것이라난대 居處하는캠푸라(天幕)는것을보면 말외양간에조곰도 날것이업난데다가 안으로몬지와 더름기는 그以上일뜻하다。 침상이라는것을 보면 몬지와쌔와 그他雜것으로 얼누룬덜누룩하여 참아그우에눕기는 거북하엿다。 그러나 한쌔이니 아름묵以上으로 알고지내게되여스며 또한房에자그마큼 四五十名式 이갓치들석이게되니 자못慰勞가되엿다。 그리고 飮食은 이맛침日人의料理라 加州엔大住 큰農場엔 거이다 日人이 맛허노릇을하기쌔문에 不深한事情 그前엔 잘먹엇것만 生覺만해도 막진커리가나려 每日아침 그놈의토장국 또 셜셜한무쪽각에 비린내나는生鮮等으로 一等料理를삼고 每日十時間 或十一時間式 을일하게되엿다。

二、첫몃츨동안

이런佛堂갓고 貴한料理로선 그냥지내래도 죽을란에쌔맛침 初年生포도쪽이를 五六間에 한나무식잇난것을 각금안졋다섯다하며 다듬고 잡아매기와 十七八층 或은 二十二三층에 사닥다리를메고단이며 그쏙쌔이에올나서 복숭아속구기이런일을終日하고나면 하날이쌩々돌고 게다가멧번식 툭々떠러나지면 참맛이어지간하엿다。 그리고 허리가한참압흘쌔는 七八十老의 흉볼나이업시되는것이 첫몃츨동안에 일이다

三、쐇닥하면다리를자른다고

그리얼마를 지내는中 엇썬날點心참에 運搬自働車를타다가 鐵便마구리에 정갱이正面을 엇지나드러밧엇는지 쌔가거이 보이게되엿다。 그러나 尋常히 아럿써니 그놈이엇지나 야단을치난지 보는사람마다 쐇닥하면다리자르기쉬우니 일그만두고 病院에가 잘治療하라고야단이엿다。 만은 무슨八字에 쉴마그러기야 하랴하고 우리나라시골장란에 장타령君格으로 바지갈낭이를찟은후 그놈을처매고 절눅々々하며 그래도일은 한時干쉼업시하난맛도 괜치

안엇거니와 그놈이겨우 近六十日만에야나서 그痕跡만은 平生間보게되여스니 이도莫大한紀念인듯。

四、포도잘못싸고쏘겨나든일

누구나 집작할바와갓치 初次靑탐손포도싸기는 뎡어려운 일이다。싸는法이 쳐게생긴보야코도 어렵쎈白粉을안떠러트리고 그르면서도 한송이의한알이라도 납쎈알이이스먼 가우로쏙々々싸며 아조精密이하면서도 한목을휠신하야하난대 배운지겨우 二三日이여스니 內容을可이 집작할수잇게스며 또滋味업서슴은 只今 치카코어느大學에이슬제 親한親舊金某兄에 쏘새로온지라 그兄은 그即時에드러가지고 하다보니 그亦집작할바이안이랴 只今生覺하니 必然손으로 막주물고 粉이다떠러지게되며 일은終日하여 겨우내품갑이번模樣이니 누가조와할니 이서슬가게다또 둘이손싹이마저 모든고향生覺도 곰々한지라 넙다 소리를지르며소리를막하고 왓더니 우리는 謝絕을밧고 近一週間을 그대로놀게될때 우섯기도하고 좀창피도하엿다。

五、허기져죽을쌘

한번쏘겨난德으로 그後브러난 아마쇄잘된樣이엿다。別를닙업시 每日날싹포도싸기를하다가 하로는 米國農場일중힘들기로 第一이고 또代로돈도 그中만이 收入된다는 포도너르는추렝이뒤집는일을 하여보기로하엿다。돈보담도第一힘든다는대 어데한번 試驗하여보자난 好奇心으로 自願을하여 나아갓난대 勿論이것은 도급일이니만큼 加一層힘드는것인대 엇잿썬 아츰어두어나아가 업대여모루겨가며 벼락갓치午正싸지뒤집엇더니 한겻에돈은通이두리서 十餘弗를 벌게되엿다。한데남만침못먹은솜세에 前날저녁에 써마칩冷麵을먹고 아참엔죽한그룻마시고 나갓썬나로선 意外에도 허기가저 쐿닥하드면 그만죽을번을하엿다。點心을먹고二三時干후에야 겨우回生할 地境이엿다。

六、말두필메우고밧갈다가혼난일

以上은 全部昨年初渡의일이나이것은 今年의일이다 開學후처음으로일을가니 主人이두필말을메워주며 밧을갈나한다。그래사양치안코 갈기를始作하엿난대 數日을하고나니 아조쉬워스나처음엔엇지도 그리어렵든지 그만혼이낫다。理由난要컨대 말을부리기보담내가말한테 쓸녀단인것이며 直線보담밧귀에 포도나무쉐고돌때 間隔을잘맛처말은포도순싸먹고 나무는본쟁기에걸니여 남이깃옷각군것을 와직쓴뚝닥뚝닥석곤 다라나는말궁뎅이를 헐떡이며쏫차다니기도 거북커니와 主人이보고욕할가바 이것이더욱 무시々々하엿다하로를겨고나니 前日븟터 감기가들녀좀몸이便치못하엿썬나로선 맛이쇄상큼하엿다。

七、제가져몰을地境

異常한소리갓다。그러나 도라보자이런쌔가 許多하나 그中에도 請負業인데

포도나終日싸고 나는쌔가第一그러한데 內容은 포도나무에 害虫을救濟코저 璜이가득히쑤려잇다。그우에 몬지

는 말할수도 업스리만큼 싸여잇난대 새벽에나아가 어둡기까지 엇썬째는近十二時干式을하난대 아참十時頃으로午后四時頃까지엔 熱度가普通 百餘度或은百十五六度가 뜨거운한太陽밋헤 머리는勿論 몸全體를 前記와갓흔나무속에다너코 다못한푼이라도 더벌으랴고 벼락갓치야단을치면 목은말나 쉴새업시물을마시면 셥은흘너 全身에비오듯하고 琉璜과몬지는 누가그리반가와하난지 多情이도날여드려 온몸은勿論 얼골과手足엔 허메로글게되며 이것이셥에석겨 눈과입으로 드려갈時엔 막쓰려죽을地境일다。 그뿐노 終日지내고나서 農場길사나운몬지구덩이에 추럭을타고드러오면 自己容貌를 아무리보아도 제가잘모를地境이된이것일다。

八、第一痛快한것몃가지

一、天地의大自然을 그대로맛보게되며

一、아참저녁으로 시원한바람이잇다금 슬적싯고지나가 그맛은高樓巨閣에扇風機날니는以上。

一、밤새도록 天然冷藏庫에 식힌맛조코 시원한복숭아한개 싸먹는맛또달고 감칠맛잇난포도 한송이먹는그맛富者가 食卓에서 먹는그것과는判異。

一、옛날에 牧童갓치 싸고간點心밥을 널은벌판에 헤처노코 얼핏먹은후에 반々하고 그늘진곳으로차저가 밥망을베고 한잠자는그맛이야말노 宮殿의高寢단衾이 어데當할쎈을!

一、終日피곤이일하고 저녁荷物車에나 물시루에 콩나물실니우드니 총!총이실이여오난 그滋味야말노 數三千弗조흔自働車에 自己愛人을싯고 단이는그도 싸름지는一種의疑問일만큼。

北米에서받은敎訓

丁泰鎭

一、桑港의埠頭에서

太平洋의怒濤를 勇氣잇게 물리치고 쌘•푸란시스코港頭에到達한 天洋丸의船上에는 數多의乘客과 歡迎客들이 奔走히往來한다。 一二等船客들은 特別한調査도받지않고 安寧히나리어가신다。 그러나 우리三等客들은 멈을르어잇으라는 命令을받엇다。 精細한調査를한後에는 移民局이라는곧으로끌고간다。 나는 이곧에서 重要한敎訓을 分明히받엇다。 우리의 勇氣잇는解決을기다리는 階級問題가잇다는것을。

二、天使島의樂園에서

이곧에 移民局이잇다。 宏大한 建物이다。 華麗한花草가 둘르어잇다。 우리는 移民官이가자는곧으로 따르어갓다。 最後에 한房으로 引導한다、그곧에는 一列二層의닭(鷄)의장이잇엇다。 내음새가 코를찌른다。 汚穢無比의 寢具를갖다준다。 檢査가完了될때까지 이곧에서 宿泊하라고 命令

하신다。四圍를둘르어보니 房마다黃人이다。어림하여보니 四五百人의黃人이 同一한監獄안에잇다。나는 이곧에서 또한새로운 活教訓을받엇다 우리에게는 不可輕視의 人種問題가 잇다는것을。

三、「오하이오」의學窓에서

北米의學窓에서 工夫를 始作하든첫겨울이다。우리의 一般在米學友들이 經驗하는 苦學의生活을 始作하엿다 學校勞働部에가서 일하나를얻엇다。그것은 세집(三家)마당의 눈(雪)을 쓸라는것이다。學費가 困難하든次에 참말로喜消息을들엇다。卽時가서 쓸어주엇다。그다음붙어는 눈이올때마다 쓸어주기로 約束하엿다。萬籟俱寂한 午前네時頃에 혼자나아가서찬손을부벼가며 三四時間을 繼續하야 눈쓸든생각! 回想하면 그때의그生活이 나에게限없는 教訓을주엇다。「自我의運命을 自我의努力으로 開拓하라」는 偉大한教訓을。

四、「뉴욕」大都에서

十二月中旬頃 雰圍氣가 比較的쌀쌀한아참이엇다。西洋人신 友두사람과 함꾀「뉴욕」貧民窟探訪의길을 떠낫다。나는그때에보고들은바를 이곧에 쓰지않는다。다만그들이 形言없는陋醜의 生活暗黑의生活을하고잇다는것을나는알엇다。富國인이나라에 이러한곧이잇을 줄은참으로뜻하지몯하엿다。千百卷書籍에서 얻기어려운貴重한教訓을나는이곧에서 배호앗다。

八〇頁에서續

이고 賢利하게使用함에따라서 生產的事業을할수잇다고한다。그리고 地上에서金錢만치 그自體에價値가少弱한것은 또업다고말한다。

돈은自我를開發식히고 價値잇는目的을成就하는데 한用具로有用할뿐이라고 古昔에는 貯蓄의効果를極說하엿스나 이는돈을過度히稱揚한것이라 此로因하야 青年等은用錢하야 收入에計劃을確立치못하고 盲目的으로 貯蓄하게되엿던것이다。(사람은 웨돈을貯蓄하는가 그目的은 蓄金만은아닐것이다。돈은訓練과 智識과 經驗을얻기爲하야使用할것) 一弗을書籍에 投費할것같으면 거긔에依하야 青年將來에好轉期가來到할것이고 一弗을銀行에貯金하면 年末에 利子로 四五錢의所得에不過할것이다。勿論青年의 自身으로돈을 適當히使用하기는 大端히困難할것임으로 初始는 種種失策이잇슬줄밋지마는 그過失이經驗이되야 將次에는有效하게使用함을得할것이라。

特히少金을貯蓄하야가지고 安全한氣勢를가지게됨은 活動力이充溢한青年을 怠惰식히고 그뿐아니라 奮起心을消耗식힌다。나는 只今까지金錢에信賴하야가지고 安全을得한일은업스며 또金錢에依하야 生活에安全을 計策하랴고도 生覺지안노라 人生의眞正한保證은 其人各自實力의依함뿐이요 金錢을賢用함에따라實力은 求得될것이라고말하엿다

以上米國代表的富豪에한말을 詳考한다할지라도 이나라富豪의見地와 우리內地에서보는 怪物的富者와는 共間隔이 넘우나遠離된것을可이알것이라。



나의苦學談 하우스웍

聖 郁

GOOD FOR NOTHING 時期

七八星霜前녯일인가보다、벌서。

「빨은歲月은 살갓다。」고 각금 嘆咏을 吟한다。만은 海外의歲月이란 좀더 빨울듯싶어말이다。

처음「조타는美國」에 當到한때이다。주머니를 발각뒤집는대야 돈몃分안되는 事情이고 視線을 돌니는곳마다 耳膜을 기우릴때마다 모두가 異常 모두가 奇怪한것뿐인데 먹어도 먹는가보다 자도자는가보다 걸어도 것는가보다 自己自身의 意志、行動、통트러 生活을 自身스사로 理解하기어려운境遇 말하면 정말조흔곳인지 혹슯은지 울어야할지 우서야할지! 맴소리를친 녀석처럼엇지된細音을 모르는 그當時엇으니 같은經驗을 體驗하신이는 同感을 앗기지 안을가싶으다。

그리면서도 한가지 銳利하게 全生活을 不斷이 刺戟하고 잇던것이잇다。그것은 악가도 거이 暗示된 바와같이「돈을 벌어야한다。」는 意識이며 實際이다。돈을써본일은 勿論 없지안치만은 안이잇지만은 돈을 벌어본일이야 英語에도 GOOD FOR NOTHING 이란 俗語가잇고 우리나라에도「無用之物」이란述語가 잇지만은 참말 GOOD FOR NOTHING 으로 나이 數十이 되도록 겨우 食事나하고 또 겨오 걸어나단이다가「美國이조타고!」「苦學을한다고!」左右間 와놋코 보는判局이니 하늘이 주신손발、령비인주머니外에는 조흔美國뿐?

그래 일을엇자고 同胞의 勞働國紹介所가잇스니 부대부대 付托을하고 電話를 걸어보고 直接가서 企待려보고 머리를 벅벅 글거보지만은 암만조타는美國엔들 일자리가 그리容易히 잇스랴! 꼭 없는바도 안이겟지만은「아모것도 할줄을 모르는 일군줄일」이 어데잇스랴 이땅에 多年居留하신同胞들은 넝큼넝큼 (얼른얼른) 일을어더가시는데!가도 돈도 만이밧고。) 月給問題에는 敢히 입도못버리는 나는 일을가만이라도보려고애써도 期會가없는 엇절수없는 막달은골목이다。그러나사람이 그

리 쉬웁게 죽지는안는모양、하하。

其時 勿論 短期의觀察인데서 無異하겟지만은 在美同胞間에서 指稱하는 所謂「일」은 一二의例를 除한外에는 環境에依하야 그範圍가 甚히 制限된것을 알게되엇다。概觀하여 그것을 農場일、商店일、飮食店일、하우스웍(집일)이라 論할수잇는데、그런데 最終의일 곳「하우스、웍」이 苦學生에게는 最適하다는것으로 經驗談이떳떳이 서잇고 一考에도 그럴것갓다。

「하우스、웍」을 무어라할가? 文字가說明하랴는대로 그것은 남의家庭에雇用되어 밥도지어주고、床심부름도하고、설거지도하고、다림이、掃除、兒孩잇스면 兒孩코도싯처주고、말하면 一個家庭살님사리에서 일어나는 모든要求를 그무엇인것은 題外로하고 안이 한달수업다。그것이 所謂「하우스、웍」인데 말하면 女僕의職務에서 別無優劣한것이다。

그리면서도 가장 氣막힐만큼 寒心한情形은 밥짓는것 床심부름하는것은 問題外로하고、房한아 누가 뒤를딸아단니며 指示하기前에는 通例대로 流行대로 風俗대로께법 쓸수업는 그때形便이엇스니 압만「돈이만타는米國」인들 누가 돈을 주며 일을 오랄理잇스랴? 밥이나먹을줄아는 GOOD FOR NOTHING 의時期엇스니 참이럿케힘든窮境이다。

이즐수업는 첫經驗

엇지다 일을가게되엇다。아시는同胞들까지 모다 喜消息으로 致賀를주며 注意、勸苦도加한다。

「廚房에서는 엇지엇지하야됨니다。」도하고

「床심부름은 이리이리합니다。」도하고

「來客引導는 電話밧는것은 衣服다리는것은 房쓰는것은 무엇무엇은 저리저리합니다。」도하고

「젊은사람이 어데가면 일못할나구 일잘하면 첫날노 月給을 올녀줌니다。念慮마시오。」하고 親切히 興氣하시는이도잇고 그러나「잇는者에게는 더주고 업는者에게서는 잇는것까지빼앗는다。」는 叱言과같이 그도 언만한程度의 基礎經驗이 잇슨뒤에 問題일것이오 其當時에서는 모든 親切한 勸誘가 聾者에對한 조흔音樂뿐것이다。

엇잿든 벼슬을 엇어가는細音쫌되는貌樣이니 흠쓱한心思로 加房을 묵거가진뒤에 떠낫다。。電車에서나려 四方을한번 죽 觀望하엿다。모다 처음當하는것이매 神奇한늣김을늣김도 事實이다。그곳이야말노 富者들이 占領한 小天國이니만치 뒤으로는 遠近에 聳立한 峻嶺이시연시연 뻣처나려가고 山麓붙어 藝術客의 一幅作亂이라고나해 조흘가한 美觀奇觀의 小宮闕들이 한아식두흘식 千紫萬紅한 百花와叢林속에 孤遙한데、종으로일할망정그

속에 살게되는것이 퍽깃브드름하다。

夕飯時도왓스니 美國에서 床심부름을 첫번으로하여보는 것이다。

食堂에는 洋夫婦가 食卓에 正坐를하고잇고 厨房에는 中國人食夫(COOK)가 飮食을 料理한다。COOK은 飮食이 準備되엇스니 가저가라고 命令을나리고 食堂의主人들은 밥을 가저오라고 電鍾을 짜르릉짜르릉 울닌다。

우리나라모양으로 한床식차려서 床대로 들어다가 各個人앞에 노아주는 床심부름이면 아모리 天痴로 태어낫다하드라도 그리 속썩일 難處야 업스련만은 洋人들이란! 어나놈을만저 가저오라는것인지 어나놈을 뒤에 가저가라는것인지 가저간대도 얻언禮節을 차리라는것인지를 窮理하는사이에 電鍾이 또 짜르릉하고 電鍾만울면 中親友는 三年宣告나 받은被告처럼 顔色이 青으로 紅으로 黃으로 奔走히 變하다가는 손질눈질 乃終에는 辱說까지 나오는데 初面에 같이 性도 내일수업는땀만 나는地境이다。

밤이 느즉하여 그렁저렁 설거지도 맞우고 寢室노갓다。

자리에 누엇스나 잠이 잘올理업다。

얻든情形 이러서나아온壯觀 富者들의 小天國、美國의 二十有餘年을 살아왓스되 英語한마디 변변이 못通하는 中國人 그래도 종사리한아만에는 卒業生인그가 돈벼락을마저도 죽도록마즌 洋人집에서 밥짓고잇는 속몰을實際、그通에 뛰어들은 無罪、無知、無經驗한나、그러나그같이 앞으로 一朔二朔 꾸준이 나아가가지고 秋期開學時에 주머니에 每朔七十五弗식번돈 數百餘弗을 너은채로 校門을 들어서는 光榮滿足、끝업는 想像의 산그림은 것잡을새업시 繼續된다。甘夜이다 一日生活의如干波瀾이란 그같은 단꿈속에 孤單한記憶속으로 曙光이 솟을때 안개踪跡같이도 살어진다。첫날아츰이니만치 翌朝에는 注意하여 早起이다。室內室外를 才幹것 至誠것애를써가며 한번 본대잇게 掃除하엿다。아츰일죽붙어 主人들에게 조흔印象을 주어야한다는決心으로。그런데朝飯도끗나자 主人이 부른다。그리고 主人은 人事도 차리기前에 短刀直入的으로

「얼마를 달나느냐?」고뭇는다。勿論조흔印象을 가젓을것이니 첫날노月給을 올녀주라는데서 無異하다。自想하며 얼마를 더달날가 갑작이 마음을 定하기 어려웟다。때에 主人은 威儀가 그럴듯하니 다시말을 끄내인다。

「여보케 보아하니 넘자의人格이 信實하네。」

「그럿켓지!」하고 나는 衷心으로 滿足의우슴을 슬그머니 우섯다。主人은 말을니어「그럿치만안엇다하드라도 돈한分 줄수업네만은! 글세 넉하지안은가。넘자가 床심부름을할줄아나? 그잘난 그릇한개를 바로 싯츨줄

아나? 房을 쓸줄아나? 뜰을쓸줄아나? 무슨턱을대이고 내집에를 왓단말인가? 一分錢이라도 남자에게 돈을준다는것은 나의大過인데서 無異한것은 나亦 잘알지만은 月給七十五弗會計로 昨日붙어 一日間일할細音으로 二弗五十仙을 주는터이니가지고 어서집으로돌아가게。」

「집으로 돌아가게。」모다 처음當하는 일이니「쫏겨가는구나!」하는 抑査한哀情만이 그特殊한刹那에 나의生活을 支配하는듯! 昨夜 늣도록사은 空想의計劃은分明코 蜃氣樓에 不過할뿐 그리고 그蜃氣樓가 서잇든土臺에는 무슨큰 羞恥나 當하는듯한 憂査의氣分이 五里霧와같이 包圍하고잇섯다。그리면서도

「쫏겨나아올 그일」을 또 얻어가여야할 身勢만이霧中에서도 明瞭하다。

「未安하다。」는 싱거운人事를 主人에게츠리고 加房을 묵거가지고 어청어청 어케 오든 길우에 다시 날아낫다。「그첫經驗이야 말노 永遠이 지나가버린 過去의經驗이다。 그리고 그만큼 永遠이 새로운 새經驗이될것이다。」

그같은 첫經驗을 當하여 보시지못한 同苦學生諸友는 몃분이나 된다할가? 考컨대 想컨대 全無가 안일가?

菓子를 만든다。

그 이즐수업는 첫經驗은 다만 첫經驗인데만 멋지안코 두번세번의經驗으로 重復하게되엿다。

그통에 한번은 저「쨕뎀시」라고 왜 一時世界拳鬪界의 選手로 名聲이 籍籍하든 그의 家庭으로 일을가게되엇다。입빠른下女들貌樣으로 종사리를 당기노라면 남의家庭之事를가지고 重言復言하게되는일도 事實일것이나 旣爲 말을 끄내인以上이니。

「쨕뎀시」는 本來 無識한鐵道工夫엇다。사람된性品은 매우존코 그의父親은 精神上 如干 異常이 생긴사람이고 어머니는 나즐한 참 시골할멈에不過하고 兄은 油漆工 누이는 그리 밉지나안은 젊은處女인데、普通美國人의 家庭制度의例를 反하여 찰아리 朝鮮式으로 大家族이 한집웅아래사는 그家庭이엇다。

한데「쨕뎀시」는 한번 目不忍見의 주먹의싸음 혹新式文字대로 拳鬪를 하는報酬로 적으만치 熱狂的인米國公衆에게서 五十萬弗式받어내이는 畸形的文明의 造化된幸運兒엇스니 돈잇고 富者안일理업는 우리「쨕뎀시」의 집으로 종사리를 간것이다。돈의힘이란 참 大「퍼즐」(Pozle)이다。

그런데 不幸한것은 일을가자 그家庭의食母가 職을辭退하고 가버렷다。갑작이 繼任者를얻는다는것도 不容易한일이엇스매 自然이 그食母의職까지 내게 온것이다。그리면서도 幸인것은 그런期會에 料理調製의法도 잘배어두엇스면 在美間 밥벌이하는 一種技藝인데서 無異한

것이엇다。하여 辭讓하여버릴것은 念도 안내이고 「눈치
는멀건」힘만밋고 반죽조케 손을 들이놋는判이다。
▒그같이 첫經驗으로 晩餐을 準備하든 經驗中 至今까
지 늘 잇치지안는것은 菓子를 만든 거짓말같은참말이
다。

料理法冊을 두적두적하여가지고

一、麥粉은 얼마
一、砂糖은 얼마
一、鷄卵은 몃알
一、牛乳는 얼마
一、쏘다는 얼마
一、「오분」의 溫度는 얼마
一、「오분」속에는 몃十分 仔細이 說明한대로다 석거
가지고 「오분」에너어서 구어내엇다。그러나 그것이 그
리 쉬운일이안이엇다。。땀도퍽으나 훌렷고 時間도 三
四時間 잘 「虛費」한뒤에야 겨오 「오분」속에서 끄내엇
다。

끄내어 한조박 뜻어먹어보앗다。그런데 砂糖은 첫는
데 달지도안코 牛乳、鷄卵 다드러갓지만은 牛乳、鷄卵
의味란 나지도안코 꼭 「밀가루풀」맛이다。外觀도 亦是
「밀가루풀」에 못지안타。그것을 回想하면 우슴밧게 안
나지만은 그때에는 그것이 그리 우습지도안엇다。雪上
加霜으로 菓子가菓子로 되지안엇슬뿐안이라 그잘난풀을
쑤노라고 三四時間을 虛費하엿스매 晩餐準備는 全部를
려졋다。그같이 우리 「짹뎀시」의 큰食口를 한끼니 굼
겨주고 나줄한할멈의辱說도 퍽으마들으며 또 쫏겨나아
왓다。

끗업는 니야기

그같은 逸話를 一一이 記錄하자면 끗업는 苦役이겟
다。勞働이라는데 對하야 도대처 履歷이 업는것은 악가
도 말슴한바와같이 勿論인데加하여 家僕生活이란 그의
特異한 態度習慣、禮節、經驗을 要求하는데이랴?

아츰 늣게자다가 當하는 꾸지람、
낫잡자고 보는 昌皮、
비나 쓰레기판같은것을 쓰고 아모데나 노앗다가 받
는 責望、
主人마나님 고은치마에 죽물 쏘트리고 眞紅되는 얼
골、
대림이하다가 옷태우고 別辱說 다들으면서도 먹먹하
니 서잇는꼴、
마루한아 닥글줄모른다는 蔑視、
쌰음하고 쫏겨나아오는일
또 勞働口를 찻느라고 애쓰는일、그ㅣ무슨履歷이야안
츠린다하랴?이로다 枚擧할수업는끗업는 談話이다。
그러나 「잡이잇스면」깸이 잇는 겨으로、過失이 또한

眞理와 그럴듯한關係가 잇다。」고 얼마큼 逢變을 치루면履歷家가 되는法도 잇는것이잇다。

履歷이 난뒤

料理도、床십부름도、房掃除도、대림질、설거질、닷치는대로 젓각젓각하게된다。그도 참技術이다。

그程度에 이른때에는 비로소 일은일대로 츠려나아가면서도 그리 發汗傷心의 勞苦는안된다。도적질낫잡을자고 아츰起寢이 느커커도 얼는 감살줄도 알게된다。수틀니면 쫏겨나아온다는이보다 姿勢부리며 집어버리고 나아오는수도잇다。

月終이나 週終에 月捧이나 週給을 받을대로 받으면서도 每週一次쯤은 休日을 얻어 求景도당기고 볼일도본다。벗을 차저 一週間經過한 彼此의情況을 相通하며秋期開學이 어서오기를 꿈도꾼다。景致조흔公園이나 永遠이 한글같이도 心情을 誘引하는 海邊湖畔을차저 寂寂히 客된몸들일망정 하로의해를즐길대로 즐기기도한다

사람이 一生을 살아가는동안에 내손을놀니고 내발을쓰야하는것어 當然하다。

무엇을하나 營業을하거나 工夫를하거나 乃至 人力車를 끌거나 혹시「하우스 웍」을하거나 나의最善을 盡하는것이 참意味의修養이며 學得이며 發達이며 成功이다。

倦怠의 深溝에서 뛰여나 務力의 生活을 營하며 依賴心을 버리고 自主性을 가진다。難境에 頓挫말고 꾸준이 나아간다하는哲學을 각금 理想함도 이때이겟다。

집에서 날을 곱아가시며 企待리시는 어머니、할머니를記憶하며

그죽을 구멍속에서도 그레도 工夫를하고야만다。사람의사람다운思想과行動을 하겟노라 떳떳이 나아가시는內地의 어린同生學友들을 또한 이저버리지말고 한번記憶하여볼때에는 그만「하우스 웍」을 무어를 실타하랴하는생각이남도 이때이겟다。

그러나「하우스 웍」은 心理上、精神上、肉體上、稍이苦憫을 주지안는다기 難하니「하우스 웍」으로 一個籌備의支柱를 삼아 苦學하시는 自足우에 自立한 留美諸友의 慘噡을 도시 이저버리지안으랴는同時에 日노勵進하는結果、目標한 彼岸의 獲得을 祝하여 마지안는다。

(在에모리 一九三〇、二)



밧가운데 집

구름

一

『암만해도 데릴사위를 해야겟서、차차나희가 만하지니까 힘이 들어서 해먹을수가 잇서야지。』

영감은 아레목에 안저서 담배를 피우면서 엽헤 안저서 솜을 피우는 마누라를 보고 이약이를 시작한다。

『글쎄 말이요、그러나 애가 너무 어려서。』

마누라는 동정을 하면서도 걱정을 한다。

『어리긴 무에 어려。남들은 그보다 더 어린것을 가지고도 하는데。어려야 좀 더 오래다리고 잇지！』

영감은 벌서 속에 무슨 작정이 잇는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데릴사위 할만한 아희가 그러케 잇수?』

마누라는 그래도 尙早論을 말한다。

『잇기는 꼭 맘에 드는 아희가 잇는데。』

『누구요? 이동네 잇는 아희요?』

『그럼、이동네 잇지。짤뱅이 말이야。』

『무어、짤뱅이?』

마누라는 너무도 意外라 깜짝놀랫다。

『웨짤뱅이가 엇대서。 아희는 훌륭하지。 平生을 가야 무슨 말이 잇나。 다른아희들처럼 까불기를하나。』

『그래두 여보、 허구만흔 아희에 하필 짤뱅이란 말이요? 좀똑똑한 아희로 골르지。 玉順이가 그래 그런 아희에게로 간단 말이요? 아、 星煥이 같은 아희도 할수가 잇고한데。 星煥이 어머니가 明姬네집에서 來年에는글방이 안이 되니까 성환이를 일을 식혀야 할텐데 잇스면 데릴사위라도 듸려보냇스면 하드라든데。』

『별소리를 다하우。 성환이가 지금 나이 열대여섯밖에 안되고 이때까지 글만읽다가 저집에서도 일하기가 힘들텐데、 데릴사위가 무어요? 똑똑한 아희? 똑々한 아희가 데릴사위를 사나? 혼인을 정하고 一年이나 半쯤年살다가 다라나면 딸을 안주자니 是非가 만코、 창피하고、 주자니 心事가 틀리고、 찰하리 데릴사위를 안이하는게낫지。』

영감은 굿쎄게 말한다。

『그래두、 여보、 성환이는 일은 잘못하나 차차 배워서하면 되구、 그애는 다라나거나、 어른을 거역하거나 그럴理는업지요。 이웃에서 십여년동안이나 지내 보아야 한번이나 누구에게 걱정식히는것 보앗소?』

마누라는 애걸을 한다。

『쓸데업는 소리마우。 아직 어리니까 그려치、 글읽은놈처놋코 사람 속이지 안는놈 업습듸다。 밧팔아서 논살께는이밥먹으려는 욕심인데、 성환이를 데려다가 무얼해? 하로 일하고 잇흘식 알는 병구원이나 하자구。』

이리하야 그여히 짤뱅이로 데릴사위를 하기로 決定이 되엿다。 마누라는 할수잇는대로 反對를해보앗스나 한번생각한일은 하눌이 두쪽에 난대도 그여히 하고야마는 영감의 성미를 아는까닭으로 할수없이 모두가 八字라고탄식을 하고는 服從하지 안을수가 없엇다。

× × ×

場所는 江原道春川郡 實雲里 창말이요 때는 至今으로부터 十五年前에된 이약이다。

아레人말 축동갓가히 二十간쯤되는 초기와집이 외따로히 잇고、 집 左右에는 나무人나까리、 집낙가리가 삐죽하게잇고、 다당압헤는 살찐 암소가 한가히 색음을 하고 누엇스니 얼른 것흐로만 보드래도 實農家로 判斷할수가잇슬것이다。 이집主人은 朴建赫이니 나희 五十쯤되는 中老人이요 이동리에서는 中農階級에 잇스며、 土地도 自作以外에 五六十石 秋收하는것을 가젓고 부스런하기로 동리에서 첫재를 꼽는다。

그리고 일꾼을 다리고 너무잔소리를 하기때문에 잔소리쟁이라고 소문이 낫다。 딸아서 일군을 두지안코 臨時〱로 사서 부리고 대개는、혼자서 한다。 그러나 自己를 도울만한 아들이 업고 오직늣게 딸하나를 두엇스니 玉順이라는 當年 十二歲된少女이다。

× × ×

이듬해 正月에는 짤뱅이가 데릴사위로 玉順네집에를 들어왓다。

짤뱅이는 本來 金城 아희로 일즉이 父母를 여희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남의집 머슴을 사는 아희이다。 나희는 二十이요、힘이 세여서 일을 普通사람보다 배나 더한다。 이것이 玉順 아버지의 마음을 움즉인 原動力이다 그러나 키가작고、등이 굽으며、코가 납작하고、얼골이 오종종하고、이마가 좁아서 얼른보면 머리털이 눈섭에서부터 난것갓치 보인다。 종일토록 누구와던지 말하는일이업고 그저수굿하고 일만한다。 단일때에는 고작은몸이 쫄랑쫄랑하면서 가는것이 우수워서 동리자람들이『짤뱅이』라고 別名을 지어서 불으는것이다。 本姓名은 張三鳳이라고한다。

이로부터 짤뱅이는 將來 妻家를 위하야 힘을다하야 일을하고 主人 영감은 짤뱅이의 일과 순종에대하야 크게 만족하엿다。

× × ×

세월은 흘러간다。 한해、두해、三年이 지나서 四年째되는해봄이다。 어리든 玉順이는 벌서 二八이라는 나희되여 얼골은 桃花같이 피여올으고 男子가 무엇인지 시집이 무엇인지 알게되엿다。 그럴사록 짤뱅이가 보기실혓다。 그래서 한번은 어머니 압헤서 종일 울엇다。 물론 어머니는 동정하엿다。 그러나 다만 八字라고 하면서 참으라고 만하엿다。 玉順이는 두번 세번 울다가 아버지에게 맛츰내 들키엇다。 그래서 못된년이라고 하면서 따리는 방망이찜을 당하엿섯다。 그뒤부터는 늘 몰래울엇다。 그리고 스사로 제마음을 책망하엿다。 할수잇는대로 짤뱅이를 불상히녁이고 동정하려고 하엿다。 그래서 어머니가 안이게서서 자긔가 밥상을 갓다주게 될때에는 할수잇는대로친절히 또는 공손히 하엿다。 그러나 짤뱅이는 눈한번들떠서 玉順이를 바라보는일도업고 입한번 벌여서 말한마듸하는 일이업다。 엇던때는 玉順이가 부억에서 무엇을 하노라고 골몰하야 물떠가는것을 이젓서도 물달란말을못하고 그냥나간다。 玉順이가 깜짝놀라서 물을 떠가지고 마루로 달려가보면 그는 벌서 나갓다。 이와같이 行動으로

동청할사록 옥순의 마음은 더욱더욱 슯혓다。그러나 强情한 아버지는 외딸의 마음이 슯흐거나 깃부거나는 조곰도 상관하지안엇다。

玉順이 十八쎄되든해봄에 成婚을 식혓다。그리고 자긔집 東편으로 밧가운데다가 十餘間쯤되는 조고만 집을지어주어 쎄간을 내엇다。그러나 말로만 쎄간을 낸것이지 실청 짤뺑이는 친수히 쳐가의 일을하는것이다。

玉順이가 혼인을하고 밭가운데 집으로 쎄간을나서 살기때문에 동리사람들은 玉順이를 밭가운데 집이라고 부르게 된것이다。

× × ×

그러나 玉順이가 쎄간을 나서 부부생활을 한지 一年이 채다지나지못하야、그는 이상한 병이 걸려 알케되엿다。의원도 무슨 병인지 알아내지 못하는 이상한 병이엿다。처음에는 얼골이 노래가며 다니면서 시난고난 알튼것이 나종에는 몸져 눕게되고、몸에는 살이 다빠져서 뼈만남게되엿다。

의원은 몃번이나 옥순 어머니다려 아모리 보아도 병이 심화로 난듯하니 종용히 물어보라고 말하엿다。그래서 어머니는 몃번이나 무러보앗다。나종에는 울면서 물어보앗다。그러나 옥순이는 절대로 心火되는일이 업다고 항거하엿다。어머니는 옥순의 동무 文姬를 식혀서 물어보앗다。문희는 어려서부터 제일 친절한 동무이다。그러나 옥순이는 절대로 대답안이 하엿다。

세월은 지나가서 봄이변하여 여름이되고 병은 점점더하야 몸에는 뼈만 남게되엿다。이제는 옥순이도 自己가 回生하지 못할줄을 알고、문희에게 自己 病이약이를 하게 되엿다。

二

이약이는 이러하다。玉順이가 어렷슬쌔브터 갓치놀든 동무가잇섯스니 그는곳 성환이다。玉順네집이 외딸로잇기쌔문에 玉順이는 멀니 놀너갈수가 업는形便이엿다。그래서 玉順이는 제일갓가운 星煥네집에를 놀너가고 또는성환이도 옥순네집에를 놀너왓다。그러나 星煥이는 男子이오 玉順이보다 나히세살이 더만햇다。아직 男女가 무엇인지모르는 이어린아희들은 天眞란만하게 소곱질노 세월을보냇다。그리고 星煥이가 아홉살되든해브터 글방에를단이게되매 놀時間은 그리 넉넉지못햇다。그러나 玉順이는 終日토록 기다리다가 저녁을먹고는 성환네집으로 달녀

갓다。가서는 성환이가 글닑는엽헤 가만히안졋다가 글을다읽고난後에는 둘이서 바시락바시락 작난을하고놀앗다。놀다가 돌아올때에는 의례히 성환이가 玉順네집 문턱까지 다려다가주엇다。성환이는 순직한아희엿다。그리고 玉順이보다 나희좀만키때문에 언제든지 玉順이를 잘다리고놀고 묘든것을 玉順이의게 양보하엿다。그래서 그父母들도 그들의동무를 퍽좃케생각햇다。

성환이는 과부의 외아들이다。그러나 그의 큰아버지가 어렵지안케 살면서 성환네살림을 보아주기때문에 生活노는 別걱정이업섯다。

세월은지나갓다。그러나 두어린동무의 友情은 變함이업섯다。그런데 玉順이가 열세살되든해正月에 玉順네집에서 쌀뱅이를 데릴사위로 되렷다。이것이 성환어머니를 落望식혓다。그것은 성환어머니는 玉順이를 메누리를삼엇스면하고 바랏든까닭이엿다。그러나 이어린동무들은 락망이니 무에니하는 생각은업섯다。그저한결갓치 의좃케 지내고 한결갓치 玉順이는 성환네집에를 놀너가고 성환이는 玉順이를 다려다주엇다。

그러나 玉順이가 열네살 열다섯살이 되면서브터는 前처럼 자조 성환네집에를 놀너가지못햇다。그리고 前처럼 滋味나게 성환이와 놀지를못햇다。둘이서는 차々 이야기가 드물어졋다。玉順이가 몃칠에한번 성환네집에를가드라도 한편엽헤 종용히안저서 성환이가 글읽는것을보다가는 글이씃난뒤에는 바시시 이러나서 도라왓다。그러면 성환이도 아모말업시 따라이러나서 다려다주엇다。그럴때마다 玉順이는 소곳하고 잠잠히거러가고 성환이도 아모말업시 뒤를따랏다。그러나 玉順이는 커도아지못하게 성환이가 늘그리웟다。玉順이가 성환네집에를 가지안는날밤에 自己집에안저서 바누질을하든지 삽을 삽을때는(베짜는실을 삽쳡질노맨드는것) 玉順이의귀는 솔혀 성환이글읽는소리로 쏠니고말엇다。성환이는 밤마다 글을읽엇다。글방이파하고 일을한後라도 늘계속하야 밤마다 글을읽엇다。그리고 성환이는 목소리가 퍽아름다웟다。淸雅하고 굿세면서도 보드라웟다。그래서 玉順이뿐아니라 다른洞里사람들도 성환이의 글소리를 사랑하고 듯기조화하엿다。성환이의 글소리는 고요한밤에 단소소리를 멀니서듯는맛이엿다

성환이가 초저녁에 일군을엇으려 도라단니고 또 동무의게쏠녀서 놀다가 도라온밤에는 밤이깁도록 글을읽엇다 이글소리가 자리에누어 잠을자려든 玉順의게는 여간사랑스럽게 들니는것이 아니엿다。아모체면을보지아니하면 벌덕이러나서 뛰여가서 그엽헤안저서 듯고십헛다。

그러나 玉順의나히 열다섯、열여섯이 되면서브터는 玉順의마음은 점점무거워졋다。그것은 自己의게는 쌀뱅이라

는 將來男便이 잇는까닭이엿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때마다 성환이를 對하기가붓그럽고 또는슯혓다。 그러나 如前히 성환이는 그리워젓다。 ——이니 더욱더욱 그리워젓다。 그리고는 작고 쌀뱅이와 성환이가 비교가되엿다。 얼골이비교가되고 체격이비교가되고 言語가비교가되고 마음이비교가되고 才操가비교가되엿다。 비교를해볼사록 땅과하늘、흙과구름이엿다。 그래서 할수잇는대로는 긔회잇슬적마다 어머니의게 졸나보앗다。 쌀뱅이의게로 시집가지안켓다고 그러나 번번히 아모시원한대답을 못들엇다。 이것이 차차자라서 어머니압헤서 울기까지하게되고 나종에는 아버지의게 방망이맛까지 보게된것이엿다。

玉順이가 방맹이맛을본後브터는 니를깨물엇다。 차라리 죽을지언정、父母의압헤 自己의슯흔行動을 뵈지안으려고。 舊道德家庭에서 敎육을밧은 옥순어는 제마음을 責망할지언정 父母를 원망하지는 안앗다。 그리고 할수잇는대로는 성환이는 생각지안코 이즈려고애를썻다。 아모조록은 쌀뱅이를 同情햇다。 그父母도업시 남의집에서 賤待를밧고 自己를爲하야 허구한날——비가오나 눈이오나 더구나 치우나——소갓치 써가휘도록 일을해주는 쌀뱅이를 同情햇다 그러나 고요한밤에 잠은오지안코 멀니성환이의글소리가 들니는때는 自己도아지못하게 어느결에 마음은홈박 성환이의게로 달녀간다。 그리고 그의팔이그립고 그의가슴이 그리웟다。 그리다가는 정신을차린다。 『내가밋첫나? 무슨못된마음이냐? 이때까지 그런일이업드니 새록새록 別생각이 다난다。 못된년!』 하고는 스사로 책망을한다。 그리고는 잠을자려고 애를쓴다。 그러나 잠을자려고 애를쓰고 스사로 自己를책망하는동안에 벌서自己의마음은 성환이의품속에 안기인것을 깨닷는다。 『웨이래? 내가밋치나?』 하고는 우려버린다。 소리도업시 남몰내울어버린다。 울다가는 언제잠이드럿는지모르게 잠이든다。 그리고는 또다시 꿈을꾼다。 엇던때는 성환이와갓치 멀니광학山을 넘어서 도망을가다가 쐔적도잇섯다。 그리고 엇던날은 성환이가 집에잇는줄을 알녀진때에 自己도아지못하게 발길이어느결에 성환네집으로 向하엿다。 그리다가 성환이와 얼골을 마조對하게된때에야 정신이나고 따라서 얼골이확근하엿다 그리고 성환이압헤서는 얼골을 들수가업섯다。 그러나 그의압흘떠나기는 실혓다。 自己도말이업고 성환이도 말이업고 다만성환이 어머니가 이야기를 할뿐이엿다。

이와갓치 거의갓흔일을 되푸리하는동안에 一年이란 길직한세월은 지나갓다。 그리고 성환이는 압말노이사를햇다 그래서 玉順이는 그나마 성환이의얼골을 자조볼수가업섯고 그그리운 글소리조차 드를긔회가 업서젓다。 그러나玉順이의 머리속에서 성환이의환상이 떠난적은업섯다。

星煥이가 玉順네집 일을온날은 玉順이는 무슨핑계로든지 졈심가지고가는 女人들을따라갓다。 가서는 한편엽헤서 셩환이를본다。 그런곳에서보아도 셩환이는 出衆한男兒이오 寬厚長者이엿다。 말과行動이 졈잔코도 취미가잇다。 그의 同輩들은 그를引導者와갓치따른다。 그런것을 볼때에 玉順이의마음은 깃브면서도 슯헛다。

한번은 玉順네집논을맨날 커텍이엿다。 玉順네집마당에는 술잔치가 버러졋섯다。 모든사람들이 얼근하게취하고 취흥을 도두기爲하야 젊은사람들을 소리를식혓다。 한아희가 소리를먹이면 여러아희들은 장고를치면서 후렴을밧아서 合唱을한다。 그런데 셩황이의목소리가 조키때문에 흔이는 星煥이가 먹인다。 그中에는 가세타령이잇섯다。 셩환이는 장고를치면서

『리별이야 리별이야 사라생전生離別은 生草木에 불이로구나ㅣ。』

하고먹인다。 다른아히들은

『冬三月、季三月아 회양두벙벙 도라를오너라 안나돈밧소야ㅣ。』

하고 後念을밧는다。 이날밤에 玉順이는 밤새도록 이소리를 생각햇다。 生離別은 산草木에불이란말은 꼭自己의마음을 말하는것이엿다。 『그러면 셩환이도 나를그러케 생각할가?』 이노래를 드른後브터는 玉順이는 셩환이의마음도 꼭제마음과갓치 애타는줄노 생각햇다。 그리고는 後悔를햇다。 『웨 밤에다려다주느라고 단둘이서 내집문턱까지올때에 말한마듸를 못해보앗나? 웨그의가슴에 안겨보지를 못햇나?』 하고

그해가을에 玉順이가 우물에서 배추를씻고잇슬때에 셩환이는 벼바리를몰고 지나가면서

『江原道金剛山 一萬二千峯石壁우에 머루다래보고 못따먹는 다람쥐心事와 絕大佳人엽헤두고 못보는이내心事가 그엇더트란말이냐? 참말노眞情으로 님의花容이그리워라 나못살네로구나!』

하고 愁心歌를 구슯흔소리로불넛다。

玉順이는 그소리가 分明히 自己드러보라고하는것처럼 意味잇게생각햇다。

그이듬해봄에는 혼인을하게되엿다。 혼인날이 닥쳐올사록 玉順이의마음은 더무겁고 더슯헛다。 서로생각하야 애가 끈허지는사람을 엽헤두고 꿈에도 생각이업는 딴사람의품에 안길생각을하면 너무도 안타까웟다。 그래서 『차라리……』 하고 멧번이나 죽엄을생각해보앗다。 그러나 그럴때마다 어머니가 걸니엿다。

혼인날은닥쳐왓다。 그前날밤에는 한잠도못잣다。 멧번이나 죽을가말가에서 헤매이엿다。 그러나 이런事情을아는이는

한사람도업섯다。

玉順이가 新婦의단장을하고 수모의게 부축되여 초례청으로 내려올쌔에 감앗든눈을 잠간떳다。그리고 마진벽기동에 성환이가기대서서 自己를바라보는것을 發見햇다。玉順이는 아모정신이업서젓다。절을햇는지 주저안젓는지 도모지몰낫다。

그러나 혼인날도 엇더케엇더케지나서 玉順이는 쌀뱅의夫人이되고 초여름브터는 셰간을나서 玉順이는『밧가운데집』으로 행세를하게되엿다。

玉順이가 혼인을한後에도 그마음은 조곰도 變할수가업섯다。──아니 오히려前보다 더성환이를 思慕하고 생각하엿다。멧번이나『못된다 나는남의안해다。벌서 貞操를 한사람의게밧첫다。남의안해로서 他男子를 생각하는것은罪惡이다。本男便의게 忠實해야한다。』하고 생각하고 決心햇다。그러나 고요한집에 혼자終日잇슬쌔에 不知不識間에 생각은 어느결에 성환이에게로간다。비오는날과、달밝은밤에 멧번이나멧번이나 한숨을쉬고、눈물을흘녓다。

玉順이가 셰간을난後에 성환이는 간혹玉順네집에를왓다。그러나 그것은 쌀뱅이와 품아시를하는關係로 일군을엇고 날짜를약속하려 오는것이엿다。玉順이는 處女적보다 훨신활발한態度로 청환이의게 인사도하고 말도햇다。그리고 아모도업시 혼자잇슬쌔에는『성환이가 차저왓스면!』하고기다렷다。밧게서 무슨소리만 조곰나도『성환인가?』하고 문을여러보앗다。그러나 번번히속앗다。속으면서도 번번히 문은여럿다。하로밤에는『울타리밋헤 시랙이타랩이 바람만불어도 날속인다。』라고 축동을 지나가면서 부르는청환이의 노래소리가들녓다。그런소리를 드를적마다 自己의마음을 그리는듯하엿다。『알기는알면서 웨와주지는안나?』하고 원망비슷이 탄식을햇다。

그이듬해봄이엿다。맛침 옥순이가 혼자잇는데 성환이가왓다。

『장서방계서요?』

하고 드러온다。玉順이는 반색을하면서

『어서드러오세요。아마 어듸갓나봐요。』

하고 대답햇다。

『그럼 잇다가오지요。』

하고 되나가려고한다。 玉順이는 엇절줄을몰낫다。 맛나면 自己가 그러케思慕한다는말이라도 한마듸하려고 기다리고 기다리든차인데 이긔회를놋치면 또다시 어느때를 기다리나하고 생각한즉 엇더케해야 조흘지를 몰낫다。 그래서

『잠간만 이야기할말삼이잇스니 드러오세요。』

하고 청햇다。

『무슨이야기신지 여기서하서요 곳가야겟서요。』

하고 성환이는 드러가지를 안으려고한다

『잠간만 드러오세요。』

하고 玉順이가 간절히말할때에 성환이는 무슨눈치를 챗는지

『아님니다 가겟슴니다。』

하고 나가려고한다。 玉順이의 안타까운마음은 엇절줄을몰낫다。

『그럼、여기서라도 말할게 잠간만계서요。』

하고도라서는 성환이의소매를 잡앗다。 성환이는 소매를뿌리치고 뛰여나갓다。 玉順이는 고만그자리에 주저안저서『울엇다。

이로브터 玉順이는 알키를 시작햇다。 음식맛을일코 잠을자지못한다。 그래서 몸은점점쇠약해저서 나종에는 몸저눕게되엿다。 억지로 긔운을내고 성환이를 이즈려고決心햇다。 그러나 다虛事이엿다。 그의마음속에 맷치고맷친感情은 理知의決定으로는 도저히 풀려지지못햇다。

그後브터 성환이는 다시는玉順네집에를 오지안앗다。 그러나 玉順이는 날마다 밤마다 기다리고 원망하엿다。 봄밤、여름밤이 비록짤다고는하지마는 생각으로 잠을자지못하는 玉順이의게는 길고도지리햇다。 終日일에시달닌 몸이 골아떠러저서 반송장이된 男便을엽헤두고 쓸데업는딴사람을 생각하면서『그가그럼 나를생각지안는것일가? 내가自근를 이러케생각하는줄을모를가? 다만겁이나서 다라난것일가? 웨또오지안을가? 來日에는올가?하고。 눈은점점반반해지고 精神은 점점똑똑해진다。 갓금가다가 창안산에서우는 두견새의 애끈는소리。『저새도 사랑하는동무를 그리워서 저러케우나、세상이웨그럴가? 생각을하면 맛날수가잇거나 맛날수가업거던 생각을끈을수도업고 또는 맛날수도업스니。 누가세상을 이러케만드럿나? 무슨까닭으로 이러케맨드럿나? 달니는만들수가업

든가? 웨男女는 맨드럿나?』하면서 세상만든이를 원망한다。그리고 또오지안는이를 원망하면서도 如前히그립다 『아이、엇저면조와?』하고 짜징을낸다。이러케決心、생각, 원망、그리움을 되푸리하고 또되푸리한다。다만 멀니서는 여울물소리가 쏴하고들녀오고 축동아래서는 물방아박휘에 물채는소리가 책책책책하고 들닐뿐이엿다。

처녀적에는 죽으려는생각을 해본일이잇섯지만 至今와서는 그런생각은 하지도못한다。그저답답히 그사람만보고십헛다。혼자종일 누잇다가도 멀니축동밧게서 성환이의노래소리가들니면 정신업시 벌덕이러나서 가만히귀를기우린다 혹은自己집으로나 가지안나하고。그러나 그는다시는 오지안앗다。

그러케하기를 봄이지나고 여름이 또半이나지낫다。정성스러운 어머니의病구원도、약도、다所用이업섯다。어머니와 동무가 그러케무러도 도모지告白을안햇다。그것은 玉順의理知가 도모지許諾지 안는까닭이엿다。그비밀을 그대로가지고 죽을지언정、성환이以外에 다른사람이알기를 원치안은까닭이엿다。이제와서는 죽지안을수업게되엿다。그러나죽기前 한번만이라도 그를맛나서 自己가 그를생각하다가 죽는줄이나알녓스면허고 원햇다。그래서文姬의게 이약이를 한것이엿다。

三

玉順이의病의 原因을알엇고 그리고 그의所원은알앗다。그러나 죽기前 한번만이라도 그사람을 맛나게해주기는그리쉬운일은 아니엿다。玉順어머니는 여러가지도 文姬와의논햇다。그러나 自己가 성환이를차저볼수도업고 文姬가성환이의게 말할수도업는일이엿다。不可不 또한사람을 새를놋치 안을수업섯다。그中에도 성환이가 信用하는사람이아니면 안될일이엿다。그래서 文姬의男便이 가만히용구라는 靑年을차자보고 事情을이야기햇다。용구는 書堂에서브터 성환이가 信用하고 尊敬하는 친구이엿다。

잇흔날용구는 성환이와갓치 목욕을하려나갓다。용구의게로브터 玉順이의 이야기를드른 성환이는놀낫다。

『설마 그럴나구요? 무얼나써문에 病이낫겟서요。』

하고 밋지안앗다。그러나 성환이는 그날밤에 여러가지로 생각해보고 玉順이를 불상히틱엿다。

성환이가前에 玉順이를貴엽게 생각지안은것이 아니엿다。玉順이가 自己를싸르는이만치 성환이의마음도 쏠녓든것이다。그러나 짤뱅이가 그집에 데릴사위로 드러간後에는 그런생각은 一切끈허버렷다。그야、나만흔총각이 엡분處女

를對하고 또는 그처녀가 自己를싸르는눈치를 번히아는데、잠들기前에 약간의空想도잇섯고 또는깁흔잠속에서 그의게對한꿈도 엿섯든것은 事實이엿다。그러나 그는健全한생각으로 實現할수업는妄想은 물니쳣다。그리다가 한번玉順이의게소매를잡히고 도망한後에는 다시는 玉順네집에를못갓다。무서워서못갓다。그것은 성환이는 아직까지 총각인싸닭에 女子의게對한 經驗이업고 더욱이 男便잇는女子와 이약이만이라도 하기를 무서워하는 싸닭이엿다。

다음날 성환이는 용구와갓치 밧가운데 집을訪問햇다。玉順어머니가 玉順이더러

『鄭서방왓다。이애 이러나거라。』

할쌔에 玉順이는 정신업시 벌덕이러나면서『어듸?』하고 방안을돌나보앗다。다른쌔는 붓드러이리켜야만 겨오이러나든터인데。그리다가 퇴마루에 거러안저서 되창문으로 自己를드려다보는 성환이를 發見햇다。그리고는 깃붐에넘처서 빙그레우스면서

『엇더케오셧서요?』

한다 성환이는 정말놀낫다。

『엇저면 저러케도 쳐골이되엿슬가?』

하고 속으로생각햇다。그새만남은 얼골이옷는것은 꼭 귀신이나 해골이 옷는것갓치보엿다。그리고 그것이 自己쌔문에 그러케되엿다면 너무도가엽고 또무서웟다。그래서 처음에는 말이나오지를안앗다。한참만에야

『어듸가 그러케 편치안으서요? 나는그러케몹시 편치안으신줄은 전연히몰낫서요。』

하엿다。玉順이는

『압흔곳은업서요。다만잠을못자는것 섇이야요。』

하고 대답햇다。용구는 玉順어머니와 마루에서 이야기를 하는동안에 성환이는 할수잇는대로 玉順이의게 위로하는말을햇다。

그로브터 玉順이는 잠을자기 시작하고 무엇을먹기를 시작햇다。성환이는 몟번이나 용구와갓치 玉順이를訪問하고 위로를하엿다。玉順이는 성환이의 차자오는것과 위로의말과 또는그말는손을 꼭쥐여주는데 고만마음이풀어지고 만족하엿다。이제는 금방죽어도 恨이업는듯하엿다。

病勢를돌닌 玉順이는 八月中旬브터 문밧게를 거러나오게되엿다。

× × ×

그해겨울이지나고、 그이듬해봄에 玉順이는 쌀뱅이와갓치 그洞里를떠나서 멀니다른곳으로 이사를햇다。 그것은 玉順이의비밀이 다른사람의게 알녀젓슨즉 所聞이퍼지지 안을수업고 그런소문을내고서 그洞里에서 살기에는 玉順이의自尊心이 許락지를 안는까닭이엿다。

財物을 딸의生命보다 더貴하게 생각하는朴근혁은 無男獨女인 玉順이를 또열두섬에 永遠히파라먹은것이엿다。 그래서 딸노하여금 사랑하는사람을 離別하고 그리운父母를떠나서 멀니親知도업는 他鄕에서 외롭고、 슯흐게、 눈물노 一生을 살게한것이엿다。

年前에내가(記者)무슨볼일노 鐵原엇던 酒幕거리를 지나는데 뒤에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고부르는 女人의소리가들녓다。 그래서나는 돌녀다보앗다。 果然 엇던夫人이 나를부르면서 조차온다。

『창말사시지안으세요?』

『비 그럿습니다。』

『저를모르시겟서요?』

『글셈니다。 얼는알아뵙지 못하겟습니다。』

『밧가운데집이야요。』

나는그夫人을따라 그집으로 드러갓다。

그는반가워하면서

『아이！엇저면 저러케 어룬이되섯서!』

한다。 勿論 그가창말을떠난지 십여년이 지낫스니 내가어룬이될것은 定理이다。

『張서방은 어듸가섯습닛가?』

『일갓지요。』

『農事하심닛가?』

『그럼요。 무어다룬것할거잇서요?』

『所生은 멧치나됨닛가?』

『이것들이야요。』

하면서 압헤섯는 두어린딸을 가르친다。

사시기에 滋味만흐십닛가?

『홀앗씨他鄕사리가 滋味가무슨滋味야요 늘외롭고 슯흔것쁜이지요。』

참무섭게도變햇다。그곱고 엡부든玉順이의 얼골이흔적도 업서지고 말느고 바스라젓다。다만맑고도 多情한눈만이 넷자최를 남겻슬쁜이다。나희三十五未滿이니 그리늙을나이 아니언마는。

나는용구君의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의초췌한 얼골을볼때에 엇업시 가엽슨생각이낫다。急한볼일이잇기때문에 묵어가라는 그의간절한만류도 구지사절하고 그집을나왓다。——끗——

一九三〇年 一二月 一三日 짹손에서。

一四一頁에서續

다시混雜化해서 失敗하구말구낫으니 다시그떠낫던 社會에먼지를 쓰기두실쿠 한層더墮落된理想國이라구 세웟든 이나라에서더살기두실쿠 살수두업다。

鍾소래요란히들린다。먼곳에서 氣笛두울어온다。一九二八年의 처음을알리우는모양이다。그鍾소래 그氣笛소래에 눈을다시부비구돌아서니 보이든黑幕이 다시보인다。줄달음치지는아니해두 힘업시 어실렁어렁 한거름式나아간다。그幕은 흔들리기始作한다。그압헤나의목이 다을락말락한놉히에 흰꼿송이루 裝飾한동그란花環이 방싯거리며 조곰식 상긋거리구 흔들구잇다。黑幕을얼싸안으려구 압흐루비칠거리구 나아가다가 花環이나의목을 조리기始作하든것까지만 記憶한다。

絞死

金俊尙

一九二八年一月一日 느지막한 아참볏헤 그의屍體는 天井에데룽데룽 매여달린대루 發見되엿다。 홋허진조희자박쟈흰冊床에서 이러한 아레와갓흔닭의발자최들을 어더냇지만해두 그것들을 무엇인지아는그것들을 알만한눈을가진이들은 그天井에달린屍體를 發見한이가운데는 업섯다。

뭉치엿든슯음이 갑작이가삼을치민다。 슯음에 만히울던 그눈에서 다시눈물이 흘으기始作한다。 一九二七의 마지막커텍이라구해서 그러한지 새삼스러웁게 울구십구 事實로울구잇다。 뭉치엿든 싸혓든슯음이지만해두 까닭모르게울구만잇다。 아무두업지만해두 다타커가는石炭부스럭이들이 흰재가되여 떠러저가는것만이 눈에더욱더욱 밝히보인다。 흰재가뭉쳐지는이만치 아모도보이지아니하는房은 치워지고 치워지는그만치 무삽품이되던지 기여들고십다。 나를먹으려고 달려드는굶주린 호랑이의품이라도 차자들고십다。 나의달은무엇을 생각하는이마암의줄기가 이만치날카러워진줄알면 호랑이도 나를집어삼키지는 못할것갓다。 몹시밧부고 몹시고단할적에는몰라도 안다하더라도 틈이업지만해도 이밤갓이 틈이내여진밤들에는 定해놋치아니한異性이 몹시두그리워진다。 그립다。 나를먹으려는 굶주린호랑이품을 생각할만큼 異性이굶주렵다。 變態心理이다。 말하지못하구 가삼만알른 臆病者의짓이다。 期會를주는대로 다놋쳐바리고는생긋거리구 옷구팔버려 마지하려는그들을 눈두거들떠보지는아니하구는 뒤房한구석에 冊子을펴놋켜나 차듸찬잠자리를들적에는 보든〃〃한꼴들을 모조리차자내여 멧곱이나더크게 펼쳐그려가지구는 잠을이루지못하구 헛럭그리워하는못난이의짓만하구잇다。 이것저것모라가다가는 異性과異性의 서루그리워하는 그要素가무엇이며 뿌리를어대두엇느냐구물얘본다。 이런異論 저런抗意 것처가다가는 그要素는 情慾이구 뿌리를박으려구하는곳은 肉交에긋친다는 結論을짓구나서는 다시人間生活에 始初인結婚生活에 도라가서 거기서다시 까닭들을차즈려구 이리저리헤매다가는 거기서두情慾업는 愛、戀을 感知할수업구 肉交가업다면 夫婦의生活은 不可能이구 따라서家庭生活 두形成될必要가업다구 다

시結論을나리우구는 假面、因襲에 基調된肉交를 無條件으로 罪惡視하는 第一大要素를 否認하려구드는 觀念을唾罵하구 人間의生에對해 不誠實不誠意한姿態、眞髓를더커바리구 枝葉에서만무엇을꾸며가지구 살려드는속임수들을憤해한다。참生活을하려구하면서 두참을가리워놋쿠 헛럭거품만부려가며 마시워가며 살려구드려덤비여본다。덤비이구잇다。찻치못할무엇을 차즈려구 드려덤비이다가는 다시무엇이나 껴안구비인가삼에부비려구 冷冷한가삼을덥게하려구 뒤져거린다。쓸쓸한生活이냐? 슯움에겨운 넉두리냐? 條理잇게참을찻는다구 드려덤비는步調두 더차구더컴컴하구 더외로움을늣길 黑幕을向해서 외줄기로달음질해간다。쉬이지아니하구 한거름이라두 速히그黑幕을붓처잡으려구 가구또달음질한다。누구나 나의달려가는 이心思의굿칠곳을 알아볼이업다。내自身으로서도 그黑幕이 무엇을보여줄런지몰으구 달음질만한다。배화야한다는觀念을 어대서 어덧던지 (하눌천)、(따지)를 배호는데서 어덧던지 배화야한다구 늙생각해왓다。自我루두 그러하고 자라나는 아희들두 그러하구 늙어가시는父兄들두 배화야만한다구해왓다。배호기가실혀서 우리民衆은 그다지無識한지 배호지를아니해서 그러한지 그原因들을 차즈려구들지는아니한다。그러나 그結果만을가지구 우리民衆의破滅、殘滅을보아가지구 헛럭한숨만지운다。나희만쿠늙어지신이들 그분들의하시는말삼대루 時期를이젓다하야 한수접어놋켓지만해두 배화야한다는 까닭을가지구 方今배화가는애들 어린이들이배호구잇는것이 무엇인가 배혼다는것이 얻어케해야 남들의비위나 잘마치구 떠러진돈푼이라두 우리의피를글어먹구 남은부스럭이라두 어더먹나하는것이다。그배홈은 오히려아니배홈만 갓지못하다。그배홈은 오히려남들의종되기에 졸만한배홈이다。그런배홈은 배홈과밧굼이올타。창자가썩어진 先生이란者들을 모조리목이나비엿으면 속이시원할것갓다。이것은 꺽게잡아노쿠 우리民衆敎育 特히普通敎育에對한咀呪이다。人類를놋쿠보아 배화야한다는條件下에서 배호는것이무엇인가? 因襲에奴隷되기를 배호는것이안인가한다。그因襲이란그것은 얼마나더러운신으루 밟아주어야할것이구 槍끗헤끼여들어못됨을 보이구태워벌일것인가? 가리치는것이 因襲에잘 順應해야 잘살아갈수 잇다는것이다。송곳으루 케발굼치를찌여두 이다지나몹시 全人類가찟구잇나?누구라미련하구 누구라智慧잇는이인가? 미련하거나 智慧롭거나 모두그만이다。살길을죽을氣를다쓰구 明哲한腦를써서 찻는다하지만해두 죽을길만을 차저가구잇다 좀더배혼다구하는이들 좀더배홧다구하는이들의 하는짓들은 무엇인가? 아는그만큼 배혼그만큼 自我를破壞하구 달은이들을 抹殺하는것박게업다。누구의罪惡이 더큰가? 아는이들 배홧다는이들의 罪가더크구 惡이더盛하다。무엇을가라처 文明이라구하나? 배혼人間들이 몰려살구잇는團體를가라처 文明햇다구한다。배혼이들의行動을미루어 文明은罪惡이다。나두서는알구 서

는송곳으로 내발굼치를 작구짓찌을수가없다。 찰어리달은무삽方針을 取하는수박에업다。 文明을뒤에두구 다시돌아서조곰前에 보던黑幕을발아본다。 배홈을생각해보너라구 멈췃든거름을 다시옴기여 빨리그幕을向해 달음질한다。 조곰더겁다。 조곰더그幕은커저간다。 그뒤에는 반다시무엇이숨어잇어 나를期待리구 손짓해부르는것이아니인가? 그래두무엇이못미더워서 거름을멈치구 다시무엇인지를 돌아서서차자본다。 偉大한人格者이구 卓越한先哲예수를 못박아죽인그後孫들이 살구잇는世上이다。 極惡者인 殺人者인「나폴레온」을 最上의榮譽를주엇구 偉人이라구 歷史에記錄하구 그의行事 피홀으는悲慘을 무릅을치며 고개끄덕이며 읽고잇는무리들이 떼를지어 살구잇는世間이다。 굼주려죽는 나히만흔이 먹지못해자라지못하는 어린이들을버려두구 버려두는것만이아니라 그들의피땀을긁어서 大砲를만들구 潛水艇을만돌어 金錢을풀어버리는外에 第一貴하다구 第一애낀다구하면서두 서루죽여바리구 피비린내나는피를 맛구는 선우숨치는人間들이 무리들를 다사리구잇는 宇宙이다。 法이란무엇인지를 解釋할수가업다。 굼주린애가 팡을한개움켜먹으면法이란것을가지구 鐵窓속에다 집어넛는다。 누구라주리게햇구 그를鐵窓에넛는이는 누구인가? 法이란것을가지구 한사람두 남기지를안이하구 盜賊해가지만해두 法이란것이 하나나둘만을盜賊하면아니라구 아니된다구 또鐵窓으루끌어간다。 이러한 허수아비의法이란것이 最高의權威를잡구잇는그것에 絕對的支配를밧구잇는 醜하구無能한人間社會이다。情붓칠點이어대이며 발붓치구설곳이어대인가? 서루사랑사랑한다는것두잘못이다。 할수업는일이다。 石炭두거위타저업서저간다。 쏴히는것은 흰재뿐이다。 나의눈압헤 보이는것은 宇宙가몹실불에타서 벌이구는 흰재만이 宇宙를희게덥혓다宇宙自身이 喪服을입은細音이다。

저편밝안 불켠모퉁이房에서는 재잘대구 해해거리구 웃는소래가 넘처흘으구잇다。 一九二七年 마지막저녁이라구해서 모혀든그들의 짓거리하구 헛턱조타구 우서벌이는 그우숨소래들이 흘러넘친다。 別것이업지만해두 이모퉁이에껴저가는불만을 직히구안진나의게는 嘲笑的이구 感傷的이다。 排斥이라면 排斥두可하구 逐黜이라면 逐黜두可하구 宜當하다。 人間社會를 咀呪하는나루서 排斥宜當하구 人類를罪惡視하는나루서 그들의게 逐黜을當합두 秋毫두그릇됨이업는 必然的事實이다。 原因을삶이면 無關이지만해두 原因은 即時살아지구 結果만이깁히깁히 가삼에뭉치여몹시괴롬을주구잇다。 人間社會에서 總排斥 人類에서 總逐黜! 그러면내발을 내여노흘곳이어대이며 갈곳이어대이냐? 다그만두구 여社會 이人類를떠나서 나의살길을찾자구 決心하구 默默히안저서 살길을찾는다。『너는죽어서꽃치되구 나는죽어서 나븨가되자』구한적이잇다。 混雜한人類社會를떠나 理想國을 세윗지만해두 얼마지내지아니해서 (一三八頁로續)

金正基의日記

任英彬

김정긔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조선학생이다。 그가 미국에 잇슨지도 벌서 이러구러 다섯해이다。 그의 다섯해생활은 표면으로 아모 파란 업는것이엇다。 그러나 그의 내적 생활은 엄청난 곡절을 가젓다。 그 자신이 시인될근성과 철학자될 근성을 가진까닭에, 그러치 안트래도 그 괴임이 클것을、 그런까닭에 그 내적 파란이 더크다그의 일긔는 그의 자아 발달사이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의 외적 발달사를 미국에 잇는 그에게서 찻는다하면 그 공인것에 놀랄것이다。 그러나 그 자아 발달사에 들어가서는 그 넘어진 주름살에 또 놀랄것이다。

그의 미국의 생활은 객관적이기 보다는 주관적이다。 사회적이기 보다는 개인적이다。 협동적이기 보다는 단독적이다。 냉정적이기 보다는 감상적(感傷的)이다。 수여적(受與的)이기 보다는 고장적(孤掌的)이다。 표현적이기 보다는 명상적이다。 활동적이기 보다는 잠재적(潛在的)이다。 그는우주화(宇宙化)하는 자긔는 불법하엿서도 적은 친구에게 살피여줄것같은 정의는 못뵈여 주엇다。 그는 세계의 생명에 자긔 생명을 걸고、 그 신비의 지경에서소요(逍遙)하는 자긔는 불법하엿서도 사람들과 섭즐려 흙물을 갓치 마시면서 수고하는 자긔는 못보앗섯다。 그는울엇섯다。 그는 외로웟섯다。 그러나 그는 혼자 울어야 하엿섯고、 혼자 외로워 하여야 하엿섯다。 그에게는 그의울어야 할마음을 펴노흘데가 업섯고、 그의 외로워야할 정을 색일데가 업섯다。 그는 자긔 혼자가 그마음을 위로할 재료를 만들야 하엿섯고 그 정을 달랠 수단을 피하여야 하엿섯다。 통틀어 그의 미국의 생활은 자긔와자긔의 변동사이다。 그것은 그가 그리 하고십허서 그리된것이 안이고、 엇절수업시 커절로 그리된것이다。 그러케그혼자가 그 쓴술을 마시고 그것을 색이자 자긔라는것을 자랑하게 되엿다。 그 자랑이 생기자 그는 더 자아중심적이 되엿다。

그것도 그가 일본이나 중국에가 잇섯던들 그의 생활은 달랏섯슬것이다。그나라들에서는 공통의 정감을 맛볼긔회가 만흘것임으로써 그의 내향적(內向的)성질이 얼마콤 그발동의 긔틀을 어덧섯슬것이다。그나라들에서는 아지못할 피의 엉키는 맛이 잇서서 그의 수즙은 성질도 얼마콤 리해를 엇고 또 그런 종류의 모듬을 보기도 하엿슬것이다。나라들에서는 갓흔 동정、갓흔 성향(性向)의 사람들을 만히 맛나게 되겟슴으로 그의 고독의 성질도 얼마큼 그 짝을 어덧섯슬것이다。그가 일본 좀 잇서보앗섯다。그 경험과 지금 그가 미국에서의 경험을 비교하면 그달름이 크기 짝이 업다。그가 일본 잇슬때에는 얼마 안이되야 일본 사람이 다 되엿섯다。그리고 아모 서투름、아모 까다러움이 업서젓섯다。

그러나 여기 이 미국은 아조 딴판이다。그것도 김청긔라는 사람이 유롭 어느 나라에서 왓더면 그 접촉이 달랏섯슬것이다。그러나 그는 불행으론지 다행으론지 거긔서 오지 안코、동양、그중에도 조선、또 그 중에서도 양반이라는 계급에서 왓다。이말들을 미국 사람이 듯는다하면 그리 두드러진 사진을 박아내지 못할것이다。그러나 우리 조선 사람들이 들으면 무엇이라 형용할수업는 얼기 설기한 사진을 박아낼수 잇는것이다。

딴판 달은 사회적 배경과 환경에서 훈련된 김청긔가 또 딴판달은 사회적 배경과 환경안에 들엇스니 그의 생활이 엇덜지 말안어 다 알것이다。미국사람들은 말안이하면 못안다。그러나 조선 사람들은 이만침만 써노하도 다 알아먹는것이다。이것도 김청긔가 슬그머니 골른 한 조건이다。

그의 날카러운 상상력、부드러운 감정은 남몰으게 둔해가고 것츨어가는것이다。그러나 나는 구태여 더 설명하려고 안이한다。그의 일긔가 나보다도 더 잘 설명할것이니까 나는 더 루루히 말을 안이 하겟다。그러나한마듸 더할것은 이것이다

독자들은 이런 그림을 상상하야 볼것이다。독자들 가운데 누가 갑작이 회호리 바람에 불리어 가서 어느곳 사람모양、쓰는말、사는방법、먹는음식、교제하는 절차들이 전판 달은 곳―에 떨어젓다 하자。그러면 그때 그의 늣김은 엇더할가? 그 늣김에는 의구심(疑懼心)도 잇슬것이며 호긔심(好奇心)도 잇슬것이다。의구심이 호긔심보다 아마 더할것이다。김청긔의 미국의 생활을 이런 그림과 비교하면서 읽으면 더 읽이잇슬것이다。

그의 일긔 전부를 여긔 다 실지 못한다。그러나 몃개 눈에 뜨이는대로 적어보련다。이것들이 중요하다는것이 안이요 그저 눈에 뜨이는 그의 일긔의 등사인것뿐이다。

一千九百二十七年 十一月二十日

× × ×

짭! 아, 짭이 떨어지지 안울가? 그마나넘이 넘어도 심하다. 그릇 심부름 한아늘이게 하엿다고 그리 심하게 굴것이야 무엇인고? 나처럼 시간 직히고 여률령 잘한 사람이 누구인고? 한번실수를 그리도 심히 구는데는 넘어도 인정이 업다.

나는 외국 사람이다. 그래서 그러타. 어케 짠은 그릇 서넛 깨트렷는데도 아모말 안이 하드라. 나는 외국사람이다. 그들은 그들이요, 우리는 우리다. 예수교가 형제주의를 목청이 째지게 불러야 강단우에 헛수고 뿐이다 헛수고는 안이겟지. 그소리질으는자는 년봉 二三萬원바더서 호사하니까. 그러나 그것을 듯는그행복의 터박게 사람들에게는 귀만 압흔것이 될것이다.

그릇 셋깨트린 미국 사람인 짠은 상관 업서도 그릇 심부름좀 늣게한 외국사람인 나에게는 상관이 잇는것이다. 미국 대장이 "Blood is thicker than Water" 라하고 볼으지즌것이 그짓말이 안이다.

그러나 엇지하노. 짭이 떨어지면? 엇더케 먹고 지내나? 이것도 외국에서 늣기는 설음이냐?

공부도 못하겟다. 슯고 외롭다.

그러나 공부하자. 공부안이하고 이런 얇은 감정에 채찍만 마즈면 나 본래의 목적이 망하고 말것이다. 짭이 업스면 짭이 업는이만콤 공부를 더 지독히 하여야 할것이다. 배가 곱흐거든 배곱흔 반비례로 할것이다.

악마이거라! 악마처럼 공부하여라! 이모든것을 악마처럼 보수하려거던 공부하여라!

마음에는 불이 낫다. 정신은 똘앙똘앙하여진다. 나는 이 모든 수치를 보수하자고 공부하는것이다. 나는 공부하야 보수를 못하게되면 자살이다.

자살! 공부! 보수! 악마! 생의 대컨장을 벌이자!

나는 새로 두시가 되도록 공부하엿다. 나는 자랑을 늣기엇다. 나는 내가 커진듯이 늣기엇다.

내가 그 잔 감정을 익이고 이러케 늣게 공부하엿다는것이 엇지도 귀여운지 몰으겟다. 싸홈이다. 나는 악마이다!

누구에게 이 감정을 말하노? 오, 나는, 혼자이다. 그들은 다수이다. 내가 한번 그들가운데 가장 친한듯한 아

이에게 내불평을 말하엿다가 그것이 권학교에 퍼지는것을 보앗다。。아 무서운 판이다。살어름을 지나는것이다 아무것이나 나는 나를위하야 잇다。이판에서 나외에는 또업는것이다。나다! 내가 나의 친구요 선생이다。내가 나를 책천하고 장려하고 위로하여야 할것이다。오오、나로구나!

나는 눈물 나는것을 늣긴다。나는 얼는 기집애 갓흔 감상주의(感傷主義)에 빠지지 말어라 불으지젓다。나는 뻬드에 들엇다。나는 독이 나오는것 갓다。독사가 된것갓다。다시 자살! 공부! 보수 악마!를 외온다。나는 독사가 그 가는 혀를 내둘으는것을 본다。나는 다시 일어나서 일긔를 쓴다。일긔가 나의 유일한말동무인 까닭이다。

나는 내 종교에게 양보하지 안을수업다。그래서 내 독화(毒化)하는 마음을 중화(中和)하려고 하엿다。나는내종교에게 빌엇다。

그러나 나는 내 종교의 빗광스러운것을 보기 시작한다。나는 내 종교에게 발악하려든다。그러나 나는 아직도 악마가 안이다。하는수업시 내 종교에게 무릅을 꿀른다。아、이 종교!하고 나는 한숨 쉬엇다。

종교는 말한다——『악독의 마음은 악독을 낫는것이다。그 씨는 착하지 못할것이다。독을 품는 사람은 그독으로 말믜암아 죽는것이다。』나는 발악한다——『자살! 피!』종교는——『자살할 용긔가 잇거던 그 용긔는 돌리여 생을건설 하는데 쓰라。자살하는 용긔와 생을 조케 건설하는 용긔는 동등이다。』그러나 자살자가 자살은 할용긔가 잇서도 생을 건설할데 쓸 용긔가 잇스랴? 자살자는 생의 건설의 실패자이다! 종교는 다시 말한다——『너의 애상주의(哀傷主義)를 세련(洗鍊)하기전에는 너는 평범선 이하에서 죽을것이다。』

× × ×

一千九百二十七年 十二月 二十五日

크리스마스다。나는 아츰을 굶엇다。식당은 닷치고 돈은 넉넉지 안어서 경제하자고 굶엇다。

저녁때가 되니까 배가 곱흐다。나는 쌀과 괴기와 캐배지를 사왓다。그것으로 저녁을 방에서 지엇다。배가 곱허서 먹기는 하엿지만은 맛은 몰랏다。혼자 먹는것이라 맛나게 먹을수가업다。그것도 여럿이 왜자면서 경쟁속으로 먹어야 밥맛도 알고 만히도 먹을것이지 만은 자작 지어 혼자 외로히 먹으니까 엇던줄을 몰으겟다압으려든 배는 찻다。

그릇을 부시고 나니 휘휘해서 죽을지경이다。다섯층이나 되는 이 큰 늙은 집에 사람이라고는 나박게 두내외가 잇슬뿐이다。한내외는 첫재층에 잇고 다른한내외는 이 넷재층 동족 구석방에 잇다。이 큰집에 다섯사람만 잇서가지고는 빈집이나 맛친가지이다。

두내외는 내외니까 말동무도 잇고 서로 동정할 형편도 가젓겟지만 나는 혼자 벙어리 그림자와 함께 이한방에 잇지 안으면 안이될 팔자이다。

여긔 온뒤로는 나는 감정에 동을 막아 두엇섯다。그러나 이런때에는 그 감정이 범람(汎濫)하야 그 동을트려고한다。지금 그동은 터질것 갓다。내 종교는 깜짝 놀래어 막으려든다。나는 나제 읽던 책을 들고 안젓다 소년 재판소장으로 유명한 벤 린쉬판사의 첫책 "The Revolt of Modern Youth" 읽지만은 글자가 그 가리운 뜻을 내게 보여 주지 안는다。나는 그 책의 Revolt 보다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Revolt 에 엇지할수가업다。

고독은 내 마음을 문정문정 뜨더먹는다。그리고 비애는 독전(毒箭)을 함부로 쏜다。마음은 피스투성이가 되여 업흐러지련다。종교는 멀리 배경속으로 들어가고 말엇다。아우성치는 적막은 무엇으로 막을수가업다。

나는 책을 내어 던지고 외투를 입고 방문을 나섯다。나는 방에 불을 끄지 안엇다。다시 이 방으로 돌아올때에 적막을 생각하고 끄지 안엇다。불일망정 잇서 나를 마저 주지 안으면 엇지 살리요? 하는 동화갓흔 생각에 끄지 안은것이다。

우중충한 복도를 걸어간다。그내외가 잇는 방을 보니 어듸로 나아간나 보다。불이 업슬때에는 나는 문압돈대우에 나아가섯다。

나오기는 나왓스나 어듸를 가노? 친구도 업다。친척도 업다。어듸로 발길을 돌리노? 나는 얼빠진듯이 서잇섯다。밤은 희미하다。시계를 보앗다。아직 일곱시다。집집에 불빗치 나온다。레듸오 소리도 들려오고 집집은 단란한 모양이다。그러나 나는 어듸로 가노? 나는 구슯흔 생각이 치미는것을 늣기엇다。

마음은 엇절줄을 몰라한다。

나는 그 놉흔 층계를 다 나려왓다。어듸로 가노?

나는 연극장에 가기로 하엿다。그곳박게 갈데가 업다。그곳에서야 나를 환영하겟는까닭이다。

돈은 얼마나 가젓나? 아직도 개학하려면 한주일이나 잇서야 할터인데 그동안 먹을것을 제하고 돈이 남나

나는 돈을 세어 보앗다。연극장에 두어번 가도 관계찬을것갓다。

외국에 사는 나에게 연극장에 갈것까지 끈허놋는다면 엇지하라는 말이냐? 참으로 사막에서 모래만 집십다가 죽으라는 말이냐? 연극장 거긔서 나는 종교나 훈화(訓話)를 들으려는것이 안이다。이갈곳업서 헤매는 마음의 림시적 위로를 주자는것 뿐이다。

나는 걸어서 따운 타운에 가기로 하엿다。공긔는 차다。거리는 비엿다。듬은듬은 가고 오는 자동차가 그단조를 깨트린다。집들은 검음과 재빗흐로 짠엷은 사(紗)로 가리운 속에서 불빗만 내빗초인다。거리의 등은 싱겁게 서서 뿌연 빗츨 낸다。안개는 벗어 진것갓다。싸이드 웤은 어둠침침하다。

마음에 수소주머니를 단것갓다。올라만가련다。어듸까지 올라 가려노? 안이、올라가는것도 안이다。그러타고나려가는것도 안이다。올으기도 나리기도 그리고 엇절줄을 몰으는것이다。

외국에 손노릇하면서 조흔 시절 당하기란 쓰린것이다。쓰리면 엇지 하노? 할것이 업지。그러나 정이 잇기때문에 애라는 말이다。

문득 괴벽한 생각이 나온다。아무집이나 차저가서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볼가? "I am a strangar. I've gat hamesich. Ltme slay at your home for a while. Will you?" 하고 닷자 곳자로 들어가 보고 십다。

그러나 Chivalry 라던지 Sportsmanship 은 예전에 부튼 도덕이거나 소수의 도덕일뿐이다。다수는 자긔의 적은 세게에서 까다러운 왕노릇을 하고 잇는것이다。

밋첫다고 감옥으로 보내나? 감옥으로 보내기 조하하는 이곳이니까 알수 업는노릇이다。나는 어느 조선 류학생이 감옥에 갓치엇다가 쫏기어 나갓다는 이약이를 긔억한다。

이때에 어느 녀자가 구중충한 집에 문을 열고 "Chinaman, Come in!" 하고 부른다。나는 얼른 저것이 푸라스틧틋하고는 "NO!" 하고 대답하자마자 거름을 재우하야 지나갓다。

거름을 재우하야 지나갓다! 그리고 그다음 순간에는 들어가 볼걸 그리지 안엇나? 하고 후회하엿다。또그다음 순간에 무서운 그림이 나아오면서 내 종교는 내가 재우 걸어 지나온것을 충찬한다。

점점 사람들과 차들이 만하저 온다。나는 지금 긴다리를 건너간다。이 다리가 불어진다! 그러나 다리 아래는 물이업다。웨 물이 업노?

이제는 따운 타운이 다 되엿다。패 복잡하다。

나는 갑작이 연극장에 혼자 가기가 섭억섭억하다는 생각이 낫다。그러면 누구와갓치 가노? 갓치갈사람도업다。그래도 엇저지 그리 시원하지 안타。암으려튼 립장표는 삿다。이 연극장이 보도빌하는 연극장이다。

나는 그 긴 복도를 들어갈때에 수줍어서 고개를 숙이고 거름을 속히 하엿다。그런데 녀자한아가 와서 안내는 하련다。나는 떨어갓다。그는 나를 보고 웃는다。왜、웃나? 나는 옷을 만저보앗다。옷은 아무런일이업다

그럼、왜우섯누? 날보고 우서? 글세 딴생각이 잇슬가?

나는 그가 정해주는 자리에 안젓다。구경군은 그 큰집에 다 찬것 갓다。그들은 말끔 나를 보는것가탓가。

나케 보이던 픽츄어사진의 마즈막이다。그것이 꿋나자 연극장이 반이나 비게 나아가스버린다。

보도빌이 시작된다。어느 어리 광대가 나아와서 익살을 깨트린다。나는 우섯다。나는 그익살을 다 알아들어서 웃는것이 안이다。몰라 들어도 우섯다。웃지안으면 남에게 이상히 보일까 하여서 우섯다。웃되 남보다 곱으로 우섯다。

이번에 기집애 한아가 나와서 끼타를치면서 노래한다。그것이 우리나라 기생이 가야금치면서 소리하는것과갓다고 나는 생각하엿다。그 길게 내 뽑는 소리며、그 저줄르는 가락이며가 꼭갓다。다만 다른것은 우리의 기생은 저 기집애처럼 육감적이 안인것뿐이다。저 기집애는 육감적이다。몸에 잇는 선이란 선을 말끔 운동을식힌다。그들어나는 아름다움은 우리 보는 사람들의 육감을 충동할대로 충동한다。

땅재주 넘는놈들 구네뛰는놈들이 나왓다가 들어갓다。

이제는 짤막한 연애의 장면이다。두남녀가 연애한다고 공중의 눈압헤서 끼어안고 입을 맛촌다。

이제는 사추리만 가리고 벌거벗은 기집애 두어죽이 나와서 춤을춘다。가랑이가 째지게도 벌이고 웅덩이가문어나게도 흔든다。

모든것이 내 육감을 홍분만 하고만다。나는 불쾌하엿다。그러면서도 그자리를 떠나지도 못하엿다。

극장안을 돌아보니 어느틈엔지 사람이갓득찻다。지금은 활동사진이다。희극뒤에 나아오는 픽츄어는 육감적이다

나는 내 홍분된 육감을 엇절수 업섯다。

나는 나왓다。그 녀자는 나를 보고 또 웃는다。말이나 해볼가? 엇줍잔타。나는 문박게 나왓다。찬 바람이

내머리를 식혀 주엇다。

방에 간대야 소용 업겟서서 따운 타운을 허매기로 하엿다。

"Lonelinessissex" 나는 불으지젓다。 "What I am Craving for is Woman" 그러타。 쎅스다。 워먼이다。 워먼을 끼어만 언어라! 그러면 천하가 무사태평이다, 리상、 종교、 도덕은 다 쎅스、 워먼을 엇자는 것이다。

그럴가? 사람은 쎅스、 워먼의 화신일것뿐일가?

그래도 워먼이 그리운때에는 리상도、 종교도、 도덕도 업는것이다。 그모든 가면을 벗게 되는것이다。 워먼의 입시울맛을알면 천하의 모든것을 말끔 거긔다가 이바지 하는것이다。

나는 깜짝놀래엇다。 내가 쎅스는 컨부다하고。 대담히 불으지즐때에 나처럼 쎅스를 부인하는 나라ㅅ집에서 자라나가지고 그러케 불으짓는것은 아무래도 대담하다。

엇지하노? 나는 내 종교에게 양보하지 안을수박게업다。 나는 어듸 레드ᄙᅡ잇 수추릿이 잇는지 안다。 그리고 악가 그 갈보한테도 갈수 잇는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종교에게 양보하다。 그리고 내 본래 목적에게 충성하기로 하엿다。

× × ×

이 일긔는 겨우 두달치를 적고 말엇다。 그러나 지면 관계도 잇고 하니 이번에는 이만 긋친다。

三一、一、一、

무엇이입부다구?

流暗

세상에 무엇이 입부다구?
말마라!
뎨일입분것은 애인의눈!
뜨거운 정을 건네는 그눈。
그대의 왼가슴을 녹이는듯한 그눈。

세상에 무엇이 입부다구?
말마라!
뎨일입분것은 애인의입술!
미소를 먹음은 그입술。
그대의 왼몸을 ᄭᅳ는듯한 그입술。

세상에 무엇이 입부다구?
말마라!
뎨일 입분것은 애인의ᄲᅣᆷ。
붉은빗 ᄯᅥ오르는 그ᄲᅣᆷ。
그대의 정신을 일케하는 그ᄲᅣᆷ。

그러나 세상에 가장속을 상하는것도
애인의 눈。
세상에 가장 애를타게하는것도
애인의 입술。
세상에 가장 마음을 압푸게하는것도
애인의 ᄲᅣᆷ。
애인의 눈이 눈물에 커즐ᄯᅢ
애인의 입술이 차고찰ᄯᅢ
아 뉘가 울지안이하랴!
뉘가 울지 안이하랴!

꿈에본발자취

步原

모래ㅅ장변 바다ㅅ가
말없이 남어 잇는
어린이의 발자곡!
天眞의 世界
꽃 生活이 담겨잇는
어린이의 발자곡!

밤 길

初生달이 西山에 잘때
먼ㅣㄴ하니 하눌을 쳐다보던 그는
희미한 山그림자를 딸아
말없이 떠나더이다。

오불 꼬불한 山길에
게다가 밤은 어두어 오겟지요!
그러나 方向못잡을 그 길을
그는 잡자코 가더이다。
어둠이 흐터진 골짝우니에
무엇이 잇슬가?
그래도 무엇이 잇기는 잇기에
그가 가는게 안입니까?

첫동이틀때

쉬카코 韓黑鷗

이윽고 밤은 깁느니
電車박휘 덜컬굴러가든 소리ㅣ
妖婦의 눈속에잠긴 요란하든 이거리도
이제는 씨ㅣㄱ하고 모러와갓치머젓구나

◇

熱情의詩人 싸이론갓치
내맘의불쯧이 鄕愁에 탈쌔ㅣ
나는 멧번이나 이 불덩이 表面우에서
식어저가는 人生을 탓하엿드냐!

◇

軌道를 밟으며 돌아가는
이 조고만 불덩이의 表面우에 서서
나는 一九三〇의 한토레의 실쑤리를
無限한 空間을 向하야 던지엿나니ㅣ

◇

아! 그러나 밋도업는 空間ㅣ
내손은 실매듸를 잡은채 썰고잇나니ㅣ
이 壯嚴한 모멘트ㅣ 이 歷史의둘레ㅣ
쳣동은 빨간熱情의 波紋을 타고서ㅣ

◇

暗黑의거리ㅣ
屠殺場갓흔 골목길ㅣ
쳣동은 빨간熱情의 波紋을 타고서
새로운 盟約의 몽둥이를 들어
너이의 팔뚝을 쑥다려보지 안느냐!

◇

보라!
　네엽구리에 가로노인 屍體들을!
감지못한 눈에는 正義의빗이 가득하고
　탈뜻이마른 두입살에는 自由의 불으지즘
아! 이 웬일인가! 이 착한사람들이!
　그러나 다시 그 엽구리에 손을 대여보라!
槍의痕跡— 그러고 주린腸子를—

◇

보라! 그대여! 보라! 그대여!
　첫동은 地平線우에 빗기엿나니—
橫暴、殺戮、飢饉 그러고 커妖婦를—
　人生의 背後의 텅비인 거츠른 뜰판을

◇

우리의 팔뚝은 아직도 몸의붓터
　아! 움직임업는 넘어진者의 몸에 붓혓나니
먼커 땅우에 팔뚝을 드디고
　넘어진 넘어진 네몸둥이를
이르키지 안으려는가! 안으려는가!
　—一九三〇、除夜에—
(習作集「들窓을 通하야」에서)

餘 裕

나에게 餘裕가 잇섯스면!
　좀더 人生을 究極할——
世上은 複雜한 亂糸를
　그대로 엉키며 돌아가지 안는가!

◇

엇든때는 아모 생각업시
　일터에서 機械와갓치 헤매고——
엇든때는 煩雜한 頭腦로
　씨—ㄱ하고 모터와갓치 주커안지 안는가

◇

나에게 餘裕가 잇섯스면!
　좀더 人生을 究極할——
世上은 複雜한 亂糸를
　그대로 엉키며 돌아가지 안는가!

◇

餘裕—
餘裕—
　그러나 現代人의 餘裕는—
無價한 罪惡의 發動機가 되지안엇는가!
　—一九三〇、一〇、八「日記」에서—

비나리는날에

龍興江人

비가 옴니다。
풀닙이며
나무닙들이 펄해 지라고。

비가 옴니다。
大地 속에 죽엇던
「숨」 들이 움직이라고

비가 옴니다。
싸우에서는 무엇이 춤추는것 갓고
내마음은 날(飛)듯이 깃버집니다

—1926—

「나의벗天園에게들이는」

마즈막불길

聖郁

불니는 막우 불니는
우뢰의소래로 벼락의힘으로
무서웁게도 불니는 不幸의 바람
검은내 석긴 붉은불길을 막우 몰아
이내의집! 惡鬼의 作亂터 같기도한
이내의 쓸아리게도 쓸어진집속에서
마즈막 불길을 살어낸다。
끝이오 또끝인 마즈막불길을!

뻑직한가슴속에다 쓴記憶의 그림만을
기리기리 안기어주고
훨한天空으로 살어저버리고 말냐는
보자。마즈막불길을 둘이서
그대하고 나하고 單둘이서
그대하고 나의마음이여 깃븜이여 사랑이여
한번만 더ㅣ손목이나마 마조잡고
그대의 가실길 밧본줄을
이낸들 모를理 업것만은
마즈막 불길이나마
그대와내 둘이쉴낭 마즈막으로 볼거인저

마즈막불길은
나의마음이여 깃븜이여 사랑이여
저벽을 三角山바위 굴녀다싸은 저벽
그대도 오작이나 잘ㅣ아시지 안느뇨 저벽을
南山의솔을 꺾거다 修飾햇든 저벽

天使까지의 高潔을 비웃든
그대의肖像이 나의理想이 걸니엇든
泰山으로 믿은 귀벽을
헐거냐? 귀벽을 사랑이여 그대여
마즈막불길은 맛츰내。
마즈막불길을
어나누 꿈꾸엇스리? 그대나내랴
人生의生活이란 滄海、廣汎한滄海에
팔다리를 허매이며 애를 빡빡쓰는
破船당한 船夫의 노름같이도
어느물결에 올으다가
어느물결에 깊은水底로
아ㅣ 그러나 그대여 나의사랑이여
보자。둘이서 손목을 마조잡고
그대의 가실길에 내갈길에
燈臺오 힘이될 마즈막 불길을

(一九二九、五、二〇)

대(臺)우에새해아참

종 환

싸늘하고도 따스한
새맑은 새해아참
동(東)쪽하날 보앗노라 붉어졋네。

× ×

잇따가도 업서질 一九三一年
첫얼굴 내노앗네 붉은해
오! 뛰노네! 내맥박(脈搏)이여!

× ×

고요한 새날새벽 대(臺)우에 올라
폐허(廢虛)에 거리 내홀노 나려볼제
아! 내가삼 뛰노네! 터질듯이。

—一九三一、一、一—
새해맛는첫아참 異域一隅에서

偶感

김 혜 란

나는 아름다운경색을 구하지아니하노라
다만 아름다움을볼수잇는 그눈을구하노라
나는 아름다움을 또한차즈려아니하노라
내주위에서도 아름다움을 볼수잇슴으로
나는 성서를 닑어의인을 보려아니하노라
우리인생중에서도 텬사를 볼수가잇슴으로
나는 즐거운음악을 구하지아니하노라

다만 즐거운노래를 드를수잇는 그귀를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생활의씸또니
가지각색으로 울녀나오는 멜노듸를
나는 내귀로·들을수잇슴으로
나는 악사의손끝을 찬상치아니하노라
대자연의 아름다운음악이 잇슴으로

나는 황금의영화를 구하지아니하노라
나는 영예의화관을 부러워아니하노라
다만 내마음이 깃버하는선한사업
그러나 위대한사업을 바라지안노라
날마다 날마다 지여놋는적은일
텬국이결코 하늘에잇지안타。
보는눈 듯는귀 행하는손에잇다。

玩月의밤

李廷大

밤의 완월
완월의 밤은
침묵도 하여라
침묵에 잠긴
완월의 마음에는
아름답고 미묘한
대 자연의
신비곡이 들니나니
이골작 저골작
가늘게 가늘게
물살을 지어흐르는
침묵에 잠긴
완월의 밤은
들니는 대자연의
신비곡을 더욱
자랑도 하여주도다。 (끝)

이적은 시를 나의귀애하는 누이 김정순양의게 주노라
戊辰年 十二月금음날에

눈물의저주

山川

불질은 가마에
콩튀듯 하는
뼈뭉치 가슴에
사뭇친 인간이
좁다고 날뛰련다

행여나 위안 될가하야
눈에 비받은 물로
고흔 낫헤 줄줄을

× ×

가을밤 소낙비에
흠웃이 커진 바위와같이
것츠러둘수 업는 머리
캄캄하기 짝업서라
힘다하고 소름즈게든
머리이건만
밋빠저 새이는것
눈물뿐

(이 詩作者에게 編者는 종아리마즐 일을한것을 告白한다。이詩를 만히꼿친 까닭이다。意思 疎通이 되기위하야 꼿치기도 하엿고 詩의 氣分을 조케할까 하여서 꼿치기도 하엿다。作者의 容恕를빈다)

狂者의 노래

정 두

손에는不穩文
파켓트에는爆藥
오날은 이都城
來日은저都人
火光에서 재(灰)맛되고
우리의 旗는달닌다

× ×

나를 狂者라고
거리에 넘어진나를……
순사는 쏘츠며
行人은 지내간다
그러나 손에는 그들을爲한福音!
파켓트에는 그들을救하는 毒藥이잇도다。

× ×

나를狂者라고……
그들은名簿에서 除名하고
거리밧그로 쏘차낸다。
어려죽어도 조코
마저죽어도 조흔몸둥이라고
그러나 내게는 一點의滿足이 잇나니……
曙光의 그날이여!
人類를 救하는陣頭에서
어서오소서 (끗)



자연의아들뻬토벤

極星

뻬토뻰은 한평생동안 라인강변의아름다운 자연을충성스러히 사랑하든자연의아들이엿섯다。어렷을때붙어 아버지의손목을 붓잡고 해지는줄을모르고 자연에취하야종일 단니며 즐겨하엿다。철이난후에 그는 스사로 부르짓기를『나의잇지못할 라인강변! 언제나보고싶흔라인』이라고까지하엿다。자연은 그의예술적선생이엿으며 유일의벗이엿다。그는 말년에니르기까지도 늘삼림사이로거닐면서 공책을늘가지고다니며 글노써음악으로써 자긔의 감상을 표현식혓다。자긔로서도 성공을 확신하고 이렇한말을하엿다。『내가 긔(성공)를들고야 다시도라올듯하다』

가름다운 자연속에서 그는신비하고도훌륭한 音律과音題와樂理를 차저내엿다。그는차저내는대로 곳긔록하엿다 흐르는시내물 아름답게노래하는새들 속살거리는나무들은 고읍게도 뻬토뻰을위하야 노래를불너주엇다。

불행히 그는귀가컴컴어두어짐을따라 친구들과갓가히하기를실혀하고 컴컴비관상태에들어가서 결국은다시자연속으로 숨어바리고말엇다。다시금그는 자연과 즑이게되고 노래하게되고 위로를받게되엿다。그의게는 그삼림속이그의신비한나라이오 신성한가정이엿다。산림들과산골작이들은 그의한숨쉬는것을 들어주엇으며 자긔역시그의놀니고 답답한가슴을 그들의게하소연하고 풀어노앗다。어떤때혹 그의친구들이 위로를요구하는경우에는 뻬토뻰은반다시자연에도라가 위안을엇으라고권고하엿다。여름만되면 으레히그는 더웁고찌는듯한먼지구뎅이 베인나시를떠나 맑고깨끗하고 조용하고아름다운 근처삼림을 차저드러갓다。이것이 그의일생중에 한취미적장면이엿다。

그가 자연을 얼마나사랑하고 찬미하엿든것은 그의멋구절의긔와 편지에잘표현되엿다。그것은대개로 다음과갓흔것이다。

수풀속! 자연의능력이시여!
당신은 나의게 복을 나리섯나이다
누구나 이자연속에서는
당신을 즑어워하나이다
그리고 모든나무들은
당신을통하야
나의게 속살거리나이다。

오 신이여
이런집음과 당신의영광을
자연을떠나 어데가 차즈리잇가
거긔는평화의 나라이오
평화는 당신의 표현이아니오닛가。

(이것은 一八一二年九月에 캐렌쁘ㄱ에서쓴한구절일긔)

나는 참행복스럽다。수풀사히로 나무사히로 바위틈으로 자연에서노는이몸! 나처럼 자연을사랑하고 자연을 즐기는사람이 또어데잇을까? 아ㅣ 뎌풀들과 바위들은인생의 욕망을 반향하고잇다。

(친구의게쓴한구절)

오神이여! 당신의視線을 이아름다온自然속이 빛이워주소서。그리하야 이음울하고칩칩한 마음을위로하소서。

(七月六日 아참에 자긔애인뿌런스워의게 보낸한구절)

듯지못하는이불행은 이환경속에서는 나의게 아모자극이없다。아모상관이없다。나는 삼림들이부르고잇는 거륵거륵하신주여』의노래를 드를수잇으며 자연의신비를 창조하고 더아름답게 더신비하게 만들고 게신神을합피찬양한다。누가인생으로써 이렇게아름다운자연을 만들수잇을까! 오! 고요하고 아름다운자연속이여!

(一八一四年七月뻬덴에서)

나의고향! 뎌아름다운내곳! 나는그곳에서빛이는 빛을 바라볼수잇다。황홀하고도 아름답게 내게빛이고잇다 아직도 너는 내가 그곳잇을때처럼 아름답고나! 내의 일생에 즐어운경험을준너 나는너를다시보기를 긔약하고 잇다。그때는반가히맛나리라 내고향라인강변!

(一八二五年六月二十九日 베인나에서 자긔친구왜글러의게 보낸한구절)

뿌를촌! 잘잇엇니 아나는다시너를 보게되엿구나 보고십던 내고향!

(一八一二—一八一八일긔중에서)

나는 지금 조그마한집에서삷다。어찌적은지 그저내한몸드려갈만한곳이다。아직 내신청한뿌룰에온지는 二三日 밧게아니된다。그래서 좀적막한듯한늣김이잇으나 그러나 무슨큰욕망은 가삼에찻고 자유스럽고만족한생각을 가지고지낸다。

(一八一六년뿌룰에서)

벗아 혹시네가옛터를찻게되거든 거긔에는뻬토뻰이 각금쉬고앉엇든것을 생각하여라 그리고혹시 네가그신비가득찬수풀속을 거닐게되거든 뻬토뻰이 흔히시상을엇든또음악을 지어내든곳임을 긔렵하고생각하여주기바란다。

(一八一七년가을 자긔친구스투래춰의게 보낸한구절)

자연은 훌륭한마음의학교이다。나는그학교의학생이되여서 열심으로그의교훈을 밧으려한다。나는거긔서 지혜를 배호겟고 싀긔할줄모르는지혜! 그리고神을알기를배화서 그의지식안에 감초인장래의세계를 미리차저보겟다。나는 이새로운직업에 충성하는동안에 나의갈길은평화스럽게점점더갓가워저바려 배움의길은 꿋나고 저영원의세계에서 지혜를 아는자노릇을 할것이다。

(一八一八년에 쓴한조각일긔에서)

가을철은 점점갓가워온다。무르닉은과실은 우리의무릅우에 턱턱떠러진다。아ㅣ나는저과실과 나무가되여 내무르닉은과실을 다논하주련다。그러나 겨울이 닥처올때에 내의머리는 백발이될터이고 生의힘은쇠퇴될것이다 그러나 내오직한가지 욕망은 모든자연이겨울의됨을따라 안식의꿈나라로 드러가는것처럼 나의운명도 성공의환희와 공헌을 열매를맺고 가치잇게 안식의나라로 드러가는것이다。

(그의한조각일긔에서)

一九三一年三月一日미쉬간校庭에서

△文藝의批評心에對한問題▽

黑○ 李廷斗

米洲文壇에서 푸로文藝와 旣成文藝의筆戰이 始作되기는 一九二九年여름 即再昨年夏期放學때인것이라고 記憶된다。元來量으로나質로나 보잘것없는것이지만은 其歷史的存在를承認하는以上에는 適學한批評과 討論이잇어야必要할것을 認識한다。그때 나의反駁文과任英彬君의答文이잇은後 얼마뒤에일이다。秋星君과 월성(越誠)君의筆戰이나타낫다。내가 푸로의立場으로부터보아 그랫던지 모르지만은 그것을처음에는 푸로ㅣ派와 뿌로派(旣成派)의 筆戰인가하고 興味잇게보앗다。그是非를批評하는것이 여긔서쓰려는 나의目的이안임으로題外로하려니와 如何間그것의結果가 個人의感情을 發表하여 悔辱을滿足을 爲主함에止하고말앗다。

未來의文壇과 讀者의體面을爲하여서는 우리文壇의遺感이라 안이할수없다 所謂文藝의作家들이 文壇의體面을不顧하고 新聞의頁를點領하여 個人의悔辱을筆端으로그려내여 讀者의 不快를주게함은 如何한意味로보던지 그의責任이적다고 할수없다。더욱이文藝의意識이不足한 米洲우리의社會에서는

筆者는一般投稿家나 文士들께多少의叅考라도될가하여서 以上에題目下의서大略세가지로 分하고論究하여 볼가한다。

一、技巧的批評心
二、主觀的批評心
三、社會的批評心

一、技考的批評心ㅣ은一種의 享樂心이라하여도 過言이안이다。大多數의評家의評文을보면 技巧的立場에서는 其作家와評家는 事物의 觀察點이라던지 現象의材料取得에 立하여 同一한立場의態度를 把握한다。故로其作品의內容問題에對하여 多少間의不滿과 不足의感을持하더래도 그評家의批評은 不成立되고마는것이다。故로 그內容의完成함과 枝巧의充分한理解가合致되여 讀後의 Feeling or Passion 이作家의目的에合致되는境遇라야만 成立되는것이다。即다시말하면 批評家는 始作부터其作品을充分한 形式의享樂을가지고 出發하는것이라하여도 過言이안이다。

故로或評家의評文을 읽어보면 個人의同情 或은自己의 Passion or Feeling에 合致된다고 그것을 無恨히 拜하는崇者도잇다。適當한例가만흘것갓흐나 指適할必要가없는줄안다。우리는 어대까지던지 公公正當하게 그것을評하여社會에對照하여 보지안으면안될것을 覺

悟하여야될것이다。

二、主觀的批評心—은 文字의解釋대로一種自己本位의 固執的主張이다。即還言하면 評家는自己의 生活經驗으로作品에낫타난(特히其內容에서) 作家의生活經驗의 深淺廣狹을批評하는대 不過한것이다。即그것은單純히 自己生活經驗의深淺廣狹을 固執하는主張이다。故로其批評의 價値는實로 嚴密公正한第三者의態度를떠나 自己의同情心自己의崇拜心에서 發芽하고마는것이다。그것이第一 自己를滿足식히거나 또는自己의生活經驗이 作家의生活經驗과 一致될때에 限하여서는 其作品을無雙의實物이라고 하는것이다。其實狀인즉自己의經驗을 主張하는것이며 自己의主觀點을 자랑식히는대 不過한것이다。

勿論主觀的批評心은 以上에말한 技巧的批評心(享樂心)도 包含하거니와 嚴密히檢評하면 무엇보다도批評家의心理가 作品의內容에 나타난作家의 生活經驗의本質과 合致되는 境遇이다。

近日過度數에잇는 ××文士들의錯誤된生覺에서起하는 一種病痛的派爭이그것이다。自己派의作品이잘되엿던지 못되엿던지 文士란名稱을 一個武器로特權삼아 對手派를憎惡、猜忌하는動機에서 自己의主觀的固執을 다시한번强調하는것이다。어떠케보면 固執的이라하겟지마는 其中에는 事實其生活經驗의一致하는點과 事物觀察의 材料把握(技巧?)을 同一히立場하여 自己의 經驗을主張하는 境遇도잇다。故로或種의派爭이始作될時는 흔히其出發點과 批評의價値를 脫離하여 自己의主張을固執하려하는 野心下에서 矛盾의結論을演出하고만다。故로其主觀的 批評이 正當한理論을離하여 自己의主觀을固執할때에는 十의八九가危險性을가진 個人의鬪爭이되고만다。

三、社會的批評心—은 現下新興階級意識을 論하는特殊地位에잇는 近代社會의情調色彩에 因果되여 發生되는社會的立場의 批評을意味함이다。그것은必然的으로 人類社會進化條件에 依支한不可避의 現象일것이다。

人類社會의 進化論은 否認할수없는近代科學이다。一個細胞로부터 進化되여온우리는 確實히우리人間의 意識及情調色合을 表現하는文藝도 進化하여왓음을 認識할수잇다。

그것이即新興階級의 所有한必然的文藝運動이다。그르면그社會階級이 所有한社會的批評心이란 무엇인고? 그것은 即鬪爭心이라고할수잇다。故로이鬪爭心(社會的批評)의 立場에서出發한批評家는 其作品의技巧의充分不充分이던지 其作家의生活經驗의 深淺廣狹에對하여서는 重大視하지안는다。다못 그것이가지고잇는 社會的意識을結定함이重大責任이됨으로 其批評家의社會階級立場으로 作家의社會階級立場을禁察하는것이다。

即還言하면 階級鬪爭心이原因이되는것이다。어느批評家치고 社會階級을떠나서存在할수없는것이다。同時에 其作品의社會的意識을 結定하는대는 其社會階級立場을 떠나서는 何等의批評을할수도없을것이다。

이러한階級鬪爭心을 基調로한批評心은 卽無產派或은 被支配階級의批評이다。歷史的으로보아서는 封建的殘影을受한新興ᄲᅮ르조아지에 對한抗爭의運動이다。其新興ᄲᅮ르조아지 社會는新興社會를建設하여 獨立的生存權을確立하며一般의思想、感情을壓迫하고 文壇에까지 支配的權利를 가지게된다。

우리는 如此한事實에依支하여 一方의社會階級 또는社會層이 他方의社會階級또는 社會를壓迫하여 自已의生存權을爲ᄒᆞ여 鬪爭할때는 必然的으로文藝批評의方向에도 此에反抗하는 鬪爭的批評心이 發動하지안을수없는것이다現下이러한抗爭의 戰地에서 鬪爭하는文藝派가 卽無產派 또는被支配階級의文藝派다。同時에 한社會가進化變遷할때에는 其社會의 情調包含을描寫하는文藝(文藝는 藝術에包含된 局部的임으로) 도 進化的條件에依支하여 轉換되지안을수 없는것이다。

今日의社會에 生存權을 把握한우리는 今日의社會卽强權階級 資本階級의社會의崩壞를 目的으로한 新興文藝運動에出馬한 勇士가되지안으면 안될것이다。故로우리의文藝批評은 오로지社會의鬪爭心을 基調한批評을떠나서는안될것이다。

未來에當來할 價値잇는 文藝批判은鬪爭心의 熾烈에 現出할것이다。同時에우리의 文藝運動은 行動及直接에서實行되는 嚴正한社會的 批評을 要求한다。(完)

朝鮮文壇에게

ㅇ ㅇ ㅂ

지금 우리는 美洲에 留學하는사람들의 文藝品을 朝鮮文壇에 提供한다言語、習慣이 달은이나라에와서 공부하는 우리들에게는 思鄕文學이라는特殊形式의 文學을 產出하기쉬운것이다나는 이形式의 作品을 우리美洲留學生들에게서 發見한다。그러나 나는엇던때 思鄕文學이 哀愁主義에 넘어흘르지안나하고 疑心하기도 하엿다。哀愁主義가 잘못하면 우리의健全을腐蝕하겟는 까닭이다。思鄕文學이 健全하고 眞實한純情의 流露면 거기에는無限한 價値가잇는것이다。

美洲에서 體驗한 거기서 울어나온作品은 나는말금文學이라는 部類에집어놓고십다。엇지하야 그런고하니 그런作品에서는 故鄕에 그저잇는이들이맛보지못할 情操가흘르고 잇는까닭이다。그特殊한 情操(장성욱君의「하우스웍」같은것은 참말特殊하다。日本에가잇는 留學生들의 思鄕文學과도 달은特殊한情操를 가진것이다。이런말을쓰는 나도 美洲에오기前까지는 그特殊味를 몰랏섯다。金俊尙君의「絞死」는現代的 病—곳 Abnormality 의表現이다아직 우리思鄕文學의 作品이그佳境에

읽으려면 멀고먼길을 걸어야겟다。그러나 이만한作品이라도 朝鮮文壇에提供하게된것은 깁으다。

나는우리 美洲留學生들에게서 雄大한思鄕文學이 어서나오기를빌며 또朝鮮文壇에서 이어린동생의 거름마를두굿겨주기를 빌고이만둔다。

一九三一、三、二四

美國大學巡歷 (3)

一 記 者

加州大學 University of California

位置

이大學은 桑港에서 「페리」를(Ferry)타고 二十分동안 東北으로 물을건너서 다시 電車타고 二十分 동안을 오면 뻐클리(Berkeley)라는 작으마하고 깨끗한市에잇읍니다。뻐클리는 大學을中心으로한都市로 加州一帶에 第一 氣候좋고 空氣좋기로 有名합니다。

겨울과 여름의 溫度의差가 겨우二十度밖에 안됨으로 꽃은사철핍니다。果然 四時長春입니다。그리고「學校村」이기때문에 점잔코 高等한階級들만 삶으로 東方都市의 氣分이濃厚합니다。

經營

이大學은 美國에서도 돈많은 캘리포니아洲에서經營하는 故로 캠피스(基地、構內)와建物과 內容設備가 果然 놀날만콤훌륭합니다。實노 全米國一流大學의 하나로 東方에 어느큰大學에 지지않습니다。總長은「로벝・스프라울」이라는 少壯敎育家랍니다。

歷史와現況

캘리포니아州를 처음 開拓하든 開拓者들은 組合敎會의할아버지들인데 그들은 곳敎育에着手하여 千八百六十年頃에 專門學校를 처음으로 設立하니 곳 지금 加州大學의前身 加州專門學校이엇습니다。다음에 設立한것이 神學校니 그것은 至今太平洋神學校의 前身입니다。처음에는 두學校가하나이엇으나 나종에專門學校가 州立大學이되자 神學校와는 關係가없어젓습니다。職員과 敎授가 近二千名이오 五十以上分科가잇고 約一萬九千名以上의 男女學生을 收容하고잇고 七十萬部以上의書籍을 具備한圖書館이잇고 그리고 其外에 美術館、博物館、植物館、動物館、天文臺 各種實驗이잇답니다。敎授中에는 그專門的硏究로 一般的名望으로나 全米州에는勿論 世界的學者가많음니다。

分科組織

一、大學院(Collegge)

美國高等學校를 마치고 四年동안해서 BA學位를 주는것

文學科

自然科學

商科

農科(農業經濟科를包含)

工科(電氣工科機械工科)

二、研究科 (大學을마치고 二年或三年에M·A·或P·H·D·를밧는다) 自然科學으로 數學、物理、化學、植物、動物、生理、生物學、昆蟲學、細菌學、寄生虫學、古生物學、化石學、地質學、地理學、天文學、人類學科이오 文學으로英、獨、佛、支那文學 語學으로 東洋語、梵語、希臘語、래틘語、슬래브 셈族語 其他政治經濟社會科學、小兒學、哲學 心理學音樂科、軍事兵學科等이 잇습니다

三、專門學校(或職業大學) 建築學校、師範學校 法學校、醫學校藥學校、齒科學校 美術學校、圖書舘學校、鑛產學校(그中醫、齒、美術、天文科는 桑港에잇合) 以上專門學校中에 建築、農科、齒科가 가장有名하고 有力하다합니다。

學費 一年學費를 대강소개하면 月謝金이 一學期(卽半期)七十五弗 年百五十弗 其他學費 (學生會費 運動費臨時費)約五十弗 書籍費二十弗乃至三十弗 宿費十五弗 食費二十一弗

入學 本國서 延專이나 大學豫科를 相當한 成績으로하고오면 大學三年級에 編入이될수잇스나 事實은 入學하기도좀거북하고 入學한대도 語學때믄에 감당하기가어려우니 加州의近方 unior College (二年級까지만잇는 專門學校)를 마치고 轉學을하면 매우便利합니다。

San Mateo, Modesto Fresno, San Jose

이러한 桑港近方小都市에잇는 專門學校는 매우入學하기도쉽고 學費도적게 듬니다。마치고오면 다서로連絡된 州立學校라 轉學하기도 좃습니다。(이近方은 일해서學費얻기도 쉽습니다)

注意 米州留學하실이는 車費들고 처음에 言語風習이서투른데 일부러 東方에갈것업이 처음에 적은專門學校에서 準備해가지고加州大學에서 공부하는것이좃습니다。

如是我觀

金太線

一、創作界

朝鮮과如한 特殊社會情形下에서 其時代呼吸에 適應한 大作品을 產出한다는것도 文人들의頭痛써리이나 그러다고 이러한口實을 잡어 逃避的文壇不進을 成上하는것은 文人의基本科學的智識이 不足한 成果라고 나는늣긴다。間或 作品을 닑어본대로 海外에關한 材料를 取扱하야 內容精成을猶寫할때 事實相違되는 想像的假定的文字만을 羅烈해놋는것을볼때 不快를늣기지안을수업섯다。내가 그러한作品에 不快를늣기엿다는것은 過度히『或』氏의作品上 人格을尊重히하고 너무나期待가컷든理由가안일가。

朝鮮은 貧弱한文壇을 가지고잇는이

만치 所謂 英雄個人主義를떠나서 多數의群衆作家들을 要하는것이다。將來 朝鮮文壇進展을 爲해서나 又는 大作家及大作品을 展望하는것으로써다。

二、評論界

朝鮮文壇에서 나는眞正한 意味에서 論評의正路를밟은 評論其幾篇을 닑어보지못한 不幸한사람이다。或論題가훌융해서 들고보다 속겨박은일이 二三次에止할바안이니 大概는野慾的私心에서 덥허놋코 辱說이大部分이니「文壇大淸潔」이라는 標語도 생길상십다。文壇人이가질바 社會道德的人格을 愼念하야주지못할가。文字그대로 曰『稱辱重傷』이 大文豪나 大評論家가되는 法典이안이니 氣分的으로 大家然하기보담 其要素와 文好者의學硏窮究으로써 科學基本智識을 廣求實得하야 個體의訓練을默定함이 如何랴。萬一論戰하라면·實論을써나지안은 正々堂々한科學的論證上合法을 싸를것이안일가。주먹싸홈에「돌」을드는 窮한格이라면은 적어도 朝鮮의文壇은 어데로 가고말것인가。나는前番 現米國詩壇에巨星이요 評論界에泰頭인『해리엣•몬로』氏를 訪問하고 혼자생각에 朝鮮文壇에 七十高齡의文人이 잇는가가만이생각해보앗다。싸라서自重치야못할가 活氣야업슬것일가고 默々히自答한것이다。

朝鮮文壇의新活躍及展就策으로 多作群作家產出을 要望한대로 이에善導的指導해주는 評論家가必要한것이다。合理化한科學的實際로 群衆作家를 善意로評해주는것은 歐米에서 멋대로 歷史的事實로 一大割役을 다함으로써다

三、海外文學

1、海外文學을 紹介或은 論評할때 좀더 忠實하고 正直해주엇으면한다。或氏等은 作品을論할때 漠然한推想的으로 誤證을보여주는것。

2、原音誤譯을 讀者에게 삼갈것。原音그대로 普及치못하고 「日音」을 使用하는것은 羞恥。例를들면『칼、산벍』을『가르、산드버크』『카르、산버크』或은 PAUL『포―ㄹ』을『파울』等々。

3、海外文學派에서 各國散在한 文學同志를따合又는 擴張을盡力할것이는『朝鮮文學』을 世界進出上初期的準備로 오로지 海外文學派의 必然的使命인연고이다。

=以上=

作品第一、評論第二

韓 世 光

編輯子로봇혀 朝鮮文壇에對한 小評이나付托을 써달라는 請을밧엇다。그러나 海外學究로써 더욱이(朝鮮)文壇人으로써의 經驗이업시 論評을試한다함은 不當한것갓다。다못 朝鮮文壇에對한 付托이잇다면 作品第一、評論第

二다。

◇

勿論作品이 市場에나오는데는 作品을짜라 長久한時日을要하는것이다 旣成文人이 小數나마잇는以上 그들의存在는作品과갓치 表明되야할것이다。

◇

近來로 프로派와民族派間에 形式論에對한 論爭이激烈하엿든것을 記憶한다。이亦作品行動으로써 表明할것이다 벌서作品이라면 形式을具體하는것을意味하는것이니 問題는所謂文學的 乃至藝術的價値有無다。

◇

엇든學生은 세루校服에 세루帽子를씀으로 一種의멋으로안다。엇든學生은 무릅나온헌옷에 쒸커진帽子를씀으로男性的멋이라고한다。이들의 美學的價値는正反對的이나 美的滿足은同一한것이다。要컨대 特殊한朝鮮人에게는 거긔에適應한모든것이 創作的出現을必要로할것이다。

◇

英米作家들은 大體로多作主義다。첫재로生活이 餘裕가잇는以上에 作品은 脫稿하기前부터 出版者들이競爭하야買收한다。그리고 文壇、出版界、市場、讀者―모다豊盛〱한것이 쏘한一理나 이들에게는 速力文明의現代社會를 測度하려는곳에 一理가쏘잇는것이다。

◇

爲先作品上에낫하난 朝鮮의人物을對하고 십흔것이다。그러나 지금까지나의머리에는 朝鮮的人物을作品上에서發見하지못하엿다。아마「春香」이나「秀一이와順愛」가朝鮮社會에 알려진것뿐인듯하다。外國에서 輸入한 톨스토이의『카츄사』―或은 입센의「로라」等이 얼마큼알려진 모양이다。그러나「春香」이는 過去時代의典型이요「秀一이順愛」도 日本產의過去人物들이다。「카츄사」「로라」는 그나마 過渡期에잇는 朝鮮女性에게얼마큼偶像의存在가 잇는듯하다。

◇

理想主義를 云謂하는文人이잇고 階級文學等等의 文人들이잇스나 그들의 代表的人物이 作品上에出現하엿든가。

◇

이곳와서 한가지感歎한것은 노벨賞受者씬클레어・루이스의 作品이다。煙草商、食料品商等의店頭에까지 그의作品은 七十五仙의定價를붓처 古代探偵小說等과갓치 陣列하야發賣하는것이다 代表作「큰거리」、「쌔빗」等으로붓허거이全部를七十五仙이면 書店에가지안코도 그의小說을살수잇다。그러나쓰레이서、썩코오네일、앤더슨等의作品은 四五弗의돈을들고야 書店에가서對面할수잇다。作品은다못 讀書子의冊床에씨여진뒤에야 價値가잇슬것이다。더욱이 現今朝鮮大衆의冊床에 씨여지려면― 作品은廉價로파는데 價値가 썰어지는法은업는것이다。

◇

要컨대 佛國革命時代의作品과갓치露亞革命時代의作家와갓치 時代를反映하고 指揮하는作品과作家들이 出現하여文壇의動向을 測定하기를바랄뿐이다。評論에對하야는 紙面關係로略하고 다못作品第一、評論第二를 再言한다。

1931・3・21

編輯後記

□크리스마스放學동안에 原稿를收集해가지고 編輯을 끗낼라고하든것이 끌고끌어서 米國學生으로서는 한참밧분學年末四月初에와서야 겨우 끗을내게되니까 하는사람도 패어렵습니다。그러나 애는 애대로 쓰고도 結局만들어노은것은 신통치못합니다。

□昨年號는 十週年紀念特大號라 內容을 特別이 하엿스나 아모러나 지난號에比해서는 어렴업습니다。그러나 이번에도 좀特色이 잇도록하노라고 햇습니다。經濟와 文藝에 좀볼만한것이잇습니다。

□이번에 林英彬君과 뉴욕에 韓昇寅君 시카고에 韓世光君이 特히 힘많이써주신것을 감사합니다。編輯人이잇는 곳에는 동무가 없어서 아조답답하엿습니다

○米州에잇는 우리先輩들의글을 請하엿스나 밧브서서 그런지 써 주시지아니해서 하나도싯지못해서 매우 섭섭합니다。外國名士의 講演 몃개를 내놓고는 다 우리 學生의것입니다。이것도 學生雜誌답은 特色이라면 特色이겟읍니다。

△原稿를 모아서 編輯하는데 제일 어려운것은 첫재 글에 아직도 太古적用法을 쓴것입니다。가령「ᄒᆞ」字를 쓰고「하는」을하는이라고하는것이오。그박에 언문을너머 함부로써서 도저이 아라볼수없는것이외다。다음에는 空然이 안써도 될 漢字를많이쓰고 차라리 우리글노 썻스면 조흘껄 당치도 않은 漢文字를써서 이로 고처야 할것이고 셋재는 말과 句節을 떼지를 아니하고 그냥내려서 이로다 손질을 하게되는것이외다。변변치아니한 잔소리나마 後日의 참고로 적엇습니다。(田)

○「絞死」—이 創作은 露西亞作家的沈痛味가잇는것입니다。나는 이創作으로 우리文壇에 드문 收穫이라하야도 북그럽지안을까합니다。

○「하우쓰웕」은 재미잇는 글이외다。그것이 우리 留學生살이를 적은것이매 누구나 그글을읽고 재미잇서할것이외다 더욱이 우리留學生은 그것을 읽으면서 웃으면서 그쓸인 經驗을回想할것임니다

○아직도 우리사이에는 漢文字를 많이 쓰려는 傾向이 있음니다。假令「更히言頭를 돌녀서」이런것은 조선말노써도 좋을것을 漢文字로 동을 막는것임니다。그리고 더욱 딱한것은 漢文字를 모르고 漢文字를 쓰려는것은 한갓 無識을 드러낼뿐이외다。우리글노 쓰는 버릇을 길는느것도 큰일이겟지오。(英彬)

△키만크고 심겁다는격으로 페지만많고 볼만한것은 적읍니다。그러나 여러분은 海外學窓의 고생사리를하는 餘暇에짜내인 이변변치안은 선물을 깁브게바드시고 재미잇게 읽어주시기만 바람니다。(編輯人)

昭和六年七月三日
昭和六年七月五日
(定價郵料並 四十錢)

編輯兼發行人 京城府紅把洞五番地의七 方仁根

印刷者 京城府堅志洞三二番地 金鎮浩

印刷所 京城府堅志洞三二番地 漢城圖書株式會社

發行所 京城府堅志洞三二番地 우라키社

總販賣所 京城府堅志洞三二番地 漢城圖書株式會社
電光一四七九番
振替京城一六六〇番

米洲販賣所
KOREAN STUDENT
FEDERATION OF N. A.
182 FACULTY EXCHANGE
THE UNIVERSITY OF CHICAGO
CHICAGO, ILLINOIS
U. S. A.

東光



朝鮮史話集
三國時代篇